1953 - 2025

신북교회 72 역사와 이야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북교회

Contents

발간사_ 당회장 이 창 봉 목사 10

편찬사_ 편찬위원장 백 춘 길 원로장로 12

축 사_ 강원노회장·춘천동부교회 김 한 호 목사 14

축 사_ 서상교회 나 순 형 은퇴 목사 15

축 사_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 한 기 호 16

축 사_ 춘천시장 육 동 한 17

I 역 사

1. 역사가 숨 쉬는 땅 20

2. 신북읍의 역사 23

1) 신북읍의 역사적 변천 25

2) 인구의 변화 29

3) 산업과 생활 30

4) 신북읍 사람들의 마을 신앙 32

3. 신북교회의 태동(胎動)과 창립(創立)(1950년대) 33

1) 교회의 태동 33

2) 교회의 창립 35

3) 담임 교역자의 부재 45

4) 초창기 교회 집사들의 헌신 51

5) 교회 유년주일학교 시작 53

6) 유년주일학교에서 목회자 배출 선순환 55

4. 신북교회 여명(黎明)의 시기(1960년대) 59

1) 정체(停滯) 중에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60
2) 소망의 새 성전 건축 64
3) 부인전도회와 청년회 활동 69
4) 학생회 활동 70

5. 성장의 토대 구축 및 성장기(1970년대) 75

1) 제7대 담임 교역자 박우만 강도사 부임, 새 성전 봉헌, 강원노회 개최 76
2) 박우만 강도사 목사 안수와 교회 성장 81
3) 박우만 목사 위임과 김익보 초대 장로 장립 82
4) 제8대 담임 교역자 이종국 강도사 부임과 사역 87
5) 제9대 담임 교역자 김은일 목사 부임 90
6) 성가대 창단과 역사(1973 ~ 2019) 93
7) 사택 건축과 교회에 연보 보내기 97
8) 김은일 목사 위임과 교회의 안정적 성장 100
9) 종과 종탑 이야기 105
10) 유년주일학교 108
11) 학생회 활동 111
12) 김익보 집사의 사랑방과 비닐하우스 122
13) 청년회 조직과 활동 123
14)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활동 126
15) 제2대 장로와 초대 권사 선택 128
16) 1970년대 신북교회 종합 평가 129

Contents

6. 교회의 안정적 성장기(1980년대) 134

1) 교회의 안정적 성장 134
2) 제2대 장로 장립과 초대 권사 취임 137
3) 당회원과 초대 권사들의 사역 142
4) 초대 김갑순 권사 은퇴 144
5) 제2대 권사 선택과 임직 146
6) 김은일 목사 강원노회장(제59·60회기) 취임 149
7) 교육전도사의 청빙과 교육관 건축·본당 현관 증축 151
8) 교육 기관들의 활동 155
9) 새로운 소망을 품는 교회 165
10) 나누며 섬기는 사역 168
11) 길수희 초대 권사 소천(召天) 170
12) 기타 사역 172

7.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1990년대) 176

1) 새 시대, 새 성전 건축 준비 176
2) 창립 40주년 기념과 항존직분자 임직 180
3) 김은일 목사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 183
4) 김은일 원로목사 회고(回顧) 189
5) 김익보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206
6) 제10대 담임 교역자 김지한 목사 부임 209
7) 항존직분자의 선택과 임직 및 은퇴 211
8) 고(故) 백종원 집사 장학기금 설립 215
9) 기타 사역 217

8. 새천년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2000년대) 224

1) 새 희망의 연대(年代) 출발 224
2) 제11대 담임 교역자 조덕준 전도사 부임과 목사 안수 226
3) 조덕준 전도사가 부임하기까지 229
4) 공감하고 배려하는 다음 세대 사역 231
5) 조덕준 목사가 양육한 제자들 234
6)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 243
7) 기도와 찬양 위에 세워진 50주년 기념 성전 248
8) 50주년 기념 성전 입당 및 임직식 254
9) 성전 건축 관련 『한국기독공보』 기사 259
10) 김은일 원로목사 소천(召天) 264
11) 원로장로 추대와 은퇴 및 임직식 265
12) 김갑순 초대 권사 소천(召天) 271
13) 50주년 기념 성전 헌당과 조덕준 목사 위임 273
14) 항존직분자 은퇴 및 임직 276
15) 기타 사역 279

9.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2010 ~ 2016) 290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290
2) 아동부 교육관과 당회실 증축 292
3) 조덕준 목사 소천(召天) 296
4) 제12대 담임 교역자 이석진 목사 부임 302
5) 이석진 목사의 사역 303

Contents

6) 「신북기부천사운동」 발족 306

7)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312

8) 이석진 목사 사임과 선교사 파송 314

9) 제13대 담임 교역자 조현석 목사 부임과 사역 316

10) 조현석 목사 소천(召天) 321

10. 사역의 지평을 넓혀 가는 교회(2016 ~ 2025) 326

1) 제14대 담임 교역자 이창봉 목사 청빙과 위임 과정 326

2) 신북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328

3) 신북교회 목회 사역 시작 342

4) 항존직분자 임직 및 권사 은퇴 347

5) 위임목사 취임 351

6)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 365

7) 박광장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377

8) '코로나19' 기간의 사역 381

9)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384

10)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402

11) 항존직분자 임직·은퇴·원로장로 추대 405

12) 할렐루야 찬양대 재창단 408

13) 김익보 원로장로 소천(召天) 412

14) 집필을 마치며 415

II 이야기

1. 믿음의 대화 422

1) 이영선 은퇴 장로님 422
2) 백승욱 원로장로님 429
3) 박민옥 은퇴 권사님 438
4) 조현숙 사모님(故 김은일 목사님 사모) 448

2. 신앙의 여정 (*표는 과거에 신북교회를 섬기셨던 분) 456

1) 민경천 원로장로님 – 신북교회와 함께은퇴 나의 인생 456
2)*신이향 은퇴 권사님 – 학창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여행 459
3)*배굉호 원로목사님 – 목회 비전을 심어 준 신북교회를 추억하면서 461
4)*박민재 목사님 – 신북교회 시절의 회고와 감사 466
5)*정연성 은퇴 목사님 –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468
6)*김금찬 선교사님 – 내 삶의 언제나 푸르름은 그곳에… 471
7)*우경준 목사님 – 신북교회와 나의 학창 시절 473
8)*이석진 선교사님 – 신북교회에서 보낸 감사한 시간(2011~2014) 476
9)*원창영 선교사님 – 나의 신북교회 사역 2013~2014 479
10) 제이 알 목사님(영문) – Shinbook Interior Church 481
11) 제이 알 목사님(국문) – 신북인테리어교회 2주년 사역을 돌아보며 483
12)*신상근 은퇴 장로님 – 신북교회로의 귀소(歸巢) 485
13) 김봉우 장로님 –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487
14) 김규식 장로님 – 축복의 통로 신북교회 490
15) 기대승 은퇴 안수집사님 – 칠십 년을 맞이하며… 492
16) 윤흥묵 안수집사님 – 바람의 감사 493

Contents

17) 박자경 권사님 – 신북교회 반주자로서 살아온 30년… 494
18) 정희경 권사님 – 예닮 찬양단 497
19)* 조성현 전도사님 – 신북교회에서 배운 사랑 498

3. 은혜의 간증 501
1) 김양호 집사님 – 하나님 감사합니다 501
2) 박순영 권사님 – 내가 경험했던 것들 504
3) 김선희 집사님 – 구원받은 우리 집 511

III 부 록

1. 교회 연혁 518
2. 역대 담임 교역자 522
3. 역대 부교역자 523
4. 역대 항존직분자 524
5. 2025 교회 조직 527
1) 조직도 527
2) 공동의회 528
3) 당회 528
4) 제직회 528
5) 제직 명단 528

6) 위원회 530
7) 구역 편성 532
8) 교육 기관 533
9) 자치 기관 533

6. 역대 대외 섬김 활동 537

Ⅳ 믿음의 얼굴들, 그 시간

설립자 및 전도자 540
역대 담임 교역자 540
역대 장로 541
역대 안수집사 542
역대 권사 544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547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565
남선교회 566
여전도회 567
구역 568
교육 기관 571
찬양대 · 찬양단 572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573
신북인테리어교회 610
창립 70주년 기념 아동부 그림 612
아동부 소박소박전(2025) 613

발 간 사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사를 편찬할 계획이라 말했을 때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말리셨습니다. 교회사 편찬 작업이 결코 녹록치 않은 고된 작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교회사 편찬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교회 자랑이 아니냐며 정색하시며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사 편찬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많은데 '굳이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사 편찬을 해야 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던 저로서는 역사는 한 집단이 가지는 정체성의 근간임을 잘 알고 있기에 어떤 공동체든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희망차게 준비하는 역사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신북교회의 72년 역사라고 할 때 이야깃거리가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각각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 없이 신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써 내려가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먼저 복음의 정수(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를 8장까지 정교하게 정리해 갑니다. 이어서 9~11장에서 이 복음을 자기 민족인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적용시키지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11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제로 하여 정교하게 복음을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적용시킵니다.

교회의 역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을 한 교회가 얼마나 옹골차게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냈는가를 더듬어 보는 흔적이 '교회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를 정리하는데도 한계를 피력했던 복음사가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한 교회의 72년을 정리하면서 경험하는 인간의 한계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넘쳐나고, 때로는 한없이 부족한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인간의 한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지혜를 빌려 세 가지 주제(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책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가 녹아든 교회사를 편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축을 따라 신북교회 역사를 촘촘하게 정리하고자 했지만 조밀한 글쓰기가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최종적으로 물으면서 부정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들어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함으로써 발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72년의 신북교회 역사를 정리해 가면서 몇 가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는 일들이었지요. 이와 같은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백춘길 장로님과 함께 백승욱 원로장로님을 찾아뵙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백승욱 장로님께서 개인에게 해가 되거나 누가 될 만한 말씀은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백승욱 장로님을 통해 '역사 증언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역사를 증언하면서 그 무게를 견뎌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백승욱 장로님께서 역사 증언의 무게를 오롯이 지시는 모습에서 '역사 편찬'이라는 핑계로 성도의 삶과 인격을 함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북교회 72년사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역사편찬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케케묵은 먼지를 털어가며 72년 전 자료들을 손수 찾아 확인하시며 역사 초록을 정리해 주신 백춘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춘길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신북교회 72년사는 책으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자면 그 명단만으로도 지면을 가득 채워야하기에 진심을 담아 마지막 감사를 모든 읽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2025년 12월

당회장 이창봉 목사

편 찬 사

신북교회가 『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를 편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53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신북면 율문리의 작은 전도 모임에서 출발한 신북교회가 어느덧 72년의 세월을 지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한 신북교회의 72년 역사는 눈물과 기도,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천막 교회에서 현재의 교회까지 이어오는 동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은 신북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었고 전통이 되었습니다.

신북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사회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고, 교회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72년의 세월은 한 세대가 태어나 성장하고 다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북교회에는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켜켜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저절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헌신은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고, 이름 없이 섬긴 손길들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신북교회는 이 교회의 발자취를 모으고 정리하여 한 권의 이야기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번 『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는 외부 전문가가 아닌 신북교회 구성원들이 직접 자료를 정리해서 집필하고 편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창봉 목사님께서 집필을 자원해 주셨고 편찬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줄거리의 얼개를 구성해 집필을 지원하거나 집필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기록이나 편찬의 전문가가 아니며 글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지닌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북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당에서 함께 호흡하며 울고 웃었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전문가의 기록이요, 편찬이다 보니 어쩌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 표현이 투박하고, 구성이 서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밖에서 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안에서 살아낸 교회와 성도들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편찬을 맡은 사람들이 낡은 교적부와 회의록 등의 자료들을 뒤적이거나 어르신들을 찾아가 교회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으며 그 숨결을 확인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자료들 속에는 선배들의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신앙고백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신앙고백이자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편찬 작업은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장년 세대는 교회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마음이 뭉클해졌고,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렇게 깊은 뿌리 위에 세워졌구나' 하는 자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과거를 보존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새롭게 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신북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붙들어 오셨는지에 대한 고백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72년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북 공동체가 함께 써 내려간 신앙의 연대기이며,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훗날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위에 새로운 장을 덧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수고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72년 동안 신북교회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름 없이 섬긴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이 책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기록이 과거를 기념하는 책을 넘어 앞으로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창봉 위임목사님,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대담과 원고로 함께 해주신 분들, 편찬을 위해 수고해 주신 편찬위원님들, 편집과 출판에 힘써 주신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편찬위원장 **백 춘 길** 원로장로

축 사

대나무는 종자 씨를 심고 난 후 몇 년이 지나도 좀처럼 싹이 트지 않다가 5년째 되는 해에 죽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단 석달만에 16~25미터를 자라난다고 합니다.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하루에 1미터 이상 자라기도 한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또한 대나무는 여느 나무처럼 목재로 사용되지도 못하는 매우 얇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단단하기는 어떤 나무보다도 단단하여 크게 자라는 나무는 그 높이가 30미터가 넘게 자라기도 합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단단한 이유는 사이사이에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건축에 참여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버즈칼리파'는 그 높이가 829.84m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인 롯데타워가 555m라고 하니 그 높이가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대나무의 마디를 응용하여 30층마다 '아웃리거'라는 마디를 견고하게 설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북교회의 지난 역사 역시 격동의 시대 속에서 때때로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거나 더디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하나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오신 신앙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 희생은 지난 72년간 신북읍의 영적인 중심지이자, 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다져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발간하는 신북교회 72년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자 자랑스러운 족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믿음의 본을 따라 더욱 굳건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이정표가 되고, 또 하나의 마디맺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신북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오신 역대 담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이 창봉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 책을 준비하고 편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북교회가 지난 72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또 하나의 마디맺음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북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12월

강원노회장 **김 한 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시무)

축 사

신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창립 72주년을 맞는 신북교회와, 지나온 72년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북교회 교우 여러분을 축복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첫째,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에 재현하는 일이며 둘째, 과거의 교인들과 오늘의 교인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일이며 셋째, 72주년을 넘어 미래를 향한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이기에 온 교우가 자부심과 긍지로 교회 역사를 기록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북교회를 생각하면 사도행전의 안디옥교회가 오버랩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스데반 집사 순교 후 예루살렘의 대대적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가진 것 없고 궁핍한 피난민들과 떠돌이였지만 저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둘 모여 안디옥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행 11.19~30)

신북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안디옥 교회와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3년에 걸친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된 지 3개월 되는 무렵 신북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됩니다. 신북교회를 처음 이룬 이들 중에는 북에서 피난 온 이들, 전쟁의 참화를 피해 남으로 피난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들, 여기저기 살 곳을 찾아온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당장 먹고사는 일, 무너지고 폐허가 된 집과 농토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이들이 하나둘 모여 신북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신북교회는 72년 동안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성장하여 오늘 지역사회와 이웃의 교회들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단 사이비의 도전으로 복음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현실이 되어 지난해 우리 교단은 교인이 1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72년 동안 흔들림 없이 성장해 온 신북교회의 역사는 오늘의 교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신북교회가 지역 사회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72주년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장해 복음의 빛을 밝히는 건강한 교회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신북교회와 신북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실 것입니다.

2025년 12월

춘천시찰회 서상교회 **나 순 형** 은퇴 목사

축 사

안녕하십니까!

춘천 을 국회의원 한기호입니다.

먼저 「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신북교회의 역사 기록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창봉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신북교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72년 동안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현장을 지켜 오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서로를 돌보아 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시간이 모여 오늘의 신북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북교회의 역사는 1953년부터 신북의 시간과 나란히 이어져 왔습니다.

마을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늘 곁을 지키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섬김을 이어 오신 그 따뜻한 걸음이 신북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남아 있기에 신북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하는 일은 신북이 지나온 시간을 함께 되짚어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북교회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이번 편찬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흩어질 수 있는 기억을 정리해 신북의 자산으로 남겼고, 앞으로의 세대가 교회의 뿌리와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또한 신북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살피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어르신, 소외된 이웃 곁에 먼저 다가가 지원과 기부를 이어 오셨고, 그 손길은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북교회가 예배의 중심을 지키는 가운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걸음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믿음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는 역할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라며, 이번 편찬이 그런 기대를 말이 아니라 실제 걸음으로 연결해 주는 든든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북교회가 걸어온 72년의 믿음과 섬김이 앞으로의 시간에도 이어져, 다음 세대에게는 길이 되고 지역에는 힘이 되는 교회로 더욱 단단히 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 **한 기 호**

축 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성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춘천시장 육동한입니다.

신북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아 '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를 편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쟁 직후인 1953년,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의 불을 다시 밝히고 공동체를 세워 오신 72년의 시간은 한 교회의 연대기를 넘어 신북 지역의 회복과 성장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신북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지역과 함께 걸어온 교회였습니다. 이웃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낮은 곳을 살피는 손길로 신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신북읍, 이장협의회와 함께해 온 '기부천사 운동'은 명절 선물과 월동 연료비, 긴급 생활비 지원, 장학금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이웃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열리는 주민 초청 윷놀이 대회는 마을의 정을 다시 잇고 세대와 이웃을 한자리에 모으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한 판의 윷놀이 속에 담긴 웃음과 격려가 겨울 끝자락을 덥히고, 서로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신북교회의 이러한 걸음에 시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펴내신 책에는 신북교회를 지켜 온 성도들의 기도와 땀, 목회자와 교역자들의 헌신,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눈 신뢰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기록이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되고, 신북 지역에는 따뜻한 공동체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춘천시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북교회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사랑의 사역을 더 넓혀가시길 응원드리며, 이창봉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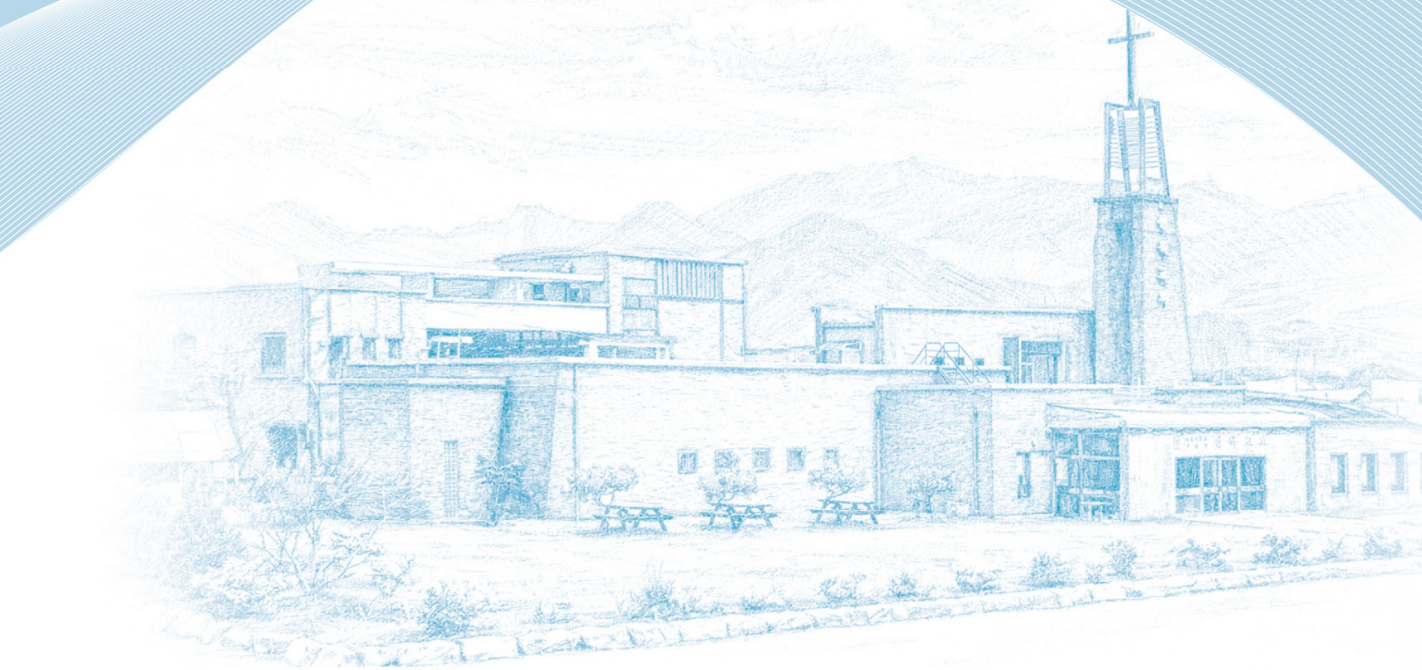
2025년 12월

춘천시장 **육동한**

I

역 사

1. 역사가 숨 쉬는 땅
2. 신북읍의 역사
3. 신북교회의 태동(胎動)과 창립(創立)(1950년대)
4. 신북교회 여명(黎明)의 시기(1960년대)
5. 성장의 토대 구축 및 성장기(1970년대)
6. 교회의 안정적 성장기(1980년대)
7.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1990년대)
8. 새천년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2000년대)
9.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2010~2016)
10. 사역의 지평을 넓혀 가는 교회(2016~2025)



I 역 사

1. 역사가 숨 쉬는 땅

2019년 1월 21일, 현재 신북교회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을 위한 부지에 세 개의 큰 구덩이가 생겼다. 신북교회 물댄동산 교육관 자리가 율문리-천전리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에 포함되는 문화재 유존 지역이라 교회의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 착수 작업 전에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를 착수한 것이다. (재)경강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18년 12월 12일에 시굴 조사 실시를 위한 안내문을 통보하였고, 2019년 1월 21일에 시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춘천 율문리(256-29번지 일원), 종교시설 증축부지 내 유적 시굴 조사
- 조사유형 : 시굴 조사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56-29번지 일원
- 허가변호 : 제2019-0053호
- 조사기간 : 2019년 1월 21일 ~ 현재(2월 말)
- 조사면적 : 286.23 ㎡
- 학술자문위원 : 최종모(강원문화재연구소), 심재연(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당회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었다. 애초에 '이 위치에 신북교회를 건축할 것이 아니라, 신북로터리 부근

소양강변 근처 부지에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는 당회의 소수 의견이 있었고, 사랑마을 등 교회 주변 마을 주민이 성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현 위치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옳다는 다수 의견도 있었다. 이미 현재의 자리에 신북교회가 건축되었으니, 지금 와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과거를 소환하는 일은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북교회를 이곳에(춘천시 신북읍 문정길 9. 율문리-천전리 유물산포지에 포함되는 문화재 유존 지역)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더 근원적으로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접근성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북교회를 신북로터리 근처 소양강변 부근에 건축했어도 참 좋은 자리 선정이었을 것이나 현재의 자리에 신북교회가 세워진 데는 보다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북교회가 위치한 곳은 2천 년 전 맥국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곳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다음과 같다.[1)]

유 적 명	소 재 지	시 기	유규(기수)	유 물	조사기관(연도)
율문리 335-4번지 유적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35-4번지	BC60-AD340	주거지(7)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파수편, 토제어망추, 석기, 철겸, 철삽날, 철편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율문리 75-2번지 유적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75-2번지		주거지(18)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한식(낙랑)계 토기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이 두 곳이 2천 년 전 맥국시대의 주거지였다면 그 사이에 위치한 신북교회의 현재 위치는 맥국시대의 주요 생활 주거 공간이었던 것이다. 2천여 년 전부터 생활 주거 공간이었던 곳에 교회가 자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신북교회도 의식하지 못한 채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하나

1) 고고학과 문헌으로 본 춘천문화의 정체성, 한림고고학연구소, 진안진, 2016. p118

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에 걸맞게 그 옛날 사람들의 생활 중심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셨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일까?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땅은 바산 지역으로 악한 영들의 본거지에 해당한다. 이미 4천 년이 흐른 시점에서도 여전히 악한 영들의 본거지 역할을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선포하셨다. 이처럼 땅은 역사와 시대를 품고 있다. 2천 년 이상의 역사와 시대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역사와 시대를 끌어안고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중차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신북교회가 현재의 자리에 세워진 것은 결코 몇몇의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신북교회가 자신이 위치한 자리의 역사적 맥락을 잘 파악하여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

2. 신북읍의 역사

신북교회가 위치한 신북읍의 역사적 맥락은 어떻게 될까?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교회가 터를 잡은 곳의 역사를 살피고 교회사를 써 내려간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일반 역사를 외면한 채 교회사를 쓰려는 시도들은 언제나 역사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 역사는 일반 역사에 기반을 둔 이야기여야 한다. 신북교회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시대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신북읍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맥국과 관련한 춘천의 역사는 간단치가 않다. 아래의 글은 「춘천 맥국의 역사적 연구」의 발간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 강원도의 수부인 춘천은 산과 강, 넓은 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농경생활을 하던 고대 인류가 생활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었으므로 일찍부터 인류가 생활하였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는 맥국이 존재했다는 소략하지만 역사기록이 남아있고, 맥국에 관한 전설들이 춘천을 비롯하여 횡성, 평창 등에 전해지고 있으며, 요즘에는 맥국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업적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문헌사학계 학자들은 대체로 신라 선덕여왕 6년(637) 춘천에 우수주가 설치되기 이전에 맥국이 수백 년 동안 존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고학계에서는 맥국에 관한 자료가 빈약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춘천의 맥국을 기정사실로 한다는 것은 문헌사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지나치고 비약적인 결론이며, 맥국의 실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인 실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또한 말갈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말갈족과 맥국과의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춘천지방의 맥국 문제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
> 춘천의 맥국문제는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라, 고구려, 백제 등 고대국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향토문화연구회는 춘천시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를 발표자와 토론자로 모시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결론은 고대사 연구에 크

> 게 기여할 수 있고, 춘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춘천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는 맥국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헌사학과 더불어 고고학적 연구, 그리고 구비전설 등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여 연구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맥국에 관한 연구는 학자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연구하였거나 또는 건설이나 다른 필요에 의하여 발굴하였을 뿐이며, 맥국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2)]

이상과 같은 취지로 맥국의 역사 연구가 다시 새롭게 조명되는가 싶었지만, 2005년 이후 맥국의 역사 연구는 지지부진하여 참으로 안타깝다. 역사를 모르면 부끄러운 실수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맥국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다 할 만한 맥국의 역사 소개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독교 역사는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2천 년 전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2천 년 전 맥국의 역사를 함께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겠는가! 바로 여기에 교회사를 정리하는 진정한 목적이 있다. 교회사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인물이나 주요 사건을 나열하고 소수의 인물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교회사를 쓰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 상황에 맞게 역사적 조명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서 있는 자리의 역사를 모른다면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교회는 일시적인 부흥이나 성장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2) 춘천 맥국의 역사적 연구(춘천시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5) p.5-6

1) 신북읍의 역사적 변천[3)]

신북읍은 대부분이 200m 내외의 낮은 산지를 이룬다. 소양강이 흐르는 유포리, 산천리, 천전리 일대에 비옥한 평야를 가지고 있다. 춘천시의 중심 시가지와 접근성도 좋은 편이며, 현재는 교통도 편리하여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다.

선사시대부터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였는데, 출토되는 유적과 유물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예부터 발산리 일대는 고대 맥국의 터가 있다고 전해졌다. 원래 맥은 예, 한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주된 구성체로서, 시경과 서경 등을 보면 중국 주나라의 동북방에 거주하고 있다가 뒤에 요동 및 만주 지역으로 이동해 고조선, 부여, 고구려의 주된 종족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한반도 내로 이주한 고구려와 계통을 같이하는 맥족의 한 집단이 맥국을 형성하였다.

맥국터 유허비

1995년 춘천시에서는 춘천문화원 사업으로 신북읍 발산리에 '맥국터'라는 유허비를 세운 바 있다. 발산리에 '맥국터' 유허비를 세운 이유는 이 지역에 춘천 맥국설의 근간이 되는 왕궁터, 멧뚝 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으며, 주변에서 확인되는 발산리 지석묘 등 관련 유적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러한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가 춘천 맥국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3) 신북읍(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2022) p.36~54

춘천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축을 벌이던 곳이었다. 신북읍 일대에는 신라시대 고분과 신라토기편이, 발산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실분이 출토되어 이 지역이 고구려 이후 신라에 편입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발산리의 삼한골에서도 현재까지 4곳에서 절터가 확인되는 등 고려시대 신북읍 지역에는 많은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율문리도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기와, 도기편 등 생활유적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고려시대에 신북읍 일대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신북읍과 관련된 인물로는 춘천 박씨의 시조 박항(1227~1281)이 있다. 박항의 무덤과 신도비는 신북읍 발산리에 있는데, 그는 춘천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아갔다. 그때 몽골의 5차 침입(1253년)이 있어서 강원지역이 큰 피해를 당하였는데, 춘천의 봉의산성 역시 함락되어 성 안의 관민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 박항이 춘천에 와서 성 밑의 시신 가운데 부모의 시신을 찾아 부모와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자들을 거두어 묻었는데 그 수효가 3백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 후 박항은 어머니가 포로가 되어 중국 연경에 가 있다는 말을 듣고 두 번이나 가서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 박항은 지방 관직과 중앙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재상이 되었고, 수차례 원나라에 파견되었으며,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물자 공급 및 기밀에 대한 여러 사무를 처리하였다. 낙향 후 사랑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조선시대에는 춘천 지역 역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참화를 겪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 신북면은 일찍부터 항일운동의 기운이 강해서 춘천 항일운동의 젖줄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즈음 4월 1일에 신북면에서 수백 명이 모여 만세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신북면은 춘천 지역에서 비교적 넓은 농경지를 보유한 곳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상록회 창설 멤버의 한 사람이자 조직의 주역인 이찬우(李燦雨)의 고향이기도 하다. 상록회의 농촌 계몽운동은 이 시기 춘천 지역의 학생

운동 중 대표적인 민족주의 운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935년에는 신북면에서 야학을 경영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암암리에 선전하던 것이 발각된 야학적화사건(신북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 후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지면서 춘천군 북산면 추전리와 사북면 원평리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다. 이에 신북면은 38선과 매우 근접하게 되었으며, 6.25 전쟁이 발발하자 춘천 전투의 격전지가 되었다. 6.25전쟁 후 춘천은 황폐화되었는데, 특히 1.4후퇴 전후 폭격으로 춘천 시내에는 남아있는 건물이 몇 안 될 정도였다.

신북면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1951년 2월 천전국민학교의 교사(校舍)가 폭격으로 전소되어 건물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쟁 후 춘천 지역 역시 미군과 국군의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재건사업을 통해 복구했는데(이때 신북교회가 시작되었음. 교회창립일 1953.10.7), 1955년 천전국민학교는 군부대 자재 원조로 목조 단층 15개 교실 및 관사, 창고 등을 준공하였다.

1948년에 신북면 율문리에 춘성중학교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춘성고등학교와 춘성여자고등학교가, 1980년대에는 춘성여자중학교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6.25전쟁 이후 신북면 지역에 초등 및 중, 고등 교육기관의 수가 늘어난 것처럼, 춘천 지역에서 비교적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신북면에 대한 복구와 개발 역시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에는 발산리에 개간사업장, 율문리 농촌건설계획 등이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신북면 지역의 지역사회개발이 이루어졌다.

현대에 들어 신북면 지역의 변화를 이끈 것은 6.25전쟁 이후 군부대 주둔과 댐(수력발전소)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 후 신북읍에는 잠시 미군 부대가 주둔한 적도 있으며, 현재는 2군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다. 그리고 2군단 소속 항공부대와 제102보충대대가 있었다. 제102보충대대는 1967년 12월에 율문리로, 1987년 10월에는 용산리로 이전하였다가 2016년 11월 1일 해체되었다.

소양강댐(소양강수력발전소)은 신북면 천전리와 동면 월곡리의 소양강 하류부를 가로막아 건설된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사방댐이었다. 소양강댐은 1967년 4월에 착공하여 1973년 10월에 준공하였는데, 많은 수몰지역과 수몰민들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댐 건설로 각지에서 외지인들이 몰려들었고, 전국 각지와 인근 지역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의 격변이 일어났으며, 이는 6.25전쟁 이후 춘천이 겪는 가장 큰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후 춘천은 전통적 농촌성에서 근대적 도시성이라는 새로운 변화로 이어졌고 이는 1995년 춘천시와 춘성군이 통합될 때 신북면이 유일하게 읍으로 승격되어 신북읍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북읍 행정구역도

2) 인구의 변화

신북읍의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35년에 수행된 인구총조사 결과다. 1935년의 신북읍 인구는 9,046명(남자 4,666명, 여자 4,380명)이었으며, 가구수는 1,704가구로 가구당 구성원 수는 약 5.3명이다. 1944년의 인구는 7,526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1939년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신북읍의 우두, 사농을 춘천읍으로 편입)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 결과 신북읍의 1944년의 가구 수도 1,416가구로 줄었다.

해방과 6.25의 혼란기가 지나간 1955년의 인구는 16,127명(남자 10,902명, 여자 5,225명)으로 1944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남북분단으로 접경지역에 포함된 신북읍 지역에 군부대가 자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960년의 인구는 12,384명(남자 6,259명, 여자 6,125명)으로 1955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3,743명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총조사 방식이 1960년에 '현주주의'에서 '상주주의'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인구조사 방식은 크게 '현주주의'와 '상주주의'로 구분된다. '현주주의'는 조사 시점에 특정 지역에 있는 인구집단을 모두 그 지역의 인구로 간주하는 방식이고, '상주주의'는 조사 시점에 법적으로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1955년 조사에서는 신북읍 인구로 취합되었던 군장병이 1960년 조사에서는 자신의 원래 주소지 인구로 계산되면서 신북읍 인구는 줄어들었다.

1970년의 인구는 17,128명(남자 8,596명, 여자 8,532명)으로 1960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가 안정되면서 나타난 높은 출생률과 2차 베이비붐에 따른 자연적인 인구 증가의 결과다. 그러나 신북읍의 인구는 1970년을 정점으로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에 13,376명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6,597명)까지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2015년에 7,854명으로 소폭 증가함으로써 일

단 멈추었다. 2015년 이후에는 2022년 7월 현재(7,471명)까지 큰 변화 없이 정체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4]

3) 산업과 생활

신북읍은 상전벽해(桑田碧海)한 곳이다. '신북읍' 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 하나가 상전(뽕밭)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두동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동방제사주식회사'가 있었는데 해방 후 이 회사를 한국인이 인수하였다. 신북읍에서 양잠을 대규모로 하게 된 계기가 이 회사가 1965년경 오동국민학교 근처(현재 강원도농업기술원 일대), 약 30만 평 정도를 사들여 뽕밭을 조성하면서다. 이 회사는 25년 정도 운영하다가 1980년 철수했다. 신북면에서의 양잠은 농가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기업의 부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신북면의 뽕밭은 사라지고 당시의 잠실만 남았다.

신북면의 양잠이 크게 주목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1974년 5월 28일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가 춘천을 찾은 것이다. 이날 산천리 오동국민학교에서 새마을 양잠 시범대회가 있었는데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양잠산업을 장려하고 육성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행사에서 육영수 여사는 치사와 함께 누에치기 시범을 보였다. 이 행사로 오동국민학교도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다.[5]

· 신북읍의 강원테크노파크: 경유형 혁신 교류지와 거점 사이

신북읍의 강원테크노파크는 2003년부터 조성되었다. 2005년부터 바이오 분야의 임대형 공장 건설, 강원테크노파크의 본부동 기술혁신지원센터

4) 춘천 맥국의 역사적 연구 p.85~86
5) 위의 책, p.127

설립 등을 통해 본격적인 춘천의 테크노파크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2007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되었으며, 기업들의 입주 공간이 생기고, 자립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서 단지 내에 다양한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입주했다.

특히 특화 기능이 없던 신북읍에 강원테크노파크가 조성되면서 신북읍도 함께 성장했다. 신북읍 내에서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등 여러 협력 업체들이 모여 산학연관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기술혁신 지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TP3분소' 체제로 운영되면서 본부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제1벤처공장이 2006년에 완공된 이후부터 춘천시와 신북읍은 바이오산업의 벤처기업 요람 역할을 수행하였다.[6]

· 노인복지사업을 펼치는 소양강댐 노인복지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에는 소양강댐 노인복지관이 자리하고 있다. 소양강댐 노인복지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인 K-water가 댐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을 펼치려고 설립하였다.(2009년 10월 개관)

소양강댐 노인복지관은 댐 주변 지역의 노인이 대상이다. 춘천시 소양강댐 주변 지역(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신북읍, 북산면, 사북면, 동면, 동내면 지역의 6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다. 여기에서 60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은 60세이기 때문이다.[7]

6) 위의 책, p.201
7) 위의 책, p.231,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은 만65세 이상임.

4) 신북읍 사람들의 마을 신앙

신북읍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마을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신앙을 공유했었다.

〈표1〉 2013년 당시 신북읍 마을 신앙 조사표

동 제	서낭제	산신제	산천제	기우제	거리제	솟대,장승	기자,무속	합계
발산리	2	1	1	1	1		2	8
산천리	1					1		2
용산리		1	1			1		3
유포리	2		2			1		5
율문리	1					1		2
지내리	2			1			1	4
천전리		2		1	1	2	1	7
합 계	8	4	4	3	2	6	4	31

※ 이 자료는 없어진 것까지 포함.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다.

〈표1〉에서 신북교회가 소재한 '율문리'도 2개(서낭제, 솟대, 장승)의 마을 신앙이 있었다고 하지만, 6.25전쟁 이후 율문리는 유일하게 마을 신앙이 사라진 동네이다. 율문리에는 천전감리교회와 신북교회가 있어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3. 신북교회의 태동(胎動)과 창립(創立)(1950년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소용돌이가 훑고 간 자리, 곧 전쟁의 상흔을 본격적으로 매만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신북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에 신북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이다. 당시 신북읍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에 초, 중학교 교육기관이 세워지던 시기이다. 때를 같이하여 전쟁의 아픔과 암울한 미래로 빛이 없는 어둠의 시기에 아이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매만지는 교회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교회가 시작되었다.

1) 교회의 태동

신북교회는 종전(終戰) 직후에 출신 교회를 알 수 없는 이건신 권사가 율문리 장거리 소재 마을 공회당에서 시작한 전도 모임에서 태동하였다. 이 모임에 현재 신북교회의 박민옥 은퇴 권사가 10대 때 호기심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현재까지 72년째 교회를 지켜오고 있으므로 박민옥 은퇴 권사(2006년 5월 21일 은퇴)에게 교회 초기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개략적인 증언을 들을 수가 있다.

전도자 이건신 권사

신북교회의 역사는 박민옥 권사의 신앙 여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박민옥 권사는 신북교회 역사의 산증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박민옥 권사를 통해 신북교회의 초기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다. 박민옥 권사가 신북교회에 처음 출석하였을 때의 기억은 이렇다.

"18세에(53년 음력 보름, 2월 18일[8]) 이건신 권사님이 회관 같은 데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전도 모임(현재 장거리 마을회관 자리)에 출석했어요."

박민옥 권사는 장거리를 오가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한다.

박민옥 권사 청년시절 교회 출석 모습.(맨 왼쪽)

이처럼 전도 모임에 첫 발을 들였을 때 아이들만 제법 있었고 어른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박민옥 권사가 기억하는 분은 이건신 권사가 유일하다. 이건신 권사가 주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심방도 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점은 박민옥 권사도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전도 모임과 교회 창립 과정)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다고 한다. 당시에 아버지께서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시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연애는 안 된다며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서 주일 낮과 오후 예배만 드렸는데, 당시에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박민옥 권사는 주일 예배를 빠질 때도 있어 교회 사정과 목회자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고 했다.

8) 53.2.18은 목요일이므로 가장 가까운 주일 21일에 처음 출석했다고 보아야 함.

2) 교회의 창립

어린이 중심의 전도 모임이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건신 권사의 전도 활동 장소였던 마을 공회당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공회당의 작은 전도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북교회'라는 이름의 천막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신 권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신북 지역에 와서 신북교회 창립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종전(終戰) 후 석 달째인 1953년 10월 7일(수)에 신북교회를 창립하게 하셨다.(교회 연혁)

신북교회 창립 과정에 대한 교회의 기록은 교회 요람의 교회 공식 연혁 외에 1970년 6월 25일과 동년 10월 7일에 기록한 것 두 가지가 전해오고 있다.

먼저 1970년 6월 25일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료 a)

차광훈 설립목사

'1953년 김용수 집사의 미군부대 근무 중에 본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열이 불붙게 됨으로 부대에 교섭하여 12평 천막을 빌려 이건신 권사님과 김전신 대위로부터 천막교회로 시작하다. 당시 첫 설립 교역자로서 차광훈 목사님은 제반 시에 고심 결과 장기택 전도사를 청빙 시무케 하므로 처음 교인으로 15명을 얻게 되었다. 초대 당회장으로 차광훈 목사님은 첫 세례 교인 김용수 씨를 수세와 동시에 교회 집사직을 임명하여 교회를 돌보게 했다. 초대 직분자로서는 박석원, 김용수, 이영선 세 분이시며 권찰로서 김상섭, 정유오 씨의 2명이 임명되어 교회 일을 전담케 하였다. 그 후 1957년 서울남대문교회에서 당시 12,000원 교회 보조금으로 산천리 공회당을 매수, 헐어 와서 신북 율문리 1구 번지에다 25평을 설립하여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오다, 1969년 4월에 교회 건축 기성회를 조직하고 5월에 기공예배를 드린 후 10월에 완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다.'

천막 교회

이 기록은 창립 교회인 '천막 교회'[9]부터 두 번째 '목조 건물 교회'[10]를 거쳐서 세 번째 '벽돌 구조 건물 교회'[11] 건축 과정까지 교회 설립 과정과 초대 당회장, 초대 담임 교역자 청빙, 교회의 조직으로 집사 3명, 권찰 2명을 임명하고 교회의 첫 수세자가 '김용수 집사'였던 상황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천막 교회(1954.12.25 크리스마스)

9) 현 사랑말2길 55-6. 박민옥 은퇴 권사 증언
10) 현 율문3길 37
11) 율문리 256-22번지. 현 교회 길 건너편 건물

1970년 10월 7일에 기록한 연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료 b)

> '1953년 신북장로교회 설립교역자 차광훈 목사님이 당시 미군부대 근무 중이던 김용수 집사님을 통해 미군부대에 교섭하여 12평 천막을 구해 이권신 권사와 김전심 대위와 함께 천막교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설립 목사님 차광훈 목사님은 제반 시에 고심 결과 장기택 전도사님을 청빙 시무케 하므로 초대 교인 15명으로 예배를 드리다. 이어 박석원, 김용수, 이영선 씨를 초대 직분자로 임명, 교회를 봉사케 하다. 그후 1957년 서울남대문교회로부터 당시 12,000원을 보조 받아 산천리 지역 공회당을 매수, 건평 25평의 목조교회로 설립되다.'

초대 교역자 장기택 전도사

이 기록은 차광훈 목사가 1953년에 김용수 집사[12], 이건신 권사[13], 김전심 대위와 함께 김용수 집사가 구한 12평 군용 천막에서 신북교회를 창립한 사실과 교회 창립 예배에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초대 담임 교역자로 장기택 전도사를 청빙하고 교회의 조직으로 초대 집사 3명을 임명하여 교회에 봉사하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현재 교회의 공식 연혁(교회 요람에 등재, 자료c)에는 '1953년 10월 7일 차광훈 군목의 인도로 신북면 율문리에 설립키로 의결. 이권신 권사와 김성섭 군목이 천막 12평을 구입하여 창립예배를 드리다.' '1954년 1월 5일 장기택 전도사를 초대 교역자로 모시고 서울 남대문교회로부터 12,000원의 보조를 받아 구 예배당을 신축하다.'로 교회 창립 과정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창립 예배 일자와 교회를 설립한 차광훈 목사가 군목이었고, 교회로 쓰인 12평짜리 천막을 이권신 권사와 김성섭 군목이 구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전기(前記)한 두 연혁 내용의 교회 창립에 협력한 인물과 남대문교회 지원 시기 등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이권신 권사의 정확한 이름'과 '남대문교회 지원 시기'를 제외하고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12) 첫 번째 연혁에 의하면 교회 창립 이후 수세(水洗)와 집사 임명
13) 마을회관에서 전도 모임을 주도했던 권사

목조 교회와 성도들

이들 기록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세우셨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교회 연혁 두 번째 기록(자료b)과 교회 공식 연혁(자료c)에는 교회 창립에 함께했던 권사를 '이권신'으로 기록하였으나 첫 번째 기록(자료a)에는 '이건신'으로 기록하여 차이가 있다. 이는 1954년 12월 5일 자, 교회일지 저녁 예배 기도자 난에 李健信 權師라는 한자(漢字) 기록이 있는 것과 교회 초기 예배 기도자 난에 '이건신 권사'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권신' 권사는 '이건신' 권사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교회의 연혁을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 신북교회의 공식 연혁에는 차광훈 목사를 도와 이권신 권사와 함께 김성섭 군목이 교회 창립에 기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섭 군목은 상기(上記)한 두 연혁 기록에 동일인인데 오기(誤記)로 추정되는 김대위(첫 번째 기록에는 김전신 대위, 두 번째 기록에는 김전심 대위)와는 또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

이건신 권사와 청지기들

지금까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초대 신북교회인 천막교회가 세워질 때 실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세 사람은 차광훈 목사, 이건신 권사, 김용수 집사이다. 하지만, 이영선 은퇴 장로(당시 초대 집사. 현재 98세 경북 상주 거주)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이 천막 교회를 세우는 데 실질적인 공로자였다고 증언한다. 언젠가 천막 교회와 목조 교회가 세워질 때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들었을 때 상당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노라고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역사편찬위원회는 교회의 공식적인 연혁에 기초하여 역사를 기록하되 이영선 장로의 증언도 존중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 서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당시에 정확하게 사건을 기술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사건은 변질되고 왜곡되기 쉽다. 그렇다고, 1970년의 기록(자료a, b)이 전혀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건이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970년의 기록은 오히려 더욱 가치와 무게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적인 증언이 역사적 기록물과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다 진실의

무게추를 놓아야 할지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신북교회 창립과 관련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신북교회의 창립 초기에 서울 남대문교회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남대문교회사(남대문교회 발간)'는 기록하고 있다. '남대문교회사' '4장 한국교회 중심을 잡는 교회', '5) 지교회 및 개척교회들의 설립과 예배당 이전확장' 부분을 보면 '지교회 및 개척교회들' 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14)]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일은 교회의 역사 속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지교회 및 개척교회들을 설립하는 데는 여전도회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중략) 1948년에는 강원도 춘천지방에 집중적으로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서상교회(1948-1963년 자립시키다, 대지 400평 사서 교회 건축해 주다), 사농동교회(1948-1963년에 자립, 이홍수 전도사 파송, 두 교회 시무, 6.25 사변으로 교회가 파괴되어 신축금을 보내어 복구하게 하다, 대지 200평), 옥산포교회(1953-1963년경 자립, 이배형 전도사 파송하다. 대지 200평에 교회 건축해 주다), 신북교회(1954-1974년 자립, 김승규, 김중렬 전도사 파송하다), 월송교회(1954-1974년 대지 100평에 교회 건축해 주다) 등이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의 설립은 여전도회가 전도지역을 춘천지방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교회를 설립할 때에 대한신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전도대가 삼백만 구령운동의 일환으로 교회 설립을 도운 결과로 보인다.

상기(上記)한 신북교회의 연혁(자료c)에도 '1954년 1월 5일 남대문교회로부터 12,000원 보조를 받아 구 예배당을 신축하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어 남대문교회의 지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나 위의 첫 번째(자료a)와 두 번째(자료b) 교회 연혁 기록에서 언급한 '1957년 서울남대문교회 12,000원 보조받아 목조 교회 신축했다.'는 내용과는 3년의 간격이 있다.

14) 남대문교회사 p.231-232

이는 위에서 편집자 주로 언급한 박민옥 은퇴 권사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회 연혁은 신북교회가 천막 교회로 시작한 지 3개월 후인 1954년 1월 5일에 남대문교회의 보조를 받아 교회를 건축하여 이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마을 공회당 전도 모임에서 시작하여 천막 교회에 출석한 박민옥 은퇴 권사의 증언에 의하면 천막 교회에서 2년 이상 예배를 드린 것이 분명하다. 교회 연혁(자료c)보다 교회 창립 과정기록(자료a, b)인 '1957년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12,000원 지원을 받아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附合)하며 이는 교회의 공식 연혁을 수정해야 할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인용한 남대문교회사 기록을 보면 개척교회를 지원한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남대문교회가 춘천지역의 5개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했는데, 유일하게 신북교회를 지원한 내용은 빠져있다. 다른 4개 교회와 달리, 신북교회는 교역자만 파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북교회가 천막 교회와 목조 교회를 건축할 때 비록 재정자립은 어려웠지만 실제로는 교회 스스로 건축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이 억측이 아닌 이유는 이영선 장로의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영선 장로의 신북교회를 위한 남다른 재정적인 헌신이 전혀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영선 장로의 증언은 그 당시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영선 장로의 증언이 맞다면 당시 지원을 받은 12,000원은 실제로 이영선 장로의 사재를 털어 마련한 비용일 가능성도 있다. 당시 12,000원은 시골의 웬만한

목조 교회 보수

집 한 채 값으로 비록 산천리의 낡은 공회당을 매입한 후 헐어서 건축 자재들을 옮겨와 재건축(25평)한 것이기는 하나, 1954년 주일 헌금이 평균 500원 내외(당시 교회 일지)였던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신북교회 형편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 연혁'이 교회 역사를 서술하는데 많은 혼선을 주기에 여기서 잠깐 기존 교회 연혁을 잠시 내려 두고 신북교회당 변천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자연스럽게 신북교회는 이건신 권사를 중심으로 '마을 공회당'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예배하며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배 모임에 동참하면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때, 당시에 장터에서 문방구를 운영했던 이영선 집사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영선 장로의 증언에 따르면 처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문방구를 크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했었다. 이영선 집사가 차광훈 목사와 함께 미군 부대에서 천막을 구입하여 명실공히 어엿한 예배 공간으로 신북교회 예배당을 세웠다. 남대문교회 자료를 보면 신북교회를 1954년에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춘천동부교회 자료를 보면 신북교회가 1953년 10월 7일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15]

차광훈 목사는 군목으로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셨던 분으로 현재의 신북교회 건축 중인 2004년에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창립 연도를 1954년으로 기억한다고 이야기했었다. 차광훈 목사의 기준으로는 신북교회의 초창기 모임은 아직 제대로 된 교회라고 여기지 않고 최소한 천막으로 지어진 구별된 공간에서 교회를 책임지는 구별된 사역자로서 교역자가 세워진 때를 공식적인 교회 창립주일로 여겨 교회 창립 연도를 1954년으로 인정하는 듯하다. 하지만, 비록 완전히 구별된 예배 공간도 없고, 교회를 책임지는 구별된 교역자가 없었더라도 엄연히 주님을 찬양하며

15) 춘천동부교회 70년사, p.222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시작되었기에 뜻을 세우고 이 모임을 시작했던 때를 '교회 창립 주일'로 여긴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특별히 신북교회 역사의 초창기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역사의 유일한 근거는 당시 성도들의 기억과 증언이다. '승리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 자'라는 말처럼, 신북교회 초창기 역사는 교역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지기에 '교회 창립 주일'도 실제로 예배를 드리며 신북교회의 존재 자체가 되었던 구성원의 증언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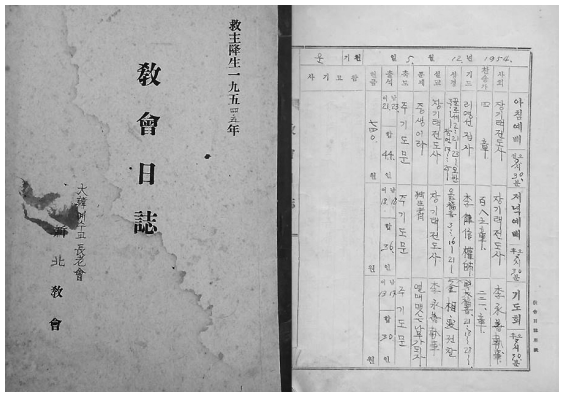
분명한 사실은 차광훈 목사와 이영선 장로가 어엿한 천막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예배 처소가 있었으며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회는 성장하다가 천막 교회로 개척하게 되었고, 기록 자료에 의하면 1957년 남대문교회의 도움으로 신북교회는 산천리 공회당을 매입하여 헐어다가 조립해서 목조 교회를 건축하여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박민옥 은퇴 권사는 이 목조 건물 교회를 다닐 때, 22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증언한다. 1957년의 일이다.

여기서 박민옥 권사의 개인 가정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처럼 박민옥 권사의 개인적인 삶을 소개하는 이유는 박민옥 권사의 삶이 곧 신북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저, 박민옥 권사는 57년 22살의 나이에 오경근 집사와 결혼을 한 후, 유포리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1년 동안 윗샘밭 천전교회를 출석하셨다. 그러다가, 십일조 생활도 할 수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쉬다가 결혼 후 2년 만에 마산으로 내려가셨다. 1959년의 일이다. 마산으로 내려가서 집 근처의 교회를 다시 출석했는데, 교회에 일꾼이 없다 보니, 박민옥 권사가 일을 도맡아서 할 정도였고, 1960년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참 반가운 성도여' 2절을 독창하는 영광도 누렸다고 부끄러워하면서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이후에 오경근 집사가 철원으로 전출되어, 박민옥 권사는 친정집이 가까운 사랑마을에 정착하였다. 이때부터 다시 신북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으며 1961년 12월 25일 성탄절은 신북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성탄절 기념

신북교회 창립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주는 박민옥 은퇴 권사는 1953년에 만 17세로 율문리 사랑마을에 살면서 5일 장이 서던 율문리 장거리를 자주 오가는 길에 마을 공회당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이 궁금해 호기심을 가지고 공회당을 한번 들여다본 것이 계기가 되어 전도 모임에 참여하다가 1953년 10월 7일 신북교회 창립 성도가 된 이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북교회 역사의 또 다른 증인인 이영자 은퇴 권사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살(본인 기억)부터 천막 교회에 출석하여 박민옥 은퇴 권사와 함께 지금까지 신북교회를 지키고 있는 신북교회 역사의 산증인들이다.



1954년 교회 일지

창립 예배 출석 인원이었던 초대 교회 교인 15명(상기(上記)한 교회 연혁 기록)으로 출

발한 신북교회는 창립 예배를 드린 지 1년여 만인 1954년 12월 5일 주일 아침 예배에 출석한 인원이 44명(교회 일지 남 23명, 여 21명)이고, 저녁 예배 36명인(남 18명, 여 18명), 수요기도회에도 30명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을 만큼 성장하였다.

교회 창립 1년여 만에 창립 예배 인원에 비해 예배 인원이 세 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북읍 주민이 급격하게 늘었던 사회적 배경에서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다가 전후 당시에 주민들이 마음을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초대 신북교회[16]의 전도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신북교회 초대 담임 교역자 장기택 전도사와 이건신 권사, 초대 집사 박석원, 김용수, 이영선 집사, 김상섭, 정유오 권찰 등 주요 직분자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역사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신북교회 초대 성도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사진 속에 서려 있어 눈에 보이는 듯하다.

3) 담임 교역자의 부재

1953년 10월 7일 교회 창립에 크게 기여한 차광훈 목사는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계급이 중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이영선 장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면, 차광훈 목사는 군종참모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군 교회는 물론 지역 교회까지 돌아보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령의 열정은 군 교회와 함께 지역 교회를 여럿 세우기에 이르렀는데, 신북교회와 같은 해 창립된 천전교회도 함께 돌보았다. 이처럼 여러 교회를 책임지는 가운데 신북교회는 첫 전임 교역자를 1954년 새

16) 특히 장기택 전도사의 복음과 전도 사역이 열정적이었음을 박민옥 은퇴 권사 증언

해에 모시게 되었다.

1954년 1월에 부임한 초대 담임 교역자 장기택 전도사가 부임하여 교회 초기의 수고로운 사역을 담당하다가 1년여 만인 1955년 1월 30일에 사임(교회 연혁)하여 교회가 창립 1년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담임 교역자 부재 상태를 맞게 되었다. 장기택 전도사가 사임하기 일주일 전인 1월 23일 주일 아침과 저녁 예배 설교를 이영선 집사가 한 기록(예배 일지)으로 보아 장기택 전도사는 1월 30일 사임 일주일 전에 이미 강단을 떠났으며 신북교회 주변의 어느 교회로 옮긴 듯하다. 왜냐하면, 장기택 전도사가 그해 7월까지 부정기적으로 신북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설교했고, 신북교회 설립 목사였던 차광훈 목사도 백남훈 목사와 번갈아 가며 강단을 지켰으며 목회자 부재 시 간혹 집사까지 돌아가며 주일 아침 및 저녁 예배 설교를 해야 했다. 심지어, 수요기도회 설교는 주일학교 반사와 권찰이 하기도 한 기록(1955년 2월 20일 예배 일지와 그 외)이 있다.

박민옥 은퇴 권사의 회고에 의하면 “그때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늦춰지기 일쑤였는데 이는 다른 교회 담임 교역자가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 설교를 위해 오는 시간이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배 인원은 40~50명 선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만큼 성도들은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의 공동체였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성만찬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고린도교회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기다리며 인내할 줄 몰랐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이렇게 책망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전11:20,21) 저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기다리느라 시장한 사람도 있고, 먼저 먹고 마심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 고린도교회에 비하면 신북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예배를 사모하여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

로 성숙한 성도들이었다.

신북교회에 남아 있는 1950년대 마지막 기록(1955년 7월 17일, 7월 24일)인 교회 일지를 보면 1955년 7월 17일 주일 예배 인원이 아침 예배 75명, 저녁 예배 81명, 수요기도회에 72명, 7월 24일 주일 아침 예배 인원 남 34명, 여 42명 계 76명으로 예배 인원이 7월 10일 주일에 비해 갑자기 20여 명 늘어난 기록을 끝으로 안타깝게도 1950년대 예배와 교회 관련 자료가 보존돼 있지 않다.

초대 담임 교역자였던 장기택 전도사가 사임(교회 연혁)한 후 담임 교역자 부재 상태에서 교회 상황이 그 전의 주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해당 주일 예배 일지에도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배 인원이 평소 40~50명 선에서 7월 들어 70~80명으로 늘어난 것은 담임 교역자 사임을 앞두고 어려운 때일수록 직분자들이 헌신적으로 교역자 부재 상황을 메웠고 성도들도 모이기를 힘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신북교회가 창립한 지 2년이 안 되고 담임 교역자마저 부재인 상태에서 창립 예배 교인 수인 15명이 5배로 증가한 것은 교회 창립 배경으로 언급됐던 첫 번째 기록(자료 a)에 '본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열이 불붙게 됨으로'라고 썼던 복음을 향한 직분자와 성도들의 열정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결과일 것이다.

이후 신북교회에는 1년간 교역자가 공석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관리했던 청지기들이 과연 누구일까? 바로 초창기 교회 창립 성도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건신 권사가 교회의 어른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것은 이건신 권사에 대한 자료가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가 한 구절이 생각난다. 어떻게 신북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 신북교회를 섬기시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알 길이 없다. 더욱이 이건신 권사가 언제까지 신북교회를 섬겼는지도 잘 모른다. 해마다 촬영된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만한 남겨진 교회 자료도 따로 없으니 이건신 권사의 행적은 묘연하기만

하다.

장기택 전도사가 사임한 후 교역자가 공석인 상황이 6개월이 지난 1955년 7월 16일에 찍은 사진은 천막 교회 부흥회 후에 찍은 단체 사진이다. 교역자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부흥회를 열었다는 것인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진처럼 많은 성도들이 신북교회에 과연 있었을까? 박민옥 권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에 신북교회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한다. 초대교회 때에 부흥회의 특성을 보면 부흥회는 지역 잔치였다. 주변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강사 목사를 모시고, 찬양대도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다. 농사일을 품앗이하듯이 교회 부흥회도 지역 교회들이 함께 도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박민옥 권사의 증언은 정확하다. 당시에 지역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신앙 잔치를 열고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남대문교회 자료를 보면 '여전도회가 전도지역을 춘천지방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교회를 설립할 때에 대한신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전도

1955년 7월 16일 천막교회 부흥회 사진

대가 삼백만 구령운동의 일환으로 도운 결과로 보인다.'고 추론한다. 이러한 추론을 근거할 때, 1955년 7월 16일에 찍은 사진과 1955년 7월 17일, 24일의 갑작스런 예배 인원의 증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대한신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전도대가 삼백만 구령 운동의 일환으로 춘천지역에 와서 전도활동을 하며 심령부흥회를 실시한 것이다. 어쩌면 심령부흥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춘천에서 경험한 부흥의 불길과 소식은 고스란히 남대문교회에도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 외진 곳에 이제 막 설립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남대문교회에 신북교회는 거룩한 빚을 지고 있다. 남대문교회 부인전도회는 '1956년 2월 3일 수요예배 후 춘천 방면에 목사 2명과 전도사 2명으로 구성된 전도인 이흥수, 이배형, 김승규, 김중렬을 파송하였다.'[17]

이 중 김승규 목사는 1956년 2월 10일 신북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초대 장기택 전도사의 사임 이후 '1년' 만인 1956년 2월 10일 제2대 교역자로 김승규 목사가 부임(교회 연혁)했으니 그동안 담임 교역자 없이 교회와 강단까지 지켜야 했던 권사, 집사, 권찰, 반사[18]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노고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수고와 헌신은 여기서 끝날 수 없었다.

제2대 담임 교역자 김승규 목사가 부임 '1년 3개월' 만에 사임(1957. 5. 10. 교회 연혁)하고 제3대 담임 교역자 함익환[19] 목사가 부임(1958. 10. 20.)하기까지 '1년 5개월'이나 또 담임 교역자 부재 상태가 되었다. 교회 창립 이후 5년여 동안에 신북교회가 담임 교역자 없이 지낸 기간이 절반에 가까운 '2년 5개월'이나 되었다. 그 사이에 교회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교회가 말씀에 기초하여 바로 서기 전이고 성도들도 말씀에 믿음의 뿌

17) 남대문교회사 p.273
18) 당시의 주일학교 교사 명칭
19) 교회 공식 연혁 이름. 1970년 6월 25일 기록한 교회 연혁 기록에는 함익관으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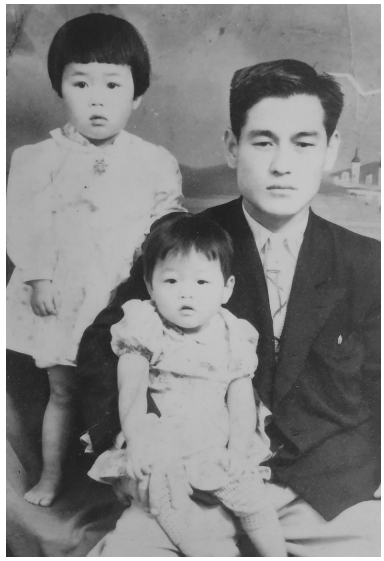
리를 깊이 내리기 전이라 교회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도 매우 힘들고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헌신되고 충성된 교회의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세우신 뜻을 따라 인내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길을 구하고 찾는 일을 계속하였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 신북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들의 고단했지만 그치지 않았던 연단과 훈련은 하나님께서 신북교회의 다음 시대를 열어 가시는 일에 영적으로 큰 바탕이 되었으며 실제로 신북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역자가 자주 바뀌고, 부재 상황이 자주 발생했을까? 객관적인 자료는 남대문교회사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춘천지역의 5개 교회들은 모두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였다. 서상교회, 사농동교회, 옥산포교회는 1963년 자립했고, 신북교회와 월송교회는 1974년에 자립했다고 '남대문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으나 신북교회는 1967년대 중후반인 정삼조 전도사 시무 시절 이후부터 교역자 부재 기간이 없었고 그 이전까지는 재정적으로나 교역자의 처우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이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다'는 경구처럼 신북교회는 초대 교회 청지기들의 눈물겨운 충성을 초석으로 삼아 그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담임 교역자 부재 기간이 길어진 탓에 교회의 행정은 물론이고 교회 전반의 체계가 부실해져서 초기 교회 역사 자료로 참고할 만한 기록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는 후대에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초대 교회에서 담임 교역자의 시무 기간이 짧은 데다가 부재 상태가 길어진 것이 안타깝기는 하나 교회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 담임 교역자들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그 당시 시골에 소재하고 있던 교회들은 모두 형편이 비슷했을 것이다.

4) 초창기 교회 집사들의 헌신


이영선 집사

신북교회 초창기에 집사로 임명받은 3명의 집사 중에 연장자였던 이영선 집사가 20대 중반이면서도 집사의 사역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다. 이영선 장로(현재 98세. 1964년 5월5일 소양성결교회 장로 장립. 현재 경북 상주 거주)의 증언(대담을 위해 집필자인 이창봉 담임목사와 편찬위원장인 백춘길 원로장로가 2025년 6월 26일 상주 자택 직접 방문)에 의하면 집사로 임명 전인 상태에서 천막교회를 세울 때부터 주도적으로 일을 했으며 산천리에서 공회당을 헐어서 자재들을 옮겨와 장거리에 재건축할 때도 모든 일을 앞장서 이끌면서 소요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본인의 사재로 충당하였다. 이영선 집사는 당시에 문방구를 운영하여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교회의 일에 감사함으로 나설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초대 담임 장기택 전도사의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이영선 집사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며 장기택 전도사가 신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신북교회 초기에 귀한 일꾼을 붙여 주셔서 교회가 시작부터 큰 힘을 얻도록 역사하셨음을 이영선 은퇴 장로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선 집사의 헌신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담임 교역자가 임지를 옮겨 강단이 비어 있을 때 그 강단을 책임지는 역할까지 감당했다. 이웃 교회의 담임 교역자와 군목들이 틈틈이 설교 지원을 하는 중에도 그들이 모든 예배를 책임질 수는 없었다. 이러한 예배의 공백이 생길 때 예배 인도와 설

교를 담당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였으며 담임 교역자의 역할을 대신한 일이 2년 이상일 때도 있었다고 하니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 받은 훈련이 밑거름이 되어 타 교회에서 장로 임직 후에 수많은 교회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설교를 했다고 이영선 장로는 증언했다.

하나님께서 신북교회 사역을 통해 훈련하셔서 후에 목사가 아니면서도 설교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영선 장로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

이영선 집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에 열심을 다하면서도 주일학교 사역에도 중심적 역할을 했다. 주일학교 초창기에 주일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반사들을 이끌고 다음 세대 교육에 힘쓴 결과, 유년주일학교 1회 졸업생 중에 목회자(이재원)가 나오고 그 목회자가 반사 시절에 가르친 제자가 또 목회자(박민재)가 되는 선순환이 신북교회 주일학교 초기의 교육에서부터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세우신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본 역사서 이야기 편에 등장하는 박민재 목사는 당시에 주일학교 반사들의 열정과 그들에게서 배운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반사들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있었다.

김용수 집사의 역할은 소개된 것이 없으나 주일학교 예배 일지(1954년 10월 10일)에 이영선 집사가 주일학교 교장일 때 김용수 집사는 교감과 회계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주일학교 교육 업무에서 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영선 장로는 김용수 집사가 지병으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석원 집사는 이영선 집사의 사역을 돕는 일에 충실하였으며 이영선 집사가 10년 가까이 신북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사업을 이유로 교회를 떠난(64년 소양성결교회 장로로 장립한 것을 볼 때 신북교회를 섬긴 기간은 10년이 못 됨) 후에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세 번째 벽돌구조 교회 건축에 크게 기여하며 1970년까지 교회의 집사 사역을 감당하다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서 신북교회를 떠났다. 초기 집사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

간인 20년 가까이 신북교회에서 헌신한 집사이며 이영선 장로는 박석원 집사가 후에 장로 직분으로 교회에 헌신하다가 소천(召天)했다고 박석원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5) 교회 유년주일학교 시작

해방과 6.25의 혼란기가 지나간 1955년의 신북면 인구는 16,127명(남자 10,902명, 여자 5,225명)으로 1944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남북분단으로 접경지역에 포함된 신북읍 지역에 군부대가 자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실향민들과 군인 가족들이 많았던 신북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거리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영혼들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는 신북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유년주일학교도 세워 주셨다. 신북교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1954년 12월 5일 기록한 교회일지인 반면, 주일학교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54년 10월 10일자 신북유년주일학교 일지이다. 이 일지를 보면 유년주일학교가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데 유년주일학교는 1953년 교회 창립과 함께 개교한 것으로 보인다. 신북교회 시작에서도 언급했듯이, 신북교회는 어린이 전도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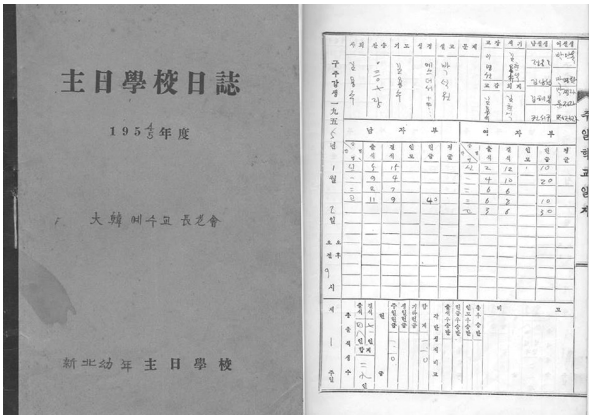
12평 천막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시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교육활동을 해야 했던 초대 교회 유년주일학교는 교육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지만, 반사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활동은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에 충분했다.

초대 교회 주일학교 첫 기록[20]인 주일학교 일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창립 당시의 기록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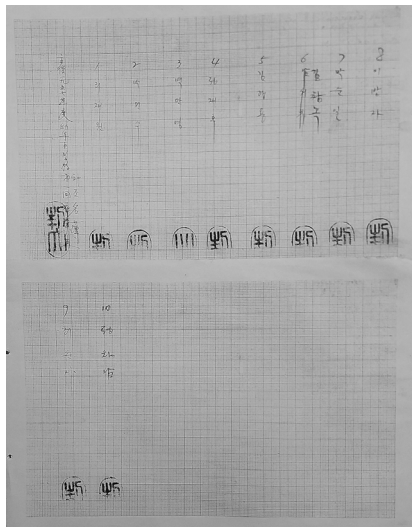
구주 강생 1954년 10월 10일 오전 9시,
교장 이영선, 교감 김용수, 서기 김춘식, 회계 김용수, 남선생 권서규, 정유오, 김해봉
사회 김용수, 찬송 307장, 기도 김용수, 설교 김용수,
예배 출석 총 학생 수 77명, 주일 헌금 110원,
남자부, 고등, 二 , 一, 신입반 계 4개 반,
여자부, 고등반, 三, 二, 一, 신입반, 계 5개 반,
출석 우승반 여고등반, 헌금 우승반 남자 고등반, 인도 우승반 남자반,
총 우승반 여고등반

이상의 기록을 볼 때 유년주일학교가 이미 정상적인 체계를 갖추고, 8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반별 경쟁심까지 유발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12평 천막에 80명 가까이를 수용했으니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인 모습은 콩나물 시루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950년대에 남아 있는 유년주일학교 일지 마지막 기록인 1955년 8월 14일 자 기록은 다음과 같다.



1954~55년 교회학교 일지

교장 이영선,
남선생 김해봉, 정유오, 남기영, 전예섭, 이긍하,
여선생 박영숙, 박민옥, 최규인, 박영환, 정정자,
출석 86인, 결석 65인 계 151인,
남자부 봉사반, 전도반, 인도반, 부흥반, 구원반, 신앙반, 신입반 계 7개 반,
여자부 여고반, 성결반, 겸손반, 사랑반, 헌신반, 소망반, 신입반 계 7개 반,
헌금 220원, 광고 - 오후에 예배 후 전도 강연과 활동사진 있습니다.



주일학교 1회 졸업생 명부

이 기록에 의하면 주일학교 반사와 학생 수가 1954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 반사들이 받은 달란트와 사명에 순전한 충성으로 순종한 결과일 것이다.[21] 1955년 9월 24일에 작성한 대한예수교 신북장로교회 남녀 유년주일학교 학생 일원 명부에는 남자 65명, 여자 68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고 그 이름 중에는 박민숙 은퇴 집사를 비롯해 광복 전후에 탄생한 동네 사람들의 이름이 다수 보이기도 하며 이영자 권사의 경우에는 언니 이정자 선생을 따라 교회학교에 출석하였으나[22] 명부에는 기록이 없다. 1957년도 유년주일학교 제1회 졸업생 명부에는 리재원, 박민수, 백만영, 정재후, 김광용, 감창녹 박순일, 이방자, 최춘자, 정차남[23] 등 10명의 이름이 등재돼 있고 명부의 이름 아래에는 대조 확인을 위한 간인(間印)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유년주일학교 졸업생 명부 등 교회 서류를 엄격히 관리했음을 알 수 있으나 거의 보존이 안 돼 있어 아쉬움이 크다.

6) 유년주일학교에서 목회자 배출 선순환

[편집자 註] 아래 내용은 신북교회 주일학교를 졸업한 후 신학을 공부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박민재 목사와 목사로 은퇴한 이재원 목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이다.

21) 반사 박민옥 이름은 1954년 11월 7일 일지 여선생 명단에 박명환, 박경자, 정정자, 윤정자와 함께 처음으로 등장한다.
22) 본인 중언
23) 김복순 집사 남편

상기(上記)한 주일학교 제1회 졸업생 명부 맨 앞에 등재된 이재원은 초등학교 시절 사랑마을에 거주하면서 초창기 신북교회 주일학교에 다녔다. 이재원은 주일학교 재학 시절에 이정자 선생에게 배웠음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24]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시절에 주일학교 보조 반사와 서기로 발탁될 정도로 신앙심과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제자 박민재를 가르쳤다. 이정자 선생은 신북교회 이영자 은퇴 권사의 큰 언니로 학생 지도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으며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재원은 군복무를 마치고 신북교회를 떠나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화목한 교회)와 러시아 선교 사역을 자비량으로 마치고 은퇴하였다. 시골의 작은 신북교회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큰 파장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당시 주일학교에서 이재원 선생에게 배운 박민재는 중학교까지 신북교회 학생회원으로 신북교회에 출석하다가 축구에 재능이 있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에 이어 선수 생활을 계속하다가 은퇴한 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는 뜻에 순종하여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 후에 10여 년 동안 부목사를 거쳐 경기도 일산에서 주사랑교회를 개척하여(1996년 3월 19일) 30년째 목회를 하고 2025년 연말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 박민재 목사는 주일학교 때 스승인 이재원 목사와의 인연을 현재까지 이어오며 같은 목회자로서의 경험과 영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초기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정자 선생의 기도와 헌신이 두 명의 목사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구원받은 심령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과 책임감의 가치와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음 사역의 영역이 어떻게, 얼마나 확장하여 갈지를 미천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므로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24) 1954, 55년 기록에는 '이정자 선생'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56년 이후부터 활동한 듯하다.

신북교회 초기 사역에서 신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큰 열매로 세상에 뿌려진 것을 보면 교회의 사명인 다음 세대 교육과 전도는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를 뛰어넘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1955년 초대 교회 주일학교 시절 박민옥 은퇴 권사가 반사로, 이영자 은퇴 권사는 학생으로 사제 간에 교회를 섬긴 흥미로운 상황도 있었다. 이 두 권사는 우리 교회 72년 전 천막 교회 시대 출신으로 서리집사를 거쳐 항존직 권사의 직분을 받아 교회에 충성하다가 은퇴한 후 지금까지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천연기념물 같이 귀한 청지기들이니 천국의 상급이 클 것이다. 두 분 은퇴 권사의 딸 오혜영과 민성혜는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목회자의 사모로서 사역의 길을 가고 있다.

신북교회 설립 성도(원년 멤버)라 할 수 있는 이건신 권사와 신북교회 초창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소재가 빈약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금산교회(춘천시찰 서면 소재)만 해도 교회 설립 초창기 성도가 3명이나 살아 계시다고 한다. 이 분들을 통하여 금산교회의 초기 역사를 구체적으로 더듬어 알 수 있지만, 신북교회 초창기의 상황을 소상하게 또는 증언할 사람은 현재 박민옥 은퇴 권사와 어린 시절 교회학교 학생으로 교회학교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이영자 은퇴 권사뿐이다.[25] 당시에 헌신했던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여기서 신북교회의 문화적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신북교회의 원년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은 새로운 인물들이 교회로 유입되어 교회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박민옥 권사와 이영자 권사도 신북교회의 버팀목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교회 어른으로서 교회 사정을 살피며, 새로 나오는 성도들의 면면까지 살피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권사로 여겨진다. 하지만, 박민옥 권사와 이영자 권사 외에 신북교회의 버팀목

25) 박민옥, 이영자 권사는 은퇴 후 이사를 간 윤계월 권사와 함께 1986년 5월 1일 신북교회 2대 권사에 취임하였다.

이 되신 분들은 신북교회에 유입되어 온 새 가족 출신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북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신북교회가 그들로 인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셨다. 교회의 주인은 초창기 설립 성도도 아니고, 부임해 온 교역자도 아니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어떤 인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과 함께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이다. 1960년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신북교회의 1950년대 초창기 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 은혜의 시기였으며, 이는 신북교회 72년 전통과 역사의 주춧돌이 되었다.

4. 신북교회 여명(黎明)의 시기(1960년대)

1960년대 신북교회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1969년 이전의 자료로 1964년 1월 5일 임연묵 전도사 부임(1966. 4. 9 사임), 1967년 2월 11일 정삼조 전도사 부임을 기록한 교회 연혁 두 줄과 1966년 학생, 청년 관련 일부 자료와 1969년 예배일지가 전부이다. 교회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예배일지와 회의록 등이 1969년 교회일지 외에는 전무하다. 때문에 당시 교회를 섬겼던 청지기들의 증언을 통해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박민옥 은퇴 권사의 증언과 1954년과 1955년 예배일지와 주일학교 일지를 중심으로 1950년대를 살펴보았다면 1960년대는 김익보 원로장로를 비롯한 일부 집사들의 증언과 1960년 예배일지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1969년 예배일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김익보 장로는 춘천시 삼천동 송암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의암댐 건설로 농사를 짓던 농토가 수몰되어 생업을 이어갈 농토를 찾아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받은 토지 보상 비용으로 신북면 율문리에 농토를 구입하여 신북면 율문리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신북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이때가 1967년의 일이다.[26][27] 김익보 원로장로가 신북교회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이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박석원 집사를 비롯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1960년대에도 교역자 부재가 반복되는 와중에 교회의 정체(停滯)라는 어두운 시절이 있었으나 1967년 2월 11일에 정삼조 전도사가 부임하고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1969년 새 성전 건축이라는 새 시대를 여는 여명의 시기를 맞게 된다. 하나님께서 정체나 침체의 기간 중에도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 준비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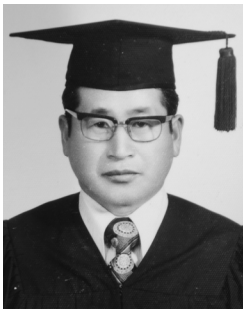
---

26) 의암댐은 1962년 3월에 착공하여 1967년 12월에 준공되었다.
27) 현재 신북교회의 부지가 김익보 원로장로가 당시에 구입했던 농토의 일부이다.

1) 정체(停滯) 중에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1960년대 초 신북교회의 정경을 보여주는 빛바랜 사진이 있다. 196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기념 촬영한 사진이 빛바랜 채로 남아 있는데, 이 사진은 누군가에게는 옛추억에 잠기게 하는 애틋한 기억의 소도구이겠지만, 당시 담임 교역자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신북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면 쓸쓸해 보이는 사진이다.

신북교회는 1960년대에 들어서서도 1950년대의 교역자 부재 상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교역자 부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로 인해 교회 전반의 정체(停滯)를 피할 수 없었는데 제4대 담임 교역자로 원응호 전도사가 부임한 지 1년 5개월 만인 1961년 5월 1일에 사임하였고, 제5대 담임 교역자로 임연묵 장로(춘천성광교회 임직 - 춘천성광교회 연혁)가 장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28] 담임 전도사로 부임(1964. 1. 5)하기까지 '2년 7개월 동안' 교회 창립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담임 교역자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앞에서 언급한 1961년 12월 25일 촬영한 사진에는 신북교회 교역자를 찾아볼 수 없다. 비슷한 시기의 목조 교회 사진들은 거의 신북교회 교역자 부재 중에 찍은 사진들이다. 사진 속에서 누가 봐도 교역자라고 할 만한 모습을 갖춘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마도 임시방편으로 신북교회의 예배를 도왔던 교역자였던 것 같다.


원응호 전도사

임연묵 전도사

박민옥 권사의 증언에 따르면 담임 교역자 부재 기간에 신북교회는 천전교회와 함께 공동 교역자를 모셨다고 한다. 군인교회를 섬기시던 목회자가 주일 오전에 신북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오후에는 천전교회에서 예배를

28) 후에 광나루장신대학교 졸업 후 목사 안수. 춘천동부교회 원로 임신영 목사가 자신의 숙부로 증언

인도하고 주일 오전에 천전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오후에는 신북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식으로 번갈아 가며 예배를 담당했다고 한다. 왜 이렇게 했을까? 김익보 원로장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신북교회는 재정적으로 교역자를 모실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남대문교회사에는 1974년에 신북교회가 재정 자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교회로서는 교역자의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부족했기에 순회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에 믿음이 좋은 군인이(통신사병 반채현) 교회학교를 책임지고 섬기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29]

임연묵 전도사가 2년 3개월 동안 사역하고 사임(1966. 4. 9)한 후 제6대 정삼조 전도사가 부임(1967. 2. 11)하기까지 10개월 동안 또 담임 교역자가 부재 상태였다.

신북교회가 1960년대를 시작하고 1967년까지 8년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3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교역자 없는 교회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진정한 목자이긴 하셨지만 교회에는 현실적으로 성도들을 돌볼 교역자가 없었으므로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목자 없는 목장이나 다름없었다. 담임 교역자의 재임 기간이 길어야 2년 남짓인 데다가 교역자 부재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교회를 유지 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 관리는 물론 교회의 행정 또한 부재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30]

교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 또는 정체될 수밖에 없었지만 비록 소수의 제직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유지되었으며 이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을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31]

---

29) 실제로 반채현 사병이 언제 신북교회를 섬겼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김익보 장로의 증언이 일목요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의문에 대한 답은 될 수 있다. 교회가 교역자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끝에서 부른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교역자의 빈자리를 채우셨다.

30) 교회 개척 직후인 1956년부터 1968년까지 10여 년간 교회의 보존 문서가 전무(全無)하다시피 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31) 1969. 1. 5. 주보를 보면 제직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석원, 백봉원, 김익보, 이정철, 백승욱, 민경천, 방극민, 허봉원, 안정자, 박민옥, 권순덕, 윤계월, 김정희, 김신주 14명이었으며 1968년 제직 명단에 있지만 1969년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권선병, 송우금 2명이었다. 이 중에 박석원, 김익보, 민경천, 백승욱, 백봉운, 박민옥, 윤계월 집사는 1970년 직후 또는 현재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다.

10여 명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외연(外延) 확장보다 교회 내부적으로 예배 설교자를 섭외하는 일에서부터 예배 설교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일 외에도 성도들의 심령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사명감에 노심초사했던 일들은 신북교회가 다음 시대를 열어 가는 데에 큰 연단이 되었을 것은 자명(自明)하다. 그 연단은 헛되지 않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있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신북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 교회 초대 집사로 임명을 받은 박석원, 김용수, 이영선 집사 중에 박석원 집사는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 초반까지 교회의 예배 일지와 제직회의록에 계속 기도자로 이름이 남아 있다. 김용수, 이영선 집사는 60년대 말 이전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이영선 집사는 1964년 소양성결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된 것을 보면[32], 이미 1960년대 초반에 신북교회를 떠났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1950년대 신북교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던 분에 대하여 이렇다 할 감사 표시나 평가의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럴만한 여력과 생각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북교회 초창기에 충성을 다해 신북교회를 섬겼던 이영선 당시 집사가 혹시나 갑자기 교회를 떠났다기에 신북교회를 떠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어 이영선 은퇴 장로에게 조심스럽게 신북교회를 떠난 이유를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었다. 춘천 시내에서 처음으로 기성 양복점을 차려서 가계를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1960년대 신북읍의 인구를 보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단 인구조사 방법이 바뀐 탓도 있겠지만, 실제로 신북읍을 떠나 근처 춘천 근교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1950년대 초대 신북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간 일은 담임 교역자 부재와 맞물려 시대적 분위

32) http://www.soyang.or.kr/bbs/viewPage/4 (1964.5.5. 장립)

기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일은 이영선 집사가 춘천 시내로 가게를 옮기고 교적까지 옮겼지만 그 자녀들은 여전히 신북교회에 출석하며 학생회 활동까지 했다는 점이다.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를 따라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라면, 당시에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교회 출석을 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요즘처럼 자가용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시절이 아니기에 자녀들은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다.

이영선 집사와 달리, 교회의 초창기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을 시종 헌신으로 일관한 박석원 집사는 신북교회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인내하며 견뎌내서 신북교회를 소망의 시대로 이어준 충성된 종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용수, 이영선 집사가 보여준 그 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김용수, 이영선 집사도 그에 못지않은 신북교회의 초대 청지기로서 신북교회가 기억해야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암울하게 보내던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시련이 찾아왔다. 사울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알게 된 왕후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개는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저지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왕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했다. 당시에 왕후가 임의로 왕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고, 왕이 왕후를 찾을 때만 왕 앞에 알현했다. 이런 궁중 예법을 따라 모르드개의 요청을 거절한 에스더에게 모르드개는 유명한 말을 했다. “만약에 이때에 네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네가 이때에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엄중한 요청을 했다. 이에 에스더는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세우려던 하만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신북교회를 책임질 만한 담임 교역자의 부재가 반복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청지기들을 사용하셔서 신북교회를 지켜가게 하셨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신북교회를 돌보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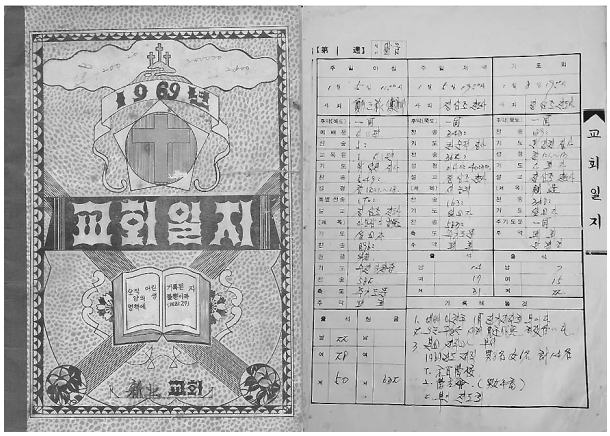
1960년대 중반 이후 교회에 제직 13명을 세우신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재의 상황을 제직들을 중심으로라도 지켜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때의 제직 13명은 바벨론 포로 암흑기에 별과 같이 빛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인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었다. 이처럼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지켜갈 일꾼을 굳건히 세워주신 신북교회의 초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와 함께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역사로 기록되기에 손색이 없다.

정삼조 전도사

교회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 2년 8개월의 공석 끝에 담임 교역자로 부임한 임연묵 전도사는 2년 3개월 만에 사임하고, 담임 교역자 공석 10개월 만에 정삼조 전도사가 1967년 2월 11일에 부임했다.

2) 소망의 새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는 신북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키시기 위해 1960년대 중반까지 신북교회를 고난의 과정에서 단단하게 하신 후에 새로운 성전 건축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1969년의 새 성전 건축은 1960년대의 신북교회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었다. 이전 시기까지 교역자 부재 기간이 길었던 영향으로 교회의 질적·양적 성장이 거의 답보 상태에



1969년 교회일지

있었다. 이는 1969년 주일 아침 예배 참석 인원이 평균 40~50여 명[33]이었고 그해 제직도 14명(남 8명, 여 6명 임명. 1969년 1월 4일 주일 예배 일지)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예배 참석 인원이 교회 창립 초기 이후의 규모와 비슷하고 제직 숫자만 소폭 늘어난 상태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제직들에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 신북교회가 다가올 새 시대에 새 비전을 크게 품고 구원 사역에 매진하라는 시대적, 사회적 명령으로 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하셨다. 신북교회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삼조 전도사 부임 2년째인 1969년 4월에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교회 연혁 기록)[34]하고, 성전 건축 부지 297평(율문리 256-22번지. 구 성전 터)을 매입하여, 5월 4일 주일 오후 2시(1969. 5. 4 예배 일지)에 교회로서는 세 번째 성전 건물인 예배당(40평) 신축 기공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 신축 기공 예배가 천막 교회, 목조 건물 교회에 이어 세 번째이기는 하지만,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버티고 견뎌온 고단한 세월을 돌아보며 성도들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는 이전의 두 예배당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1969년 4월 6일 부활주일 예배 일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배 인원 남 13명, 여 24명 계 37명. 헌금 196원.
> '기록해 둘 것'란
> 1. 부활주일 축하 예배드리다. 2. 건축 위하여 헌금하다. 151,400원+300.
> 3. 강원노회 모이다.
> ※ 학생회 29명 헌금 85원. 유년부 40명 헌금 113원

여기서 건축헌금 금액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예배에서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1969. 4. 27), 건축 헌금 내용(1969. 4. 20) 등 건축 관련 광고를 계

33) 예배 일지
34) 교회는 이미 3월 30일 주일 예배 광고를 통해 '오는 주일은 부활절과 교회 신축 헌금 드리다.'고 광고하며 건축 계획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

속하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 교회가 모든 것을 집중했다.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린 다음 주일 예배 광고로 '교회 건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니 기도와 많은 헌신이 있기 바랍니다. 내일(월요일)은 모래 싣는 일이 있으니 하실 수 있는 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예배 일지)라며 성도들에게 건축 공사에 기도와 노력 봉사로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하였다.

벽돌 교회 건축(정삼조 전도사)

당시 학생회 고3이었던 신이향 은퇴 권사(창원 명곡교회 출석)는 학교를 파한 후 교회에 와서 벽돌에 물 뿌리기 봉사를 했고, 학생회원들은 토요일 하교 후 교회에 모여 군부대에서 지원한 트럭을 타고 산천리 냇가에 가서 교회 바닥에 깔기 위한 자갈과 돌멩이를 저녁이 될 때까지 트럭에다 맨손으로 실어 나르는 작업을 힘이 드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해냈다고 회고하고 있다. 교회부지를 구입하고 40평 규모의 벽돌 구조 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재원[35]을 마련한다는 것은 당시의 교회 규모로서는 만만치 않았

35) 건축 예결산 등 건축 관련 자료와 기록이 없음

을 것이다. 하지만 기공 예배를 드린 지 2개월 남짓 동안 교회 건축에 쓸 벽돌을 직접 제작해 가며 속도감 있게 건축을 진행하여 6월 28일 오후 2시 30분에 교회 건물에 대들보를 올리는 상량식 예배(1969년 6월 29일 주일 예배 일지)를 드리고, 7월 27일에 신축 중인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당시 예배 일지를 보면 학생회 첫 여름 수련회(1969년 7월 29~8월 1일) 광고가 실렸다. 7월 29일 학생회 수련회도 창호와 바닥 공사 전인 가운데 신축 중인 성전에서 바닥에 널빤지를 깐 채 정삼조 전도사 인도로 출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장소로 출발했다.(김종찬 은퇴 장로 회고. 당시 학생회장) 교회 신축 공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기공 예배 5개월 만에 40평 규모의 예배당을 '10월에 완공하였다.'(교회 연혁 기록) 완공 후에도 성도들은 새 성전에 종탑을 구 성전에서 옮겨 세우기 위해 전쟁 직후 흔했던 포탄 피를 용접으로 연결해 세웠던 7~8미터 높이의 종탑에서 종만 분리하고 종탑을 통째로 500미터도 넘는 거리의 신축교회로 들어서 옮겼으며 학생회원들은 교회의 울타리로 심을 노간주나무를 캐기 위해 김익보 집사의 경운기를 타고 마적산을 오르내리기도 하였다.(1970년 3월 29일 주일 광고 - 4월 4일 토요일 오후 두 시에 교회 울타리 나무 캐러 갑니다. - 예배 일지)

전 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위한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한 섬김을 체험으로 터득하며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키워 갔다. 나의 땀과 노력을 직접 들여가며 건축한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자부심과 애착과 감사의 마음은 교회 곳곳에 배어 있는 성도들의 손길과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올려졌다.

그렇게 지어진 교회의 신축 과정에 크게 힘을 보탠 청지기가 당시 집사 신분으로 1967년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김익보 집사였다. 교역자 부재와 기둥 같은 일꾼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 장차 신북교회가 새 성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김익보 집사를 신북교회에 보내신 것이다. 김익보 집사는 춘천동부교회 집사 출신으로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샘밭으로 이주하면서 교회에 출석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서리집사로서 특유의 근면과 성실로 건축의

여러 과정을 내 집처럼 세심하게 살폈다. 교회 건축을 주도했던 김익보 당시 집사는 셋째 아들(영찬)이 군용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큰 슬픔 중에서도 받은 사망 보상금을 교회 건축에 보탰으며 춘천동부교회 김유찬 담임목사가 김익보 집사의 부친과 고향이 같은 평안남도였던 인연으로 김익보 집사가 신북교회로 이명하기 전 춘천동부교회에 출석할 때부터 각별한 사랑을 이어오며 교회 건축에 도움을 주었고, 고향 향우회에서도 교회 건축 소식을 듣고 건축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김익보 원로장로는 생전에 증언하였다.

이는 교회 건축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교회 건축에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기여했지만 소양강댐 건설 소장 부인이었던 한성순 집사가 신북교회에 출석했던 덕분에 소양강 댐을 건설하면서 파낸 모래 등의 자재를 교회 건축에 사용할 수 있었고, 미군 부대 군용 트럭의 지원으로 소양강 자락과 산천리 하천에서 큰 돌을 주워다가 기초공사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학생들도 하천에서 돌을 주워 트럭에 실으며 교회 건축에 작은 힘이나마 보탰고, 이는 수시로 건축 현장에 나와 노력 봉사를 했던 성도들의 추억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장면이다.

건축 당시에 박석원 집사를 포함하여 백봉운, 백승욱, 민경천, 허봉원 집사 등도 충성으로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성도들은 교회가 새 성전 건축 전후로 1년 내내 건축헌금을 계속하였고 건축위원회 모임도 자주 가지며(1969년 예배 일지) 예배당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았다. 정삼조 전도사는 교회의 담임 교역자로서 교회 건축을 앞장서서 주관했지만 교회의 준공을 앞두고 교회의 비전에 계속 함께하지 못한 채 9월 30일 사임하였으며, 양구 도천교회로 임지를 옮긴 것으로 신북교회 연혁은 기록하고 있다. 정삼조 전도사는 2년 7개월이라는 짧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신북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새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전 건축 과정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와 헌신으로 담임 교역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그 사역의 결과 지금의 신북교회가 있음을 깊이 감사하며 현재의 충성스러운 사역이 후대 교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백승욱 원로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신북교회는 정삼조 전도사가 신북교회를 떠난 후 천안의 모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신북교회 성도들이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축하패를 제작해서 백승욱 장로가 안수 예식에 직접 참석하여 정삼조 목사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에서 정삼조 전도사가 교회를 떠난 데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교회 전경

3) 부인전도회와 청년회 활동

1960년대 교회 자치기관 및 부서의 활동을 교회 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969년 첫 주일인 1월 5일 예배 광고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예배 마친 후 1월 정기 제직회 모이다.
2. 오는 주일은 새해 월정 작정하겠습니다.
3. 본교 제직과 부서 - 1969년도 제직 남 8명, 여 6명 계 14명.
   부서 - ㄱ. 주일학교 ㄴ. 학생회(남녀 중고) ㄷ. 부인전도회

위 기록에서 보듯, 신북교회가 1969년 새해에 제직 14명을 임명하였으며 세 개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부인전도회가 조직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예배 일지 곳곳에서 인력으로 봉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부인전도회 회원들의 헌신과 결단을 위해 매월 부인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첫 헌신 예배 상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사회-박민옥 집사, 기도-부회장, 설교-정삼조 전도사, 설교 제목-부인의 도리'였으며 헌신 예배의 사회는 매월 박민옥 회장이 보았고 예배 기도자로는 '부회장, 회원 중, 권순덕 집사, 은경 할머니, 전주서 오신 분, 윤계월 집사, 김정희 집사, 이 집사' 등 다양하게 기도를 담당하였다.

1969년 이전인 1966년 자료는 청년회 조직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1966년 1월 30일 기록에 청년회장-송충남, 총무-박석원, 서기-서병주, 회계-안정자로 정식 조직은 하였으나 활동 자료는 없으며 교회 조직에 주일학교가 있었으나 1950년대의 전례로 보아 활동 내용은 어느 기관보다 활발했을 터인데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4) 학생회 활동

학생회는 1966년 자료 기록 중에 중고등부장 김신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고등부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활동 기록은 없다. 학생회(당시 명칭 학생면려회) 조직과 공식 활동은 1968년 11월에 처음 조직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1969년 예배 일지 '11월 9일 광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란에 '창립 1주년 기념 학생회 헌신예배'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학생회 출신인 신이향 은퇴 권사(창원 명곡교회)의 회고에 의하면 신이향 은퇴 권사가 고2 때인 1968년에 신이향을 회장으로 '학신회'라는 명칭의 학생회를 조직하여 활동했으나 남학생이 회장을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두 달 후인 1969년부터 고1 김종찬 회장, 고3 신이향 부회장으로 학생회가 재편되었다. 그러니 공식적인 학생회의 출발은 1968년 11월이 되는 것이다.

신이향 은퇴 권사는 중학생 시절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하며 교회 봉사에 열심이어서 토요일 오후에는 늘 교회에 나와 주보를 가리방[36]으로 써서 등사기로 등사(謄寫) 해 예배를 준비하고, 들꽃을 꺾어다가 강단을 장식했으며 교회 예배당 청소를 학생회 회원들이 많이 담당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가녀린 손길로 어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손수 해내며 믿음의 내면을 키워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회도 부인전도회와 마찬가지로 매월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에서 지도하여 1969년 1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예배 일지)를 학생회 조직 후 첫 헌신 예배(사회 김종찬 회장, 기도 신이향 부회장)로 드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헌신 예배 후에 예배 후 행사로는 첫 기록으로 보이는 '성경 구절 찾기 대회'를 개최하여 1등 신이향, 2등 사모님, 3등 이영자가 입상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학생회 예배에 모인 학생 수는 같은 해 4월 예배 일지에 28명으로 보고하고 있고, 학생회 지도교사는 허봉원 집사(동년 7월에 있은 학생회 여름 수련회 인솔 사진)였다.

학생회가 출범하고 두 번째 해인 1969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중도'에서 회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수련회를 실시했다. 수련회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으면서 수련회 활동을 했다. 백춘길 원로장로(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회고에 의하면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여 큰 천막과 군용 A텐트를 치고 취사를 위해 큰 솥을 거는 일 등을 학생들이 직접 삽을 들고 해냈다. 궂은 날씨에 눅은 땔감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한 석유가 필요해서 서승목(고3)과 백춘길(고1)이 석유를 사러 아랫동네로

36) 1960~70년대 주보 제작 등에 사용하던 필기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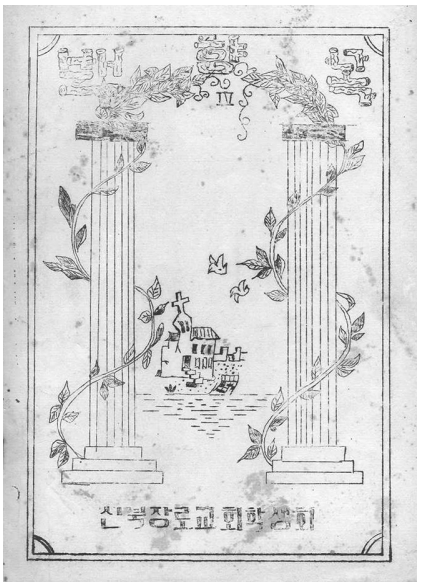
1969년 학생회 수련회

심부름을 갔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서 내려갈 때 건넜던 길을 돌아올 때는 물이 불어나서 건너지 못하고 일행에게 상황을 전할 수도 없어 급한 대로 민가를 찾아가 찬밥을 저녁으로 얻어먹으며 하룻밤을 묵은 후 이른 아침에 텐트에 돌아왔을 때 지도교사 허봉원 집사와 학생들은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 반기듯이 눈물 반 웃음 반의 기쁨과 감사로 둘을 맞아주었다. 지난밤 허봉원 집사와 학생회원들은 비바람에 쓰러질 듯한 텐트를 붙잡고 폭풍우 속에 돌아오지 못한 두 명의 회원과 수련회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했다. 두 사람의 간밤 이야기를 들은 지도교사와 회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입을 모았다. 허봉원 집사와 일행들은 물론이거니와 수련회를 보낸 교회의 걱정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이 가지만 비바람 속에서 밤새워 텐트 기둥을 붙잡고 울부짖어 하나님을 찾으며 수련회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던 학생들에게는 하룻밤 사이에 이미 수련회의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았다. 당시 수련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에게는 학생회 시절 가장 추억에 남는 사

건이었다.

학생회원들은 크리스마스 시기만 되면 늘 신이 나 있었다. 김익보 집사네 비닐하우스에서 새벽 송을 돌 때 사용할 십자가 등을 비롯해 소품을 만들고, 죄의식도 없이 한밤중에 사랑마을 뒷산에 몰래 들어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쓸 작달막한 소나무를 베어 오기도 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교회에서 밤을 새우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새벽에 전원이 4~5개 조로 나뉘어 추위를 무릅쓰고 새벽 송을 돌며 성탄 찬송으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가정에서는 새벽 이른 시간인데도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다과로 정성껏 대접을 하기도 하는 것이 성탄절에 전해오는 풍습이었다. 학생들에게는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당연하고도 즐거운 일이었고 부인회에서는 이들을 위해 성탄절 새벽밥을 해 먹이느라 교회가 성탄절 새벽부터 시끌벅적했었다.

학생회는 문화 활동에도 열심이었다. 학생들이 자력으로 스스로의 글들을 모아서 '백향목'이라는 문집 창간호를 1969년에 발간했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해였음에도 지도교사 허봉원 집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열성적인 활동이 귀한 책으로 엮어진 것이다. 백향목의 창간호부터 3호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4호(1973년 초 발간), 7호(1977), 10호(1984), 12호(1990)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백향목 4호

백향목 제4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종국 강도사의 말씀과 학생들의 기도와 고백과 간증 등 시와 산문 30여 편을 묶어 60페이지 분량으로 발간하였으며 모든 작품들을 직접 철필(鐵筆)로 가리방(당시의 등사 도구. 일본어)에 써서 등사판에 일일이 밀어 스스로 제본

까지 했다.[37] 이런 일들을 학생들 스스로 해내면서 학생들은 신앙과 공동체성을 배우고 키워 갔으며 이 외에도 학생들은 교회에서 매월 학생회 월례 회의를 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예산의 수입지출 관리 및 보고까지 직접 담당하면서 자치 능력을 키워 갈 수 있었다. 백향목 4호에 기록하고 있는 학생회원의 수가 조중현 회장을 비롯해 91명으로 규모가 상당했었고 지도교사는 김종찬 학생회 부장이었다. 교회가 사실상 사회화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교회에서 학생회와 청년회를 거치면서 자치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할 때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먼저 경험했던 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학생회 임원들은 주로 고등학생들이 담당했었는데 그들을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조 반사로 임명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훈련받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요즘의 시대에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때는 교회의 사역 중에 학생들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많았고 학생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었다. 학생들이 교회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에다가 직접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어른들의 봉사에 보조 역할을 해왔던 것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에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는 과정으로써 신앙 성장에 중요한 훈련이 되었던 것이다. 학생회원들이 교회 사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부딪혀 경험하며 성장한 일꾼들이 후에 교회에서 목회자, 항존직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며 교회의 미래는 교회학교에 있음을 절감한다. 교회학교가 제자 양육의 선순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언제나 유효하다 할 것이다.

37) 창간호 이후 21년째에 발간한 12호는 101페이지 분량으로 개인 필체의 글을 옵셋 인쇄 형식으로 발간했다.

5. 성장의 토대 구축 및 성장기(1970년대)

신북 지역의 인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큰 계기는 바로 '군부대의 주둔'과 '댐 건설 사업'이었다. 6.25 전쟁 이후 신북읍 지역에는 미군 공병 부대가 주둔하여 지역사회 재건에 앞장서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신북교회는 이러한 미군 부대의 혜택 가운데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북 지역에서 미군 부대가 빠져나가자 지역 경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북교회도 성도 유출이라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이 시기에 교회 원년 성도에 해당하는 이영선 집사 같은 경우에는 소양성결교회로 교적을 옮긴 후 장로로 임직했다.) 하지만, 그나마 2군단이 들어오게 되고 군인 가족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큰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신북 지역은 군부대와 함께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이런 혜택을 신북교회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특별히 신북교회가 군부대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02보충대대'가 신북교회 근처로 이전한 것이다. '102 보충대대'는 1951년 3월에 제주도 모슬포에서 '제1훈련소'로 창설되었으며, 1953년 8월 12일 춘천시 근화동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7년 12월에 춘성군 신북면 율문리(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로 이전하여 1987년 10월 14일 춘성군 신북면 용산리(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로 이전하기까지 20년간 율문리, 즉 신북교회 근처에 위치했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변화는 신북교회에도 새바람을 일으키며 신북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군인 가족들이 유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와 맞물려 '소양강 댐 건설'이라는 새로운 변화도 함께 일어났다. 소양강 댐은 1967년 4월에 착공하여 1972년 10월에 완공되었는데 소양강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 지역 사람들과 건설 현장 인부 등 많은 인원이 춘천으로 유입되었고[38], 유입 인구의 증가는 소양강 댐 현장

에 속하는 신북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처럼 '102보충대대의 이전'과 '소양강 댐 건설'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타고 신북교회는 이제 비상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신북교회가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삼아 비상할 줄 아는 감각과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변화의 바람이 분다고 한들 변화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혜와 새바람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용기가 없다면 비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신북교회에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현실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에 주눅 들거나 위축되거나 함몰되지 않고, 불어오는 새바람을 성령의 바람으로 느끼며 주어진 현실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통하여 신북교회는 '새 성전 건축'이라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을 거침없이 뗐다.

이제 신북교회는 변화의 새바람에 몸을 맡기듯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새바람에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 시작하며 1970년대를 희망차게 열어간다.

1) 제7대 담임 교역자 박우만 강도사 부임, 새 성전 봉헌, 강원노회 개최

신북교회는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희망찬 소망의 1970년대를 출발하였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짓고 싶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 일치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교회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맞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역량을 채워 주시면서 성전 건축은 비로

38) 춘천의 1968~1975년 총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1968년	1969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5년
35,650명	36,638명	40,327명	39,549명	40,138명	38,725명	38,225명	41,004명

소 가능하다.

신북교회가 1960년대를 거치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비록 외형적으로는 미약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신북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계획을 은밀하게 세우시고 준비하셨는데 '새 성전 건축'이 이를 증명한다.

새 성전을 완공하며 정삼조 전도사의 후임인 박우만 강도사가 신북교회 제7대 담임 교역자로 1969년 10월 1일 부임(교회 연혁)하였다. 담임 교역자의 공백 없이 부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담임 교역자 부임이 녹록치 않았던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으며, 신북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있어 중단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박우만 강도사는 부임하자마자 이미 시작된 교회 건축의 준공 작업에 몰두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도에 전념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새 성전 마무리 작업은 완공 후에도 다음 해까지 이어졌다. 학생회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텐을 설치하고(1970년 6월 7일 주일 예배 광고 학생회에서 정성을 다해 교회 커텐을 했습니다.) 온 성도들은 '8월 중에 교회 종각과 교회 마루 손질하기'(1970년 8월 2일 정기 제직회의록)를 결의하며 마무리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허봉원 집사는 이미 교회를 떠나 제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벽걸이 괘종시계를 헌물하는(1970년 1월 18일 광고. 예배 일지) 등 예배당을 꾸미고 마무리하는 일에 온 성도들의 즐거운 헌신이 계속 이어졌다.

교회의 면적이나 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했을 터인데 교회는 1970년 7월 제직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 9월 첫째 주에는 부흥회를 열기로 가결하다.
(2) 교회 부채 청산을 위해 헌금하기로 하다.
(3) 교회 의자는 8자로 6,700원에 하여 20개 맞추기로 하다.

새 성전에서 부흥회를 통해 소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도들 각자의 심령에는 성령의 불을 지피며, 성전 헌당과 온전한 예배를 위해 믿음으로 전력(全力)을 다해 헌금하면서 헌신하였다. 그 결과, 예배당 완공 1년 만에 건축비 소요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예배당 헌당식을 겸하여 강원노회를 본 교회에서 할 것을 결의'(1970년 9월 6일 정기 제직회의록)하기에 이른다. 1970년을 시작하며 품은 새로운 소망이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실로 이어지는 감격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다.

강원노회를 신북교회에서 개최한 기록이 교회에는 없으나[39] '강원노회 역대 노회 임원 및 노회 장소' 자료에 의하면, 1970년 10월 7일(수)~9일(금)까지 2박 3일간 '제34회기 강원노회'를 신북교회에서 개최한 기록이 있다. 다음은 1970년, '34회기 강원노회'를 신북교회가 개최하기 전 강원노회 개최 기록만 발췌한 표이다.

회기	노회장소	일 시	회기	노회장소	일 시
1	원주읍중앙	54. 5.25~26	18	원주제일	62.10. 9~11
2	**춘천동부**	54.11. 9~10	19	원주중앙	63. 4. 9~11
3	춘천성광	55. 5. 3~4	20	춘천성광	63.10. 8~10
4	춘천제일	55.11. 8~10	21	**춘천동부**	64. 4. 7~9
5	양구읍	56. 5. 8~9	22	**천전**	64.10. 6~7
6	원주제일	56.11. 6~8	23	원주제일	65. 4. 6~9
7	원주제일	57. 5. 7~8	24	부평	65.10. 5~6
8	옥산포	57.11. 5~7	25	춘천성광	66. 4. 5~6
9	**춘천동부**	58. 5. 6~7	26	**서상**	66.10. 4~5
10	춘천제일	58.11. 4~6	27	원주중앙	67. 4. 4~5
11	춘천성광	59. 5. 5~6	28	원통	67.10. 3~4
12	**춘천동부**	59.11. 3~5	29	**춘천동부**	68. 4. 9~10

39) 1969년 주보 묶음자료 이후 보관 중인 주보 묶음 자료는 1975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1970~1974년의 주보 묶음 자료는 소실되어 주보를 통한 그 당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회기	노회장소	일 시	회기	노회장소	일 시
13	**춘천동부**	60. 5. 3~5	30	원주제일	68.10. 8~9
14	춘천성광	60.11. 5~7	31	춘천성광	69. 4. 8~10
15	원주제일	61. 5. 9~10	32	**춘천제2**	69.10. 8~9
16	**금산**	61.11. 7~9	33	원주중앙	70. 4. 8~10
17	**춘천동부**	62. 5. 8~10	34	**신북**	70.10. 7~9

춘천동부교회가 강원노회를 7번 개최하는 동안 신북교회는 한 번도 강원노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게다가 현재 춘천시찰에 속한 교회들인 금산교회, 천전교회, 서상교회, 춘천제2교회(영광교회로 개명 전)가 강원노회를 개최하는 동안에도 신북교회는 강원노회를 개최하지 못했었다. 교회 공간이 노회를 개최하기에 협소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이런 배경 아래서 '창립 17주년'이 되는 '10월 7일 수요일', 바로 그날에 노회에 참석한 전 노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으니 신북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벅찬 감격은 필설(筆舌)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터이다. 게다가 신북교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강원노회를 유치하여 노회 개최를 겸하는 성전 봉헌 행사였으니 성도들로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었다.

이날의 감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한 후에 지켰던 유월절에 비견할 만하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이 시급한 일임을 잘 알았다. 하지만, 이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방해와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후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후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였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이전 영광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여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출발하였다.

신북교회가 전도 모임 장소였던 임시 예배처에서 시작하여 천막 교회와 목조 교회를 거쳐 명실공히 성전다운 모습의 벽돌 구조 교회를 완공하여 강원노회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기까지 17년이 걸린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과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비록 17년의 세월을 신북교회와 함께한 성도는 많지 않았지만[40], 하나님께서는 신북교회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셨다.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1972년 부활절 기념 – 박우만 목사와 함께

이제 어려운 변화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자.

40) 어쩌면 다음 세대 중에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증언도 자료도 없으니 안타깝지만 알 수 없다.

2) 박우만 강도사 목사 안수와 교회 성장

신북교회 '제7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한 박우만 강도사는 부임 이듬해 신북교회에서 개최한 강원노회에서 목사안수(1970. 10. 7. 신북교회 교역자 첫 목사 안수)를 받고, 그다음 해에 신북교회의 '초대 위임목사'(1971. 5. 8 취임)로 취임하였다. 박우만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신북교회 담임 교역자로서는 최초로 강원노회 제35~36회기(1971. 4. 7 ~ 10. 8. 강원노회 역대 임원 자료) 임원으로 선임되어 노회 서기로 섬기게 되었다.

이는 성전 건축과 함께 위임목사까지 모신 신북교회가 노회 내에서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만큼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1970년 9월 정기 제직회의록에 의하면 그때만 해도 노회를 2박 3일간 진행했는데 '노회 기간 중 노회원의 식사는 본 교회에서 제공하기로 하다.'고 결의하였으며 10월 정기 제직회에서는 '10월 7일 헌당식 때 부인회에서 떡과 인력 봉사를 하고, 선물 수건 60원 150개 예정하고 준비하기로 하다.'고 결의한 것으로 보아 신북교회는 헌당식을 겸해 유치한 강원노회를 정성껏 섬겼다. 이처럼 성도들의 즐거운 헌신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이 이후에도 보인다. 그해 11월 정기 제직회의록에 '본 노회에서 실행하는 말세 부흥집회 건은 본 교회가 11월 23일 최용구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기로 하고 강사 접대 경비는 제직 중에서 지출하기로 하다.'고 즉석에서 결정하니 제직들이 십시일반으로 3,000원을 작정했다(동 제직회의록).

이처럼 신북교회는 노회 이후에도 노회가 사업을 추진할 때 섬기는 교회로서 역할을 자원하여 솔선수범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강원노회에서 신북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가늠케 하는 일이었다. 신북교회의 사역이 성전 봉헌 이전까지는 교회 내부적인 사역에 치중하였던 것에 비해 성전 봉헌 이후 교회의 사역이 노회를 섬기는 영역으로 확대될 만큼 성장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교회가 성장한 만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신북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크게 쓰임 받을 역량을 갖추

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북교회에 '초대(初代) 장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강원노회 개최 석 달 전인 7월에 신북교회가 장로 후보자로 선출한 김익보 피택 장로가 1970년 10월 7일 신북교회에서 개최한 제34회기 강원노회에서 장로 고시에 응시하여 피택 석 달 만에 합격(강원노회 30년사 147페이지 장로 고시 합격자 명단)하였다.

제34회기 강원노회는 신북교회가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성전봉헌, 목사 안수, 장로 고시 합격까지, 이 모두가 신북교회의 새로운 성전에서 진행되어 노회원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북교회가 조직 교회로서의 출발을 명실공히 선포하는 뜻깊은 노회였다. 그러나 강원노회 30년사에는 신북교회에서 개최한 노회 기념사진이 수록되지 않아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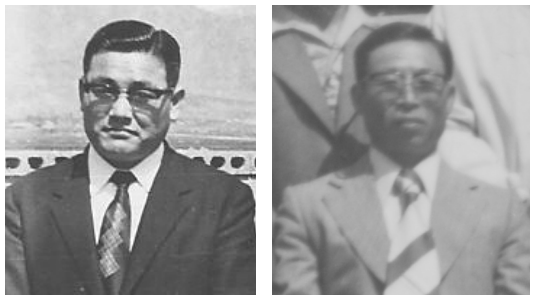
3) 박우만 목사 위임과 김익보 초대 장로 장립

1970년의 교회 출석 성도 수는 1960년대 말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1970년 첫 주인 1월 4일 예배 일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를 적극 권면하고 있다.

> 주일 아침 예배 참석 인원 – 남 20명, 여 21명, 계 41명, 헌금 555원,
> 신년도 제직 남자 – 백봉운, 백승욱, 김익보, 박석원(4명)
> 여자 – 박민옥, 윤계월, 안정자, 김정희, 유희재. 이영자(6명) 계 10명,
> 권찰 – 김신주(1970년 교회 직원 명부에는 없음[41]), 이덕규, 이귀녀 계 3명.
> 성도들에게 신년도에는 한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1/10조를 드립시다.
> 성경학교에 많이 입학해서 공부합시다.

41) 85쪽 71년 신북교회 제직 명단

'1월 11일 주일 광고란'에는 1969년 전도하신 분 '이정자', '김승찬', '서승목', '박민옥'에게 시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교회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집사 10명 규모의 신북교회가 40평 규모의 벽돌 구조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하여 봉헌할 수 있었던 헌신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우만 목사와 김익보 장로

교회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다음 해인 '1971년 5월 8일(토)'에 담임 교역자 박우만 목사를 신북교회 초대 위임목사[42]로 모시는 위임예식과 김익보 집사를 초대 장로로 장립[43]하는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새 시대를 새 직분으로 열어가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받들게 된다.

박우만 목사는 강도사로 부임해서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개월 만에 위임목사로 취임하고, 김익보 장로는 신북교회에 출석한 지 4년여 만에 집사 직분에서 장로의 직분에 세워진 것을 보면, 교회를 향한 담임 교역자와 집사의 충성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한 결과이다. 나아가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교회로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께서 두 청지기에게 교회의 미래를 기꺼이 맡기신 것이다.

'교회일지 1971년 5월 9일 자'에 5월 10일[44] 목사 취임식 및 장립식. 출석 인원 남 73명, 여 72명 계 145명으로 기록하여 위임예식과 장립 예식이 하나님 앞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

42) 지금은 장로 2명 이상의 당회 조직 교회만이 위임목사를 세울 수 있으나 당시에는 당회 조직과 관계없이 위임목사를 세울 수 있었던 듯하다.

43) 1969년 11월 13일 예배 광고 - 제31회 강원노회에서 장로 1명 허락을 받다. 1970년 7월 19일 예배 일지 - 장로 투표 김익보 집사 25표로 선출했다고 광고

44) 교회 연혁에는 5월 8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5월 8일(토)을 10일(월)로 오기(誤記)한 듯하다.

신북교회가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창립 후 17년 동안 '제직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추진해 오던 체제였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장로교회답게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조직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신북교회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조직 교회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식을 준비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억누를 수 없는 감사의 마음과 신북교회 성도라는 큰 자긍심을 크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신북교회 역사상 첫 당회는 당회 구성요건인 장로 장립(1971. 5. 8)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해 1월 5일에 개회하고 서기 김익보 장로가 당회록을 기록했다. 이는 피택(彼宅) 장로(상기(上記)한 1970년 7월 19일 주보 광고)를 인정해서 임시방편으로 당회를 소집하여 새해 직분자를 임명하는 협의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45]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당회록

1971년 1월 5일 요일

회의 내용

제1회 당회록(정월 정기)

주후 1971년 1월 5일 본 당회가 본 예배당 내에서 당회장 박우만 목사의 사회로 출석 2명, 결석 0명 개회됨을 선언하다.

결의 사항

신년 서리집사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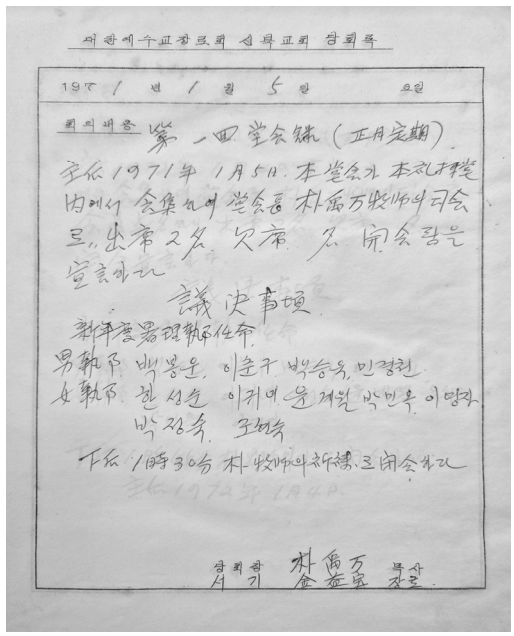
남 집사 백봉운, 이춘구, 백승욱, 민경천

여 집사 한성순, 이귀녀, 윤계월, 박민옥, 이영자, 박정숙, 조현숙

하오 1시 30분 박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다.

당회장 박 우 만 목사

서 기 김 익 보 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당회록

1971 년 1 월 5 일 요일

회의내용 第一回 堂会録 (正月定期)

主后 1971年 1月5日. 本堂会가 本礼拜堂内에서 会集하여 堂会長 朴禹万牧师의 司会로, 出席 2名 欠席 名 開会됨을 宣言하다

議決事項

新年度 署理執事任命

男執事 백봉운, 이춘구, 백승욱, 민경천

女執事 한성순 이귀녀 윤계월 박민옥 이영자 박정숙 조현숙

下后 1時30分 朴牧师의 祈禱로 閉会하다

主后 1972年 1月4日

당회장 朴禹万 목사

서기 金益宝 장로

1971년 1월 5일 첫 당회록

45) 현재 헌법 기준으로는 정식 당회는 장로 장립 후에 가능하지만, 85쪽 당시 '직원명부'를 보면 김익보 피택 장로를 '준직원'으로 등재하여 '서리집사'와 구별하였고, 두 명의 직원으로 당회를 열었다.

신북교회의 첫 당회록은 역사적 사료(史料)로서의 의미를 가지기에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뜻이 있겠다.

신북교회의 '제1회 당회'는 첫 결의로 남 집사 4명, 여 집사 7명 임명을 결의했다. 하지만, 1971년 제직 명단을 기록한 '직원명부'를 보면, '김유찬(당회장)', '박우만(임시목사)', '김익보(준직원)', '백승욱(이하 서리집사), 민경천, 이춘구', '박민옥, 윤계월, 조현숙, 유희재, 이귀녀, 이영자, 김재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당회록과 직원명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71년 1월 제직회의록'에 제직회 부서 조직과 구역 편성, 전년도 예결산 보고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한다.[46]

먼저 전년도 예결산 보고 내용(총 세입금 422,688원, 지출 400,021원 잔액 22,667원)을 보면 당시의 예산 규모로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전에도 부서 편성과 담당자 임명은 했었겠지만 기록으로는 처음 보이는데 제직회 서기 백승욱, 회계 김익보, 기록 민경천, 주일학교 담당 김익보, 학생회 담당 박우만, 청년회 담당 백승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역장은 구역 활동 초기여서 그랬는지 구역별로 2개월씩 담당하는 것으로 기록했다. '1월 제직회의록'에 1월에 1구역 박민옥, 2구역 윤계월로 하고, '2월 제직회의록'에는 '3월 구역장'으로 1구역 이덕규 권찰, 2구역 유희재 집사로 기록하고 있다. 구역예배 인도자로는 1구역 민경천, 백승욱, 2구역 김익보, 이춘구, 조현숙을 임명하였다. 이 외에도 부흥회 집회는 매년 1회씩 하기로 하되, 금년(1971년)은 9월 20일에 실시하며 이를 위해 '교인 배가 운동'을 결의하고, 3월에는 배가 운동에 적극 협조와 새신자 인도자에게 시상할 것을 결의했다.

제직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북교회가 내적으로는 구역예배를 통해 성도와 가정들을 보살피고, 외적으로는 교회의 전도 운동에 적극 참

46) 1960년대 '제직회의록'은 보존되어 있지 않음.

여할 것을 권면하며 성도 배가(倍加)에 힘을 모으고 있다.

여전도회에서는 매월 말일을 '전도 심방의 날'로 정하고 교회에서는 신북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을 3개 구역으로 재편성하며 각기 책임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심방하는 일을 하도록 제직회가 결의했다.

특이한 것은 학생회가 집회 불참자에게 벌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내용을 제직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청년회는 회원들이 부족하여 별 전망이 없음'을 제직회에서 걱정한(1971년 10월 제직회) 것으로 보아 당시 교회의 주요 관심사에 다음 세대가 포함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8일에 있을 장로 장립식을 앞두고 예산으로 '5만원'을 책정(1971년 5월 제직회의록)했던 기록이 있고, 교회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해안교회' 보조를 위한 특별헌금을 결의한 것으로 보아 강원노회 내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도 교회가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교회 내적으로는 조직 강화와 부흥을 위해, 외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해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던 박우만 목사는 신북교회 당회장으로서 1972년 1월 4일 '제2회 당회'를 소집하여 1972년 신년도 서리집사 임명(남 집사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백봉운, 이춘구, 백승욱, 민경천 계 4명, 여 집사에 한성순, 이귀녀, 윤계월, 박민옥, 이영자, 이정순, 유희재 계 7명, 총계 11명[47])을 결의하고 '제2회 당회'를 끝으로 고향인 영남 지역의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며 신북교회 당회 구성 1년 만인 1972년 4월 2일에 사임했다.

박우만 목사는 신북교회의 헌당과 강원노회 유치, 노회 임원 취임 및 조직 교회의 출발이라는 굵직한 사역을 통해 교회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 교회의 기본이 되는 교회 행정에서도 손색이 없었고, 신앙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닦아 교회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탁월한 담임 교역자로 교회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당회장 유고 상태에서 '1972년 4월 2일 제3회 당회록'은 춘천동

47) 교회의 '직원명부'에 나오는 1972년 명단은 당회록과 차이가 있다. 직원명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박우만(당회장), 김익보(장로), 백승욱(이하 서리집사), 민경천, 이춘구, 이용일(남 4명), 박민옥, 윤계월, 조현숙, 유희재, 이영자, 한성순, 이귀녀, 김재순, 이정순, 박정숙.(여10명), 총 14명

부교회의 당회장으로 시무 중이었던 김유찬 목사가 신북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어 당회를 소집해서 '박우만 목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의'하고 박우만 목사는 진해교회로 전임한 내용을 당회록은 기록하고 있다.

4) 제8대 담임 교역자 이종국 강도사의 부임과 사역

신북교회 임시 당회장 김유찬 목사는 1972년 5월 29일에 '제4회 당회'를 소집해서 신북교회 담임 교역자로 이종국 강도사를 모시기로 가결하였으나, 이종국 강도사는 당회의 결의 전에 이미 부임하여(교회 연혁 1972년 4월 28일 부임) 1972년 5월 7일에 정기 제직회의 회장으로서 제직회를 이끌고 있다. '5월 제직 회의록'에는 '4월 제직회를 개회하지 못해 서기 기록이 없음'으로 기록하여 박우만 목사의 4월 초 사임과 이종국 강도사의 4월 말 부임 사이에 4주간의 공백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직회를 개회하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1973년 1월 4일, 임시 당회장 춘천동부교회 김유찬 목사는 신북교회 예배당에서 '제5회 당회'를 소집하여 1973년 서리집사로 남집사에 백봉운, 이춘구, 최진도, 백승욱, 유근재, 민경천, 박광장, 김영희(계 8명), 여집사에 김현옥, 길수희, 한성순, 이귀녀, 이정순, 윤계월, 유희재, 오경란, 박민옥, 윤을중, 이영자, 박정숙, 조현숙(계 13명) 총 21명을 임명하였는데[48] 이는 지난해 11명 임명에서 두 배에 가까운 숫자를 임명한 것이며 신북교회 서리집사가 처음으로 20명을 넘게 된다. 이처럼 서리집사뿐만 아니라 성도수가 증가한 일은 신북교회로서는 교회 창립 20년 만에 고무적이고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는 신북교회가 1970년대를 열어가면서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받은 은사(恩賜)를 따라 필요한 청지기를 세우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의 영역을 넓혀 가시려는 뜻과 계획을 이종국 강도사와 신북교회에 제시하신 것이다.

48) 70년대 직원 명부를 보면 박복순 '협동전도사'가 기록되어 있으나, 당회록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1973년 2월 5일의 '제6회 당회'는 임시 당회장 이치백 목사(춘천성광교회 당회장) 주재로 개회하여 2월 10일에 성례를 거행하기로 하고, 수세자와 학습자 준비를 결의하였다. 1973년 3월에는 교회 조경을 위해 3월 17일 오후에 교회 정원 관상수로 전나무 15그루, 단풍나무 6그루, 회양목 40그루를 식수한 기록(1973년 3월 18일 예배 일지)도 있다. 현재까지 구 성전 앞에 높이 솟아 있는 전나무는 1973년 3월에 식수한 것으로, 올해가 52년째임을 알 수 있다. 조경수로 심은 나무는 성도들이 개인별 헌금으로 구매해서 심고 나무에 기증자의 이름도 기록했던 것으로 백승욱 원로장로는 기억하고 있었다.

70년대에 심은 전나무

이종국 강도사는 청년들과 소통이 원활했고 선한 인상에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진심이었다(당시 청년들의 회고). 이러한 성품은 담임 교역자의 영적 리더십과 함께 교회의 양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국 강도사가 부임하여 1973년 중반 사임하기까지 1년 1개월 만에 신북교회는 성도 수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장은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했다. 1970년대 배경을 살피면서 언급했듯이, '102보충대대'가 교회 근처로 이전하였고, 소양댐 건설로 침수지역 사람들이 신북지역에 정착하면

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신북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02보충대대의 이전이나 소양댐 건설로 인한 인구 유입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기에 신북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이유를 대외적인 요인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신북교회의 갑작스러운 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은 당시 교역자였던 이종국 강도사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시 예배 일지에 의하면 장년부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한 인원으로 1973년 1월부터 5월 27일(이종국 강도사가 사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한 날)까지 주일 아침 예배 참석 평균 인원이 '80명'이었으며, 1월 21일 주일에는 장년부 '117명'(예배 일지)이 예배에 참석하였다. 이것은 이종국 강도사 부임 전인 1971년, 1년 동안 주일 아침 예배 참석 인원이 '연평균 5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내에 있었던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사역의 영역도 넓어지기 마련인 만큼 1973년 제직도 이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배나 되는 인원을 임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처럼 큰 변화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여 이제 신북교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참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종국 강도사는 부임하여 1년 남짓 시무하다가 갑자기 사임하였다. 신북교회가 역사 편찬 작업을 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내에서 그의 행적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으나 찾을 수 없어 신북교회 역대 교역자 사진에도 실을 수 없음이 매우 안타깝다.

그렇다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목회자로서 손색이 없어 보이는 이종국 강도사가 왜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사역지를 옮겨야만 했을까?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기억의 조각들은 저마다 다르다.

목회자의 사임과 부임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은 각자의 영적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종국 강도사가 신북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교회 역사를 함께 더듬으며 교회의 흑역사를 진실 그대로 밝히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백승욱 장로를 만나 뵙게 됐을 때 이종국 강도사가 갑작

스럽게 교회를 떠난 이유를 조심스레 물었다. 누구보다도 교회의 역사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아시는 백승욱 장로가 교회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시며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셨다. 그런데 이종국 강도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북교회와 영적으로 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국 강도사는 신북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으로 결이 맞지 않을 때 이를 잘 분별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당회의 역할'이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와 감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담대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다. 백승욱 장로도 처음에는 이종국 강도사의 사임 처리에 대하여 주저하였지만, 결국에는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일시적인 성장과 부흥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단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역사에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이종국 강도사가 사임하지 않고 목회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교회는 더 성장하는 듯했겠으나 신북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 성전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확실한 은혜였다.

5) 제9대 담임 교역자 김은일 목사 부임

김은일 목사가 육군 군단급 군종참모 직함의 군목을 마지막으로 군에서 전역하고 1973년 6월 1일 신북교회 '제9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였다.(교회 연혁. 당회의 청빙 결의 기록은 없음) 김은일 목사는 군목 시절인 1960년대에 미국 군목학교에 유학할 정도로 영어에 능통하였고, 1970년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 예배를 드릴 때 미군 목사의 설교를 한국군에게 통역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전역 전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기도 하였다.[49]

김은일 군목(중령), 월남전 참전

김은일 목사는 군종참모로서 중령이라는 계급이 풍기는 권위와 엄격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특유의 온유한 성품과 친화력으로 당시만 해도 농촌 교회의 분위기와 정서가 지배적이었던 신북교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에 안성맞춤인 담임 교역자였다. 김은일 목사는 2군단 군종참모로 봉직하면서 거주지를 신북교회 주변에 정하였던 관계로 그 가족들은 이미 신북교회에 출석하면서 조현숙 사모는 1971년에 서리집사로 임명받아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교회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

김은일 목사

김은일 목사는 신북교회 부임 전에도 군목 신분으로 신북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성도들에게 권면(1970년 12월 27일 예배 일지)과 설교(1971년 12월 19일 예배 일지)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1971년 1월 제직회'에서는 '김은일 목사님 월남전 참전 기념 선물로 금 십자가 반 돈을 증정'하기로 하는 등 당회원과 제직 및 성도들 사이에 이미 친숙한 교제를 넘어 신북교회가 김은일 목사를 교회의 일원으

49) 1997년 11월 7일 발행 김은일 목사 은퇴 기념 설교집 사진

로 인정하고 서로 섬기며 교제하던 친밀한 관계였다. 가족 같은 김은일 목사가 부임하고 신북교회는 담임 교역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혼란과 진통 없이 안정적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 비록 군목 출신으로서 군인을 대상으로 목회했지만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 경험이 풍부했기에 이미 위임목사를 세워 봤던 신북교회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목회자를 모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됨에 따라 신북교회는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기를 맞았다. 김은일 목사의 부임으로 신북교회가 이전까지 구축했던 성장의 토대 위에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시발점을 맞게 되었다.

김은일 목사는 부임 첫 주일인 '6월 3일 주일 예배'에서 '베드로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의 첫 설교로 신북교회 목회를 시작했다. 부임 첫 주일 아침 예배에 장년부 102명이 참석(예배 일지)하였다.

'1973년 9월 15일 제7회 당회'는 '김은일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하고 10월 14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가결하였다. 1973년 10월 7일 예배 일지에는 '10월 14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개최하니 세례 교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광고하고 있다. 1973년 10월 14일 공동의회에서는 '김은일 목사님 위임목사 공동의회, 사회 이치백 목사님, 선거결과 세례 교인 참가 수 37명 중 찬성 37명 만장일치로 당선되시다.'로 예배 일지에 기록하고 있고, 당일에 개회했던 '제8회 당회의 당회록'에는 공동의회 결과를 기록하며 '김은일 목사 위임투표 재적 52명 찬성 37명 반대 0명으로 가결하다. 장로 1인을 청원하기로 함.'으로 신북교회에서 박우만 초대 위임목사 이후에 두 번째로 김은일 목사가 담임목사 청빙 3개월 만에 위임목사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김은일 위임목사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로 1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회가 허락하여 줄 것을 청원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당회록은 위임목사 투표 결과와 함께 1973년 10월 14일 당시에 신북교회 세례 교인이 52명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은일 목사는 부임 후 첫 당회(제9회 정기당회)를 1974년 1월 1일 소집해서 1974년 서리집사 20명을 임명 결의한 데 이어, 1975년에는 24명을 임명하는 등 제직들을 보강하며 사역에 필요한 청지기들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했다.

김은일 목사 부임 초기에 임명한 서리집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1974년 (20명)	남(7명)	백봉운, 이춘구, 최진도, 백승욱, 유근재, 민경천, 박광장
	여(13명)	김현옥, 길수희 한성순, 이귀녀, 이정순, 윤계월, 유희재, 오경란, 박민옥, 윤을중, 이영자, 박분선, 우덕순
1975년 (24명)	남(9명)	백봉운, 이춘구, 백승욱, 유근재, 민경천, 김청호, 신상근, 이태봉, 박광장
	여(15명)	최언연, 김현옥, 박귀남, 김갑순, 길수희, 이귀녀, 이정순, 윤계월, 유희재, 박민옥, 윤을중, 이영자, 우덕순, 김영현, 이범자

6) 성가대 창단과 역사(1973~2019)

[편집자 註] 신북교회 역사 기록 편의상 성가대 46년의 역사를 한 꼭지로 엮는다.

신북교회 성가대는 이종국 강도사가 시무 중인 1973년 2월 18일 주일예배 시 특별찬송 순서에서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50].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후 신북교회 '제8대 담임 교역자'로 이종국 강도사가 부임(1972. 4. 28)하고 주일 대예배 인원이 80명 내외일 정도로 교회가 서서히 영적(靈的), 양적(兩的)으로 성장해 가던 시기였지만 신북교회가 아직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가대를 조직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이때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 와 교회에 정착해 가며 집사 직분을 받았던 최진도 집사[51]가 예배에 성가대의 필요성을 적극 제

50) 1972년 6월 제직회에서 성가대 의자 문제를 논의한 것을 보면 찬양대 조직 계획이 1972년에 이미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기존에는 '성가대'라는 용어를 교회가 많이 사용했지만 후에 찬양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51) 후에 춘천 성광교회에서 장로 장립 후 은퇴

기[52]하면서 성가대를 조직할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성가대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신북교회를 성장시키신 결과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에는 새 가족, 기존 신자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1974년 성가대 – 지휘 김종찬, 반주 서명철

교회에서는 최진도 집사를 성가대장으로 임명하고, 2군단 예하 부대에서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에 신북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김영성 군인(병장)을 성가대의 초대 지휘자로, 고화순을 반주자로(1973년도 주보) 임명하였고 대원들을 임명하여 성가대를 조직했다. 창단 대원으로는 조현숙, 박민옥, 윤계월, 박광장, 서승목, 이문자, 김종찬, 서명철, 백춘길, 김승찬, 박근숙, 강원옥, 김혜란, 오혜영, 조한옥, 오경희[53] 등 20명 정도였으며 1973년 10월 14일 자 주보에는 '성가대 2대 지휘자와 반주자로 김종찬과 서명철을 임명하였음'[54]을 기록하고 있다.

성가대가 처음 조직될 때 대원으로 섬겼던 분들 가운데 2025년 현재까

52) 성가대 창단 대원들의 회고
53) 1974년 2월 25일 심령대부흥회 기념사진 참고
54) 김영성, 고화순은 9월 30일자 주보까지 기록

지 신북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은 박민옥 은퇴 권사, 조현숙 사모, 박광장 원로장로, 김종찬 은퇴 장로, 박근숙 은퇴 권사, 백춘길 원로장로이다. 성가대원 중 조현숙 사모, 박민옥 은퇴 권사와 은퇴 후 대구지방으로 이사를 간 윤계월 은퇴 권사를 제외하고는 당시에 전원이 청년, 학생이었다. 박민옥 은퇴 권사와 조현숙 사모는 당시 학생인 딸 오혜영, 김혜란과 모녀지간에 성가대를 섬겼으며, 두 딸은 후에 우리 교회 성가대 반주자를 거쳐 목회자와 결혼하여 사모로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은퇴했거나 감당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어머니의 깊은 헌신과 기도의 본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결과이다.

신북교회 성가대가 현재의 '할렐루야 찬양대'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이 1990년대 후반으로 보이지만[55], 하나님을 향한 신북교회의 예배가 성가대와 함께 풍성해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신북교회가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창단 이후 성가대 조직을 주도하며 성가대 초대 대장으로 섬겼던 최진도 집사가 1974년 7월 춘천성광교회로 이명(이명 대장) 후 제2대 성가대장으로 민경천 집사(1975년 주보)가 임명되었으며, 지휘자의 임명은 각각 김종찬(1973), 최창준(1976), 서명철(1977), 백춘길(1980), 민병철(1999)로 이어졌고, 반주자는 서명철(1973), 주영희(1977), 김혜란(1978, 부반주자로 1983-김은숙, 오혜영), 오혜영(1985, 부반주자 이춘자, 김은숙, 1986 부반주자 민성혜, 1989 부반주자 김경남) 반주자를 거쳐, 1990년대에는 반주자로 박미정(1994), 박자경(1996)에 이어 부 반주자로 김선숙, 김수정, 김송미, 이정숙 등을 임명한 기록(예배 주보 광고)이 있다. 부 반주자는 주로 성가대보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또는 수요, 금요 예배 반주자로 섬겼다.

신북교회 성가대가 1970~90년대에는 이웃 교회의 부흥회에 초청을 받아 부흥회 찬양 순서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신북교회도 부흥회 때 이웃 교회의 성가대를 초청하여 은혜를 나누기도 하여 교회들 사이에 찬양대 교류가 활발하였다.

55) 요람 자료 중 가장 오래된 '1999년 요람'을 보면 '할렐루야 찬양대'라 부르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부흥 운동 기인 20세기 중반부터 찬양대 명칭이 일반화되기 시작.

이 시기는 성가대를 섬기는 지휘자부터 반주자까지 비전공자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보니 찬양의 수준은 음악적 완성도보다 믿음과 열심으로 봉사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가대원들은 실력이 부족해도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믿으며 성가대를 섬겼다.

2000년대는 성전을 새로 건축하여 예배당의 환경이 크게 개선된 2004년부터 현재의 예배당에서 더 완성도 있는 찬양으로 섬겼다. 구 예배당에서부터 섬겨 온 찬양대 구성원들에다가 찬양대원들을 계속 보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찬양대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찬양대로 면모를 갖추었다. 감동의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성도들과 예배의 감동을 공유하면서 찬양대의 규모나 수준이 전에 비해 많이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이었으므로 비록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사명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대외적인 행사에도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춘천 월드비전에서 춘천 지역 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교파를 초월하여 주관했던 '제33회 춘천 연합 찬양 축제'에 참가(2019년 11월 2일 춘천문화예술회관)한 일이다.

제33회 춘천 연합 찬양 축제 – 할렐루야 찬양대

이는 신북교회 찬양대가 춘천시 변두리 지역의 소규모 교회로서는 유일하게 시내의 규모가 큰 교회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초유의 일이기도 하였으며 찬양대원들은 물론 찬양대와 함께했던 성도들까지 교회의 달라진 위상을 새롭게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9년 12월부터 전국을 휩쓸었던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예배 모임이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주일 예배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생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신북교회도 3년 이상 예배 중 찬양대의 찬양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었다.

7) 사택 건축과 교회에 연보 보내기

신북교회는 김은일 목사를 신북교회 위임목사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목사님 사택 건축위원회를 1973년 10월 20일 밤에 소집하기'로 광고하였다.

당시의 사택은 세 번째 벽돌구조 교회 본당 바로 뒤에 있었던 '一 자'형 주택이었으며, 방 2칸에, 부엌 1칸 규모로 김은일 목사 가족(4남 1녀) 일곱 식구가 거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김은일 목사를 신북교회의 위임목사로 결의한 이후,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사택 건축'이었다.

1974년 '1월 제직회'에서는 '사택 신축 문제는 건축위원회에 일임하여 2월 정기 제직회 때에 설계 및 신축비 일체를 보고하여 특별헌금을 하도록 한다.'고 결정하여 사택 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택 특별헌금은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는 부흥회 기간에 하기로 '2월 제직회'에서 결정했다.

이후 제직회에서는 3월에 건축 헌금 통계를 보고하고, 4월에는 '건축 자재 벽돌 2,000장을 구입하기'(4월 제직회의록)로 했으며, 10월에는 '사택 건축

은 헌금대로 목재를 사기로 하고, 사택 건축 중간보고를 다음 주 광고 시간에 하기'로 하는 등 연중 사택 건축 문제를 논의했다.

1975년 '5월 제직회'에서는 '8월 중 사택 건축 예상액을 산출 후, 헌금하며 부족분을 대부받기로 하고, 9월에는 건축 헌금을 제직회에서만 하기로 하는' 등 사택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건축 헌금을 하며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러한 고심 끝에 1976년 8월에 비로소 사택 건축이 '9월 완공 예정'임을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사택 20평을 11월 30일에 건축한 것으로 교회 연혁은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사택 건축에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40평 성전을 '5개월 단기간'에 건축하였던 것에 비하면, 사택의 규모에 비해 많은 건축 소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성도들이 또 다시 건축비를 부담하기에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사택 준공 전인 '9월 12일 임시제직회'에서는 '사택 건축비 총 소요액 130만 원 중에 현 소유액은 30만 원이고 부족액 100만 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 제직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10월 제직회'에서는 '사택 헌금 11월 말 주일에 하기로 하고 사택 헌금 및 재정 서기로 박광장 집사를 선정'하며, 다시 '12월 12일에 임시제직회'로 모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는 등, 사택 준공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신북교회의 성전 건축과 사택 건축 과정을 보면 성경과 묘한 일치를 보이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성전이 지어질 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소요되었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1년'이 소요되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다윗의 준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분명한 목적과 함께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였다. 하지만, 이후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할 때는 이미 백성들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상태이며, 왕궁 건축의 명분 또한 성전에 비할 바는 되지 못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에 소요된 기간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기간이 왕궁 건축에 소요되었다.

신북교회의 성전 건축은 단 5개월 만에 이루어진 반면, 사택 건축은 만 3년 만에 이루어졌다. 교회 건축 이후 어려운 형편에 성도들이 가졌을 부담도 컸을 터이고, 그런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기에 사택 건축이 당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어진 사역에 매진하신 김은일 목사의 인내 또한 참으로 귀하다. 교회는 담임목사의 필요를 헤아리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실함으로 주어진 사역에 매진하는 목회자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신북교회는 내부적으로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외부적으로도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신북교회는 '1971년 7월 해안교회 보조를 특별헌금으로 충당한다'는 제직회 결의를 시작으로 1970년대에 강원노회 내의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연보를 보냈다. 1974년 4월 6일 제직회에서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교회 건축 헌금 보내기 건은 6월 30일 주일 헌금을 보내며', 12월 제직회는 '영월 개척교회에 3,000원을 송금키로 하고', 1975년 5월에는 '개척교회(금산)에 5,000원을 보내기로 하였으며', 1979년 9월에는 '제2교회 건축비로 50,000원을 헌금하기로' 하는 등 다른 교회의 개척이나 건축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다.

비록 적은 금액의 연보였지만 신북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에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아낌없는 도움을 받았던 소중한 기억을 살려 신북교회보다 더 어렵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에 대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마음을 보낸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당연하면서도 아름다운 헌신이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이웃의 어려움을 보며 돌보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사랑일진대 신북교회는 그 사랑의 실천에 소홀하지 않았다.

신북교회의 천막 교회 시절에 서울 남대문교회로부터 적지 않은 연보를 지원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던 신북교회로서는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신북교회가 성전 건축에 이어 사택 건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대출을 받아야 할 만큼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노회 내 교회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이제는 지원을 받았던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지경을 넓혀 노회는 물론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8) 김은일 목사 위임과 교회의 안정적 성장

신북교회는 김은일 목사가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김은일 목사를 신북교회의 두 번째 위임목사로 모시기로 당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동의회에 상정하니 만장일치로 결의(1973년 10월 14일 공동의회와 당회)하였다.

'1973년 10월 14일' 자로 작성한 위임목사 청원서에 의하면 세례교인 수 52명, 교인 총수 270명에 생활비 60,000원, 투표 현황 가표 37, 부표 0. 세례 교인 42명이 서명한 '날인 연명부'를 강원노회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그 후 3년 이상이 지난 1977년 3월 25일(금) 12:00에 비로소 위임예식을 거행했다(예배일지). 위임예식에 필요 예산은 김익보 장로와 제직회 그리고 여전도회가 부담하기로 했다. 예식 준비를 위해 교회 수리 및 대청소는 남 집사들이 담당하도록 하는(3월 5일 제직회의록) 등 위임예식에 필요한 준비를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예식에 필요한 경비를 교회 재정보다 개인과 기관이 출연하고, 부족분은 교회의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은일 목사의 온유한 성품과 성실 근면을 특징으로 하는 목회를 통하여 위임이 결의된 이후 3년 9개월을 지나면서도 인내하며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기다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듯한 위임예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사 위임예식은 위임국장 이치백 목사(춘천 성광교회 당회장)의 집례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각각 순서를 맡으신 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도 – 여윤택 목사, 성경봉독 – 오윤재 목사(마24:42-51), 설교 – 노회장(제목 : 충성된 종)
서약 – ① 위임받은 목사에게 – 김두섭 목사 ② 본 교회 교우에게 – 위원장
안수례 – 위임목사와 위원
권면 – ① 위임받은 목사에게–김덕조 목사 ② 본교회 교우에게 – 김선규 목사
축사 – 차길원 목사, 답사 – 김은일 목사, 축도 – 정영삼 목사

관례적으로 목사 위임 계획이 있는 교회가 '담임목사 위임 청원'에 대해 본 노회에서 허락을 구하여 노회가 결의한 후, 노회에서 위임국을 설치하여 그 예식을 해당 회기 안에 노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다. 김은일 목사가 교회의 위임 결의 후 '4년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위임예식을 거행한 것은 교회의 재정 상태나 교역자 사택 미비 등 교회 나름의 내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위임예식이 이례적으로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할 만한 자료와 증언이 없다. 비록 김은일 목사에 대한 위임예식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김은일 목사가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교회가 위임목사로 모시기로 결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만큼 김은일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목자다'는 확신을 주는 목회를 했다.

김은일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성도 관리를 위해 '신자 등록 카드'와 '교적부'를 작성하며 신북교회 신자의 가족 상황을 파악했다. 김은일 목사가 부임한 날인 1973년 6월 1일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신자 등록 카드 '1번'으로 김은일 목사 가족을, '2번'으로 김익보 장로 가족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여 1979년까지 1970년대에만 132명의 신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였다.

이는 신북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장년 신자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만 출석하는 성도의 가족 상황까지 모두 기록하여 전도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여 잠재적인 영적 가족으로 여기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학생이 먼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 신앙 생활하면서 부모를 전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132개 가정에서 부모든지 자녀든지 일단 신북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서 김은일 목

사는 '전도 목회'를 시작하였다. 잠재적인 신북교회 성도들을 아우르는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가정들을 대상으로 전도의 비전을 실천해 가고자 하는 목회 방침을 읽을 수 있다.

1980년대에도 1985년까지 69명의 신자 등록 카드가 추가 작성된 것을 보면 신북교회 목회에서 신자 관리뿐 아니라 전도에도 상당 부분 힘쓴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은일 목사는 이를 바탕으로 성도와 그 가정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며 '심방 목회'에 치중하였다.

심방은 매년 '춘기'와 '추기'로 나눠 두 번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김은일 목사는 성도들의 목자로서 성도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성도 각자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족의 형편과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고,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부분에는 따뜻한 정성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었다. 기도가 필요한 일들은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심방 대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 가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의 심방 상황과 심방에 대한 담임 교역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1975년 10월 28일~31일까지의 '추기 대심방' 대원 명부와 대심방 대상 가정 명부를 소개한다.

【추기 대심방 대원 명부】(1975년 10월 28일)

제1구역(10월 28일) 김익보, 민경천, 박광장, 길수희, 윤계월, 이귀녀, 박민옥, 김갑순

제2구역(10월 29일) 김익보, 이춘구, 유근재, 유희재, 김현옥, 우덕순, 김영현, 이영자, 박민옥

제3구역(10월 30일) 김익보, 백봉운, 백승욱, 길수희, 이정순, 윤을중, 유희재, 최언연, 김갑순, 김영현

제4일째(10월 31일) 김익보, 박광장, 백승욱, 박민옥, 윤계월, 김영현, 윤을중, 우덕순, 이정순, 유희재

※ 심방 대원은 오전 9시까지 나와 주시고 심방 기간에 각기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기 대심방 대상자 가정 명부】

제1구역 - 김익보, 김현옥, 이춘구, 김청호, 김상우, 김영현, 박원배, 장청심, 이동림, 안정순, 심혜정, 장춘배, 박희연, 김복성

제2구역 - 백승욱, 백봉운, 최창준, 조영자, 윤을중, 안귀빈, 안경희, 길수희, 최언연, 김은정, 조학봉, 이상화

제3구역 - 유근재, 주영희, 권대유, 백종엽, 황국자, 이태섭, 박민옥, 최금녀, 민경천, 정진섭

제4일째 홍길선, 김갑순, 서승목, 이태봉, 백춘길

이상과 같이 심방 대상 가정은 '41가정'이었다. 심방 대상 41개 가정을 심방하기 위해 4일간 총인원 '37명'의 심방 대원을 배정하고 '심방 대원은 각기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다. 김은일 목사의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역이 대심방인 것 같다. 이때만 해도 대심방은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는 가장 중요한 날로 개인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함께 대심방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성도 가정을 방문하여 주님과 함께 그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와 같은 대심방은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왜냐하면 성도 대부분이 대심방 대원으로 참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배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며, 목사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지혜와 기술을 배우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대심방을 통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공유하면서 담임목사의 영성이 신북교회의 영성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유별나거나 특별한 행사를 통하여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영성에 길들여지게 하는 대신 신앙의 기본을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가운데 조용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건강한 영성이 모든 성도와 그 가정에 스며들게 하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목회를 김은일 목사는 하였다.

이 외에도 김은일 목사가 소탈한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각 가정을 심

방하러 다니는 광경은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동네의 이웃 주민들까지도 신북교회 담임목사를 알아보며 친숙하게 인사를 할 정도로 심방을 하며 골목마다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심방의 목적이 가정과 성도들을 방문하고 만나서 심령의 상태를 살펴 격려하고 상담하며 양무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성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는 당시의 중점 목회 방식으로는 적합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성도들이 담임목사와 자주 접촉하면서 영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까지도 끈끈하게 이어 가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갖게 하며 신북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이끌어 가는 데 적절한 목회 방법이었다. 40여 개 가정을 대상으로 심방을 통하여 친근감 있는 목회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웬만한 규모의 교회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특히 신북교회가 농촌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에 가능하기도 했다.

이렇게 심방 중심의 목회 결과 1970년 주일 대예배 참석 연평균 인원이 48.6명에서 1979년 예배 참석 연평균 인원이 87.7명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신북교회는 1970년대에 양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성장을 했으며 재정 상황도 그에 못지않게 성장하였다.

자료가 보존된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년도	총 수입
1973	1,540,403
1975	1,821,310
1977	3,282,643
1978	4,410,411
1979	6,525,482

교회 재정수입은 1973년에 비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여 1979년에는 1973년보다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성도 수와 재정의 급격한 증가는 김은

일 목사와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결과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결과이다.

1960년대까지를 신북교회의 기초적인 토대 구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신북교회의 청지기들을 통해 일하신 기간이었다면 1970년대는 비로소 성장의 밑바탕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서서히 성장의 동력을 발동하기 시작한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은일 위임목사의 안정적인 목회를 통하여 비로소 신북교회는 1970년대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9) 종과 종탑 이야기

2023년 12월 22일 '안동을 세 번 놀래킨 종지기 죽음'이라는 신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중앙일보 손민호 기자가 쓴 기사이다.[56] '강아지똥', '몽실 언니' 등의 작품을 써내며 무학의 거지 작가로 살았지만, '인세 10억원'을 어린이를 위해 유산으로 남기고 죽은 작가, 그는 바로 권정생이다. 권정생은 1968년에서 1983년까지 안동 일직교회 종지기로 살면서 새벽마다 종을 쳤었다. 이 시기에 권정생은 '거지 권정생'에서 '작가 권정생'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이처럼 교회에서 종과 종탑이 갖는 역할과 의미는 남다르다. 시계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 교회마다 종각을 높이 세우고 큰 종을 매달아 주일이나 예배가 있는 날에 예배 30분 전과, 예배 시작 바로 직전에 예비종과 본종을 쳐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발걸음을 준비하게 하고 예배 시작을 알리는 유일한 도구가 종소리였다.

교회의 새벽종 소리는 주민들에게 새벽닭 우는 소리와 함께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교회의 종소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알리는 경종(警鐘)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동네 한가운데 세워졌던 장거리 교회(목조교회)에서 새벽마다 울리는 종소리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낮에 일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새벽잠을 깨우는 역기능도

5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805

있어서 초기에는 불신자인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는 전언이 있다.

신북교회의 역사가 72년 동안 이어오면서 초대 천막 교회의 모습을 비롯해 모든 외적인 것들이 변했지만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며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 앞 종탑에 아직도 높이 매달려 있는 교회 종이다. 신북교회의 종은 천막 교회에서는 달지 못했고(박민옥 은퇴 권사 증언) 장거리 두 번째 교회에서부터 달았던 것을 당시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전봇대 같은 굵은 나무로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종을 달았으며, 이후에 전쟁의 잔재인 굵은 포탄 탄피로 제작한 4각 형태의 철제 종각 기둥을 제작하여 그 꼭대기에 종을 매달았다. 두 번째 목조 교회에서 세 번째 벽돌 교회로 종을 옮길 때(1969년)는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었다. 포탄 탄피로 만든 종각 기둥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종만 분리하여 종각을 통째로 거리가 5~600미터는 족히 되는 거리를 교인들과 함께 학생회원들까지 가세하여 옮기느라 힘들었던 기억을 당시의 학생회원들이 떠올리고 있다.

전쟁 후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포탄의 탄피를 용접해 제작한 종탑은 무게도 무게지만 투박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녹이 생겨서 새로 지은 산뜻한 교회 건물에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게 종탑을 옮겨 온 지 9년째 되는 해인 1978년 말에 무연고 독거(獨居) 상태로 살면서 신북교회를 섬기던 최언년 집사가 소천했다. 그 사후(死後) 처리를 맡았던 교회에서 유품 정리를 끝내고 유산으로 남은 쌀을 팔아(백승욱 원로장로 증언) 마련한 현금을 처리하고자 하는 협의가 '1978년 12월 제직회'에서 있었다. '최언년 집사님의 유산 처리로는 종탑을 세우고 예산 명세는 교회에 공고'키로 한 것이 협의의 내용이었다. 육신의 피붙이와 함께하지 못하고 신북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던 최언년 집사였지만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최언년 집사의 이름 석 자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 유산으로 교회의 종탑을 세워 최언년 집사를 기념하고자

했던 제직회 회원들의 뜻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포탄 종탑에 비해 교회의 외관과 훨씬 잘 어울리는 철제 종탑을 그 자리에 세웠으며 현재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 종의 역할을 도왔다.

1970년대와 현재 교회 종탑

1990년대에 사회적으로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교회의 종소리는 시대 상황에 따라 차임벨로 대체하는 등 굴곡을 겪다가 새벽 및 주일 종소리와 성탄 종소리를 낭만적인 풍경으로 남기고 이제는 그 종소리를 울리던 종만 교회의 유물로 남아 있다. 신북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었으며 그렇다고 한 성도의 숭고한 뜻이 담겨 있는 '종탑'과 교회의 변천사를 함께 해온 '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새 성전을 짓고(2004년) 이전해 오면서 교회의 역사로 잘 보존하기 위해 종과 종탑을 원형 손상 없이 함께 이전해 와서 현재의 교회 앞에 세웠다. 이전해 온 후에도 주일 아침 예배를 알리는 상징으로 교회의 종은 계속 울렸었다. 유충렬 은퇴 장로가 종지기를 자원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쳤던 그 종이 지금은 안전을 고려하여 주변에 둘러친 안전 펜스 안에서 교회의 역사로 자랑스럽게 우뚝 서 있다.

10) 유년주일학교

신북교회 유년주일학교는 1950~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문전성시(門前成市)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천전초등학교 졸업생 현황이다.(이 자료는 천전초등학교 졸업생 수 자료를 신북교회가 의뢰하여 천전초등학교가 직접 제공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신북지역 어린이들의 수와 변동 추세를 살피면서 시대 상황을 읽어보자.

천전초등학교 졸업생 현황(발췌)

졸업 년도 및 횟수	졸업생 수	졸업년도 및 횟수	졸업생 수
1960년도 32회	63	1970년도 42회	84
1980년도 52회	88	1990년도 62회	83
1995년도 67회	40	2000년도 72회	30
2010년도 82회	13	2020년도 92회	13

※ 천전초등학교 10년 단위 졸업생

일제 강점기 때 개교한 천전초등학교 졸업생 수를 1960년부터 10년 단위로 정리해 보았다. 신북교회가 어린아이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때의 아이들이 천전초등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었을 것이다. 1960년대에 졸업생이 적은 이유는 6.25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70년 42회 졸업생부터 졸업생 수가 80명을 넘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전쟁 이후부터 신북 지역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에 졸업생 수가 83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2010년에는 10명 대로 확연하게 줄었다. 이러한 신북 지역 학령 인구의 급격한 변동은 신북교회 유년주일학교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 당시에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였겠지만 학생들이 학교 외에는 놀이 활동이나 모임 활동을 하기에 적당한 문화 공간이 없었으므로 교회는 어린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특히 성탄절에 교회에서 나

눠 주는 사탕 등의 먹거리 선물을 안 받아본 학생들이 동네에서 드물 정도였으며 신북교회도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과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써 십분 활용되는데 예외가 아니었다. 성탄절을 전후해서 또는 여름성경학교 기간에는 교회가 미어질 정도로 어린이들이 몰려와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집회를 해야 할 만큼 두 행사는 교회의 큰 행사였다. 유년주일학교가 교회 조직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기관일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신북교회 유년주일학교는 이웃해 있는 '천전감리교회'와 경쟁하다시피 하며 학생들을 유치하기에 많은 공을 들였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할 때는 학교가 파하는 시간에 맞춰 교회학교 교사들이 학교 교문에서 여름성경학교 안내문과 선물 등을 나눠주며 어린이 전도를 위해 열심히 활동했던 기억을 당시에 봉사했던 교사들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청년들과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거의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고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생들은 보조 교사로 활동하며 교회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음악에 재능이 있는 청년과 학생들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중·고등학생과 청년 시절에 자연스럽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며 교회에 동화되어 갔던 젊은이들이 성장하여 교회의 사역에 중요하게 쓰임 받은 것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신북교회 유년주일학교는 40평 본당이 좁을 정도로 어린이들이 모였었고 여름성경학교 때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반은 교회를 떠나 일반 성도의 가정과 주변 공간을 사용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무척 아쉽긴 하지만 당시에 헌신하며 섬겼던 성도들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1973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진행한 여름성경학교(교장 김은일 목사, 부장 최진도 집사, 서기 서명철 선생) '총계획표'와 '1974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진행한 여름성격학교(교장 김은일 목사, 부장 박광장 집사, 총무 백춘길 선생) '종합계획서', '1976년의 계획서'가

자료로 보존돼 있어 이를 사진으로나마 역사서에 수록함으로 당시의 유년주일학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여름성경학교를 개교하면 온 교회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든 힘을 여름성경학교에 쏟아부었다. 자료에 의하면 여름성경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새벽, 아침, 저녁 시간으로 진행했으며 새벽기도회 시간까지 운영했는데도 교사는 물론 학생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마다 교회에 빼곡하게 모여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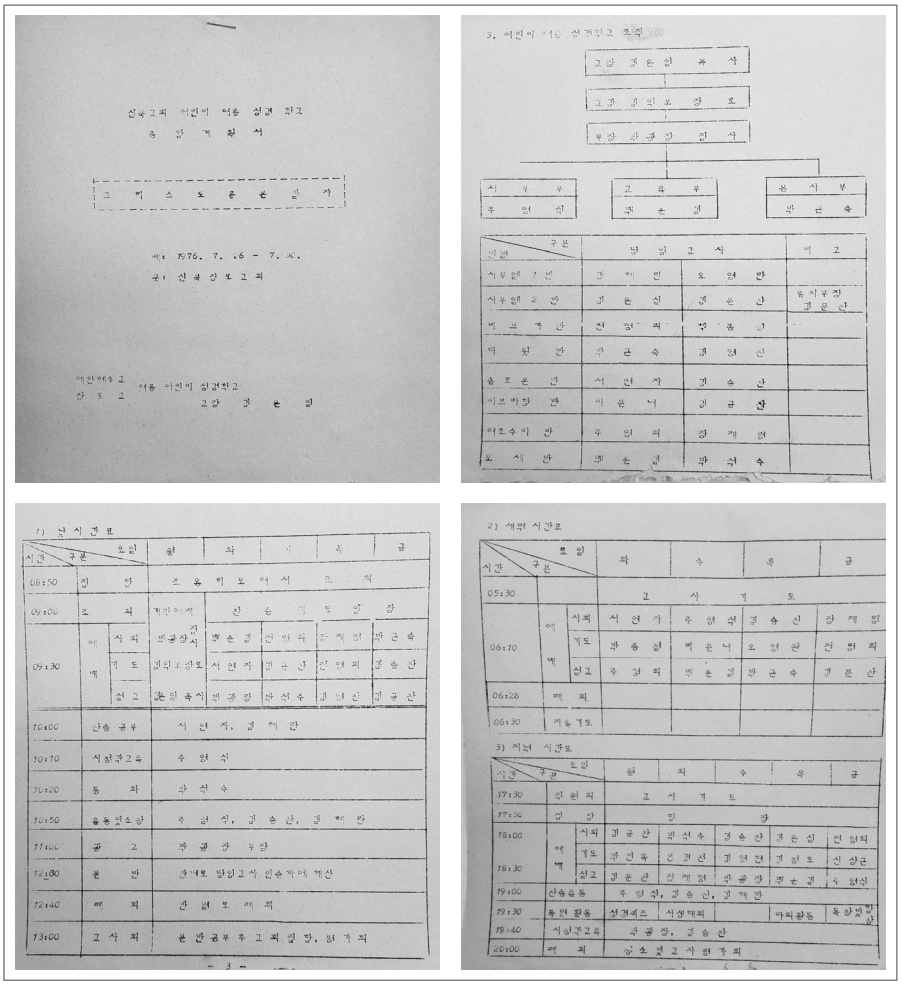
여름성경학교 기간에는 교사들에게 5일 동안 중식과 간식을 제공하는 일도 큰 일이었는데 교회의 재정으로 충당하기보다 매번 성도들의 자원을 받아 직분자 가정이 담당하여 섬김으로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었다.

1975년 여름성경학교의 중식/간식 담당을 자원한 가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월	화	수	목	금
박민옥 민경천	김영현 박광장	백승욱 김청호	신상근 백봉운	김익보 이태봉, 김갑순

이상의 11가정이 교사들의 중식과 간식 제공에 십시일반으로 협력하였다. 이때 직분자 가정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에 크게 감동했던 신이향 선생은 결혼하여 창원 명곡교회를 권사로 섬기면서 여름성경학교 교사들을 직접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여 대부분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받던 교사들에게 또 큰 감동을 주었노라고 회고하고 있었다.

1975년 유년주일학교 관련 기록이 제직회의록(10월 5일)에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주일학교 교사들의 소양과 능력 배양을 위해 교회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례적으로 '교사 설교대회'도 개최하였다. '10월 5일 저녁 예배 2부 순서로 교사 설교대회 개최. 1등 김혜란, 2등 최창준, 3등 김금찬 입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여름성경학교 상황 이해를 위해 1976년 여름성경학교 계획서를 발췌하여 사진으로 싣는다.



1976년 여름성경학교 계획서

11) 학생회 활동

신북교회는 다음 세대 양육을 교회 사명으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유년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지도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1970년대의 학생회는 이러한 교회의 관심과 지도하에 왕성하게 활동했다.

교회에서는 매월 한 번씩 주일 저녁 예배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할애해 주었으며 헌신 예배가 있는 주일에 학생회 임원들은

토요일부터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기도와 순서 담당자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요, 학생회의 자치 능력을 키워 갔다.

1970년대 학생회는 부장과 지도교사의 열성적인 지도하에 임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활동을 맡겨진 대로 또는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열심히 했다. 실례로 학생들의 주요 활동은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졌다. 그 당시 학교에서 토요일은 오전 수업만 진행했으므로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교복을 입은 채 교회로 모여들었고 교회 청소나 주보 준비 등 주일 예배 준비는 학생회 회원들이 많이 담당했다.

교회 활동이 끝나면 토요일 저녁 학생 집회를 준비하고 임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전도 또는 회원들의 가정을 심방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학생들은 주어진 일정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1970년대 초반에 학생회원 등록자 수는 80명 내외[57]였으며 교회에서는 학생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1979년 7월 학생회 부흥회 경비 예산 10만 원 지원 등)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생회 창립 다음 해인 '1969년'부터 '백향목'이라는 제목의 문집을 창간하여 매년 발행하였으며 1973년 초에 발행한 백향목 4호에 기록하고 있는 학생회원 수가 83명에 이르고 있다.

학생회 발간 문집 백향목

'백향목'은 학생들의 문학적 재능에 신앙적 고백까지 다양하게 내용을 꾸몄으며 담임 교역자와 지도교사들은 설교나 권면, 격려의 글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 1973년 5월까지 신북교회 담임 교역자였던 이종국 강도사의 글을 옮긴다. 이종국 강도사는 신북교회를 사임하고 떠난 뒤 교단 총회 내

57) 천전초등학교 졸업생 수를 참고하면, 당시 신북교회 주변 지역 학생수는 400명 정도였을 것이다.

교회에서 활동한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 보니 '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의 역대 교역자 사진란에도 실을 수 없어서 학생회에서 발간한 백향목 제4호에 실려 있는 이종국 강도사의 글을 당시 표기대로 옮겨 이를 대신하고자 한다.

이종국 강도사 설교(백향목 4호)

뒤엣것과 앞엣것

이종국 강도사

빌 3:13~14

우리는 저물어 가는 연말을 당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할 것과 참회할 것 또 갈망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 간원하여 새 해는 영광의 해로 맞이하도록 하자. 본문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생각하자.

1. 지난날의 모든 것 즉 뒤엣것은 잊어 버리도록 하자. 많은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인간은 두 가지에 얽매여 있다.

① 그 하나는 죄이다. 즉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 없는 것은 슬퍼해야 할 당연한 사실이다. 죄에 매여 있는 한 내년에도 한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땅의 육에 속한 것들은 당연히 끊어 버려야 한다.

② 다른 하나는 과거의 선생이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칭찬 되는 일과 남에게 친절을 다한 일 등을 마음에 두고 기뻐하는 것이다. 고로 아무리 해도 앞으로 전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울은 모든 것을 분토 같이 버림으로써 그같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컨대 눈을 앞에 있는 것에 두도록 하라.

2. 앞에 있는 것을 잡도록 하라.

즉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이것은 금, 은, 주옥보다도 나은 것으로 참 빛에 비출일 때 이 외의 것은 분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지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즉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술에 취할 때 꼭 진정한 자유와 희락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자세히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빌 3:9)

이 얻는다는 글자는 영어의 윈(Win)으로써 사랑으로 맺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이 무엇인데 우리들이 정복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다음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을 빼앗는 자가 되는 것이다. 본래 사랑은 상호적인 것으로 양편의 마음이 빼앗고 빼앗기지 않고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빼앗으신 주님은 우리들의 작은 사랑에 그 마음을 빼앗기시는 것이다. 구약 아가서 4:9절에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는 노래가 있고 6:12에는 "무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했었구나."라는 노래가 있다. 마치 사람들이 애인을 한 번 보는 데 마음을 빼앗기듯이 주님도 우리들의 신앙 및 사랑을 한 번 볼 때 우리의 복종에 의해 마음을 빼앗기시는 것이다.

②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다.

남을 심판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는 의를 가지고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③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빌 3:10)

우리들이 똑같이 능력을 받는 것은 안일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들이 신체의 신유를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최상의 목적은 보다 좋은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신년에는 보다 더 큰 고난을 주 안에서 맛보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아직 참 고난이라고 할 수 없다. 주님은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시어 33년간 머리 둘 곳 없이 사람의 종이 되시고 식사할 틈도 없이 슬픔의 사람이 되시었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을 생각하면 어쩐지 우리들의 봉사가 그 주님께 달하여져 있지 못한 감이 든다. 고로 우리는 신년에는 일층 분발하여 그의 고통 즉 죽으심의 경주에 있어서 쓰인 바 되기를 바란다. 물론 반드시 박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그와 같이 괴로워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북교회 학생회는 1973년에 신북교회 주관으로 처음 시작한 '신북지구 기독학생 연합체육대회'를 통해 발전한 측면도 있다. 하나님께서 연합체육대회라는 수단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시고 그것을 선교와 학생회 발전에 접목시키도록 이끄셨다. 체육대회는 당시 학생들에게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으며 각 교회의 학생 교류 방법으로는 최적의 기획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별도로 기록하기로 한다.)

(11-1) 신북지구 기독학생 연합체육대회(1973~2007)[58]

1970년대는 당시 신북면의 율문리, 천전리, 산천리 소재 교회들이 창립 이후 웬만큼 교회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교세를 확장해 가며 교회의 사역을 이어가던 때이다. 신북면 관내 주요 교회들 중에는 일제 강점기에 '천전감리교회'(1915년)를 필두로 8·15 광복 후 '산천감리교회'(1948년), 6·25 전쟁 종전 직후 '신북교회'(1953년), '천전교회'(1953년), '샘밭침례교회'(1954년)가 신북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시대적인 상황 여건에 따라 창립되었다.

1973년에 '샘밭침례교회'를 제외한 천전감리교회(담임목사 안정헌), 산천감리교회(담임목사 신청웅), 신북교회(담임 강도사 이종국), 천전교회(담임목사 권정석) 4개 교회는 교세가 비슷했다. '감리교회' 두 개 교회와 '장로교회' 두 개 교회가 같은 신북지역에 소재하면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간에 동일 교파 교회끼리의 교류는 있었으나 교파를 초월한 교회 간의 교류는 없었다. 교세가 비슷한 네 개 교회가 연합 활동으로 교류의 물꼬를 텄던 행사가 바로 197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춘성중학교에서 제1회로 개최하였던 '신북지구 기독학생 연합체육대회'였다.

교회별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회를 조직하여 활발하게 신앙 교육과 전도 활동에 매진하던 중 신북교회 학생회 담당 교사들이 주축

58) 신북교회 역사 기록 편의상 '신북지구 기독학생 연합체육대회' 34년의 역사를 한 꼭지로 엮는다.

이 되어 각 교회를 방문하고 학생회 담당 교사들과 협의를 거쳐 학생회 연합체육대회를 통해 교회와 학생회 간의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제1회 대회는 '신북교회 학생회 주관'으로 춘성중학교 교정에서 각 교회의 담임 교역자들을 단상에 모시고[59] 각 교회 학생회원들과 교우들까지 참석하여 개회 예배를 드리고 역사적인 체육대회를 시작했다.

교회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 40~5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축구, 배구, 계주(후에 줄다리기, 피구 등의 종목 추가) 등의 종목으로 겨루었다.[60] 지역의 기독 학생들끼리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던 체육대회는 당시 학생회 소속 학생들에게는 기독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학생회 구성원으로서의 결속력을 다지기에 충분하였다. 이는 학생회의 선교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주변의 학생들에게도 큰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각 교회의 학생들은 체육대회를 앞두고 몇 주 전부터 토요일 오후나 주일 새벽마다 모여 종목별 연습을 위해 열심이었으며 특히 신북교회 학생들과 천전감리교회 학생들은 교회가 이웃해 있다 보니 여러 주에 걸쳐 매주 축구와 배구 종목의 연습 경기를 하면서 기독 학생으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체육대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교회 간에 경쟁도 치열해져 부정 선수 논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으며 각 교회 학생회마다 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 영입에 힘을 기울여서 해마다 5, 6월만 되면 학생회원이 부쩍 늘어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기도 했었다.[61]

---

59) 이 자리가 네 개 교회의 담임 교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첫 자리였으며 신북교회는 체육대회 직후인 6월 1일 담임 교역자가 이종국 강도사에서 김은일 목사로 바뀌었다.

60) '1회' 대회에서 '신북교회'가 우승한 기록이 있고, 1974년 예배 일지 광고란에 6월 6일, '2회' 대회에서도 신북교회 학생회가 우승했음을 알리는 기록이 있다.

61) 2000년대는 담임 교역자 조덕준 목사가 학생회 연합체육대회에서 너무 우승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교회에 양보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신북교회가 자주 우승을 차지했었다.

신북지구 기독학생 연합체육대회

모 교회 학생회원 중에는 학생회에 입회하기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던 체육대회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회자가 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신북지구 기독학생 연합체육대회'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네 개 교회 외에 '샘밭침례교회', '지내리감리교회', '장본교회' 학생회가 참여하는 등 제법 규모가 커지고 교회마다 학생 수가 많을 때는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모일 정도였으니 웬만한 학교 규모의 체육대회가 되기도 하였다.

체육대회 중 점심시간은 체육대회 못지않게 각 교회마다 학생들에게 점심을 잘 먹이기 위한 또 하나의 경쟁 현장이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별로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위해 점심을 직접 준비해 와서 교정의 나무 그늘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점심 식사하는 풍경은 전 교인 소풍같이 풍성하고 넉넉한 모습이었으며 둘러앉은 성도들의 규모로 교회의 세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점심시간 이후의 경기는 점심을 준비해 왔던 성도들까지 응원에 합세해 체육대회가 성인 성도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되기도 했다.

'신북지구 기독학생 연합체육대회'는 이렇게 34년을 진행하는 동안, 주

관하는 교회에 따라 춘성중학교, 천전국민학교, 상천국민학교, 오동국민학교 운동장을 순회하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학생회에 역동성을 더하는 연합 축제와 전도의 도구로 쓰이다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2007년 5월 12일'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된 역사가 되고 말았다.

2007 체육대회 기념 타월

당시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성인이 된 지금도 학생 시절 학생회 활동 중 가장 선명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체육대회를 계기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학생들에게는 인생에서 받은 복 중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11-2) 학생회 신앙 부흥회(1979년)[62]

신북교회 학생회는 1968년에 조직하여 197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의 성장과 함께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북교회 학생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영적 부흥을 위한 집회를 계획해야 할 만큼 복음과 영적 각성 및 체험에 갈급해 있었으며 또 그것이 필요한 때였다. 학생회 등록자 수가 '80명 이상'이었지만 실제로 토요일 학생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교육전도사는 꿈도 꾸기 어려웠던 시절일 뿐만 아니라 학생회 부장이나 지도교사의 능력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일이었고, 담임 교역자가 담당하기에도 교회 전체의 사역과 관련하여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으며 매년 여름 방학에 실시하던 학생회 수련회로도 충족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다. 이는 교회 사역의 큰 과제임에 틀림이 없었으므로 교회에서도 이에 관심을

62) '학생회 부흥회' 전 과정은 당시에 학생회 부장으로 섬겼던 백춘길 원로장로의 회고를 기초해서 기록했다.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신앙 교육과 훈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학생회 지도교사와 학생회 임원들은 연말과 연초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서 어른들을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는 '심령부흥회'를 학생회에서도 실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름 방학을 이용해 매년 실시하던 '학생회 수련회'를 '학생 부흥회'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교회에 보고한 결과 흔쾌히 허락을 받게 되었다.(백춘길 당시 지도교사 회고)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길을 필요한 때에 예비하신 것이었다. 그때부터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7월에 있을 학생회 심령부흥회를 준비하는 방향에 맞춰졌고 매주 집중 기도회 시간을 계획해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며 준비했었다. 강사로는 박광장 원로장로와 친구였던 장춘근 전도사를 박광장 원로장로가 소개해 모시기로 하고 학생회에서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그리고 학생회 명단에 등록은 돼 있으면서 예배 출석이 뜸했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심방하고 권면하는 일을 상반기 내내 계속했다. 상반기 동안 학생들이 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학생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학생들은 이에 더 힘을 얻어 토요일 저녁 예배 후 기도 시간은 이미 부흥회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뜨거웠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 신북교회 최초의 학생 신앙 부흥회에는 1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학생 신앙 부흥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교회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만 해도 적은 액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 집회에 필요한 경비 10만 원을 교회에서 전액 지원(1979년 7월 1일 제직회의록. '학생회 부흥회 장춘근 전도사. 7월 23~26일. 10만원 예산 지원 결의')하기로 결정했었다.

장춘근 전도사는 학생 부흥회 강사로서의 경험이 많았다. 학생들은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교회를 가득 메운 채 부흥회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성령

의 뜨거운 역사를 부흥회의 열기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부흥 집회는 학생들에게 신앙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장춘근 전도사는 강사로서 역할을 아낌없이 발휘했으며, 학생들은 강사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어린 학생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학생들은 절감할 수 있었다.

(11-3) 학생회 약사(略史)(1968~1989)

1970~80년대에 학생회를 섬겼던 학생회 임원들과 연대별 대표 행사를 '백향목 12호'(1990년 3월 10일 발행)에 게재한 학생회 약사 보고서(1968~1989)를 참고하여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서 옮긴다.

연도	부장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주요 행사(비고)
1968	허봉원	신이향	김종찬	신이향 회장, 김종찬 부회장으로 시작 후 변경 (신이향 회장 증언)
		김종찬	신이향	
1969	허봉원	김종찬	신이향	8월 하기 수련회(중도), 12월 백향목 1호 발간
1970	박우만	함태식	신미향	8월 하기 수련회(송암리)
1971	박우만	장재명	신미향	7월 학생회. 여름성경학교 개최
1972	서승목	장재명	이상섭	8월 하기 수련회(중도)
1973	김종찬	김규섭	고진흥	신북지구 기독학생체육대회(우승)
1974	김종찬	박광하	고진흥	총무 오경희. 신북지구 체육대회 참가 백향목 5호 발행. 삼악산 등산
1975	백춘길	김금찬	전영희	총무 박광하, 신보영 8월 하기 수련회(동면) 체육대회 우승
1976	백춘길	전영희	오인환	총무 정순주, 신보영 체육대회 주최(준우승)
1977	백춘길	허재영	백미자	총무 고광복. 5월 체육대회 우승 8월 하기 수련회(신포리). 백향목 7호 발행

연도	부장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주요 행사(비고)
1978	백춘길	백종원	한연순	총무 한상신, 5월 체육대회 준우승 8월 하기 수련회(조교리)
1979	백춘길	한상신	채명숙	총무 김은미. 5월 체육대회 준우승 7월 학생 부흥회(강사 장춘근 전도사)
1980	백춘길	박병오	백종식	총무 서승권. 5월 체육대회 참가(우승) 7월 학생회 부흥회(강사 김요한 전도사) 백향목 8호 발간
1981	김영근(중) 백춘길(고)	유기선 백종식	이영진 김은숙	학생회 중고등부 분리 총무 오혜영(중), 백종주, 이향임(고) 5월 체육대회 참가, 8월 하기 수련회(원평리)
1982	김영근	백종관(중) 김은숙(고)		총무 이충재(중), 정순관(고). 5월 체육대회 참가(공동우승) 8월 하기 수련회(원평리) 10월 제1회 등대 개최. 백향목 9호 발간
1983	김영근	김성찬	유기선	학생회 중고등부 통합. 총무 우경준, 백종관 5월 체육대회 참가(6위) 8월 학생회 부흥회(강사 이종인 전도사) 10월 제2회 등대 개최
1984	김영근	백종관	한연희	총무 이충재. 7월 하기 수양회(본 교회) 11월 제3회 등대 개최
1985	민경천	이승재	박찬호	총무 김길득. 5월 신북연합체육대회(3위) 7월 하기 수양회(본 교회). 11월 제4회 등대 개최
1986	백춘길	백주식	정재숙	교육전도사 정연성. 총무 박병화 5월 체육대회(4위). 7월 하기 수양회(동산교회)
1987	백춘길	조남명	이춘미	교육전도사 정연성. 총무 이상철 5월 체육대회 참가. 7월 하기 수양회(동산교회) 9월 제6회 등대 개최 백향목 제11호 발간
1988	백춘길	이상철	민성혜	총무 조남현. 5월 체육대회 3위 7월 하기 수련회(본 교회)
1989	서승목	조남현	이정례	총무 박광열. 5월 체육대회 2위 7월 수련회(중도교회). 11월 제8회 등대 개최

12) 김익보 집사의 사랑방과 비닐하우스

학생회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익보 집사(당시)와 유희재 집사 내외의 헌신이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김익보 집사 가정의 사랑방은 교회에 교육관이 없던 시절 교육관을 대신하는 공간이었다. 학생들이 언제라도 드나들며 회의도 하고 행사 준비도 하며 학생회원 간의 교제의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집사 내외가 개방해 준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시끄럽게 드나들어도 싫은 내색 없이 간식에다 끼니 때가 되면 조촐한 밥상까지도 차려 주시는 정성을 학생회원들은 당시에 전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즐겼다. 집에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던 그 시절에는 눈치도 없이 일부러 저녁 시간이 지날 때까지 죽치고 앉아서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를 일이다. 김익보 집사는 맏아들 김종찬이 학생회장이었고 그 동생들이 학생회원이었으니 집사 내외는 자식처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회원들을 섬길 수 있었다. 당시의 학생회원 중에 그 집에 드나들지 않은 학생들이 드물었고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은 학생들이 부지기수였다.

신북교회 초대 집사였던 이영선 장로를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면담하기 위해 2025년 6월에 경북 상주로 방문했을 때 이영선 장로의 둘째 딸로서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신북교회 학생회원이었던 이정자 회원(당시)도 그 추억을 되뇌며 학생회 시절을 소환하고 있었다. 그러한 섬김이 학생회 회원 간의 결속과 신앙적 우의를 두텁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사랑방뿐이 아니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김익보 집사는 그 당시에 선진 농법이었던 비닐하우스 농사를 크게 했다. 현재 신북교회가 서 있는 땅이 그 밭이었다. 비닐하우스는 농사철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늘 비어 있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따뜻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그 비닐하우스 안이 겨울철 크리스마스 준비에는 안성맞춤이었다. 1960~70년대 크리스마스 소품의 웬만한 것들은 손수 제작해서 사용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벽 송을 돌 때 꼭 필요했던 '십자가 등'이었다. 가느다란 사각형 나

무막대기를 자르고 붙이고 해서 입체형 '십자가 등'을 만들고 여럿이 모여 창호지를 잘라 붙이는 일은 협동심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새벽 송 자체가 없어졌으나 그때는 솜씨가 부족했어도 학생들끼리 그런 소품 준비 작업 과정을 통해서 신앙심과 더불어 사회적인 관계와 역할들을 터득해 갈 수 있었다.

13) 청년회 조직과 활동

신북교회의 청년회 활동은 197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회 창립 초기에 청년회 임원 관련 기록이 잠깐 보이지만 활동 실체에 대한 기록은 없다.

신북교회 청년회 회의록 1호 기록에 의하면 신북교회 청년회는 '1970년 1월 18일 일요일 날씨 맑음. 사회 신이향. 회의 내용 대한예수교 신북장로교회 청년 면려회 발기' 총회 개회로 청년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회 조직 관련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회 회의록 1호)
지도교사 백승욱 집사. 회장 신이향, 총무 김영찬, 서기 서승목,
종교부 박광엽, 지육부 장춘배, 음악부 이미경, 봉사부 박민숙
〈안건〉
○ 매월 넷째 주일 청년회 헌신 예배 ○ 회비 월 50원
○ 월회 매달 마지막 주일 낮 예배 후 ○ 주회 금요일 오후 7시
○ 입회원서 ○ 회칙 총무 작성 ○ 새벽 기도 ○ 제1회 헌신 예배
〈출석자〉 신이향, 김영찬, 장춘배, 박광엽, 박민숙, 서승목

창립총회에서 결의한 매월 넷째 주일에 청년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했으나 청년회 첫 헌신 예배는 계획이 일주일 미뤄져서 2월 1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사회 김영찬 총무, 기도 신이향 회장이 담당하여 드렸다. 청년회 조직 후 청년회는 매주 집회와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

록했는데 ‘제2호 회의록’에 의하면 1월 23일에 모여 사회 김영찬 총무, 기도 장춘배, 회의 내용 ‘회비 30원’으로 개정, 요절 외우기, 회원 가정 심방을 논의하였으며, ‘세 번째 모임’에서는 헌신 예배 준비와 모이기를 힘쓰기로 결의하였고, ‘네 번째 모임’을 기록한 ‘회의록 제4호’ 기록에는 학생회와 청년회가 함께 모여서 사회를 김종찬 학생회장이 보고, 합동 심방과 새벽 기도, 주보 모으기, 부흥 집회 광고지 만들기를 결의하였다.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학생회와 청년회가 협력하여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청년회 활동을 이어가다가 1970년 5월 24일 ‘청년회의록 제7호’ 기록에 의하면 회기 중간임에도 회장을 다시 뽑는 투표를 실시했다. 총 12명 회원 중 8명(김영찬, 박광엽, 장춘배, 송복성, 박민숙, 김윤자, 이미경, 서승목)이 투표에 참석해 회장에 기존 총무였던 김영찬을 선출한 것을 보면 회장이었던 신이향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듯하다. 청년회는 그 후에 모임 장소로 청년회실을 만들기로 하고 박민숙 회원이 1,000원을, 기타 회원이 300원을 기증하는 등의 활동으로 청년회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고 10월 1일 총회 준비로 쌀 한 되씩으로 떡과 다과를 준비하기로 하는 등 청년회의 교회 내 활동에 집중하였다.

1971년에는 회장 김영찬, 부회장 박민숙, 회계 박종원, 봉사 이재순, 전도 김윤자로 임원을 선출하고 매월 마지막 주 집회를 결의했다가 2월에는 매월 첫 금요일과 셋째 금요일에 모이기로 변경하는 등 모임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1년 계획으로 문패 달기, 회지 발간, 성경공부(매 집회 때마다), 흑판 준비, 부활절 2부 순서 청년회 주최, 야유회 계획 등 활발한 활동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1971년 3월에 백승욱 지도교사와 김영찬, 서승목, 박민숙 등 회원 세 명이 모여 금요 집회 문제를 논의하여 주일 낮에 모이기로 모임 시간을 변경하며 회원들이 청년회 모임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는 등 청년회 모임과 관련해 출석률 저조에 대해 고심하며 청년회의 활

발한 모임을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1971년 3월 21일 모임에서는 백승욱 지도교사와 박우만 목사까지 참석하여 금요 집회를 폐지하고 주일 오후에 모이며 고3 학생들을 청년회에서 받아들이자는 논의와 청년회 모임의 의미를 확실히 알자는 각성까지 해가며 청년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후 청년회의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가 1973년 청년회 출석부와 1970년대 중반인 1976년 청년 회원 출석부만 확인할 수 있다.

1973년 청년회 회원으로는 서승목, 백춘길, 서명철, 김종찬, 장춘배, 김영만, 박근숙, 고화순, 김윤자, 송희정, 김광순, 박경자, 강원옥, 전미숙, 이문자, 이문녀, 부영남 등 17명이었다. 청년회의 회원 수가 70년대 초반에 비해 증가했으며 교회 내에서 청년회 활동은 그만큼 활발해졌다.

청년회는 1975년 6월 6일에 춘성중학교에서 청년회 친목회 운동 경기를 개최하여 교회로부터 보조비 1만원과 간식과 점심을 제공(6월 1일 제직회의록)받았으며, 10월에는 청년회 체육대회에 5천원 지원(10월 5일 제직회의록), 11월에는 청년회 춘천지구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종합 3위에 입상하였음을 보고(11월 2일 제직회의록)하고 있다.

청년회 회의록 및 출석부

이로 보건대 청년회가 회원들의 친목과 결속을 위해 교회 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음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춘천지구 청년회 연합 활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1976년 청년회 조직은 회장 최창준, 총무 주영식, 서기 박종철, 봉사부장 박광장, 교육부장 백춘길, 친교부장 서승목, 전도부장 이태봉 등 남 회원이 13명, 회계 김혜란, 친교부장 주영희, 봉사부장 박근숙, 전도부장 서연자 등 여 회원이 15명, 합계 28명으로 청년회원 수가 많이 증가하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원으로 봉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 중에 박광장과 김종찬, 백춘길은 교회에서 장로의 임직을 받아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했으며 여회원으로는 김혜란이 목사 사모로, 박민숙, 박근숙은 신북교회 집사와 권사 시무 후 은퇴하고, 오영환은 충청도 지역의 교회에서 권사로 시무 중이다. 1973년에 활동했던 서명철은 중등학교 교사 발령 후 신학교에 진학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였다.

14)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활동

신북교회의 자치기관인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1960년대부터 활동하였으나 그 기록이 미비하고 여전도회는 '부인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다가 1970년대에 여전도회로 바뀌었다.

남전도회는 1975년 3월 9일 제직회에서 총회 결과로 남전도회 조직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총회에서 제정한 신북교회 남전도회 회칙에서 제시한 남전도회의 목적은 '본회는 교회 안에 남자 성도 사이에 친목과 전도 사업이며, 교회 봉사를 위해 협력을 도모한다.'로 규정하고, 회원 자격으로 '교회 안에 남자 성도 37세 이상으로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으로는 회장 김익보 장로, 부회장 백봉운 집사, 총무 백승윽 집사. 회계 민경천 집사, 서기 이상화 성도였다. 월례 회의는 매주 넷째 주일에 하기로 했다. 그 첫 월례회에서 회비를 매월 500원씩으로

결의했음을 제직회(3월 30일)에 보고하고 있으며, 남선교회에서 교회 담을 수리하기로 한 내용도 제직회에 보고하고 있다.(4월 16일) 이처럼 교회 안팎에서 노력 봉사가 필요한 부분에서 남선교회는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교회의 기관 사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의 섬김은 아무래도 여전도회 몫이었다. 매월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주방 관련 봉사뿐만 아니라 전도와 목사님의 성도 가정 심방에 동행하는 등 교회 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일들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였다. 특히 여전도 회원들의 뜨겁고 끊임없었던 기도는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었으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교회 부흥과 성장에 디딤돌로 사용하셨다.

한때는 교회의 모든 기관에 기도 담당 권사와 집사 그리고 권찰들을 배치하여 기관 중보기도자로 사역하도록 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중보기도 담당자들 대부분이 여전도회원들이었다. 신북교회는 기도 어머니들이 마련한 기도의 터전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분들이 기도자로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초기 여전도회 회장으로는 박민옥 집사와 조현숙 집사가 돌아가면서 맡아 섬긴 기록(당시 예배 일지)이 있다.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

15) 제2대 장로와 초대 권사 선택

신북교회는 김은일 담임목사의 섬김과 지도하에 1970년대를 안정적 성장의 시기로 보내면서 새로운 1980년대를 준비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이 1979년 10월 28일 주일에 있었던 장로 2인과 권사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이다.

신북교회가 성도 수에서 많이 성장한 만큼 기존의 '목사 1인'과 '장로 1인'의 당회 체제에서 벗어나 '시무 장로 3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강원노회에 '장로 2명' 선택을 청원하였고, 이 청원 건에 대해 강원노회가 허락한 결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재적 114명 중 70명(남 23명, 여 47명)이 참석하였다. 김은일 담임목사가 예배를 집례한 후에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성수가 되므로 개회 선언과 투표 위원으로 김익보 장로, 박광장 집사, 이범자 집사를 지명하고, 장로 선택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1차 투표에서 백승욱 집사, 2차 투표에서 민경천 집사를 선택하였다. 이어 신북교회 권사 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 김갑순 집사, 2차 투표에서 길수희 집사를 선택하였다. 두 분의 권사는 신북교회 초대 권사이다.

신북교회가 기존의 목사 1인, 장로 1인의 당회 체제에서 벗어나 다가올 시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할 만큼 성장했고, 이제부터는 '제직회 회원으로서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란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쓸'(총회 헌법 정치 제8장 제52조 권사의 의무) 권사들이 필요할 만큼 신북교회는 조직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춰 온 197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회록에 기록한 당시의 세례 교인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은일 목사를 위임목사로 모시기 위한 1973년 10월 14일의 당회록에 공동의회의 재적이 세례 교인 52명이었던 것에 비해 6년 만에 공동의회 재적 세례 교인 수가 114명으로 증가한 것에서도 교회 성도 수의 변화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신북교회가 1980년대를 희망차

게 준비하도록 이끄시는 확실한 은혜였다. 1970년대를 새 성전과 위임목사, 초대 장로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꾼을 세워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것은 신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신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울 뿐이다.

16) 1970년대 신북교회 종합 평가

역사 분석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강조했던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A. 비어드(Charles Austin Beard, 1874~1948)가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을 4가지로 정리했다.[63]

첫째, 그리스 속담처럼, 신들은 그들이 파괴할 사람들을 미치게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매우 곱게 간다.
셋째, 꿀벌은 언제나 꽃을 강탈하면서 꽃을 피운다.
넷째, 가장 어두운 때에 별은 가장 밝게 빛난다.

신북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한 1970년대는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던 시기였다. 교회의 역사는 결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아니 거스를 수 없다. 시대를 거슬러 교회가 성장할 수는 없다. 언제나 교회의 성장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사회적 급성장을 이루던 1970년 대 시기에 발맞춰 한국교회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대부흥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춘천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는데 춘천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물꼬를 튼 것이 바로 1972년에 시작된 ‘춘천성시화

63) 찰스 A 비어드가 실제 한 말로 문헌 자료로 전해지지는 않지만, 마틴 루터 킹(King, Martin Luther, Jr.) 목사는 이 4가지를 인용하여 ‘God in History:Four Proverbs’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https://kinginstitute.stanford.edu/)참조

운동'이었다. 이처럼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소양강 댐 사업'으로 대변되는 신북지역의 큰 변화의 물줄기를 나름대로 수용할 줄 알았던 신북교회도 급성장하였다.

이 일은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북교회가 급성장한 원동력에는 새벽 이슬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목회를 한 김은일 목사와 교회 사역과 가정일, 농사일을 구분하지 않고 아들딸 같은 학생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교회를 내 집보다 더 편하고 따뜻한 사랑의 공간으로 만들며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김익보 장로를 비롯한 어른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되면 시대를 이끌던 인물들이 교만으로 인하여 신들의 노리개로 변한다. 이를 찰스 A 비어드는 "신들은 그들이 파괴할 사람들을 미치게 한다."는 말로 표현했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신북교회가 급성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김은일 목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목회를 감당했다.

이 즈음에서 무엇보다도 신북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던 김은일 목사의 목회 특징을 정리해 보는 것이 지금까지 김은일 목사의 사역은 물론, 1980년대를 여는 신북교회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은일 목사는 성품이 온화하고 차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김은일 목사를 흉보는 유일한 경우는 너무 조용하다는 것뿐일 정도로 목사로서 아무 흠 잡을 데가 없는 분이었다고 한결같이 성도들은 증언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털어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김은일 목사에 대해서도 불만이나 아쉬움이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적이 되는 일은 없었다. 김은일 목사도 목회하면서 괴롭고 힘들 때가 없었겠는가! 많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김은일 목사님은 참 많이 참으셨다'는 점이다.

한번은 조현숙 사모가 김은일 목사의 처신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목사님은 항상 참기만 하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목사가 참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목사가 참아야 목사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목사인가!” 말씀했다고 한다.

오늘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쉽게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리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김은일 목사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더니 젊은 성도들도 하나같이 어린 시절 다정했던 김은일 목사의 성품을 떠올렸다. 어린 아이들이 김은일 목사 댁에 심부름 가는 것에 앞을 다투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부모님 심부름으로 김은일 목사 댁을 방문하면 어김없이 김은일 목사가 까만 동전 지갑에서 500원을 꺼내어 간식 사먹으라고 주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500원짜리 동전을 받은 게 아니라 김은일 목사의 사랑을 받아 누렸다. 이 행복이 결코 작지 않기에 아이들은 앞 다투어 부모님 심부름으로 김은일 목사 댁에 갔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까지 살피며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던 주님을 닮은 김은일 목사의 성품은 교회 목회 사역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먼저, 김은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자료가 하나, 둘 정리되기 시작했다. 물론, 박우만 목사 시절에도 ‘세례교인 명부’는 있었다. 하지만, 교회가 갖추어야 할 행정 서류가 명실공히 갖추어진 때는 김은일 목사 때이다. 김은일 목사가 부임하던 시기부터 정리한 주보 철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64], 김은일 목사 때부터 실질적인 신북교회의 역사자료가 보존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은일 목사의 목회 24년 5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는가! 하지만, 김은일 목사의 목회 사역은 한결같았다. 김은일 목사가 목회하면서 교회 전통이 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는 김은일 목사의 목회 특징이기도 하다.

64) 실제 김은일 목사가 1973년에 부임했지만, 주보철은 1975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기타 자료(당회록, 제직회록)를 통해서 1973년부터의 사역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김은일 목사의 목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심방 목회'라고 할 수 있다. 김은일 목사는 '춘계 대심방'과 '추계 대심방'을 통하여 각 가정을 돌아보며 가정의 형편에 맞게 말씀으로 위로하며 기도로 목양했다. 물론, 1970년대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의 목회가 '심방 목회'였다. 산업화, 근대화가 한창이었던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특별한 이벤트나 교회행사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기에는 교회 형편상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교회의 가장 특별한 행사는 '부흥회'였다. 부흥회를 통하여 영적 쇄신을 꾀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영성이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는 영적 기류였다. 신북교회도 부흥회를 하기는 했지만, 자주 있는 행사는 아니었다.

40대 초반에 군에서 은퇴하고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노년에 춘천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는 신상근 은퇴 장로와 윤을중 은퇴 권사는 그 옛날 김은일 목사가 목회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한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면 강사 접대는 윤을중 권사가 많이 담당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래도 군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서 강사 목사를 섬길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한다. 또, 김은일 목사가 심방을 다니다가 목이 마르거나 시장하면 언제든지 잠시 들러서 허기와 갈증을 해결하고 갔다면서 그때를 추억한다.

아무것도 모르던 햇병아리 같은 초신자들이 기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김은일 목사의 삶으로 가르치는 온유하면서도 사랑이 많은 성품 때문이었다고 한다.

둘째, 김은일 목사는 '심방 목회'와 함께 '헌신예배'를 통하여 남, 여 선교회는 물론, 청년, 청소년 모임까지 활성화하고, 매년 5월 어버이 주일에는 '전교인 야유회'를 가졌다. 김은일 목사는 교회의 '특별행사'보다도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노력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다고 해도 교회의 형편이나 사정은 무시한 채 부흥을 빌미로 행사 위주의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많았지만, 김은일 목사는 일시적인 감

정이나 기분,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했다. 이런 목회는 자칫 사람의 눈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김은일 목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비판을 고스란히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를 했다.

셋째, 김은일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교회학교 부흥을 경험했다. 앞에서 신북지역의 역사를 다루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신북지역에는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었고, 아이들이 많았기에 교회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1970년대 말 신북지역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도 신북교회 교회학교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 김은일 목사는 교회학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음 세대 교회학교 부흥을 주도해 갔다.

이와 같은 김은일 목사의 목회 사역은 1980년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김은일 목사를 통하여 신북교회라는 맷돌을 천천히 돌리시면서 성도들의 삶을 곱게 빻고 아름답게 빚어 가시며 신북지역에 맞갖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북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6. 교회의 안정적 성장기(1980년대)

1) 교회의 안정적 성장

신북교회는 1950년대와 60년대 창립과 여명의 시기를 거쳐 1970년대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고 그 체제 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1970년대 초와 1970년대 말 교회의 일반적인 지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신북교회 1970년대 지표 비교

구 분	연평균 예배 출석 인원(명)	세례 교인 수 (명)	재정 수입 (원)	제직회원 수 (명)
1970년대 초	48.4	52	1,540,403	11
1970년대 말	87.7	114	6,525,472	26

위와 같이 10년 동안 교회의 지표가 크게 향상한 것은 김은일 목사를 중심으로 당회와 제직을 비롯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전도에 힘쓴 결과이다. 1970년대의 부흥과 성장은 신북교회가 역사를 지속적으로 든든하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었는데 신북교회의 현재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천막 교회에서 목조 교회로, 그리고 벽돌 구조의 세 번째 교회(이하 벽돌 교회)로 확장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셨음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있다. 이 지표를 통해 신북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교회임을 성도들이 몸소 체험함으로써 믿음의 확신과 감사와 자신감으로, 그리고 천막 교회와 목조 교회 시대에 비해 비교적 안정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1980년대를 맞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말인

1979년에 신북교회는 재정 수입 예산을 5,500,000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연말 결산 수입이 6,525,472원으로 1,025,472원 증액(1979년도 결산 보고서. 수입 예산 대비 수입 결산 비율 18.8% 증액)된 것에 힘입어 1980년 재정 수입 예산을 8,100,000원으로 편성(1980년 예산 보고서. 전년 대비 47% 증액)하여 전에 볼 수 없었던 액수의 예산 증액으로 새해를 계획하고 시작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북교회는 1980년 1월 6일 성도 92명(남 35명, 여 57명. 주보. 제직 25명 규모. 1월 제직회의록)이 함께 모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1980년대를 시작했다. 참고로 1980년 1월 6일 주보의 표지와 지난주 통계를 통해 당시의 교회 비전과 교회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북교회 주보〉

제27권 1호 1980. 1. 6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담임목사 김은일 장로 김익보 성가대장 백춘길 성가지휘 김종찬 반주 주영희

우리 교회 목표 : 1.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2. 전도하는 교회 3. 봉사하는 교회

오늘의 말씀 :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롬 13:11〉

지난주 통계[65]

집 회				헌 금(원)	
구 분	남	여	계	월 정	
교회학교	40	40	80	구 역	2,185
학생부	40	20	60	주 일	7,420
청년부	7	5	12	감 사	19,000
주일 낮	40	42	82	십일조	98,000
주일 밤	34	37	61		
삼일 밤	20	35	55		
구 역					
계				계	128,305

65) 헌금 계수 통계가 틀린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옮김

1980년 새해 첫 주일 주보의 일부를 옮긴 것은 교회가 1980년대를 시작하는 상황의 일부를 소개하고 교회 사역의 출발점을 알아 새해 교회 사역의 방향을 가늠함으로써 1980년대 말의 성장 규모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김은일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 목표'를 세 가지로 주보에 제시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교회'는 교회의 보편적인 사명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성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배우고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 전도에 힘쓰며, 말씀을 따라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일은 성도가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요 지향(志向)해야 할 신앙적 가치이니 신북교회의 방향성은 신북교회가 처한 역사적 시점에서 시의적절했다.

1980년 당시 교회학교와 학생부, 청년부의 집회 상황은 교회의 연륜에 비해 작지 않은 규모였으며 이들이 교회의 미래요 소망이었음을 생각하면 신북교회는 이들만으로도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 주일학교 학생 80명과 학생회 60명을 수용하고, 교육하고, 활동하기에 본당 40평의 공간은 부족했다. 하나님께서는 신북교회의 다음 세대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셔서 신북교회에 교육관이 필요한 시기임을 메시지로 보내 주셨다.

1980년은 새해 첫 달부터 특기할 사항이 이어진다. 1월 13일 주일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교회 일지)이 추광엽씨 내외(추교인 학생회원, 주일학교 보조 교사 부모님), 황경원(현 은퇴 집사. 청년회원 출신 강원옥 모친)씨 등 3명을 시작으로 1월 20일 주일에 2명, 1월 27일 주일에 2명을 비롯하여 5월 25일 주일에 이미생(현 시무 권사)씨 등 계속 신입 성도들이 교회에 새로이 출석을 시작하여 그 해에만 20명의 새 신자가 교회에 출석하였다. 교회가 목표에 따라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결과였으며 전년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권사로 선택한 김갑순, 길수희 피택 권사들이 임직 전에 인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인도자와 함께 교회일지에 다수가 보인다. 신북교회 초대 권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들이 교회의 비전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교회의 영적 상황과 분위기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1980년대를 시작하고 있음은 1980년 초부터 주일 예배 인원이 100명 내외(1월 13일 104명, 1월 20일 107명. 예배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에도 신북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계속 이어가실 계획하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2) 제2대 장로 장립과 초대 권사 취임

신북교회는 규모 면에서 1970년대의 '2인 당회(목사 1명, 장로 1명) 체제'로 이끌어 가기에 부족할 정도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신북교회가 1979년 10월에 백승욱, 민경천 집사를 2대 장로로, 김갑순, 길수희 집사를 신북교회 초대 권사로(1979년 10월 28일 공동의회 회의록) 선택하도록 준비해 주셨다.

백승욱 장로

민경천 장로

백승욱 피택 장로는 샘밭에 생활 기반을 둔 전업 농부로서 1960년대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집사로 일찍이 부르심을 받았다. 백승욱 피택 장로는 특유의 정직하고 근면하고 꼼꼼한 일처리로 교회가 세 번째로 성전(벽돌 교회)을 건축하고 옮겨 오는 과정과 이후의 사역에 크게 기여(寄與)하면서 교회 출석 후 이른 시기에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백승욱 피택 장로는 목조 교회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지만 교회 집사로 임명을 받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시계가 없었던 때 새벽에 시간도 모른 채 교회에 나와 걸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창문을 넘어 들어가 기도할 정도로 열심이었다고 초기 집사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하나님

께서 교회에 필요한 청지기로 미리 아시고 필요한 달란트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장로로 세우시기 위해 준비케 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민경천 피택 장로는 이북 지역 황해도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에 공산치하의 고향과 부모를 떠나 직업 군인으로서 샘밭에 정착하여 1960년대부터 신북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일찍이 집사의 직분을 받아 원만하고 성실한 성격과 교회 사역에 대해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백승욱 집사와 함께 제직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교회 건축뿐 아니라 제반 교회 사역에 헌신하면서 장차 교회를 이끌어 갈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민경천 피택 장로는 바쁘고 철두철미한 군문(軍門)에 종사하면서도 기도 생활에서는 새벽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했음을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교회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과 성도들이 인정하여 장로로 선택되었다.

김갑순 권사

길수희 권사

김갑순 피택 권사는 벽돌교회 초기 시절에 딸인 박민옥(은퇴 권사) 당시 집사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초신자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지병을 치유해 주신 체험을 바탕으로 집사 시절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으며 1975년 서리집사로 처음 임명받은 후(당회록)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집사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 집사 임명 4년 만에 신북교회 초대 권사로 선택되었다.

길수희 피택 권사는 박광장 집사(후에 장로 장립. 원로장로 추대)의 모친으로 삶의 터전이었던 인제 부평 지역이 소양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면서 신북교회 주변으로 이주해 와 이전 부평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을 신북교회에서 이어가며 1973년부터 서리집사로 임명받아(당회록)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에게 묵묵히 기도와 섬김의 본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아름다웠으므로 집사 임명 6년 만에 신북교회의 초대 권사로 선택되었다.

당회는 이들을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세우기 위해 피택 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항존 직분자로서의 소양과 책무성을 갖추게 하고, 교회는 이들이 임직 전인 1980년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김일광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전 교인을 대상으로 부흥 사경회를 열게 된다.(교회 일지) 이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임직 대상자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성도들 전체가 새로운 연도에 새 일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뜻을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일을 사전에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부흥 사경회는 매우 뜨겁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사 목사님의 식사와 간식은 제직들이 십시일반으로 담당하고 있으며(제직회의록) 그 전의 부흥회 때 강사의 숙소로는 김익보 장로 자택을 제공했던 전례로 보아 기록에는 없지만 강사의 숙소는 김익보 장로 가정이 섬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흥 사경회 이튿날인 8월 26일에는 부흥회 참석 인원이 200명이었음을 당시의 예배일지는 기록하고 있다.[66] 하절기 끝자락에서 이웃 교회 성도들까지도 일부 참석한 숫자이기는 하겠지만 성도들이 본당에 빼곡하게 모여 믿음의 열(熱)과 성(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응답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했을 심령 부흥회의 영적 열기는 상상하고도 남는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흥회였기에 하나님께서 신북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그리고 새로 세워질 장로와 권사들에게 필요를 따라 역사하셨고, 성도들과 임직 대상자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여 신앙인으

66) 참석 인원 200명은 새벽, 낮, 저녁 집회 인원의 총계일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농촌 지역에서 농사철에 200명은 적은 수가 아니었다.

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되었다. 교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적 부흥의 시간을 갖도록 역사하셨음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1980년 9월 4일 목요일 11시. 임직자 훈련과 심령 부흥회를 통해 믿음의 결단과 충성과 순종의 준비를 마친 백승욱 집사와 민경천 집사를 신북교회 제2대 장로로, 김갑순 집사와 길수희 집사를 신북교회 초대 권사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세우는 임직 예식이 교회 본당에서 성도들과 축하객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축하하는 가운데 있었다. 예식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식 순 ⦿

사회 당회장 김은일 목사

예배		
송 영		성 가 대
개 회 성 시	(시편 136:1-9)	사 회 자
기 원		〃
찬 송	(200)	다 같 이
기 도		여운택 목사
성 경 봉 독	(롬 12:5-8)	오수만 목사
찬 양		성 가 대
설 교	(분수에 받은 직분)	임재천 목사
기 도		〃
장로장립		
서 약		당 회 장
안 수 기 도		〃
악 수 례		〃
공 포		〃
기념패 수여		〃
권 면		
	임직자에게	이치백 목사
	교우에게	황태주 목사

권사취임

서 약	·····	당 회 장
공 포	·····	〃
기념패수여	·····	〃
기 도	·····	〃
권 면		
임직자에게	·····	경호현 목사
교우에게	·····	황유현 목사

근속표창, 기념품 증정, 폐식

표 창	····· (근속 10주년) ·····	당 회 장
축 사	·····	김성묵 목사

기념품 증정: 꽃다발

임직자들이 교회에게	·····	백승욱 장로
임직자에게 교회에서	·····	오경근 집사
근속자에게 교회에서	·····	백춘길 집사
교역자에게 임직자들이	·····	민경천 장로
답 사	·····	백승욱 장로
인사 및 광고	·····	김익보 장로
찬 송	····· (387) ·····	다 같 이
축 도	·····	손창록 목사
폐 회	·····	다 같 이

백승욱, 민경천 장로 및 김갑순, 길수희 권사 임직

임직 예식 일이 주일이 아닌 목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14명의 성도와 하객들이 예식에 참석했다고 그 다음 주일 교회 일지 광고란에 기록되어 있다. 평일에 치른 행사로서는 적지 않은 성도와 하객들이 모여 교회의 청지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세우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한 것이다. 임직 예배와 예배 후에 있었던 식사와 함께 이어진 감사와 축하의 교제는 풍성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교회 식당도 없고 조리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으나 교회 공터에 천막을 치고 큰 행사를 치러내는 정성이 대단했다. 요즘에는 교회마다 임직 예식을 주일 오후에 실시하여 예식 후에 축하 만찬으로 하객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일반적이나 그때는 임직식을 평일에 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67] 교회에서는 있는 정성과 예우를 다해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며 임직하는 장로와 권사들은 감격과 감사와 충성의 맹세로 직분을 받았으리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 이들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모든 성도에게 본을 보이며 일한 발자취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로써 신북교회는 위임목사인 당회장에 3명의 장로, 2명의 권사, 제직회원 35명(1980년 1월 제직회의록)과 교육 기관, 자치 기관, 구역들을 온전히 갖춘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교회로 굳건히 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청지기들과 기관, 구역들에 의해 신북교회는 더 안정적이고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된다.

3) 당회원과 초대 권사들의 사역

두 명의 장로가 장립하여 4인 체제가 된 신북교회 당회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져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당회장을 위시하여 네 명의 당회원들이

67) 1971년 5월 8일(교회 연혁. 5월 9일 자 교회일지 여백에는 5월 10일(월)로 기록)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첫 목사 위임과 초대 장로 장립 예식이었던 박우만 목사 위임과 김익보 장로 장립 예식도 주일이 아니었다.

합력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善)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우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10년 가까이 김익보 장로 혼자 감당하던 대표 기도에 두 명의 신규 장로들이 함께하면서 대표 기도를 통한 예배의 은혜가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었다. 이는 신북교회 예배 대표 기도의 전형(典型)이 될 정도로 기도의 내용이나 깊이에서 오는 감동과 은혜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배의 격을 높이기에 충분하였으며 성도들이 기도의 모범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당회 체제는 당회장 김은일 목사와 김익보 장로가 함께 은퇴한 1997년까지 17년 동안 이어지며 그사이에 신북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다.

일부 교회들에서 당회원 사이에 쟁론이 발생하고 분열이 일어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 교회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신북교회 당회는 이에 대해서도 본이 되었다. 당회원 각자가 4인 4색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해 주는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신북교회 당회는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충성에만 힘썼으므로 당회원들이 분열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전혀 없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올 수 있었다.

신북교회는 1971년 장립한 초대 김익보 장로로부터 2023년에 장립한 제5대 김종태, 신종철 장로까지 11명의 시무장로를 세웠으나 분쟁으로 교회를 이탈한 장로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선배 장로들이 보인 모범과 그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했던 후배 장로들의 헌신과 순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당회로 구성된 신북교회가 가는 길은 평안 그 자체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교회 성장과 발전에 주춧돌이 되었다. 이것은 신북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섭리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신북교회에 초대 권사로 임직한 김갑순 권사와 길수희 권사는 교회에서 권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은사를 발휘하여 신북교회에 미래에 세워질 권사들이 사역해 갈 길에 대해 이정표를 세운 권사들이다. 두 권사는 일제 강점기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사회

적으로는 교육의 혜택도 제대로 받기 어려웠고, 가정적으로는 전업 주부로서 육아와 생계를 담당해야 하는 당시 힘겨웠던 세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향한 저들의 충성과 순종적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고, 성도들이 보기에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가야 할 바로 그 길이었다. 특히 저들의 기도에 대한 신앙적 집념과 집착은 은퇴 후까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어서 후배 권사들이 본받아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사용하신 일로 담임 교역자는 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사역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에너지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지게 할 수 있었으며, 교회는 이 일로 안정감 있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

4) 김갑순 초대 권사 은퇴

이렇게 교회 사역을 순탄하게 이어가며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1984년 12월 2일 제직회에서는 김갑순 권사의 은퇴식을 준비했다. 1980년 9월 4일에 임직한 김갑순 권사가 4년 동안 권사의 소임을 다하고 교회법에 따라 70세에 은퇴하게 된 것이다. 제직회에서는 은퇴하는 김갑순 권사에게 한복 한 벌과 공로패를 증정하여 예우하기로 결의했고, 김갑순 권사는 그 해를 마지막으로 시무에서 은퇴했다.[68]

이럴 때 우리는 항존직분자들이 법적으로 시무에서 은퇴로 달라지는 삶의 자리를 생각하게 된다. 총회 헌법은 항존직분자들의 시무 은퇴 연령을 만 70세로 정하고 있다. 목사와 장로들의 연령에 따른 은퇴는 필요에 따라 법으로 제정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인적 상황에 따라

68) 김갑순 권사의 딸인 박민숙 은퇴 집사에 의하면 김갑순 권사는 법적으로 1911년생이다. 그러나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에 차이가 흔하던 시절이었으므로 호적 나이와의 차이에 따라 1984년에 은퇴한 것으로 보인다.

주신 능력과 은사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일로 여겨질 때가 없지 않다. 권사들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목사, 장로와 사역의 영역이 다른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 김갑순 권사는 신북교회에서 법적으로 은퇴 권사의 자리로 물러나게 되었으나 교회의 종신 권사처럼 은퇴 전과 후의 헌신에 다름이 없었다.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교회에서 직분의 변화도 막아선 셈이다. 김갑순 권사는 기도와 전도를 쉬지 않았으며, 그 사명으로 주어진 사역에 은퇴 후까지도 시종일관 충성으로 임했다.

김갑순 권사의 기도에 대해 전해 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벽돌교회 성전은 강단 바로 앞에 마루를 깔고 마루 뒤편 아래에 의자를 놓은 구조였는데 김갑순 권사의 기도 자리는 마루 한쪽에 정해져 있었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던지 마룻바닥의 칠이 벗겨져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김갑순 권사는 몇 시간이고 기도를 쉬지 않아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나절 교회에 나와 보시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기도했다고 하니 기도 자리가 닳아 칠이 벗겨질 정도였다는 것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김갑순 권사는 전도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거주하는 집이 있었던 사랑마을은 물론이고, 장거리와 교회 주변 마을 골목은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누비고 다녔으며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 아이들에게는 군것질거리를, 가정에는 반찬거리를 가져다주며 전도에 힘써 그의 정성에 감동하여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

현재 사랑마을에서 출석하는 신북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김갑순 권사가 전도한 전도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갑순 권사의 믿음과 사역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다. 시간을 잊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녹여낸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모습이 그때와 지금의 신북교회이다. 신북교회 초대 김갑순 권사는 길수희 권사와 함께 권사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전범(典範)을 세운 청지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권사라고 하면 우선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의 상징적인 존재로 각인(刻印)되었으며, 1세대 권사로서 후배 권사들에게도 큰 역할 모델로 아직도 교회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 저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기만 해도 그 길 끝에서 만면에 웃음으로 두 팔 벌려 맞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5) 제2대 권사 선택과 임직

신북교회는 초대 권사로 김갑순 권사와 길수희 권사를 세우고 4년이 지나 김갑순 권사가 은퇴하면서 길수희 시무 권사를 선임 권사로 하여 권사를 더 세워야 하는 시점을 맞는다. 1세대 권사들을 통해 권사 사역의 중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권사 사역의 비중을 더 확장하기 위해 1985년 12월 15일에 개회한 당회는 1986년에 신북교회 제2대 권사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1986년 1월 5일 교회에 광고하여 1월 12일에 권사 선택을 위해 투표하는 일정을 결의했다. 기도하며 예정했던 1986년 1월 12일 권사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에서 박민옥 집사, 윤계월 집사, 이영자 집사가 신북교회 제2대 권사로 선택이 되었다. 이들은 선배 권사들이 기도하던 자리를 물려받거나 함께하며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집사들이었다.

박민옥 피택 권사는 10대 시절에 신북교회가 태동한 장거리 마을 공회당 전도 모임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천막 교회를 거쳐 장거리 목조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교회를 섬기고, 결혼 후 직업 군인 남편이었던 오경근 집사를 따라 경상도 지역 근무지로 3년 내외 거주지를 옮겼다가 돌아온 후에 줄곧 신북교회를 섬겨온 신북교회 초창기 성도였다. 김갑순 친정어머니를 전도하여 교회에서 초대 권사로 세우는 일에 일조(一助)했으며 여전도회 회장(1969년 예배 일지)을 역임하며 교회 여성 사역의 중심에서 리더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섬겼다.

윤계월 피택 권사는 백승욱 장로의 부인으로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 1960년대 말부터 박민옥 집사와 함께 동년배(同年輩)로서 일찍이 집사

명부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교회 일을 열심히 섬겼으며, 여전도회 회장을 역임하며 교회의 궂은 일들을 솔선수범으로 감당하여 여전도회원과 집사로서 일찍부터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평소에 조용한 성격으로 무슨 일에든지 주장하고 나서기보다 조용히 섬기며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을 것이고, 성가대 활동에도 열심이어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에는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이영자 피택 권사는 함께 권사로 피택된 박민옥, 윤계월 피택 권사보다 10년 이상 어린 나이로 20대 중반인 1970년부터 집사에 임명(1970년 예배일지)받을 정도로 젊은 성도 중에 교회의 사역에서 발군(拔群)의 인물이었다. 천막 교회 유년주일학교 출신으로 당시 국민학교 입학 전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하여 교회를 꾸준히 지키면서 섬기기를 다하였으며, 직업 군인이었던 민경천 장로의 부인으로 교회 사역에서 장로 남편의 뒷바라지는 물론 선배 여전도회 회원들을 도와 성실히 섬겼던 모습에서 40대 이전의 나이였지만 이미 권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신북교회는 이 세 명의 피택 권사들에게 권사의 사역에 필요한 소양을 교육하고 1986년 5월 1일에 권사 임직예배를 드리면서 박민옥, 윤계월, 이영자 집사를 신북교회 제2대 권사로 세웠다.(교회 연혁)

사진 아래의 자료는 당시 순서지이다.

윤계월, 박민옥, 이영자 권사 취임

예 식 순 서

집례: 당회장 김은일 목사

Ⅰ. 예 배

개 식 사 …… 사 회 자
묵 도 …… 다 같 이
찬 송 …… 102 장 …… 〃
기 도 …… 천전교회 김정호목사
성경봉독 …… 히 11:5-6 …… 중도교회 문용소목사
찬 양 …… 성 가 대
설 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한빛교회 엄대섭목사
기 도 …… 설 교 자

Ⅱ. 임 직

서 약 …… (권사에게) …… 당 회 장

1. 여러분은 본 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궁핍한 형제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2.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교우에게

1. 신북교회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윤계월 씨, 박민옥 씨, 이영자 씨를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바대로 "주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권사취임기도 …… 당 회 장
선 포 …… 〃
권 면
(1) 권사에게 …… 성광교회 김광국목사
(2) 교우에게 …… 동부교회 전덕열목사
찬 송 …… 355장 …… 당 회 장

Ⅲ. 축 하

기념품 증정 …… 당 회 장
광 고 …… 김익보 장로
찬 송 …… 1 장 …… 다 같 이
축 도 …… 동산교회 여윤택목사
송 영 …… 성 가 대
폐 회 …… 안 녕 히

6) 김은일 목사 강원노회장(제59·60회기) 취임

신북교회는 1970년대에 성장 기틀 조성과 눈부신 성장 속에 1980년대를 맞아 그 토대 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持續)했다. 이러한 성장은 대외적인 통계나 교회의 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江原老會三十年史'(1984년 10월 5일 강원노회 발행)에 실린 강원노회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강원노회와 노회 소속 교회로서의 신북교회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강원노회'가 1954년 5월 25일에 강원 영서 지방 장로교회(통합) 치리회로 창립하였고, 1년 전인 1953년 8월 11일 '강원동노회'가 영동지방 장로교회(통합) 치리회로 창립하였다. 그러나 강원노회가 노회 설립 기준인 노회 내 15개 조직 당회 미달로 1972년 4월 18일, 제38회기에 강원동노회와 통합해야 했던 연유로 1983년 강원노회는 강원동노회와 통합 상태에 있었다.[69]

강원도 전역의 장로교회(통합)를 소속 교회로 하는 강원노회는 7개 시찰회(춘천, 원주, 양인, 삼척, 강릉, 영월, 태백), 102개 교회에 목사 총대 48명, 장로 총대 76명의 규모였다.[70] 당시 신북교회는 노회 상회비로 연 860,000원을 납부하여 강원노회 소속 102개 교회 중에서 상회비 납부 액수 순위가 19번째였고(1,000,000원 이상 납부교회 17개 교회) 춘천시찰회에서는 18개 교회 중 춘천성광교회(3,300,000원 납부. 춘천시찰회에서 춘천남시찰회가 분리 이전)와 춘천동부교회(3,300,000원 납부) 다음으로 많은 상회비를 납부하고 있었다.(1983년 노회 상납금 배정표. 강원노회 30년사)

강원노회 내에서 신북교회의 위치가 이러한 상황에서 신북교회 김은일 담임목사는 신북교회 부임 6년 만에 강원노회 서기(제53회~54회기 1979년 10월 16일~1980년 10월 13일. 제55~56회기 1980년 10월 14일~1981년 10월 12일)로 선출되어 강원노회 임원으로서 강원노회 서기를 4회기 2년 동안 역임하고, 제57~58회기 강원노회 목사 부노회장을 거쳐 제59회기 시작인 1982년 10월 22일

69) 제71회기 1988년 10월 11일 강원노회와 강원동노회로 다시 분립. 강원노회 회의안
70) 1988년 분립 후 2025년 현재 강원노회 현황. 교회 수 97 교회. 목사 총대 112명, 장로 총대 58명, 2025년 4월 22일 제144회 노회 회의안

강원노회 노회장 김은일 목사

개최한 강원노회(노회 장소 - 황지중앙교회) 석상에서 강원노회 제30대 노회장에 취임하여 제60회기까지(1982년 10월 22일부터 1983년 10월 10일) 2회기 1년 동안 노회장을 역임하였다. 신북교회 담임목사가 강원도 전역의 102개 장로교회(통합)를 이끌어 가는 대표로 활동하며 강원노회를 섬기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신북교회 72년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잠시 1990년대로 넘어가 보면 신북교회 김은일 목사는 노회장 역임 후 12년이 지난 1995년 강원노회 제84회기 때(1995년 4월 14일~1995년 10월 9일) 노회장이 중도에 사임하여 부재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71]에 놓여 있을 때 강원노회원들은 그 혼란스러운 노회를 원만하고 무난하게 수습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노회 내에 전(前) 노회장이었던 김은일 목사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김은일 목사를 강원노회 제85~86회기(1995.10.10.~1996.10.15.) 노회장으로 추대하여 세웠다. 강원노회에서 노회장을 두 번에 걸쳐 역임한 경우는 노회 창립 초기에 몇 명을 제외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김은일 목사가 유일하다. 노회의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회가 김은일 목사에게 그 일을 맡긴 것에서 김은일 목사의 리더십에 대한 노회 내에서의 신망과 기대가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다.

신북교회의 규모와 신북교회가 노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다가 김은일 목사 특유의 겸손함과 친화력에 근거한 감성적 리더십이 더해져서 강원노회원들이 김은일 목사를 노회 임원(서기)으로 선출하였고, 김은일 목사는 부노회장을 거쳐 노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할 수 있었다. 신북교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은일 목사가 대외

71) 역대 강원노회장 자료 명단에서 제84회기 노회장 명단 난이 공란으로 비어 있다.

적으로 이렇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일은 교회 내에서도 영적 리더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교회가 내외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도 밑거름으로 분명하게 작용했다.

7) 교육전도사의 청빙과 교육관 건축·본당 현관 증축

(7-1) 교육전도사의 청빙

신북교회는 1970년대 말에 이어 1980년부터 교회학교 교육에서 전문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육 환경의 확장 조성도 필요해졌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교회학교 교육은 유년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교사 양성을 위한 제대로 된 전문적 교육도 없이 교사를 임명하는 수준이었으니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육자에게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주일학교와 학생회, 청년회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채 교육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과정을 거친 젊은이들이 성장하여 교회학교와 학생회의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교사 수급의 일반적인 현실이었기에 거기에서 오는 직무상의 한계는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육 수요에 따라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신북교회 교회학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청빙을 결정하고 1981년 1월 24일에 첫 교육 전도사로 강대원 전도사를 청빙하였다. 하지만 무슨 사유 때문인지 부임 3개월 만인 4월 30일에 사임하였다. 교회학교에서 교육전도사를 청빙해서 책임 있고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시도하였지만 짧은 시일 내에 무산되었으나 교회가 교육전도사를 필요로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그나마 소득이었다.

그 후 교회학교는 교육전도사 없이 6년여 동안 교육활동을 하다가 정연성 전도사가 1986년 6월 1일에 부임하여 교회학교 교육의 체계를 잡아가며 교회학교가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進一步)하였다. 하지만, 정연성 전도사도 부임, 1년 6개월여 만인 1988년 1월 5일 사임했다. 교육은 백년

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하는데 정작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었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정연성 전도사가 신북교회에 부임하게 된 계기는 강원노회가 영월교회에서 운영하던 '강원성서신학원' 재학생 시절에 신북교회 김은일 목사가 강원성서신학원에 영어 교수로 출강하면서 사제지간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은일 목사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던 정연성 전도사에게 신북교회 교육전도사 사역을 제안하였다.(정연성 은퇴 목사 증언) 교회학교 사역에서 조직적으로 체계를 세워가며 일하던 정연성 전도사가 신북교회에서 일찍 사임한 것은 신학대학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당회원 일부의 몰이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목사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정연성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나 당회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마음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는 신학생 한 명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해 내지 못한 사정이 못내 아쉽다. 그러나 교회의 몇몇 후원자들이 있어서 정연성 전도사가 다른 교회로 옮긴 후였음에도 후원금을 보내어 공부를 계속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고마웠다는 마음을 정연성 목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성도들이 자원하여 후원한 것에 대해 사람이 들어도 칭찬받을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셨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정연성 전도사는 이후 강원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양인시찰회 기린교회 시무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여 횡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북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할 동안 자신이 제작했던 교회학교 주보 전체와 함께 모아 두었던 교회 주보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신북교회에 기꺼이 기증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담당한 목회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자료를 보존했던 자신의 목회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 소중한 자료에서 읽을 수 있다.

정연성 전도사 사임 후 3년 만인 1989년 5월 15일에 임보순 전도사가 부임하여 2년 5개월 동안 시무하고 1991년 11월 10일에 사임했다.

1980년대 교회의 주요 연혁은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으로 시작해서 교

육전도사 청빙, 교육관 건축, 제2대 권사 취임, 유치부실 신축, 교육전도사 부임과 사임으로 끝난다. 이는 1980년대 교회 주요 사역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사료라고 하겠는데 신북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과 교회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전도사를 청빙하는 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관을 신축하는 일에 치중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교회의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교회가 일꾼들을 계속 세우고, 교육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옳은 선택이었다고 하겠다.

(7-2) 교육관 건축과 본당 현관 증축

신북교회는 1980년 6월 1일 제직회에서 교회의 예배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새 성전 건축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있다. 건축 여부 결정을 위해 '다음 주일에 임시 제직회를 소집해서 재논의를 하기로 한다.'고 임시 제직회를 마무리한 후, 6월 8일에 소집한 임시 제직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7월 정기 제직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7월 정기 제직회에서도 성전 건축의 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성전 건축의 건은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한 지 10년 남짓 지났는데 다시 새 성전 건축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는 당장에 새 성전이 필요해서였기보다 앞으로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육 공간이 부족한 데서 오는 수요가 증대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성전 건축의 사전 준비를 위해 건축 적금 등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나 교회의 당시 상황으로는 무리라고 판단해서 무기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성전 건축 계획을 무기 연기한 후 3년이 지나고 1983년 1월 2일 정기 제직회에서는 금년 내에 교육관 건립을 결의하고, 2월 제직회에서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김익보 장로, 회계에 오경근 집사, 위원에 백승욱, 민경천 장로를 선임했다.

교육관 건축 계획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월 제직회에서 제직들이 건축헌금을 작정하니 580,000원이었으며 제직을 제외한 일반 평신도들은 3

월 마지막 주일에 작정 헌금을 하기로 결의했고, 6월 제직회에서 교육관 건축 문제는 건축위원회에 일임하여 책임 있게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1983년에 건축을 결의했던 계획은 건축헌금 확보와 제반 준비를 마치느라 다음 해로 미뤄졌던 것으로 보이며 1984년 3월 4일 제직회에서 '건축위원회의 3월 중 교육관 건축 시작 보고'가 있게 된다. 교육관 건축과 관련한 논의는 4월 제직회에서 공사 인부 접대는 건축위원들에게 일임하는 것을 마지막 결의로 3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6월 1일에 교육관을 준공하여 하나님께 올린 것으로 교회 연혁은 기록하고 있다.

구 성전 교육관 : 1차 1층 건축(1984년), 2차 2층 증축(1999년)

교회 연혁에 의하면 교육관 건축과 함께 1984년 6월 1일에 본당 현관 증개축도 같이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 그 근거로 1984년과 1986년 당회록 및 제직회의록을 살펴보겠다. 1984년 당회록과 제직회의록에는 현관 증개축 관련 협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교육관 신축 관련 협의 내용만 기록하고 있고, 1986년 3월 9일 12시 30분 교육관에서 있었던 당회록에는 교회 현관을 증축하기로 하고 4월 초에 착공할

것을 결의한 내용과 이를 위해 당회원들이 먼저 김은일 목사 50만원, 김익보 장로 100만원, 백승욱 장로 40만원, 민경천 장로 60만원 계 250만원을 헌금한 기록과 1986년 3월 2일 제직회의록에 교회 내부 구조 개조와 필요 재정 확보를 위해 임시 제직회 소집을 결의한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연혁의 1984년 6월 1일 교육관 20평 건축 및 본관 현관 증축의 내용은 교육관 건축 내용만 유지하고 교회 현관 증개축의 내용은 1986년으로 옮겨 기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당 건물의 출입구에 현관이 없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면 바로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문에서 4평 내외 정도를 밖으로 내서 현관을 덧붙여 본당 출입문을 이중문 구조로 바꾸니 비로소 교회 건물로서 어엿한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1986년 2월 23일 당회에서는 교회 내부 2층에 유아실 마련을 위해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88년 6월 15일에는 교회 옆 공간에 유치부실을 신축했다.(교회 연혁)

1980년대에는 교회가 예배 환경 개선과 교육 공간 확장을 위해 교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당회원들이 이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신북교회는 늘어나는 교육 공간 수요를 위해 300평이 채 안 되는 비좁은 교회 대지에 교육관과 유치부실, 본당 현관을 증개축하며 예배와 교육에 필요한 공간 확보에 힘썼다.

8) 교육 기관들의 활동

(8-1) 학생회와 청년회

1980년 학생회는 백춘길 부장, 회장 박병오, 부회장 백종식, 총무 서승권으로 1980년대를 시작했다.(학생회 약사(略史)) 그해 5월에 있었던 제8회 신북지구 기독학생 연합 체육대회에 신북교회 학생회가 참가하여 우승했으며 7월에는 지난해와 같이 학생회 여름 수련회를 대신하여 학생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학생 심령부흥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학생 사역에 영적 능력으

로 소문이 자자했던 춘천동부교회 출신 김요한 전도사를 강사로 모셨다. 1년 전에 경험했던 학생 부흥회의 경험과 영적 체험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던 터라 임원들을 중심으로 오직 기도와 모이기를 힘쓰며 준비할 수 있었던 학생 부흥회는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믿음의 기초를 놓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00여 명 내외가 되는 학생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과 때 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에 주인이 되시고 평생을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잊지 못할 영적 체험이 저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당시에 학생회 부장으로 이 일을 학생들과 준비하고 함께 했던 백춘길 원로장로는 회고하고 있다. 학생 부흥회는 웬만한 규모의 교회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인데 신북교회 학생회는 2년 동안 두 번에 걸친 부흥회를 통해 개인의 영성 못지않게 학생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새롭게 인식하고 세워가는 계기도 되었다.

이런 학생회원들의 놀라운 경험들은 학생회원 배가(倍加)로도 이어져서 신북교회 학생회를 중고등부 단일 체제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리하여 1981년에 교회에서는 학생회 체제를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운영하는 실험적 운영을 계획하고 중등부장에 김영근 집사, 고등부장에 백춘길 집사를 임명하여 학생회 운영을 맡겼다. 그 첫 임원으로 중등부 회장 유기선, 부회장 이영진, 총무 오혜영, 고등부 회장 백종식, 부회장 김은숙, 총무 백종주, 이항임, 1982년에는 중등부 회장 백종관, 총무 이충재, 고등부 회장 김은숙, 총무 정순관으로 2년에 걸쳐 운영하였으나 중등부의 자치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1983년에는 다시 통합하기에 이른다.(학생회 약사(略史))

학생회 주최 학생 심령부흥회는 1983년에도 이어져 8월 3일 이종임 전도사를 모시고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던 기록이 7월 31일 예배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학생회의 부흥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0년대 초반에도 학생회는 1969년에 창간하였던 학생회 문집 '백향목'을 계속 발간하며 학생

들의 문예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갔으며 주목할 만한 활동은 1982년 김영근 학생회 부장 체제에서 백향목 9호 발간과 함께 학생회원들의 음악과 문학을 아우르는 문화 활동으로 제1회 '등대'를 개최했다. 이는 지금까지 신북교회뿐 아니라 주변 교회에도 없었던 새롭게 시도한 음악 문예 활동이었다. 신북교회 학생회 주관으로 시작한 '등대'는 신북교회 학생들만의 발표와 공감 활동이 아니고 신북교회의 청년회원들과 여러 교회의 학생회원들까지도 초청하여 함께하는 문화 활동이었으며 시골 교회 학생회가 개최하고 진행하는 문화 예술 활동치고는 제법 규모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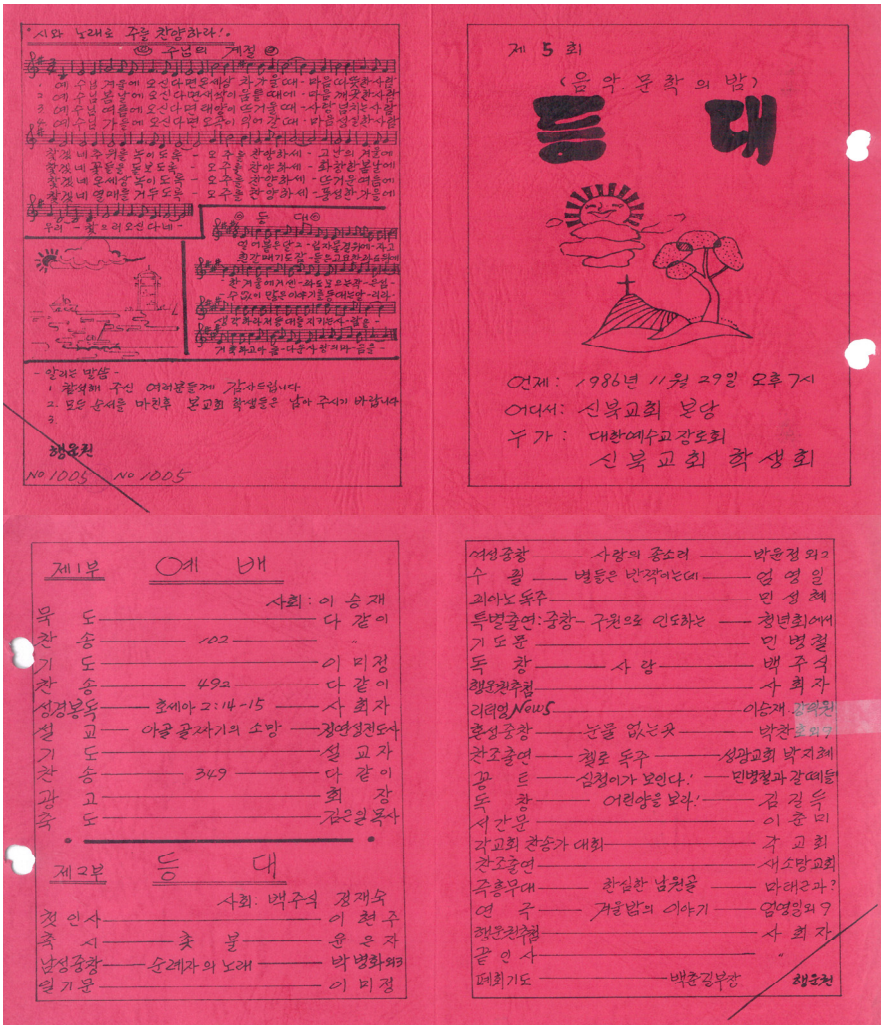
정연성 은퇴 목사가 신북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1986년에 있었던 제5회 등대 프로그램에 의하면 시와 수필을 비롯한 피아노 독주에 청년회의 특별 출연 중창, 춘천성광교회 박지혜 학생의 찬조 출연 첼로 독주, 새소망교회 찬조 출연, 연극 등 여러 장르를 망라한 종합 예술 활동이었다 해도 손색이 없었다. 이런 활동을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했던 모습에서 학생들의 자치적인 능력과 활동성을 엿볼 수 있다.

정연성 당시 교육전도사는 학생회 담당 전도사답게 '등대'의 프로그램을 손수 그리고 써서 색종이에 복사한 자료를 지금껏 간직하고 있다가 교회에 기증해 주어 1980년대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었다. 학생회가 1982년 제1회 '등대'를 개최했다는 기록만 존재했었는데 정연성 은퇴 목사가 자료를 보존했다가 기증해 준 덕분에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연성 은퇴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기에서 역사 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다. '등대'는 신북교회 학생회가 신북지구 기독학생 연합체육대회, 여름 수련회(또는 부흥회)와 함께 1980년대에 매년 빠짐없이 활동을 이어왔던 연례행사였다. 학생들은 교회에서 이러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영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인격체로 성장해 갔으며 행사를 기획, 협의, 조정, 진행하는 등의 준비 과정과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터득하면서 자율적이고도 자치적인 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할 수 있었다.

이 경험들은 학생들이 후에 사회인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업무적 활동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크게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교회의 교육활동은 신앙교육을 넘어 한 사람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또는 리더로서 필요한 종합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크게 이바지했음도 주지(周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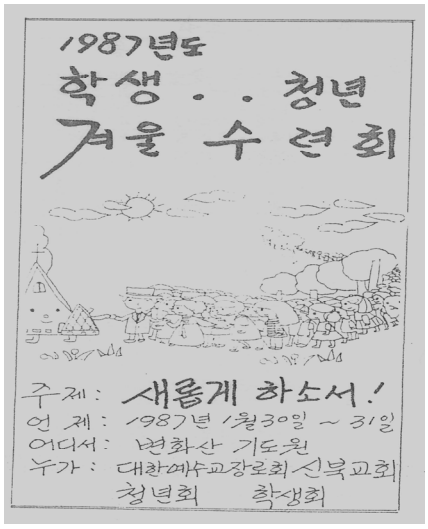
'제5회 등대'를 상기하며 프로그램을 사진 자료를 그대로 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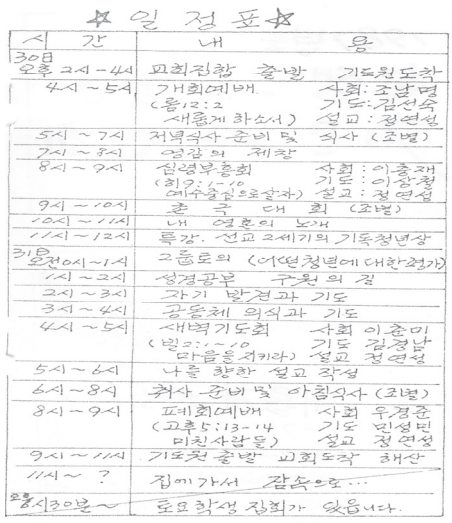

제 5 회
(음악 문학의 밤)
등 대
연제: 1986년 11월 29일 오후 7시
어디서: 신북교회 본당
누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학생회
제1부 예 배
제2부 등 대

제5회(1986년) 등대 프로그램

정연성 은퇴 목사가 기증한 자료 중에 1987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변화산기도원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 아래 신북교회 학생·청년 합동 수련회를 개최한 프로그램 문서가 있다. 정연성 교육전도사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찬양 여섯 곡의 악보를 직접 그려서 가사를 쓰고, 표지 그림에 일정표까지 일일이 그리고 써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정교하다.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 자료에 의하면 수련회는 짧은 시간 안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심령부흥회에 특강, 그룹 토의, 조별 촌극 대회, 성경 공부, 자기 발견과 공동체 의식 기도, 나를 향한 설교 작성 등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새벽기도회와 폐회 예배까지 알차게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보아 학생과 청년들은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이러한 신앙 발전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했어야만 했다. 학생·청년 겨울 수련회 자료와 당시에 정연성 전도사가 제작했던 교회학교, 학생회, 청년회 주보를 역사 자료사진으로 싣는다.

1980년대 신북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렇게 선후배들이 어울리며 교회의 다음 세대들로 든든하게 성장해 갔다.





학생회, 청년회 겨울 수련회 프로그램(1987년)

교회학교 주보(1988년) - 정연성 전도사

(8-2) 교회학교 활동의 부침(浮沈)

교회에서 교회학교라 함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신앙을 교육하고 전도하는 기관이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교육을 담당하는 유년주일학교,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교육하는 학생회, 청년·대학생을 교육하는 청년회가 그것이다. 1980년대는 1970년대 말에 이어 교회학교 교육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기간이고 학생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두에서 제시한 대로 1980년을 시작하는 1월 6일 첫 주 주보에 기록한 지난 주일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한 인원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교회학교 예배 참석 인원				
구 분	남	여	계	총 계
유년주일학교	40	40	80	152
학 생 부	40	20	60	
청 년 부	7	5	12	

이는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한 일반성도 수의 두 배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로 이로써 교회학교의 전도와 교육 활동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

다. 유년주일학교와 학생회는 교회에서 별도의 교육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정도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고, 유년주일학교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한 7, 8월에는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교사들이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학생들의 성경학교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여름방학 후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교문 앞에 서서 일일이 홍보물과 선물을 나눠 주며 전도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친 결과이기도 하였겠지만 교회 외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모여 재미있게 활동하고 즐길 거리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는 사회적 배경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런 면에서 1970 ~ 80년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전도의 황금 어장이었던 시절이었고 교회마다 학생이나 장년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매우 뜨거웠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교회가 잘 활용한 결과가 교회 성장의 큰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갈수록 요원해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여름성경학교를 전후한 7월과 8월의 유년주일학교 학생 출석부에 등재된 반별 학생 수를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1년 7, 8월 유년주일학교 학생 재적수

부 명	유치부	유년 1	유년 2	소년 1	소년 2	초등 1	초등 2	계
학생수(명)	30	18	29	17	29	30	24	177

여름성경학교는 교회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였고 교회에서는 그만큼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했으며, 교사들은 비록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은 일이 전혀 없는 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보고 들으며 배운 것이 전부인 봉사자들이었지만 열일 젖혀 놓고 충성과 헌신으로 사역을 담당했다. 중·고등학생들이 포함된 교사들은 이러한 봉사를 통해 자신도 성경을 배우고 익히며 스스로의 믿음뿐 아니라 사회성도 키워갈 수 있었다. 유년주일학교의 학생들은 교회의 미래요, 가정의 소망

이고, 사회의 미래 동량(棟梁)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전심전력을 다해 교회 교육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했다. 교회의 교육 장소가 부족해서 집사들의 가정을 분반 공부의 장소로 내놓아야 했고, 능력이 되는 집사들 가정에서는 성경학교 기간 중 매일 적지 않은 인원의 교사들에게 성의껏 점심을 제공했으며, 다수의 성도들은 교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섬김의 활동들은 교회 공동체가 역동성을 발휘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동기 부여가 되었고, 이러한 협력과 섬김의 활동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1981년 교회학교 일지와 교사 출석부에 의하면 백승욱 부장을 중심으로 새 학년도를 시작할 때 교사 수가 18명이었고, 6월에는 교사 수가 22명으로 늘어나 있다. 학생 수에 따라 교사의 수요가 발생하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한 학년도의 중간에 교사 충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81년 6월 교사 출석부에 이름이 기록돼 있는 22명 교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백승욱, 백춘길, 박영희, 주영식, 김혜란, 오인환, 장은희, 백종원, 이현석, 김종태, 김은숙, 이문식, 신유금, 김은미, 김광호, 김봉걸, 김경용, 고은숙, 백종희, 김은경, 박노훈, 이항임'. 이후 7월과 9월에는 신북교회 교회학교 출신으로 목사 안수 후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경준(수원 하늘문열린교회 담임목사), 김성찬(화천사내교회 담임목사)이 중학생의 신분이면서 교사로 봉사를 시작했다.

신북교회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일으켜 신앙으로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겠지만 유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위의 우경준, 김성찬이 동갑내기 중학생 시절에 비록 교회학교 보조 교사였을 테지만 작은 쓰임이나마 받은 것을 보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첫걸음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비약은 아닐 터이다.

신북교회의 유년주일학교를 비롯한 학생회, 청년회가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괄목할 성장을 거듭해 가던 영적 기세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꺾이게 된다. 교회 주보에 게재한 교회학교 10년 사이의 상황을 비교한 다음의 표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확연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교회학교 상황 비교(1980년 초 / 1980년 말)

성 별	남	여	계	총 계
유년주일학교	40 / 18	40 / 19	80 / 37	152 / 75
학생부	40 / 15	20 / 17	60 / 32	
청년부	7 / 4	5 / 2	12 / 6	

1980년대 초 한 주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 예배에 152명 출석했는데 1980년대 말에 절반으로 줄어든 75명이 출석한 것이 조금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는 영향도 있었지만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은 수로 줄어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1980년대의 신북읍 인구는 197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신북교회와 인접해 있는 천전초등학교의 1980년 졸업생 수도 88명에서 1995년 졸업생 수 40명으로 15년 사이에 48명이 줄었다. 1980년 초에 졸업생이 88명이었다면 재학생은 어림잡아도 6개 학년에 500명은 되었을 것이고, 1989년 졸업생 63명에 재학생은 35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니 학생 수가 30%에 해당하는 150여 명 줄어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이 신북교회 유년주일학교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판단하는 단초가 될 수는 있다. 학령 인구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초등학교의 졸업생 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천전초교의 졸업생 수가 1991년 68명 이후 50명을 넘은 적이 없으며 1990년 중반부터는 40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2000년부터는 3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108쪽 천전초교 졸업생 현황 자료)

학령인구의 감소를 교회학교의 학생, 청년들이 줄어든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TV의 보급 등으로 다음 세대들이 즐길 거

리가 확대되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교회학교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것은 미래 교회학교 교육과 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먼저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따른 교회의 미래지향적 준비와 대처가 부족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관 20평 건축, 유치부실 신축 등 교육 공간 확장을 비롯한 물리적인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정도의 규모가 되었었다. 그리고 교회 교육에 대한 교회의 물심양면 지원도 충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았다. 교회학교 교육이 침체된 이유는 교육의 내외부적 상황이 변화하는 데서 오는 상황 판단과 그에 따른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이를 감당해 낼 만한 교회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과 창의적인 방향 모색도 부족했다. 백춘길 원로장로는 “신북교회 역사 편찬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당시에 교회학교 교육의 중심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교육은 백년대계여야 한다지만 100년은 고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몇 년 앞이라도 내다보며 끊임없이 피드백하면서 창의적인 교육 방법과 교육 체계 운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후퇴를 넘어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은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에서 구성원과 리더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다. 이는 어느 시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보다 사회의 변화에서 오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외면한 채 과거를 답습하며 현실에만 만족하는 무책임의 위험성은 과거보다 오히려 현재에 더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 분야뿐 아니라 교회 전반에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교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하나님 섭리와 뜻에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뜻에 맞는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신북교회가 72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 계획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펼쳐 교회가 이 시대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일임하여 맡기신 청지기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위기로 전락시킨 어리석음과 나태함에서 초래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9) 새로운 소망을 품는 교회

신북교회는 1970년대에 마련된 성장의 토대 위에 1980년대를 맞으며 1980년에 2대 장로 두 명과 초대 권사 두 명을 세우고, 이어서 1986년에 세 명의 권사들을 더 세우면서 교회 성장의 동력을 계속 축적해 왔다. 우선 김은일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당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데 필요한 리더십의 체제가 공고해졌고, 교회의 성도들도 너나없이 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당회의 리더십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필요한 사역을 위해 주어진 달란트를 아낌없이 감당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가족 같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하나 됨을 이루어 갔다.

김은일 담임목사가 신북교회의 비전으로 제시했던 '우리 교회 목표 1.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2. 전도하는 교회 3. 봉사하는 교회'를 실현하는 일에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과 충성과 순종의 역량을 다 쏟아부은 결과 10년 동안 전에 없었던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다. 이는 다음의 상황이 증명하고 있다.

1980년대 교회 성장 상황

구 분	연평균 예배 출석 인원(명)	세례 교인 수 (명)	재정 수입 (원)	제직회원 수 (명)
1979년	87.7	114	6,525,472	26
1989년	111.2	자료 미 보존	39,702,838	47

이 표에서 보듯이 예배 인원을 비롯하여 전 영역에서 증가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재정 수입의 증가 폭은 무려 600%에 달하고 있다. 교회의 외적 성장 지표만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외적 성장은 내적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지표를 근거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다.

여기에서 교회 리더들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당회원은 당회원대로 먼저 교회 내에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헌신과 봉사로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일에 솔선수범하였으며,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무엇이든 내놓을 수 있는 자세로 임했다. 실례로 1986년에 교회의 현관을 증축하는 일을 당회에서 결의하며 당회원들이 즉석에서 증축 헌금을 작정한 금액 2,500,000원은 당시로서는 거액에 해당하는 헌금을 먼저 작정하고 교회에 증축을 제안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따랐을 것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관 증축 헌금 3년 후인 1989년 예산 편성 내용에 따르면 목사 사례금이 연 8,120,000원이었다. 목사에게 14개월분의 사례금을 드렸다고 하면 월 580,000원을 드린 것인데 담임 교역자가 그중에서 교회를 위해 500,000원을 선뜻 헌금한 것이라면 한 달 사례금을 증축 헌금으로 드린 것이다. 그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을 것은 분명할 터이고 장로들도 이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자신의 능력에서 최대치를 드린 것이다. 성도들을 향한 당회원들의 감동적인 영향력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더구나 1983년 교육관 신축을 위한 제직들의 헌금 총액이 580,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회원들의 헌신은 감동 그 이상의 것이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권사들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저들은 집안의 경제권이 없는 전업 주부들로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일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였다. 사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전의 세대들로서 교육의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일반 세대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잣대로 저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저들을 기도의 용사들로 사용하셨다. 초대와 2대 권사들의 기도는 분명 성도들이 본받아야만 하는, 하나님께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기도였다. 예배 시간에 원고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표 기도는 막힘없이 흐르는 청산유수 그 자체였으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아멘'이 절로 우러나오는 은혜롭기 이를 데 없는 기도였다. 이런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감당했으니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외면하실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북교회에서 '권사'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상징적인 존재들로 성도들에게 인식되고 교회에 기도의 전통을 정립하는 일에 쓰임 받았음이 분명하다. 항존직분자들이 이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신북교회였다. 항존직분자들의 충성을 따라 함께했던 일반 성도들의 모습도 이들과 다르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온 성도들이 교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 신북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1989년 세출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교회 대지 구입비로 3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교회의 확장 이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40평 본당에 주일마다 100명이 넘는 예배 인원을 수용해야 하고 교회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들이 필요했으므로 교회가 더 큰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은 신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었다. 교회학교가 학령 인구 감소와 교회학교 시스템 미비로 인해 다소 침체의 길에 들어서 있었지만 교회의 큰 틀에서 보면 교회는 1980년대에 안정적인 성장 위에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

10) 나누며 섬기는 사역

신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는 사역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교회가 복음을 실천하는 일로 학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보살피고, 공경하며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신북교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는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회가 성장한 결과로 여러 면에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었겠지만 교회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모범 학생을 선발하여 학년 초나 학기 초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쌀이 필요한 가정에는 쌀을, 월동(越冬)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연탄을 꾸준히 지원하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작은 발걸음의 보폭을 조금씩 넓혀 가고 있다.

1970년대에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은 있었으나 정기적이지 않았고 그 대상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 그 횟수나 대상이 점차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에만 해도 연초 2월에 불우 학생인 춘성고등학교 학생에게 등록금 지원을 제직회의에서 결의한 것을 필두로 연말에는 모범 학생 돕기로 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였다.(12월 7일 제직회의록) 신북교회가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생필품이나 월동 연료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를 향해 다가가는 사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추진하는 가운데 1988년 3월에는 교회의 자치 기관인 여전도회가 산천리에 소재하고 있던 재활원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교회의 사랑 나눔 활동은 자치 기관으로도 확산하고 있으며,(1988년 3월 8일 예배 일지) 1988년에는 구제와 등록금, 병원비 지원 등 제직회의에서 결의한 건이 다섯 건이나 되었다. 교회는 장학금

이나 구제비뿐 아니라 동네 주민 중에서 장례(葬禮)가 날 경우에도 교회 이름으로 조의금을 보내기로 결정하는(1980년 2월 제직회의록) 등 지역사회 섬김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 가다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네 노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경로 위로 잔치를 여는 계획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사역도 처음으로 시도한다.(1987년 2월 제직회)

1989년 8월 제직회 결의 내용을 보면 1989년 8, 9월 중에 동네 노인 초청 경로잔치를 열기로 하고 그 준비를 위해 동네 60세 이상 노인 250명 정도를 초청하는 경비로 1인당 5,000원씩에 해당하는 1,250,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행사를 치르기로 결의하고 있다. 농사가 다 끝나기 전임에도 교회에서 개최한 노인 초청 경로잔치는 교회 공간이 좁아 교회 마당 외에 교회 옆 밭의 비닐하우스까지 잠시 빌려 자리를 깔고 어르신들을 접대해야 할 만큼 성황(盛況)을 이루었다.

동네 어르신들을 교회에 초청한 교회나 초청을 받은 어르신들은 너나없이 즐거운 표정으로 섬기고 즐겼으니 잔치 분위기 그대로였다. 교회로서는 지역사회에 한발 크게 다가서는 기회가 되었으며 교회가 동네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외딴섬처럼 떨어져 있던 교회에 대한 동네 인식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에 지출을 결정한 1,250,000원이라는 규모는 1989년 연간 수입 결산 총액이 39,702,935원이고 지출 결산 총액이 39,087,594원인 점(1989년 재정 보고서)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적은 금액도 아니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기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에 걸맞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뜻이다.

그해에는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 성도들이 특별헌금으로 충당한 헌금이 3,770,000원이었고, 교회 일반 재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5,482,380원이었을 정도(1989년 12월 제직회의록)로 교회 재정 지출 부담이 있었을 터인데도 개의치 않고 행사를 진행한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품은 비전 때문이었을 것이고 교회의 1980년대 표어 중에 '봉사하는 교회'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교회는 이웃 사랑 실천 외에도 해외 선교 지원에도 눈을 뜨기 시작하여 1989년 9월 정기제직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해외 선교 사업비를 반영할 것'을 결의하고, 12월 3일 제직회에서는 김금찬 목사(김은일 담임목사 3남) 선교 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신북교회는 춘천시찰회 내 서상교회 건축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1986년 10월 5일 제직회에서 10월 셋째 주일 저녁 예배 시 특별헌금을 하기로 하여 30만원을 헌금(10월 29일 광고)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섬김과 나눔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사역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섬김에 열심이었던 신북교회는 이 섬김의 경험을 계속 축적해 가서 후에 더 큰 사역으로 발전시켜 간다. 교회가 복음에 기초하여 실천하는 작고 사소한 사역의 그루터기일지언정 계속 이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주체들조차도 놀랄 정도의 크기로 그 그루터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경험에서 얻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들은 복음의 실천자로서 끊임없는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이다. 미약하게 시작한 사역들이 하나님 뜻과 복음에 합당하여 나중에는 크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았음을 교훈으로 삼아 교회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사랑과 충성으로 섬기기를 다하여야 하는 것을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

11) 길수희 초대 권사 소천(召天)

길수희 권사는 1923년 11월 10일 생으로 남편 박태신님과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서 넉넉한 살림을 살며 부평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평리가 소양댐 건설로 수몰되어 식솔들을 이끌고 1970년대 초에 당시 신북면으로 이주해서 정착하였다.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곳이 신북교회 주변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신북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신북교회는 공교롭게도 이전에 출석했던 부평교회와 같은 장로교 교단이었다. 길수희 권사는 박광장 장로(후에 은퇴 후 원로장로 추대)의 모친으로 신북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며 1973년부터 서리집사로 임명받아(당회록)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에게 묵묵히 기도와 섬김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스러웠으므로 서리집사 임명 7년 만인 1980년 9월 4일에 김갑순 권사와 함께 신북교회 초대 권사 안수를 받고 임직했다.

길수희 권사는 조용한 성격으로 묵묵히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궂은일에 솔선수범하였으며, 신북교회 초대 권사로서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 사역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며 권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 특히 길수희 권사는 기도하는 일에 쉬는 일 없이 앞장서는 청지기였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으므로 길수희 권사는 분명히 기도의 은사가 있는 권사였다. 길수희 권사가 기도하는 모습은 김갑순 권사와 함께 후배 권사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으며 교회 사역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충성스럽게 권사의 사역을 감당하던 길수희 권사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였음에도 1988년 1월 20일에 65세를 일기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 신북교회 초대 항존직분자로서는 처음으로,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아까운 일꾼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 품으로 불러올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길수희 권사가 평생토록 순종으로 섬기기를 일관한 삶에 복을 주셔서 생전에 아들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믿음의 일가를 이루게 하셨다. 그의 차남인 박광장 장로는 어머니 못지않은 신실한 청지기로 교회에 봉사하다가 2019년 12월 15일에 은퇴하며 신북교회 원로장로로 추대받았다. 박광장 장로의 아내 정순덕은 권사로, 아들 박수인과 딸 박자경도 안수집사와 권사로 신북교회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故 길수희 권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룬 증인이었다.

12) 기타 사역

1980년대 당회록과 제직회의록 및 예배 일지에 의하면 수많은 사역이 있었는데 여러 사역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역들이 있다. 담임 교역자 김은일 목사는 군목 시절 미국에 군목 관련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영어에 능통했다. 김은일 목사의 그 경험은 다양한 곳에서 쓰임 받았는데 그 첫째가 '강원성서신학교' 영어과 교수 출강이었다.

강원노회에서 평신도 교육의 한 방안으로 1979년 10월에 개설하여(강원성서신학교 출신 정연성 은퇴 목사 증언) 운영하던 '강원성서신학교' 영어과 교수는 과목 특성상 강의할 교수 섭외가 쉽지 않았으나 김은일 목사가 담당 교수로 여러 해에 걸쳐 계속 출강하며 강원노회 평신도 교육에 이바지했다. 강원성서신학교는 비인가 신학 교육 기관이었지만 이 학교 출신으로 정규신학교에 진학하여 목회자로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한 사례가 정연성 목사 외에도 여럿이다. 총회 내에서 규모가 작은 노회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던 강원노회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성서신학원'을 운영한 것은 탁월한 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김은일 목사가 외국인 강사 목사 초청 연합 부흥 집회에서 동시통역을 훌륭하게 소화해 내서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사역이다.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빌리 그래함 목사 등 외국의 유명 부흥사들을 초청해서 대규모 신앙부흥 집회를 열어 영적 열기가 들불처럼 일어나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기독교인 100만 명 집회가 정점을 이룰 당시에 춘천에서도 외국인 유명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초교파적으로 효자동에 있던 강원실내체육관에서 부흥 집회를 개최한 일이 있었다. 3,000명 정도 수용하는 체육관 공간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과 교회 교역자들이 각 교파의 여러 교회에서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부흥회의 열기가 그만큼 뜨거웠다.

외국인 목사의 거침없는 설교를 군더더기 없이 유창한 동시통역으로 체육관을 가득 메웠던 성도들을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 바로

신북교회 담임 교역자 김은일 목사였다. 집회에 참석했던 신북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풍성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통역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에서 받은 감동과 감격도 적지 않았다. 신북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마음 뿌듯한 장면이었다. 당일의 교회 예배일지에 기록한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1983년 10월 9일 수요일. 예배 참석 인원 남 5명, 여 30명 계 35명. 기도 통성기도, 설교 박광장 집사. 체육관 100주년 부흥회 참석함으로 적게 나옴.'

김은일 목사가 체육관 부흥 집회에 통역 목사로 참석하느라 교회 설교를 박광장 집사가 대신했으며, 평소에는 수요예배에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의 절반 정도인 50명 내외가 참석하지만, 그날은 35명에 불과한 적은 인원이 참석한 낯선 상황에 대한 이유를 기록한 내용이다. 지금부터 42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예배 참석 인원이 평소보다 적었던 것에 대해 기록자는 어색한 상황의 그 이유를 기록하고자 했던 듯하다. 그만큼 과거에는 주일 오전 예배 참석자 대비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았다.

사역에 해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집사 중에 대들보처럼 쓰이던 집사들이 군에서 전역하고 삶의 터전을 찾아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자주 있었다. 1981년 3월 29일 주일 예배일지에는 '떠나시는 김청호 집사님께 기념품을 증정'한 기록이 있으며, 10월 11일 일지에는 '떠나시는 신상근 집사님께 기념품 증정' 기록도 있어 같은 군 출신으로 담임목사의 목회에 큰 힘이 되었던 집사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에 담임 교역자는 물론이고 일반 성도들도 마음이 무거웠을 터이다.

교회를 떠났던 군인 출신으로 두 집사 외에 양만직 집사 가족까지 사이가 각별했던 세 집사들은 이사 후 출석 교회에서 장로 장립과 부인은 권사의 임직을 받아 평생을 주님의 일에 헌신하였으며, 신상근 장로는 은퇴 후 오랜 세월이 지난 90대의 연세에 아내 윤을중 권사와 춘천 딸네 집으로

돌아와 신북교회에 다시 출석하고 있으며, 윤을중 권사는 거동이 불편하여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으나 회복하여 신북교회에 출석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 시절에는 교회에 유입되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적지 않았다. 1984년부터는 신북교회가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신북교회 성도들에게 주보 보내기 운동을 제직회에서 결정하여 비록 주보 한 장이지만 그것으로 같은 교회 성도였음의 유대감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같은 해 1월 29일에는 김은일 목사 10년 근속 기념패를 증정하여 그동안의 사역에 감사를 표하였고, 동년 4월 22일 총동원 주일에는 축호(祝戶) 전도로 116명이 예배에 참석하였다.

매년 여름마다 우리 교단 총회 전국장로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전국 장로 수련회에 신북교회 장로들이 꾸준히 참석하여 수련과 교류 활동을 계속했으며,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총회 총대로 파송을 받아 총회에도 참석하고 있었고, 여전도회는 정기적으로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 참석 후 결과를 보고했다. 여전도회와 청년회, 학생회는 헌신예배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헌신을 다짐했다.

1987년부터는 연초에 제직 친목회를 매년 실시해서 제직들의 단합을 도모했으며, 1988년 11월 6일 제직 회의록에는 총동원 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회가 주민 전도를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총동원 주일은 매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며 성도들의 전도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총동원 전도 주일이 다가오면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한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초조했던 기억들이 있었다.

1987년 12월 총동원 주일에는 205명이 예배에 참석(예배 일지)할 정도로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적도 있었다. 1987년 6월에는 김은일 목사가 2개월간 미국 시찰을 목적으로 출타할 때 여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8월에 귀국할 때는 성도들이 24인승 버스를 대절하여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던 기록도 있다. 해외여행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 2개월 만에 귀국하는 담임목사에 대해 반가움의 예를 다한 모습이다. 1989년 10월 1일 제직회에서는 김은일 목사의 회갑 잔치 준비를 논의하고 있으며, 회갑 때 성도들이 교육관에 모여 담임목사의 회갑 기념 연(宴)을 열어 즐거운 축하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김은일 목사 회갑 기념

7.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1990년대)

1) 새 시대, 새 성전 건축 준비

신북교회 초창기인 1950~60년대는 담임 교역자의 부임과 사임이 잦고 시무 기간도 짧아서 교회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러나 담임 교역자의 부정기적인 부재 상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교회의 청지기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로 부르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를 지키며 섬기기를 다했다. 그 덕분에 신북교회의 역사는 고난 중에 오히려 든든하게 이어 오며 부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희생 위에 신북교회가 서 있었기에 신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적 기반은 튼튼할 수밖에 없었다.

신북교회의 1950~60년대 사역을 밑거름으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1970~80년대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셨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일진대,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맡은 일꾼들은 시대마다 다를지라도 신북교회가 지향해 가는 길과 목적은 다를 수가 없었다.

1970~80년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온 신북교회는 그 상황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고 그 이상의 성장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었다. 신북교회가 창립 후 30여 년 동안 외적 성장을 계속해 옴에 따라 12평 천막 교회에서 20평 목조 교회를 거쳐 40평 벽돌 교회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북교회 성도들은 체험으로 터득하고 있었다.

신북교회가 세 번째 예배당인 벽돌 교회로 옮겨 올 때 예배 인원이 40명 정도에서 1980년대 말에 예배 인원이 110명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몸소 겪으며 더 큰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

운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80년대 말의 역사에서 먼저 기술한 대로 신북교회 당회와 제직회 및 성도들은 1980년대에 이미 신북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확장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이를 교회 예산에 반영하고 있었다. 신북교회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 300만 원의 새 성전 건축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도 계속 이어왔다. 성전을 언제 건축할 것이라는 명확한 기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건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성도들은 건축 적금을 적립하면서 건축 준비를 꾸준히 해 왔다.

1990년이라는 새로운 연대를 시작하면서 '1990년 1월 7일 제직회'에서는 '교회 건축 대지 구입 추진위원'으로 김익보 장로, 김상수 집사, 오경근 집사, 고남순 집사를 지정하였고, '4월 1일 제직회'에서 '새 성전 건축 대지 구입'이라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를 가졌으며, '5월 6일 제직회'에서는 목요일 저녁에 대지 구입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를 결의하였다. 이는 한두 문장으로 기록된 단순한 기록이지만 이를 통해 교회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변화의 시기에 부응하여 품고 있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기도 없이는 진행될 수 없지만, 성전 건축은 특히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가장 힘들고 중요한 사역이므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다.

신북교회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처럼 큰 사역을 앞에 두고 먼저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과 성을 다하여 구하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건축헌금을 적립해 오던 교회는 1994년 12월 24일 제직회에서 건축위원장 김익보 장로, 회계 성기혁 집사를 건축위원으로 보고하였다가 1995년에 김익보 장로, 백승욱 장로, 민경천 장로,

박광장 집사, 백춘길 집사, 정춘식 집사를 위원으로 하는 건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였다.(1995년 2월 2일 당회록)

건축위원회가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모이도록 활동 방법까지 명확히 제시한 당회는 '1996년 7월 30일 당회'에서 건축위원회 회계로 박광장 집사를 결정하고, 현재까지 건축헌금 관련 업무가 건축헌금 관리를 포함하여 재정부 소관이었으나 건축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위원회가 구체적인 활동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1998년 1월 11일 당회'에서 재정부가 보고한 '1997년 예결산 보고'에 의하면 수입 예산 120,000,000원에 실제 수입 결산이 118,846,528원으로 1,153,472원 부족했고, 지출 결산은 117,023,818원으로 총잔액이 1,822,710이며, 건축헌금 보고 내용은 당시 결산으로 98,482,685원이었다. 교회 재정으로 연 300만원 적립을 시작한 건축 적금과 건축헌금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로 증가했다.

건축 기금 적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1998년 3월 31일 당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금 더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하였다. '1998년 6월 30일 당회'에서는 부흥회 후에 1차 건축헌금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확인한 데서 오는 자신감이 가득한 가운데 건축위원회 구성을 통해 새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은 서서히 구체화 되어 갔다.

1990년대 마지막 해인 '1999년 2월 4일 건축위원회'가 당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건축헌금은 이월금 113,229,364원, 1월분 대지 구입 적금 300만 원, 건축헌금 854,000원, 수입 계 117,083,364원으로 건축 재정이 이미 1억 원을 넘었고, 매월 300만 원씩 건축 적금을 꾸준히 적립해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건축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건축 재정이 어느 정도 모이자 건축에 대한 확신이 선 당회는 1999년 3월 4일에 교회 건축 대지는 1,000평, 대지 구입 예산은 2억 원을 목표로 결정하는 등 새 성전 건

축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당회원들이 먼저 건축헌금을 작정하기로 결의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당회원들이 솔선수범하며 속도를 냈다.

'1999년 2월 4일 제직회'는 당회의 '대지 1,000평 구입 및 당회원 건축헌금 우선 작정' 결정을 보고 받으면서 제직들도 건축헌금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온 성도들도 건축헌금에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자고 결의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당회가 앞장서고 제직회가 뒤를 이으며 전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권면하니, 이는 교회의 중대한 사역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모범적이고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성전 건축은 멀리 있는 까마득한 비전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질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새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김은일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973년 6월부터 신북교회 제9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여 시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선도(先導)했고, 그에 따라 교회가 새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했던 만큼 김은일 목사가 은퇴(1997년 11월 8일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하기 전에 성전 건축을 완료하여 입당 예배라도 드리고 새 성전에서 은퇴예식을 거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이 김은일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있었다. 그렇게 되었다면 김은일 목사의 목회 마무리가 더 아름다웠으리라. 이는 선임 장로로서 건축위원회를 이끌며 건축 준비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으나 김은일 목사와 같은 날 은퇴한 김익보 장로도 김은일 목사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며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역대상 21장에서 27장까지 무려 7장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이야기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와 완성하는 자를 필요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과 뜻은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과 함께 신북교회의 새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이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신북교회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은일 목사와 김익보 장로는 2000년대 초반에 건축하여 입당까지 마친 신북교회 새 성전 건축에 초석을 놓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을…….

2) 창립 40주년 기념과 항존직분자 임직

신북교회는 1990년대를 안정적이면서도 발전적인 시기로 이어가는 중에 창립 40주년을 맞게 되었다. 교회로서는 다음 시대를 준비해 가면서 동시에 1997년에 담임 교역자 김은일 목사와 초대 장로인 김익보 장로가 은퇴한 이후의 교회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교회 부흥의 시대를 함께 이끌어 온 영적 리더들의 동반 은퇴는 교회로서도 이전에 겪어 보지 않은 일이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교회의 사역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또한 미래 준비형이어야 하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신북교회도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김은일 목사와 김익보 장로의 은퇴에 관하여서는 후에 기록하겠지만 김은일 목사 24년, 김익보 장로 26년 시무는 전에 없었던 일로 두 청지기들의 은퇴 후를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퇴 이후와는 결이 다른 것이었다. 김은일 목사나 김익보 장로의 고심도 적지 않았을 것이며 이를 맞이하게 되는 교회로서도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으로 일관해 왔던 신북교회는 일찍이 두 분의 은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중 첫 번째가 신북교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안수집사를 세우기로 결의한 일이었다. 이는 그전에는 서리집사 중에서 장로를 직접 선택해야 했으나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 더 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항존직분자로서 교회에 더 크고 책임감 있게 봉사하라는 의미도 있는 일이었다.

신북교회 제직회는 당회가 '1993년 1월 25일 당회'에서 10월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으며 안수집사 5명과 권사 3명을 세우기로 하고 6월 중

에 항존직 선택 투표를 실시 하고자 결의했던 사항을 허락하며 직분자 선택 계획을 일찌감치 결정했다. 6월 당회에서는 7월 둘째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항존 직분자 선택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의했으며 '1993년 7월 제직회'에서는 당회의 결의 사항에 따라 7월 둘째 주일에 '공동의회'를 열어 안수집사 5명과 3명의 권사 선택 투표를 결정했다. 7월 10일에 실시한 투표에서 안수집사 5명을 선택하기로 하였으나 서리집사 중에 비교적 젊은 나이의 박광장, 서승목, 백춘길 집사 3명만 선택되고 나머지 2명은 선택하지 못했으며, 권사도 3명을 선택하기로 하였으나 서리집사 중에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허정대 집사와 오순옥 집사, 2명만 선택되어 나머지 1명은 선택하지 못했다. 이는 피택된 자들이나 피택이 안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의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읽혔다. 교회 모두가 다음의 시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피택자들은 당회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고, 1993년 10월 30일에 신북교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계획의 일환으로 집사 안수와 권사 취임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교회창립 40주년 기념 임직식

신북교회는 창립 40년 만에 목사 1명, 장로 3명 등 당회원 4명에 안수집사 3명, 권사 6명(당시까지 7명 임직 중 김갑순 권사 1984년 은퇴) 등 교회의 항존직분자가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13명으로 늘어난 규모가 되었다.[72]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항존직분자를 새롭게 세우는 일은 교회의 규모가 날로 커가는 데 따른 필수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필요한 조치이기도 했다.

신북교회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자축하면서 장로로 20년 동안 초지일관 교회를 섬겨온 김익보 선임 장로의 뜻을 기리며 근속기념패를 수여(1993년 7월 27일 당회 결의. 당회록)하기도 하였다.

안수집사로 임직한 박광장 집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해 오던 중에 군 전역 후인 1971년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하여 청년 시절부터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서 성도들로부터 장래에 교회의 큰 일꾼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으며, 서승목 집사는 장거리 목조 교회에서 학생회 시절부터 학생회 초창기를 비롯해 청년 시절에 교회 각종 사역에 열심이었고, 교회 밖에서도 춘천 CCC(대학생 선교회) 초기의 핵심 멤버로 선교와 전도에 열정이 있는 인재였다. 백춘길 집사는 장거리 목조 교회 말기 시절인 1969년 고교 1학년 때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하여 위의 두 집사들보다 나이는 물론 신앙의 연조, 교회 활동 등에서 여러모로 아래였으나 하나님과 교회의 선택을 받았다.

권사로 임직한 허정대 권사는 권사 물망에 올랐던 청지기들 가운데 연장자로서 남편인 김상수 집사의 인도로 1970년대 말 신북교회에 처음 출석한 이후 조용한 성품에 묵묵히 기도에 힘쓰며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왔으며, 오순옥 권사는 김익보 선임 장로의 아내로서 남편을 정성으로 내조하며 교회의 필요한 역할과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는 일에 솔선수범하였고, 허정대 권사와 함께 기도하는 일 등에 힘썼다.

이렇게 신북교회는 교회의 조직 체계를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와 함께

72) 목사: 김은일(1명), 장로: 김익보, 백승욱, 민경천(3명), 안수집사: 박광장, 서승목, 백춘길(3명), 권사: 길수희, 윤계월, 박민옥, 이영자, 허정대, 오순옥(6명)

교회의 지도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교육 기관과 구역, 자치 기관(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에 주어진 생명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3) 김은일 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김은일 목사는 1927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부친이 장로였던 기독교 집안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6·25 전쟁 전에 부모님을 따라 고향을 떠나 만주로 이주했다가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정착했으며, 20대 때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사고무친(四顧無親)의 상태에 놓였으나 부친과 신앙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어느 목사님의 주선으로 신학교에 진학하여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신학교 졸업 후 군목 시험에 합격하여 군종 병과로 군문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군목 시절에 미국 군사영어학교에 유학할 기회가 주어져서 미국 유학을 통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 후에 목회의 여러 분야에서 유익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73] 김은일 목사는 군목으로서 영관급 장교로 진급한 후 1970년대 초에 월남전에도 참전하였으며 귀국 후에 육군 중령으로 2군단과 3군단에서 군종참모로 봉직한 후 전역과 동시에 조현숙 사모와 4남 1녀의 가족을 이끌고 신북교회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었다.

김은일 목사는 1973년 6월 1일 신북교회 제9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여 1997년 11월 8일 은퇴하며 신북교회 초대 원로 목사로 추대되기까지 24년 5개월을 시무하면서 신북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중흥기(中興期)를 맞는 일에 큰 역할을 해낸 존경할 만한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

73) 김은일 목사는 신북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춘천지역 기독교 연합 부흥 집회나 부활절 새벽 춘천 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초교파 대규모 연합 예배 시에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설교할 때면 단골 통역 목사로 독보적인 역할을 했으며, 강원노회가 운영하던 강원노회 성서신학원에서 강원노회 목사 중에서 유일하게 영어과 교수로 활동했다.

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김은일 목사가 신북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신북교회 역사 20년 동안 신북교회를 거쳐 간 담임 교역자 8명 가운데 1년 남짓 시무한 교역자가 5명이나 되었고 가장 오래 시무한 교역자가 제6대 담임 교역자 정삼조 전도사(벽돌 교회 건축에 기여)로 시무 기간이 2년 7개월이었다. 담임 교역자들이 부임과 사임을 반복하는 동안에 담임 교역자 부재 기간도 무려 5년 10개월이나 되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김은일 목사의 장기 시무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은일 목사의 부임으로 담임 교역자 부재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신북교회는 이전에 어려웠던 상황을 겪어온 것이 오히려 연단이 되어 김은일 목사와 함께 교회다운 교회의 사역을 마음껏 이어갈 수 있었다. 거기에다가 김은일 목사는 성품과 성정이 온화하고 겸손하며 항상 소탈한 모습으로 누구와도 쉽게 이웃이 될 수 있는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어 농촌 교회 성도들과 친밀감 있는 목회를 해나가기에 아주 적합한 목회자였다. 김은일 목사가 시무할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심방을 통한 관계 중심의 목회는 교회 공동체 운영과 관리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필수적인 요소였다. 김은일 목사의 심방 중심 목회는 성도들을 가족 같은 유대 관계로 묶어서 교회를 정감(情感)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우는 데 시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하였고, 그것이 목회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김은일 목사가 신북교회에 부임 후 4년 만에 위임목사로 추대(1977년 3월 25일)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신북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

김은일 목사는 신북교회 담임 교역자로 시무하는 동안 교회의 비전이요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1.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2 전도하는 교회 3 봉사하는 교회'로 해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며 제시했다. 신북교회는 그 목표를 향해 시종일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당회를 비롯해 전 기관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성도들을 양육하며 교회 공동체를 결속시켜 갔다.

김은일 목사가 24년 동안 신북교회에서 목회한 내용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역사에서 전술(前述)한 목회의 세부 내용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신

북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성장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은일 목사 목회 기간 변화한 교회의 상황(1973~1997)

연 대	주일 예배 출석 연평균 인원(명)	제직 회원 (명)	세례 교인 (명)	재정 수입 (원)
1970년대 초	48	11	52	1,540,000
1997년	120	62	145	118,000,000

김은일 목사는 신북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지속적으로 든든히 세워가면서 교회 밖에서도 그의 감성적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춘천 지역 기독교 연합회의 활동에 항상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각 교파의 교역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였고 대학생 선교회 대표 김준곤 목사가 주창한 민족복음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각 지역마다 전개하고 있던 춘천 성시화 운동에도 참여하였으며 특히 영어 통역 관련 사역에서는 발군(拔群)의 실력을 발휘했다. 신북교회가 소속돼 있는 강원노회에서도 김은일 목사는 제59, 60회기(1982. 10. 22~1983. 4. 12)와 제85, 86회기(1995. 10. 10~1996. 4. 18)에 걸쳐 4회기 2년 동안 노회장을 역임하며 노회를 이끌었다. 특히 두 번째 임기의 노회장은 전임 노회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회원들이 수습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김은일 목사를 지목하여 노회원 만장일치로 노회장으로 추대한 것이었다. 이는 그만큼 김은일 목사가 노회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으며 신북교회는 이 일을 교회의 영광이요 크나큰 자랑거리로 여길만 했다.

김은일 목사는 신북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강원노회뿐만 아니라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춘천 지역 복음화에도 기여했다. 1981년 3월 1일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가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개최한 3·1절 기념 연합예배(기도 이기성 목사, 찬양 중앙교회 성가대, 설교 박철영 목사, 헌금기도 방지각 목사, 광고 황영찬 목사, 축도 이치백 목사)에서 김은일 목사는 회장으로서 예배 사회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가 성수고

등학교에서 개최한 광복절 36주년 경축예배(기도 임택창 목사, 성경봉독 김영원 목사, 찬양 동부교회성가대, 설교 김영출 목사, 축사 박종문 도지사, 특별 기도 허 걸, 허 균 목사, 헌금기도 신청웅 목사, 축도 홍봉유 사관)에서 예배 전에 회장 인사를 했다. 김은일 목사는 이 외에도 춘천효신교회(담임목사 방지각)가 정규과정의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하는 효신고등공민 상업전수학교의 1980학년도 졸업식(1981. 2. 14 중 제20회, 고 제10회)에 참석하여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축도를 하기도 하였다.

김은일 목사는 목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큰 족적(足跡)을 남겼다. 4남 1녀의 자녀들을 모두 목회자 또는 목회자의 아내로 길러낸 것이다. 자녀들은 신북교회에서 학생과 청년의 시절을 보내며 신앙적으로 성장하며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영찬, 문찬, 금찬 성찬, 네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였고, 외동딸인 혜란은 어머니를 따라 사모로서 남편 목사의 사역을 도왔다. 외동딸 김혜란 사모의 남편 윤창현 목사는 강원동노회 상장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강원동노회 노회장을 역임하고 은퇴하였다. 김은일 목사는 강원노회와 강원동노회가 통합 시절인 강원노회 때에 노회장을 역임했고, 사위 윤창현 목사는 강원노회와 강원동노회가 분리(1988. 10. 11)된 후에 강원동노회장을 역임했으니 강원동노회 역대 노회장 명부에는 장인과 사위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는 목회자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은일 목사가 신북교회의 당회장으로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조현숙 사모의 내조도 큰 힘이 되었다. 한 교회 담임목사의 사모로서 교회의 어머니 역할과 동시에 5남매의 어머니 역할을 해내는 일은 쉽지 않았을 터이나 조현숙 사모는 '오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필요로 하시는 대로 다 키워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결과로 자녀들을 목회자나 사모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많은 영혼 구원의 영역을 확장해 가셨다. 어느 가정에서나 목회자 한 명 배출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다섯 자녀를 모두 목회자나 목회자의 아내로 길러낸 것은 수많은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 가장이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자녀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거나 쓰임 받고 있으니 이 또한 가정의 큰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이면에 조현숙 사모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고, 김은일 목사 가정에서 배출한 목회자들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의 숫자만큼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왕성한 목회 사역을 이어오던 김은일 목사가 1997년에 정년을 맞았다. 교회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 1997년 6월 30일 당회에서 동년 7월 20일 주일에 공동의회 소집을 계획하고, 동년 7월 11일에는 춘천시찰 성문교회를 담임하던 이덕산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모시고 은퇴 예정자인 김은일 목사와 김익보 장로를 제외한 백승욱 장로, 민경천 장로가 임시 당회로 모여 11월에 은퇴하는 김은일 목사를 원로목사로, 김익보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로 하고 공동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당회록). 1997년 7월 20일 12시 10분 교회 본당에서 이덕산 목사를 임시 공동의회 의장으로 모시고 개회한 공동의회에 112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김은일 목사를 신북교회의 원로목사'로, '김익보 장로를 신북교회 원로장로'로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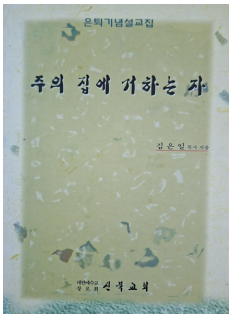
그와 더불어 김은일 목사의 은퇴와 원로목사 추대 조건으로 승용차 1대와 퇴직금 5,000만 원을 일시불로 드리며 연금은 드리지 않기로 상정한 안건도 만장일치로 허락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김은일 목사의 은퇴 기념으로 은퇴 기념 설교집을 발간해 헌정하기로 했으며 그 편집을 백춘길 집사에게 맡겼다. 은퇴 기념 설교집은 김은일 목사가 평생에 선포한 설교 중에 42편을 선별하여 싣고 김은일 목사가 설교집의 제목을 직접 정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제목으로 김은일 목사의 은퇴 일에 맞춰 발간(1997년 11월 7일)했으며 발간 경비 300만 원은 교회에서 전액 지출했다.

김은일 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기념

그렇게 해서 1997년 11월 8일(당회에서 날짜 결정. 1997년 10월 5일 당회록) 신북교회 본당에서 내외 귀빈과 하객들 그리고 신북교회 성도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 속에 김은일 목사의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예식을 거행하여[74] 신북교회 사역 24년 5개월의 마지막 장을 은혜롭게 마무리하였다. 은퇴하며 신북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된 김은일 목사는 신북교회와 강원노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노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강원노회 제1호 공로목사로 추대(은퇴 기념설교집의 춘천동부교회 김홍규 장로 헌사 내용 중)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김은일 목사의 목회 행적과 인품, 리더십에 대한 찬사(讚辭)가 교회나 강원노회에서 차고 넘쳤으나 본 역사서 편찬위원들은 은퇴 기념 설교집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 수록한 김은일 목사의 설교와 당회원, 강원노회 동역자, 가족의 축사, 헌사, 회고사 등을 발췌하여 별도의 차례에 실어 김은일 목사를 회고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하여 다음의 순서에 발췌 내용을 싣는다.

74) 김익보 장로의 은퇴는 별도 기록

4) 김은일 원로목사 회고(回顧)



[편집자 註] 1997년 김은일 목사의 은퇴를 기념하여 신북교회에서 발간하여 김은일 목사에게 헌정한 김은일 목사 은퇴 기념 설교집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내용 중에서 저자의 교회에 대한 인사, 동역자들의 축사 및 헌사(獻詞), 당회의 감사 인사와 가족의 헌사 등을 발췌하여 별도의 차례로 실었다. 은퇴 당시에 김은일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했던 마음과 당회와 동역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김은일 목사의 모습, 가족이 아버님에 대해 가졌던 애틋했던 마음 등을 발췌한 내용에서 살피며 회고하는 것(은퇴 기념 설교집)이 짧은 필설로 오래 전의 기억을 더듬어 어렴풋이 쓰는 것보다도 훨씬 생생할 것이기에 발간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옮겨 이 차례를 싣는다. 설교 두 편 중 첫 번째 설교는 군목 당시에 선포했던 설교로 설교집의 맨 앞에 실린 설교이고, 두 번째 설교는 신북교회에서 선포한 설교로 설교집의 맨 뒤에 실린 설교이다.

김은일 목사의 회고와 감사 인사

책 머리에...

신북교회 당회장 **김은일** 목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칠십 평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시고 37년 동안 이 땅 위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은퇴할 수 있도록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젊은 시절, 육군 군목으로 종군하면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서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젊은 정열을 불태웠던 일, 1971년 1월 월남

전선에 파견되어 최전방 전투 지역을 두루 방문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인생관과 복음을 전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올렸던 일,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여 팔과 다리가 잘린 병사들을 위해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위로해 주어서 새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게 힘을 북돋워 주었던 일 등은 매우 보람되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부상과 병으로 운명하는 병사들을 그의 부모를 대신하여 임종했던 일이 나의 군목 생활에 가장 값진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군문을 떠난 후 부족한 종에게 신북교회를 맡겨 주셔서 24년간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장로로, 집사로 하나님 앞에 대를 이어 헌신하시던 부모님께서 일제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던 중,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 누대에 걸쳐 살던 고향 평안북도 선천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이주한 것이 실향한 우리 가족사의 시작입니다.

해방을 맞이했으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월남하여 서울의 해방촌에서 시작한 타향살이의 갖은 시련 속에서 전란 중 부모님을 여의고 사고무친의 상태에 놓인 실향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신학공부를 하게 하시고 , 군목으로 사용하시다가 결국 신북교회에 또 다른 고향의 둥지를 틀게 하셨습니다. 신북교회는 저에게는 고향일 수밖에 없으며 신북교회를 빼놓고는 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참으로 감사 한 곳입니다.

4남 1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하여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사모로 대를 이어 5대째 계속되는 우리 가족의 100년 신앙 역사를 이어가게 된 곳도 바로 신북교회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24년간 신북 제단에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보호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으니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어린 시절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종으로 강하게 쓰시기 위한 연단이었으며,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를 은혜 중에 마치기까지 기도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 부족한 목자에게 묵묵히 순종으로 일관해 주신 신북교회 당회와 온 성도님들의 사랑은 앞으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은 여생은 신북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은퇴를 앞두고 부족한 종이 그동안 신북교회를 중심으로 선포한 말씀 중의 일부를 발췌하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란 설교집을 세상에 내놓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제목은 시편 84편의 말씀 가운데서 취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오는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 자가 복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중심이며 주님과 함께 살며 동고동락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생활은 기쁨이 있고 새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충성할 때 주님 앞에 가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금번 설교집을 출판하는 데 무척 주저했습니다. 실력도 없고 내용도 빈약하여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의 권유와 용기를 북돋워 주심에 힘입어 조심스런 마음으로 출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설교집이 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당회원들과 사랑하는 신북교회 온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백춘길 집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책자가 나오기까지 뒤에서 기도해 주며 도와준 아내와 막내 아들, 자부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보잘 것 없는 설교의 내용을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신북교회 목양실에서 주후 1997년 10월 13일

지은이 씀

강원노회 동역자 임신영 목사 추천사

추 천 사

강원노회 증경 노회장. 춘천동부교회 당회장 **임신영** 목사

언제나 청결하고 진실하며, 항상 반듯하고 단정하신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사신 목회자. 오직 성경과 복음만으로 교회와 교인만을 섬기신 목사님. 모든 목회자들이 거울로 삼아야 할 참으로 훌륭한 면을 지니신 김 목사님을 마음 중심으로 존경합니다.

김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귀에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마치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와 같아지게 하는 진액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40여 년 동안 군 선교의 길과 한 교회만을 섬기시다가 은퇴하시어 원로 목사로 또 공로 목사로 추대되심에 즈음하여 금과 옥이 될 만한 말씀을 이렇게 펴내시게 됨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 마지않습니다.

은퇴하시는 본 교회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은혜받은 말씀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또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집을 만드시는 신북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부럽습니다.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남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내 놓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천 편의 설교 원고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을 담아 우리에게 다시 읽고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책을 펴서 읽으시는 분들은 모두 변화 받고 훌륭한 신앙생활로 헌신적인 교회 봉사는 물론 주님의 뜻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강원노회 동역자 김광국 목사의 헌사

눈과 귀가 아닌 삶으로 듣는 설교

강원노회 증경 노회장. 춘천성광교회당회장 **김광국** 목사

설교는 선포된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을 글로 표현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음성, 표정, 상황, 듣는 사람,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설교자의 인격 전달입니다. 설교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설교집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설교집은 말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자들의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기 쉽습니다. 설교집은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김은일 목사님은 말을 잘 하시는 웅변가나 글을 잘 쓰시는 문장가는 아닙니다. 그 분은 입으로가 아닌 마음과 생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분이야말로 진정한 설교가요 목회자이십니다. 그 분은 30년간 말로가 아니라 인격과 철저한 신앙으로,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말씀을 전하셨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집은 수필집처럼 읽으면 느낌이 시원하거나 감미로운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재미있는 예화나 심오한 신학이나 철학을 논하는 글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신 생활에서 나온 설교집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곧 그 분의 삶이요 그 분의 삶이 곧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인격과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 분 설교의 참 맛을 모를 것입니다.

설교집의 홍수를 이루는 때에 정말 오랜만에 청량음료와 같은 참 설교집이 나왔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뒤에서 눈물의 기도와 격려로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신 사모님과 이 설교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서재 제일 가운데 이 설교집을 꽂아 두고 저의 영혼이 메마를 때마다 꺼내어 읽으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제가 훌륭하신 목사님 곁에서 목회를 배우며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따뜻한 격려와 농담 속의 찌르는 충고는 큰 힘과 채찍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은퇴를 하시고 목회 전선에서 물러가게 되어서 섭섭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스럽게 후배들을 지켜보시며 격려와 충고로 후배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노회 장로 동역자 김홍규 장로 헌사

목사님을 강원노회 공로목사로 모시면서

강원노회장 **김홍규** 장로(춘천동부교회 시무)

저희 강원노회원 일동은 지난 10월 14일 개최한 제89차 강원노회에서 목사님을 공로목사로 추대하였습니다. 강원노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께서는 1973년부터 강원노회원으로 사무하셨습니다. 남달리 노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시면서 지교회의 부흥 발전과 교세 확장에 온갖 힘을 쏟으셨고, 소탈하신 성품에, 인자하신 후덕으로 노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목회 경력 어언 30년. 복음을 전하는데 높낮음이 어디 있고 귀천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선 몸으로 일선에서 생사를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장병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셨고, 멀리는 이국 월남 전에 참전하시어 조국을 그리는 장병을 달래며 군 선교에 헌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농촌 교회에서 오늘까지 시무하여 오셨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신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시고 매사에 합리적이시며 외유내강으로 어려움을 이기시고 종의 모습을 지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사님을 한국의 간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세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행복한 사람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일생 동안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번째로 행복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진리를 좇아 산 사람입니다.

세번째의 행복한 사람이란, 이 두 가지를 자녀에게 물려준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슬하에 4남 1녀의 5남매를 두시고 모두가 목회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기에는 평생을 이름도 빛도 없이 내조하신 사모님의 노고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시며 더욱이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예술적 감각으로 늘 집안에 정감이 넘치게 하시며 격려와 위로로 윤활유의 역할을 감당하여 오셨기에 오늘의 목사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가정이야말로 천하와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진심으로 찬사와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퇴임 석상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서서히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달려갈 길

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당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을 물러서시기에는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부터는 기회가 있으신 대로 FREE RANSER 즉 자유 기고가로서 오래 오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남은 여생 더욱 값진 생애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퇴임 기념으로 설교집을 발간하셨다니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이 책이야말로 목사님의 일생의 자화상이요, 땀의 결정체이며, 충성과 헌신의 전부이며 후배를 위한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저희들은 목사님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면서 삶의 교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997년 10월 14일 노회를 개최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목사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비옵니다.

사위 윤창현 목사의 회고 및 헌사

우리 아버님

불초사위 **윤창현**(상장중앙교회 담임목사)

어느 자식인들 부모의 내리 사랑 자랑에 침이 마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육군 중령으로 군목 생활을 마감하신 후에 한 교회에서만 24년 동안 평생을 섬기시다 정년으로 은퇴하시게 되는 아버님의 모습을 뵐 때는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4남(영찬, 문찬, 금찬, 성찬) 1녀를 어려운 살림에 모두 목회자로 훌륭히 키우신 것을 존경합니다. 둘째인 김문찬 목사가 8년 전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그것도 이국땅 미국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난 뒤의 아버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얼마나 쓸쓸하시고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효도를 잘했고 미국에서 신학교 교감을 할 정도로 똑똑했던, 그래서 특별히 기대가 컸던 아들인데! 그러나 아버님은 눈물을 삼키시고 묵묵히 목회만을 위해 매진하시는 모습만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식 자랑은 칠푼이요, 아내 자랑은 팔푼” 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부모이기에

앞서 대선배 목사로서 아버님은 목회를 하고 있는 나에게는 귀중한 교훈을 많이 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라면 다 그래야만 한다지만, 짜증이나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물질을 초연해서 사시는 모습, 일본어, 중국어는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저절로 익히셨다 하더라도 언제 영어 공부를 하셨는지 유창한 영어 통역을 도맡아 하시고, 지금도 영어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는 것을 뵐 때 잔잔한 감동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말만 나와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꺼야" 라시며 말을 돌리셨음을 늘 기억합니다. 한 번씩 처가댁에 가면 사위도 자식인데 자식인 내가 오히려 부담이 갈 정도로 함부로 말을 낮추시지 않으시는 겸손하심을 보여 주십니다. 잠자리 전에는 자자손손을 위해 꼭 축복을 빌어 주시는 걸 잊지 않으시고, 먼 길을 향해 갈 때도 꼭 일일이 안수기도 해 주시는 모습에 자식 된 입장에 사랑과 존경을 느낍니다. 새벽 기도 하나도 수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는 모습은 자식이기에 앞서 후배 목사인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아버님 목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집이 나오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나에게는 많은 설교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버님 평생 목회의 이념이랄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내용 중에 용해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소중히 평생을 간직하고픈 책입니다. 아무튼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인생은 60부터" 란 말도 진부할 정도의 말이 되어버렸으니 "인생은 70부터" 라는 새로운 신조어(?)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람있고 건강하게 살아나가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신북교회 당회원의 감사 인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북교회 당회원 일동

6.25의 포연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 있어 신북 지역을 복음화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신북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4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신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로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

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김은일 목사님을 본 교회에 보내주셔서 오랜 기간 목회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은퇴하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본 교회를 세우신 지 20년이 되던 해에 목사님께서는 미약하기 짝이 없던 본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충실하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셔서 이제는 신북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솔선수범하시며 그리스도의 본을 먼저 보이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저희 양무리들을 항상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24년을 한결같이 노심초사하신 목사님의 수고와 땀은 결코 하늘나라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목사들의 속을 열어 보면 모두 석탄, 백탄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시던 어느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는 어찌 마음 편하신 날만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당회원들에게는 물론, 온 성도님들께 불편한 말씀 한마디 아니하시고 먼저 양보하시고, 인내하셔서 온유와 겸손을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하신 말씀을 특히 잘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사신 목사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외양은 물론 마음까지도 간직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미소를 늘 잃지 않으심으로 누구나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 사십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중에 반평생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목사님은 얼굴뿐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자 아닌 채, 성경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살아 움직이시는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사시며 열심을 다해 24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시겠지만 저희 교회로서도 큰 영광이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기도와 사랑으로 내조하시며 부부의 의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시고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회에 동역자로 수고하신 사모님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정정하신 목사님께서 은퇴하신다는 것이 저희 온 교우들은 믿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은퇴하시더라도 신북교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세우신 든든한 반석 위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저희 당회를 비롯한 온 성도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건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며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묶어 목사님의 은퇴를 기념하고자 하니 부족하더라도 기쁘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은일 목사 군목 당시 설교

화목하는 자의 축복

〔시 133:1-3〕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 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한 가정을 단위로 해서 사회를 이루고, 이 사회가 국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복잡한 사정이 얽혀서 서로 싸우며, 미워하고,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성도들 사이에도 화복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형제간에 사랑하고 , 화목하고, 연합하여 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사랑하고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이 시편을 쓰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불화하면서 사는 것을 생각하였고, 또 넓은 안목에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국가를 이룰 때, 12지파가 서로 화평하고 연합해야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시편은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는 뜻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죄사함을 받고 화목을 이룬 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형제간이라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형제간에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혼자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자리잡은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같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화목하고 연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림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복은 곧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일 3:14-15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간의 화목은 쉬운것 같으나 실상은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가 시작되었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싸움으로 오늘도 중동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지만 그 싸움이 오늘도

에돔과 유대인 사이의 싸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에서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영에 속한 사람 사이에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10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에 팔아넘겨서 요셉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서 가진 고생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애굽 나라의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7년 흉년이 계속될 때 가나안 땅에 요 셉의 형들 열 사람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의 70인 대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400년 후에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요셉의 관용과 넓은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남북이 가로막혀 52년의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남북의 7천만 민족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다가오는 21세기는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나라가 되며 선교사를 세계 구석구석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관용과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과 사랑으로 이북의 형제들을 감싸 줍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것입니다.

1.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축복을 받읍시다.

형제가 화목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크게 번성할 때 셈족인 힉소스족의 옛 바로왕조 때에 12조에서 18조까지는 요셉의 공로를 기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잘 대접했으나, 함족속인 라암세스 왕조 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 물에 던지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통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부녀들을 인도하여 모세의 삼 남매가 화합하여 힘을 합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잠 16:17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남북의 형제들이

화목할 때 38선의 장벽도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자자손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화목하고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어 함께 전도하는 모습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백두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한라산 상봉에도 내려 남북이 통일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멀지 않아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화목하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잠 17:1-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 보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기름이 흘러내리는 축복은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형제가 함께 사도가 되어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처음으로 헤롯왕에게 순교를 당했으며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 장수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요한 2,3서를 기록하였고, 계시록까지 기록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형제가 화목해서 받은 복입니다. 베다니촌 마르다와 나사로 마리아 세 남매의 화목한 가정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셔서 전도하시다가 피곤한 몸을 쉬셨습니다. 이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으나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체험을 이 삼 남매가 가진 것입니다.

요 13:35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북의 형제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영생을 믿음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9년

군목 당시 설교

김은일 목사 신북교회 선포 설교

제자된 자의 각오

〔눅 9:57-62〕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러시아를 다녀온 목사님이 소련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공산주의가 74년간 통치하는 동안 교회를 핍박하여 교회 문을 닫으니까 모든 문이 다 닫기더라고 말했습니다. 기름진 땅이 많은데 양식이 부족하고, 땅속에 기름은 많은데 석유가 없고, 나무는 많은 데 종이가 모자랐고, 교회의 문을 닫으니 모든 만물의 문이 다 닫기더라고 말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은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행 11:26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당' 이라고 비난의 뜻으로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열두 제자를 불러서 전도하시는데 협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최고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독일의 '본회퍼'는 말하기를 "20세기에 있어서 교회의 결함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는 많아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격

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 11:35-37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나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이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킨 선진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진리를 따르며,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처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려 할 때에 거절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성을 멸하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고난이 있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장막 생활로 유리하였습니다. 애굽에서도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벧엘에서 돌로 베게를 하고 자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애굽의 옥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요셉의 신앙은 최고봉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할 것이요.”라고 한 것은 먼저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후에는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치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1.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마 16:24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청년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좇으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게 되면, 병이 걸리게 되어도 고쳐 주고, 배가 고파도 먹여주고, 죽어도 살려 주니 인생을 가장 편하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감상적으로 따라오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각오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병 이어'(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게 살 수 있었으나 평생 가난했고, 하늘의 권세를 가졌으나 만민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마구간에서 나시고, 마지막 무덤도 아리마대의 무덤을 빌려서 삼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2.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초를 먼저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초를 먼저 쌓지 않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육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장사지내도록 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 보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십일조는 꼭 드려야 합니다. 환난이 휘몰아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갑갑한 일을 당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뒤를 돌아다 보거나 옆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치면, 주님께로부터 영생과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심방을 가서 "예수님을 믿는 데에 비용이 얼마면 되겠습니까?"하고 물으니 "담배값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이 점점 믿음이 들어가서 집사가 되어 십일조도 드렸고, 교회 건축헌금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으니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수록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늘나라의 영생과 참 생명을 얻으려면 전폭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버린 죄악된 생활이나 인격이나, 세상에 애착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요한 번연의 천로 역정에 보면 "신자는 등에 입는 갑옷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신자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뒤엣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김익보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김익보 장로는 1926년 1월 9일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기독교 가정의 아버님 김윤국 장로와 어머님 김희자 성도의 9남매 중 막내로 출생해서 일제치하를 겪고 광복 후 6.25 전쟁 중 스물여섯의 나이인 1951년 1.4 후퇴 때 사랑하던 부모 형제와 눈물의 생이별을 하고 혈혈단신으로 피난을 내려와 춘천에 정착하였다.

춘천 정착 후 김익보 장로는 춘천시 삼천동의 신연강 주변에서 농토를 일구어 농업에 종사하면서 춘천동부교회에 등록하였는데 같은 평안도 출신으로서 고향에서 부모님과도 알고 지냈던 춘천동부교회 김유찬 당회장 목사의 각별한 사랑과 지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일가를 이뤘다. 신연강에 의암댐 건설(1967년 준공)로 경작하던 농토가 수몰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1965년에 현재 교회 옆의 집과 농토를 매입하여 샘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교적도 장거리 소재 목조 교회 시절의 신북교회로 옮겨 등록한 후 신북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김익보 장로가 집사 신분으로 신북교회에 등록한 시기는 1960년대 중반으로 신북교회에 제5대 담임 교역자 임연묵 전도사가 1964년 1월 5일 부임하여 2년 3개월 만에 사임(1966. 4. 9)하고, 10개월 만에 제6대 담임 교역자 정삼조 전도사가 부임(1967. 2. 11)했던 시기니까 교회를 창립하고 10년 남짓 지난 때였다. 10년 동안에 목회자 공백이 자주 반복되는 사이에 교회가 활력을 잃기 쉬운 때에 하나님께서 평생을 교회에 헌신할 청지기를 신북교회에 보내신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1970~90년대까지 김익보 장로와 함께 신북교회의 융성기를 이끈 백승욱, 민경천 장로까지 30~40대 초반의 젊은 청지기들을 신북교회로 이끄신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할 때 교회의 주일 예배 인원이 40명대에 이르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두세 배나 많았으니 20평 규모의 예배당 한 칸으로는 예배와 교육 공간이 절대 부족했다. 그리하여 1969년 40평 규모의

벽돌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데 4월에 기공하여 10월에 입당하고, 건축비 부채를 1년 만에 해결해서 다음 해 10월에 헌당하기까지 김익보 장로는 집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앞의 1960년대 역사 성전 건축 부분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당시의 교세나 교회의 능력으로 보아 신북교회가 297평의 대지 위에 40평의 예배당을 짧은 기간에 건축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교회는 그 일을 해냈고, 이 일을 재정적으로나 건축 공사 등에서 건축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건축을 이끈 청지기가 김익보 집사였기에 신북교회가 초대 장로로 김익보 장로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신북교회 초대교회 세 집사들에 이어 이번에도 필요한 일꾼을 불러 사용하신 것이다.

김익보 집사는 1971년 5월 8일에 신북교회 초대 장로로 장립을 받은 후 신북교회 당회원으로서 1973년에 담임 교역자로 부임한 김은일 목사와 함께 신북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주역이었다. 1980년 9월에 백승욱, 민경천 집사가 제2대 장로로 장립하여 목사 1명에 장로 1명으로 7년을 이끌어 온 당회에 당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신북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부흥의 시대를 열어 가게 되었는데, 이때도 김익보 장로는 선임 장로로서 당회를 든든히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신북교회 당회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분쟁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충성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후배 장로뿐 아니라 교회를 넘어 강원노회에도 모범이 되어 지금까지 당회가 세운 아름다운 전통은 역사가 되어 면면히 이어 오며 그동안 장립한 장로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장로 직분이나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신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배 장로들의 모범이 길잡이가 되었다.

김익보 장로는 신북교회 선임 장로로서 강원노회 총대로도 활동하면서 1990년 10월 16일부터 1991년 4월 18일까지 강원노회 75, 76회기 부노회장을 역임했다. 강원노회 장로회에서는 제21대(1989~1990)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춘천시찰회 남선교회 연합회에서는 창립회장으로 초대(1991) 회장

을 역임하며 춘천시찰회 남선교회 연합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교회 밖에서의 대외 활동에도 교회를 대표해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신북교회의 위상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생업이었던 농업 분야에서도 선진 기술을 도입해 비닐하우스 농법을 신북 지역에 처음으로 시도 및 보급하여 농업 생산량 증대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전국 새농민왕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1991년에는 대통령 포장을 수상했다.

김익보 장로가 교회 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장로 장립 26년만인 1997년에 은퇴하게 되자 교회에서는 제직회와 당회,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원로장로 추대를 결의하였다. 김익보 장로는 1997년 11월 8일에 24년 동안 신북교회 당회원으로 동역했던 김은일 목사와 함께 은퇴하며 신북교회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김익보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기념

김익보 장로는 먼저 소천한 故 유희재 집사와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고, 2024년 6월 22일 소천하기까지 오순옥 권사와 함께하였다.

6) 제10대 담임 교역자 김지한 목사 부임

김지한 목사

김은일 목사와 김익보 장로가 신북교회에서 은퇴함에 따라 신북교회로서는 새로운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다. 김은일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이미 당회장 부재가 예견되었음에도 후임 목사 청빙을 은퇴식 후로 미룬 것은 교회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으나 교회는 빠른 기간 내에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담임목사 청빙 공고를 내서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천을 받아 청빙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소양제2교회(현재 영광교회) 출신으로 청년 시절 신북교회의 성가대를 위해 실기 연습 봉사도 하며 신북교회와 친숙했던 서울 동숭교회 당회장 서정오 목사가 추천한 김지한 목사를 교회의 청빙 절차에 따라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김지한 목사는 김은일 목사 은퇴 이듬해인 1998년 1월에 신북교회 제10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여 임시로 담임목사 사역을 담당하던 중 1998년 3월 8일 신북교회 본당에서 개회한 공동의회(임시 의장 이덕산 목사)에서 당회와 제직회 결의를 통해 상정한 '김지한 목사 담임목사 청빙'의 건을 참석 인원 42명 전원 만장일치로 청빙을 허락하여 4월 강원노회에 청원하였고 강원노회는 1998년 4월 16일 정기노회(원주제일교회)에서 신북교회의 김지한 담임목사 청빙 청원을 허락하였다.

김지한 목사의 부임은 신북교회에 새로운 분위기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2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안정감에 안주해 있던 교회에서 영적 리더가 바뀌고 난 후 교회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선 김지한 목사는 설교에서 김은일 목사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은일 목사의 설교가 목회자로서의 삶과 경륜과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호소력 있는 설교로 성도들이 쉽고 편하게 듣고 공감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설교였다면, 김지한 목사의 설교는 젊은 세대 목회자답게 논리적이고 정제된 설교로써 새로운 패턴의 영적 매력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김은일 목사의 설교로 훈련되고 다져졌던 신북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새로운 말씀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은혜의 신선함이 있었으므로 성도들은 개인적인 신앙 성장과 교회의 성장에 대해 큰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이는 신북교회 담임목사로 김지한 목사를 청빙할 때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데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북교회가 맞닥뜨린 시대에 맞게 전 시대에는 전 시대에 맞는 목회자를 보내셨고,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는 세기의 전환점에서는 또 그에 맞는 목회자를 보내신 것이다. 김지한 목사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춘천기독교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설교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이 설교를 라디오로 들은 청취자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듣고 교회에 등록하는 일도 적지 않았으므로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 교회에 새로운 영적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김지한 목사는 부임하여 교회를 두루 살피며 치밀하고 꼼꼼함으로 교회의 행정 사무 방법을 개선해 가면서 교회가 새로운 21세기를 맞으며 전도에 힘써야 할 비전을 제시했다.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여 훈련하는 한편, 매월 월정액을 헌금하는 선교헌금과 장학 헌금을 제안하여 성도들에게 선교의 비전과 다음 세대에 대해 관심을 제고시키는 등 교회의 전반에 새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매진하기도 하였다. 춘천시찰회에서도 젊은 감각의 행정력으로 기존의 선배 목사들을 도와 행정의 틀을 보완하기도 하며 신뢰를 쌓아 갔다.

김지한 목사는 부임하는 해에 장로 2명, 안수집사 2명, 권사 4명의 임직을 주도하며 짧은 기간에 교회의 새로운 면모를 구축해 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새천년인 2000년을 맞을 준비와 신북교회의 비전 실현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 목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였다. 오랜

기간 기도하며 준비해 오던 새 성전 건축도 현실화하기 위해 부지 물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기도 하면서 신북교회는 새 소망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7) 항존직분자의 선택과 임직 및 은퇴

김은일 목사가 은퇴하기 전인 1997년, 당회는 춘기 강원노회에 장로 2명 선택을 청원하기로 결의했었다. 이는 김익보 장로가 그해에 은퇴를 앞두고 있고, 교회의 세례 교인 수가 증가하여 신북교회의 장로 정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의 증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동년 3월 25일 당회에서는 강원노회에서 장로 증원 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을 예상하여 5월 4일 주일에 장로 선택 투표를 결정하여 광고하기로 하였다. 강원노회로부터 장로 증원 선택 허락을 받은 교회는 교회에 광고한 대로 5월 4일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개회하고 장로 2명 선택을 위한 1차 투표에서 박광장 안수집사를 피택 장로로 선택하고 나머지 한 명은 참석 인원 93명의 2/3에 해당하는 표를 얻지 못하여 2차 투표까지 실시하였다. 2차 투표 역시 결과가 1차 때와 변동이 없어서 투표를 종료하고 1명은 1년 기도 후에 다시 선택하기로 결의하며 폐회했다.

박광장 피택 장로는 그때부터 장로 장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당해 연도 10월 노회에서 장로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바로 시무 장로로 장립해야 했으나 1년 후에 장로 1명을 선택하기로 한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라 장로 장립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1년 후로 미뤄진 장로 1명 선택 투표는 1997년 11월 김은일 목사가 은퇴하고 다음 해인 1998년 4월 19일 공동의회(이덕산 임시 의장 주관)에서 있었다. 당회는 1년 사이에 장로 1인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 2명과 권사 4명을 겸하여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투표 결과 장로 1명에는 백춘길 안수집사, 안수집사 2명에는 최영철, 김봉우 서리집사, 권사 4명에는 정춘식, 이정순, 안정순, 이범자 서리집사가 선택되었다.

장로 2명 선택과 관련하여 백춘길 원로장로가 전하는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장로 2명은 1993년에 임직한 안수집사 3명 중에서 선택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백춘길 안수집사는 나이뿐 아니라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선배인 두 집사를 장로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김은일 담임목사에게 5월에 있을 장로 선택 투표에서 선배들의 장로 피택을 위해 본인의 이름은 후보에서 제외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김은일 담임목사는 단호한 어조로 '평생 교회의 청지기여야 할 장로를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먼저이고 성경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한마디로 반대하셨다.

결국 투표는 그대로 진행되었는데, 박광장 안수집사가 1차 투표에서 장로로 선택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으나 나머지 한 명의 선택이 무산된 것에 백춘길 안수집사는 매우 당혹스럽고 죄송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해에 교회의 규모에 맞게 항존직분자 선택을 장로 1명에다가 안수집사 2명과 권사 4명 선택까지 추가하여 6명이나 인원을 늘려서 세우게 되자, 백춘길 장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사람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큰 지침(指針)으로 얻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위해 선택하신 항존직분자 8명은 법적인 준비와 교회의 교육을 받고 1998년 10월 24일에 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며 신북교회의 제3대 장로, 제2대 안수집사, 제4대 권사로 임직했다. 교회에서는 임직자들에게 옷 한 벌씩을 임직 기념 선물로 증정하며 축하했고, 임직자들은 교회에 기념 예물을 드렸으며, 하객들에게는 기념품과 점심을 대접하였다.

신북교회 제3대 장로로 장립 받은 박광장 장로와 백춘길 장로에 대해 앞의 안수집사 임직 프로필에서 간략하게 소개했으나 덧붙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광장 장로는 신북교회 초대 권사인 길수희 권사의 4남 중 차남으로 인제군 부평에서 출생한 모태 신앙인이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부평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부평 지역이 소양댐 건설로 수몰되어 신북교회 인근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1971년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했다. 군복무 시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 후 신북교회에 등록하여 특유의 정직, 근면, 성실함으로 청년회장과 교회학교 부장, 성가대장, 안수집사 등으로 봉사했다. 박광장 장로는 안수집사를 거치며 교회 사역의 여러 방면에서 장차 신북교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청지기였다. 농업과 미군 부대 근무를 겸해 두 직업에 종사했다.

백춘길 장로는 샘밭으로 이사 온 1969년 고등학교 1학년 5월에 이웃 친구의 권면으로 신북교회 학생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였다. 집안에서 최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학생회를 거쳐 청년회장, 교회학교 부장, 성가대 지휘자, 안수집사 등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교회 전반에 대한 사역을 익혔으며 학생회 담당 교사 시절 신북지구 기독학생 체육대회 신설, 학생회 신앙 부흥회 실시 등으로 교사 시절 교회의 학생 교육 관련 사역에 관심이 많았으며 중등학교 교사로 교육에 종사했다.

최영철 안수집사는 화천군 간동면 간척교회 출신 성도로 아내인 홍옥희 집사와 함께1979년에 거주지 이전으로 율문리에 정착하면서 1980년부터 간척교회와 같은 시찰회 소속인 신북교회에 출석하였다. 교회의 시설 유지 보수가 필요하거나 일손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노력 봉사를 솔선해서 교회 건물과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일에 헌신적인 사역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청지기로 쓰임 받고 있었다.

김봉우 집사는 장거리 목조 교회 시절 교회 가까운 곳에 산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교회에 드나들며 유년주일학교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유년주일학교를 거쳐 학생회와 청년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학교, 학생회, 성가대, 구역 등에서 책임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며 어머니를 전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촉망 받는 청지기였다.

정춘식 권사는 신북교회의 전도 대장이었던 김갑순 초대 권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김갑순 권사의 전도

열매가 권사로까지 이어진 첫 사례로 서리집사 시절부터 믿음과 섬김의 활동성이 두드러졌다.

이정순 권사는 남편인 이춘구 집사와 함께 이미 온 가족이 신북교회에 출석하며 어떤 일에서든지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집사였으며 기도하는 일에나 여전도회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일찍이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받던 집사였다.

안정순 권사는 가족 중에 둘째 아들, 며느리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서 소리 없이 교회 일에 충실하였고, 담임목사의 목회에 보이지 않는 협력과 기도로 신북교회가 안정적인 공동체로 자리를 잡아 가는 데 기여하여 권사로 선택되었다.

이범자 권사는 보수적인 가정의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과 함께 신북교회에 출석하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없애고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일을 조용히 해내며 교회에서도 나서는 일보다 보이지 않게 기도하며 섬기는 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

항존직분자 임직 및 은퇴

1998년 10월의 임직식은 신북교회 제3대 권사로 1993년 10월 30일에 임직했던 허정대 권사의 은퇴식도 겸하여 진행했다. 비록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도에 힘쓰며 권사의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해 낸 허정대 권사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것임을 믿는다.

8) 고(故) 백종원 집사 장학기금 설립

백종원 집사는 1961년 생으로 신북면 율문리 사랑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백종원 집사는 초등학교 시절에 김갑순 권사가 사랑마을 전체를 전도 대상으로 삼고 전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김갑순 권사의 손에 이끌려 신북교회 유년주일학교에 입학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김갑순 권사는 생전에 '종원이를 전도하기 위해 사탕이며 과자를 여러 번 사다 주며 교회로 인도했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만큼 어린 심령 한 명이라도 정성을 들여 전도했다는 뜻이다. 4형제 중 맏아들인 백종원은 신북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회, 청년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맏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북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님과 동생들까지도 신북교회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셨다. 학창 시절 명석하고 총명하였던 백종원은 교육자의 꿈을 품고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지원하여 입학시험에서 대학교 전체 수험생 중 국어교육과 수석은 물론 인문계열 차석으로 합격할 정도로 성적도 우수하였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등교사로 교직에 봉직하던 중 초등학교 교사 전미옥 집사와 결혼하여 부부 교사로서 교육자로, 신북교회의 서리집사로 학교 교육과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였다. 백종원 집사와 전미옥 집사는 학교나 교회에서 촉망받는 인재들이었으며 부모인 백수영 집사와 한상옥 집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며느리였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이 평화롭던 그 가정에 백종원 집사가 1998년 말에 위암 판정을 받으면서 시련이 시작되었고 치료와 함께 가족과 교

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백종원 집사는 1999년 1월 제직회에 참석(제직회의록)한 것을 끝으로 제직회 참석조차 어려운 지경이었으므로 당회에서는 교회가 백종원 집사 병문안을 2월 9일에 가기로 결의하였고(2월 4일 당회록), 3월 4일 당회에서는 백종원 집사의 완쾌를 위해 당회 주최로 '전교인 특별기도회'를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교회의 아들인 젊은 인재에 대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종원 집사의 쾌유가 아니라, 발병 6개월 만인 1999년 4월 21일에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이기는 했으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창 일할 나이이고 부모님과 아내, 어린 두 딸과 함께 가장 행복해야 할 이른 시기에 다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하늘나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편을, 아빠를, 형제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교회의 슬픔은 감당할 수 없으리만치 컸다. 교회로서는 장래에 교회를 위해 크게 일할 일꾼을 하나님 품으로 보냈고, 강원 교육계에서도 강원 교육을 위해 크게 쓰일 인재를 잃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눈물로 토로하는 동료와 선후배들이 많았다.

전미옥 집사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사별의 슬픔 가운데서도 故 백종원 집사가 교육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할 청지기로서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유지(遺志)를 계속 이어가고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천만 원을 장학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교회에서는 그 숭고한 뜻을 기려 故 백종원 집사 유가족 출연 장학기금 설립(1999. 8. 8. 교회 연혁)을 결정하였다. 교회에서는 이 장학기금에다가 일반 성도들이 헌금하는 장학 헌금을 더해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격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전에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故 백종원 집사 장학기금 조성과 함께 장학 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더 늘어나서 교회와 지역 사회 학

생들에게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故 백종원 집사의 교육자적 정신과 유가족들의 교육을 향한 고귀한 뜻이 교회와 지역 사회에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9) 기타 사역

신북교회는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도 주일 예배 인원이나 제직 회원 수, 세례 교인 수, 재정 수입 면에서 큰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하나님께서 신북교회 성도들의 쉼 없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교회를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뜻과 김은일 목사와 당회의 리더십에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교회에 이루어 내고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이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도 잘 부합(符合)한 결과이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교회가 성도들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관심도 그 폭이 점차 넓어지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사랑이 교회를 채우고 지역 사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내외에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신북교회는 이 일을 1990년대에 더 적극적이고도 발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는 신북교회가 2010년대부터 지역 공동체와 연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신북기부천사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이에 대한 실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2월 29일 당회 결정으로 동네 노인정 4곳과 빈곤 가정 8가정을 선정하여 연탄 200장씩 504,000원 상당의 월동 연료 지원을 시작으로 연말마다 정기적인 지원을 계속하여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비록 적은 지원이지만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교회가 도왔다. 교회는 학생회 소속 학생들 가운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매년 학비 지원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1991년에는 상·하반기에 각 5명씩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1991년 결산 보고서)을 비롯하여 교회가 지원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지역 사회 섬김 활동과 함께 199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이긴 하지만 고(故) 백종원 집사 장학 기금도 여기에 유용하게 쓰였다.

교회는 과거에도 교회 내부적으로 어버이 주일에 교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말 등 간단한 선물을 드려서 공경의 마음을 전하거나 경로 관광을 해드리다가 교회의 재정 형편이 점차 나아지게 되면서부터는 경로 관광의 대상을 지역 사회 어르신들까지 범위를 넓혀 실시하게 되었다. 1991년 10월, 60세 이상 관광. 1992년 6월, 경로 관광(자연농원). 1993년 4월, 효도 관광 결의. 95년 3월, 교회 주최 1일 관광 결의 등으로 거의 매년 교회나 또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관광으로 섬겼다. 1996년 10월 회계 장부의 경로 관광 지출 내역에 따르면 '경로 관광 차량 2대 400,000원, 중식비 545,000원, 음료수 144,000원, 떡 140,000원 온천 목욕비 214,000원 계 1,443,000원'을 지출하여 10월 수입 총계 6,856,130원의 21%를 경로 관광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요즘처럼 관광이 일반화하지 않았던 1980, 90년대에는 관광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고 어르신들도 가장 선호하시는 행사였다. 신북교회가 이렇게 가까운 동네 어르신들을 전세 버스에 모시고 1일 관광 여행을 보내드렸던 경로 행사는 지역 사회의 큰 행사였다. 이 행사는 지역 사회와 어르신들로부터 감사와 함께 크게 칭송을 들을 정도였고 어르신들께서 기다리시는 행사가 되었다. 이로써 신북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사역이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여전도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는 행사에 간식 준비나 동행 섬김 등으로 행사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으며 교회의 기관들이 함께 이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신북교회는 당회원들이 강원노회의 사역에 협력하며 대외 교류와 견문을 넓히는데 소요되는 경비도 지출하고 있다. 매년 전국장로연합회에서 소속 장로들을 위해 실시하는 전국 장로 수련회에 장로들이 참석하여 장로로서

의 역량을 쌓고, 타 노회 장로들과의 교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일은 198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1994년 6월에 있었던 강원노회 교육부 주관 '중국 역사 문화 탐방' 행사에 신북교회 당회원들이 참석하는 경비 일부를 교회 재정에서 지출하였으며, 역시 강원노회 교육부 주관으로 1995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방문하는 행사에도 당회원들이 참석(김은일 목사 내외, 김익보 장로 내외, 민경천 장로 내외)할 수 있도록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중국 역사 문화 탐방

당시에는 외국 여행이 쉽지 않을 시기였으나 교회는 당회원들이 강원노회 소속 목사, 장로들과 함께 대외적인 견문과 안목을 넓히는 일에 경비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당회원들이 교회 섬기는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데 대한 위로의 성격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1994년 9월 27일 당회에서는 김은일 담임목사가 1994년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 일정으로 성지 순례와 해외 문화 탐방을 통해 목회의 전문성 함양을 도모할 수 있게 배려하고, 담임목사 부재중 설교는 담임목사의 3남 김금찬 선교사가 담당하게 결의하였다. 김은일 목사 내외는 이스라엘, 이집트,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을 순례하고 탐방하며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발자취를 살피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시작한 나라들의 종교적 선진 문화를 접하며 관련 견문과 식견(識見)을 넓히고 높일 수 있었다.

성지순례 - 감람산

조현숙 사모는 김은일 목사가 그때 보고 들으며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설교와 교제를 통해 성도들과 공유함으로 목회의 질적 향상과 성도들이 성경 이해와 유럽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때 교회에서 김은일 담임목사 내외의 성지 순례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4,605,300원(1994년 1월 30일. 교회 회계 장부)으로 1994년 재정 총 수입 68,781,370원 대비 6.7%였다. 교회는 김은일 목사를 비롯한 당회원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회의 대내외적인 사역에 적극 지원하고 협력했음을 알 수 있으며 교회의 이러한 협력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사역에 많은 도움과 격려가 되었다.

신북교회 당회는 교회 창립 45주년(1998년)을 앞두고 교회 역사 편찬의 필요성에 따라 1996년 2월 27일 당회에서 박광장, 서승목, 백춘길 안수집사에게 역사 편찬과 편집을 맡긴 적이 있었으나 이들이 교회의 역사 편찬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경험과 능력 등에서 시기상조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진척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사 편찬 시도가 30년 전에 조금이나마 결실을 맺었다면 현재 '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를 편찬하는 일에 자료 수집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성경 통독'을 독려하며 1998년에 성경 200독 행진을 계획하기도 하였고 이 행진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선물 100개를 준비하도록 결정했다.(1998년 6월 30일 제직회의록) 동년 9월 1일 제직회에서는 교회에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고 훈련하여 교회의 사명인 전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전도 대잔치를 11월 첫 주 실시하면서 음식과 기념품을 준비하도록 결의하고 실행하기도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 읽기와 전도는 성도와 교회의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며 이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다.

신북교회는 전도뿐 아니라 대외 선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교비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그 실례로 1999년 2월 4일 선교비 지출 관련 당회의 결정 사항을 보면 해외 선교비로 신북교회 출신 김금찬 볼리비아 선교사에게 월 10만 원 지출, 국내 선교비로 월송교회 남금준 전도사 5만 원, 경천교회 이원경 목사 5만 원, 송우사랑교회 오필수 목사 5만 원, 군선교 천군교회(서승목 안수집사) 5만 원, 사회 선교 밀알선교단 조성호 목사 5만 원, 춘천교도소 5만 원, 작은예수공동체 손주완 목사 5만 원, 기독교 방송국 6만 원, 장신대 기독교 연구소 연 10만 원 지출을 결의하였으며, 6월 27일 당회에서는 교회 선교비 지원 월 20만 원은 5월분부터 선교헌금에서 지출하도록 지출 항목을 변경 지정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는 구역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다. 1998년 1월 11일 당회록의 기록에 의하면 그해에 구역을 8개 구역으로 편성하고 구역장과 구역 강사, 그리고 구역의 권찰까지 임명한 기록이 있다. 구역 편성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과거에는 구역 편성에서 권찰을 임명하였는데, 권찰은 구역장을 도와서 구역 운영과 활동의 협력자로 활동하도록 하였고 경험이 쌓이면 구역장으로 임명하여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권찰 제도는 구역장 양성 과정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98년 구역 편성 및 구역장, 강사, 권찰 배치표

구 역	구역장	강 사	권 찰
1	홍 성 원	김 익 보	최 화 순, 오 윤 자
2	정 순 덕	백 승 욱	홍 현 자, 최 부 전
3	박 민 옥	박 광 장	황 경 원, 김 옥 순
4	김 후 순	지 남 숙	임 동 희, 이 옥 순
5	장 재 월	최 영 철	이 경 자, 홍 옥 희
6	이 미 생	민 경 천	이 범 자, 안 정 순
7	장 은 희	정 춘 식	홍 미 향, 곽 옥 선
8	고 남 순	김 주 열	황 언 연, 이 연 화

1990년대의 마지막 해인 1999년 신북교회 교세와 2000년 새해 편성 수입 예산 내용을 강원노회에 보고(2000년 3월 1일 현재)한 다음의 집계표를 참고하면 1990년대를 마감하는 해의 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2000년을 맞이하는 신북교회 전반을 파악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이를 자료로 싣는다. 하지만 일부의 사항에서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 사항에 부연 설명을 곁들여 수록한다.

강원노회 춘천시찰 교세 집계표(신북교회. 1999년)[75]

2000년 3월 1일 현재(강원노회 34회기 회의안)

구분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세례	아동부	중고 등부	청년부	여전 도회	남선 교회	2000년 편성 예산
신북 교회	1	1	4	3	8	40	162	50	43	40	121	80	130,000,000

1990년대는 교회의 전반에서 지표상 성장하였으나 교회학교의 상황은 1980년대에 비해 오히려 규모 면에서 절반 이하로 뒷걸음질하였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연관이 있겠으나 그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 교육전도사를 계속 청빙하며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다했으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1층으로 건축해서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던 교육관을 확충하기로 하고 1층과 같은 규모의 교육관 2층을 1999년 2월에 증축했다. 이것으로 교육 활동은 과거에 비해 활동의 폭을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었다.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주일학교와

75) 1998년 1월 11일 당회록에 서리집사 63명(남 17명, 여 46명)을 임명 결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노회 보고 내용의 서리집사 수는 착오일 수 있고, 교회학교 학생 수는 1994년 12월 25일 교회 주보에 수록한 교회학교 학생 수(교회학교 28, 학생부 25, 청년회 7)와 비교하여 착오에 의한 보고일 가능성이 있음. 1990년대 중반 이후 교회 주보와 1990년대 말 회계 장부 보존 누락.

학생회 학생들은 자유롭게 교육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성장했고, 그때 교육관에서 뛰어놀며 배웠던 학생들이 지금 성장하여 교회의 서리집사 또는 안수집사, 권사로서 교사와 성가대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는 교육관 증축과 함께 새로 부임한 담임 교역자의 사택을 증축하여 목회자가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

신북교회는 신북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2000년대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품고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역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다음 시대 영혼 구원 사역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하면서 사역의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8. 새천년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2000년대)

1) 새 희망의 연대(年代) 출발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맞았던 2000년은 신북교회로서도 대망(大望)의 새 해요, 교회 사역에서 새 지평을 열어가는 연대(年代)의 출발점이었다. 1953년에 창립한 신북교회가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연합에 힘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쌓아온 영적 토대는 새 시대를 새 비전으로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기존의 교회 규모와 체제에 1998년 1월에 부임한 김지한 담임목사의 의욕적이고도 은혜로운 사역이 더해지고, 그해 10월에 장로 2명, 안수집사 2명, 권사 4명의 신규 항존직분자들이 세워짐으로써 신북교회는 과거에 비해 더 든든한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새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다.

김지한 담임목사는 부임 다음 해인 1999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교회의 표어를 '21세기를 여는 교회'(1999년 주보)로 정하고 21세기의 도래를 준비하는 목회에 사역을 집중하였다. 2000년에는 김은일 원로목사, 김지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항존직분자에 원로장로 김익보, 시무장로 백승욱, 민경천, 박광장, 백춘길, 안수집사 서승목, 최영철, 김봉우, 은퇴 권사 김갑순, 허정대(길수희 권사는 1988년 1월 20일 소천) 시무권사 윤계월, 박민옥, 이영자, 정춘식, 이정순, 안정순, 이범자, 서리집사 42명 등 총 57명의 제직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교회 표어를 '꿈을 이루는 교회'(2000년 주보)로 제시하며, 신북교회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항존직분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새 시대의 소망을 이루어 가는 교회'를 지향하며 부푼 꿈을 안고 2000년대를 시작하였다.

교회 연혁에 의하면 2000년대의 첫 기록으로 '조덕준 전도사 부임'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 6월 21일에 부임하여 1999년 12월 29일에 사임한 김병환 전도사의 후임으로 조덕준 전도사가 2000년 6월 4일 부임한

것은 단순한 한 명의 교육전도사 부임이 아니라 신북교회가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의 시작점이 되었다. 김지한 담임목사와 교회학교 교육을 전담하는 조덕준 전도사의 2인 교역자 체제는 2년 남짓 이어지다가 조덕준 전도사가 부임 1년 10개월 만인 2002년 4월 30일에 사임하였고, 5개월 후에는 김지한 담임목사가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조기에 막을 내렸다. 새천년을 시작하여 희망적인 발걸음을 몇 걸음 내디뎌 보지도 못하고 신북교회는 영적 리더의 부재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조덕준 전도사는 짧은 사역 기간에 전도사로서 인상적인 교회학교 교육 사역을 추진하여 교회학교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로 인해 조덕준 전도사와 함께했던 학생과 청년들은 그의 사임에 크게 마음 아파했다. 의욕적으로 희망의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부임했던 전도사가 사역 기간을 2년도 못 채우고 교회를 떠난 것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차기 담임 교역자 선임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조덕준 전도사가 사임하고 5개월 후에는 김지한 담임목사까지 전격적으로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교회는 참으로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지한 목사는 부임 4년 8개월 만인 2002년 9월 22일 당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한 후 본인이 신북교회에 시무할 때 새 신자로 등록했던 일부 성도들을 이끌고 춘천시찰회에서 춘천시 우두동에 개척하는 '신사우동교회'(현 새중앙교회)의 개척 목사로 임지를 옮겨 가게 되었다.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는 이미 시무할 교회 본당을 비롯해 개척 목회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교회가 한창 부흥의 불길을 지펴갈 즈음에 담임목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당회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고, 교회의 앞날이 우려되는 일이기도 했다. 김지한 목사가 신북교회 5년 차 담임목사로서 안정적인 목회를 위해 교회법상 시무 3년마다 교회로부터 시무 연임 청원 결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임시 목사에서 목회자의 신분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위임목사로의 신분 변경을 원하고 있을 때 당회는 결정 시일을 늦춰

가며 위임목사 결정을 유보하고 있던 차에 개척교회 목회에 대한 김지한 목사의 자신감도 작용하여 사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 강원노회 춘천시찰회에는 여러 해에 걸쳐 조성해 왔던 교회 개척 기금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만큼 축적이 돼 있었고, 이에 힘 입어 춘천시찰회가 교회 개척을 추진하는 기회에 김지한 목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마음을 같이했던 신북교회 일부 신입 성도들을 규합하여 '신사우동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신북교회 당회원들은 담임목사의 예고 없는 사임에 당혹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신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김지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여 가는 길을 격려하며, 개척 교회 사역과 목회 준비에 필요한 소요 경비 150만 원을 지원하였다.(2002년 10월 6일 당회록) 이렇게 신북교회의 2000년대 초반은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어수선하게 출발하게 되었다.

2) 제11대 담임 교역자 조덕준 전도사 부임과 목사 안수

신북교회 당회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맞게 된 담임 교역자 부재의 현실을 앞에 두고 우왕좌왕할 겨를도 없이 성도들의 동요와 이탈을 막으면서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해결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김지한 목사의 군더더기 없는 말씀 선포에 매료돼 있던 성도들이 많았으므로 기존 성도들의 이탈은 당회가 걱정해야 할 큰 문제였다. 교회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백승욱 선임 장로를 중심으로 한 당회는 담임 교역자 사임 직후부터 항존직분자들과 교회에 경륜이 있는 청지기들에게 두루 의견을 들은 결과, 신북교회의 내부 사정과 성도들을 잘 알아 이해하고 있어서 교회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교역자를 우선 모셔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당회는 김지한 목사가 사임한 바로 다음 주중에 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임시 당회를 개회하고, 5개월 전에 신북교회를 사임한 조덕준 전도사를 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다. 성도들이 이미 조덕준 전도사의 진심과 열정을 경험했고, 교회의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적임자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당회는 김지한 목사 사임 다음 주일인 9월 29일 주일에 임시 제직회를 소집하여 '조덕준 전도사를 신북교회 담임전도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한 임시 당회의 결의 사항을 임시 제직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담임 교역자 청빙 절차를 문자 그대로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속도로 1주일 만에 진행한 것이다. 그만큼 교회의 안정을 위해 담임 교역자 청빙이 시급했다. 당시 제직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2002년 9월 29일. 주일. 임시 제직회. 제직 64명 중 42명 참석. 기록 박순필 집사)

> '사회자인 백승욱 장로님께서 조덕준 전도사님의 신북교회 담임 전도사님 청빙 관련하여 임시 당회에서 10월 첫 주부터 청빙하기로 결의한 내용과 제직회 상정 배경을 설명하시고 제직들의 기탄없는 토의 당부'. 결의 - 토의 후 최영철 집사의 동의와 오순옥 권사의 재청이 있어 사회자가 제직들에게 가부를 물으니 조덕준 전도사님을 신북교회 담임 전도사로 청빙하기로 "가"하다고 답하여 상정 안건 가결'

제직회의록 내용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백승욱 선임 장로가 안건을 상정하면서 제직들의 기탄없는 토의를 당부한 내용이다. 제직들에게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당부하며 제직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에서 당회의 결의로 임시 제직회에 상정한 안건이 목사가 아닌 전도사를 담임 교역자로 모시기로 한 것과 일정상 조급하게 청빙 과정을 진행한 데 대해 우려했던 당회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제직들은 당회의 뜻을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서 당회에 대한 신뢰를 보내며 당회와 제직회가 짧은 기간의 위기였지만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2002년 당시에 신북교회가 자립 교회이고 강원노회 내에서 규모나 모든 면에서 작지 않은 교회로서 전도사 신분의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는 일이 교회 통념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임시 당회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으나 당면한 문제는 교회가 긴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담임 교역자 자격으로 목사와 전도사의 신분을 논할 계제가 아니었다. 하루라도 빨리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여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맡겨서 목자 잃은 양의 처지에 놓인 성도들을 안정시키고 성도들이 전임 교역자를 따라 흩어지는 일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리고 전도사 신분은 신북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도록 교회가 적극 지원하면 되는 일이었으므로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교회의 발 빠른 결정에는 조덕준 전도사가 신북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준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교회의 담임 교역자 문제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2주일이라는 단기간 안에 아무런 잡음 없이 해결된 것은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사랑하시는 증표인 것이 후에 조덕준 전도사의 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조덕준 전도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담임 교역자 부재 2주 만인 2002년 10월 6일에 신북교회의 제11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했다.

조덕준 전도사

조덕준 전도사 부임을 전후하여 당회와 제직회가 걱정했던 기존 성도들의 동요와 이탈은 없었으며 교회는 단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교회로서는 전에 없던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모두가 신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이다.

당회에서는 조덕준 담임전도사 부임 후 11월 10일 금산교회 한철인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 받아 당회를 개최하고 조덕준 담임전도사의 신북교회 담임전도사 시무 청원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후 다음 회기 노회 청원을 미리 준비하였다.

조덕준 담임전도사는 전도사 신분으로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교회

에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며 어떤 사역에든지 열정을 다했다. 신북교회의 담임 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조덕준 전도사는 목사 고시 준비에도 힘을 기울여 목사 고시에 최종 합격하였다.

2003년 2월 23일 당회에서는 조덕준 담임전도사의 목사 고시 합격 후 신북교회 임시 목사 청빙의 건을 백승욱 선임 장로가 상정하며 제안 설명을 하고 민경천 장로가 안건에 동의하니 박광장, 백춘길 장로가 재청하여 당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덕준 담임전도사의 신북교회 임시 목사 청빙의 건은 가결되었다. 당회는 3월 14일 임시 제직회를 소집하여 당회 결의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하였고, 3월 14일 제직회에서는 당회 결의 사항에 대해 백춘길 장로가 당회 결의 내용을 낭독하고 안건으로 상정 후 한철인 임시 제직회 의장이 제직들의 의견을 묻고 이에 김규식 집사가 재청, 제직들이 '가'로 답하여 제직회 만장일치로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조덕준 담임전도사는 담임 교역자로 부임한 지 1년 6개월 만인 2004년 4월 14일 제102회기 강원노회(영월교회)에서 강원노회원들과 신북교회 성도들의 축하 속에 목사 안수를 받아 신북교회 임시목사 신분으로 시무를 계속하게 되었고, 안수 후 5년여 후인 2009년 11월 22일 신북교회 50주년 기념 성전 헌당 예식 때 박우만 위임목사(1971. 5. 8), 김은일 위임목사(1977. 3. 25)에 이어 신북교회 역대 세 번째 위임목사로 취임했다.

3) 조덕준 전도사가 부임하기까지

목사 안수 이전의 조덕준 전도사[76]가 신학 대학원에 진학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1등 항해사로 근무하며 세계의 바다를 누볐다. 항해사 신분으로 당시 선원 선교회라는 기독교

76) 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 편찬위원회는 조덕준 전 신북교회 담임목사와 신북교회 사역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서정임 사모에게 자료 관련 질문지를 보냈고, 서정임 사모와 아들 조민우 연세대 조교수가 작성해서 보내온 답변서에 근거해 조덕준 담임 교역자 전도사 전후의 시절과 담임목사 시절 신북교회 사역과 관련 자료를 재구성해서 각 사역의 기록에 옮겼다.

단체에서 선박 선교사로 활동하였고, 항해를 마치고 귀국하면 각종 수련회에 참가하면서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 조덕준 전도사는 선원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1989년부터 뜻을 같이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중국 연길에 선원학교를 세워 1998년까지 중국 여러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조덕준 전도사가 신대원 재학생으로 2000년 6월 4일에 신북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계기가 참신하다. 조덕준 전도사가 중국 선교를 마치고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신학생들은 전도사로 서울, 특히 수도권의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덕준 전도사도 서울의 H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으며 담임목사님께서 그를 크게 신임하여 교육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설교를 맡기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신학대학원 벽보에 붙어 있던 신북교회의 전도사 청빙 공고를 보게 되었다.

다른 교회의 공고는 금방 사라지는데, 유독 신북교회의 공고만은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것이었다. 조덕준 전도사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지역사회 복음 사역에도 비전을 품고 있었기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호기심으로 교회에 연락하게 되었다. 가족에게는 혼자 주말마다 춘천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했으나, 신북교회를 첫 방문 후 교회 구성원의 단합과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첫 방문 날이 마침 전교인 체육대회 날이었는데 밝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전도사로 신북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조덕준 전도사의 사역은 열정 그 자체였다. 조덕준 전도사는 청년·학생들과의 친화력이 뛰어나 청년·학생들이 조덕준 전도사와 스스럼없이 어울리면서 교회에는 다음 세대들의 활기가 넘치게 되었다.

그러나 조덕준 전도사는 신북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사임했다. 서정임 사모와 아들 조민우 교수가 보낸 원고를 중심으로 조덕준 전도사가 신북교회에 재부임하여 사역을 시작한 과정과 내용을 재구성하며 살펴보겠다.

조덕준 전도사는 신북교회를 사임한 후 6개월 동안은 일산에서 조선족 선교회 총무 간사로 섬기며 부흥을 경험하였다. 그러던 중 신북교회에서 다시 청빙 연락이 왔을 때 조 전도사는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고 한다. 첫째, 당회원 전원의 찬성, 둘째, 조선족 선교회의 흔쾌한 파송, 셋째, 일산에서 계약한 집의 원만한 정리였다. 놀랍게도 세 가지 모두 순조롭게 해결되었고, 조덕준 전도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신북교회의 부름에 응하며 신북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조덕준 전도사는 교회를 떠나는 것도, 다시 돌아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전도사로 처음 부임할 때부터 신북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는 춘천이 가정의 중요한 터전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서정임 사모와 아들 조민우 교수는 기억하고 있었다.

4) 공감하고 배려하는 다음 세대 사역

서정임 사모가 전한 조덕준 목사의 청년 사역과 가족 사역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목사님은 청년 사역과 가족 사역에 큰 힘을 쏟으셨습니다. 교회에 나온 청년과 성도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신앙 안에 뿌리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당시 함께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교회의 주역이 된 것을 보면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폭설 속에서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와 사택 앞 눈을 치우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청년들은 자기 집보다 신북교회에 먼저 와서 눈을 치웠었지요. 모두 목사님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에도 힘쓰셨습니다. 읍사무소와 협력하여 춘천 소년원 봉사에 4~5년간 헌신하신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결과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들과 더불어 신북교회와 춘천을 위해 기쁨으로 사역하셨고 힘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조덕준 목사가 전도사 시절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의 청년부 문제점과

그에 대한 조 전도사의 마음부터 서정임 사모의 전언을 통해 살펴보겠다.

조덕준 목사에게는 교육전도사에 이어 담임 전도사 시절부터 신북교회 청년부 문화가 서로 솔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마음속에 있었다. 술을 마시는 것을 단죄하는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숨기고 예의를 차리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조덕준 전도사는 술을 마시는 것보다 그렇게 서로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정죄하기보다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기도하면서 더 솔직하고 편안한 청년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조덕준 전도사도 젊은 시절에는 배를 타면서 술을 많이 마셨던 것이 청년들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다행히 청년들도 처음에는 다소 놀랐으나 나중에는 청년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 주일 예배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청년들이 쉴 곳이 마땅하게 없다 보니 귀가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조덕준 목사는 사택을 개방하여 청년들이 TV도 보고 잠깐 쉬다가 다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배려했다. 목사가 사택을 개방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었다.

그 후 사택의 거실은 신북교회 유소년부에서 청년들까지의 사랑방이 되어 신북교회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조덕준 담임 교역자는 전도사로서나 목사로서 청년·학생 지도와 관리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가는 사역에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지도자였다.

학생과 청년들은 교회에 와서 담임 교역자와 서로 공감하며, 그리고 배려를 받으며 신북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고, 그의 지도력에 의해 성경 공부를 비롯한 신앙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었다. 신앙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조덕준 담임 교역자의 교육 방식은 제자들의 신앙뿐 아니라 지적(知的), 정서적, 사회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므로 조덕준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현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 중에는 조덕준 목사를 인생의

진로까지 함께 걱정해 준 멘토요 길잡이였다고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그 당시에 학생회와 청년회에서 조덕준 교역자에게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은 다음 세대들이 신북교회의 어느 시대보다 많았다. 교회의 교역자와 다음 세대들이 친구나 가까운 선후배처럼 허물없이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신북교회에도 큰 축복이었다. 저들이 신북교회에서 학생과 청년 시절에 신앙 훈련을 잘 받은 효과가 현재 신북교회 3040세대들의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덕준 목사에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계속 성장하여 안수집사나 권사로 혹은 서리집사로 교사나 찬양단(대)원과 자치 기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교회의 허리를 떠받치는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이 없어서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걱정이 커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지만, 신북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지키며 그들 세대의 중심에서 그 규모와 역할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북교회는 공동체 내 신구(新舊) 세대의 조화로운 구성과 역할로 미루어 볼 때 미래를 걱정해야 할 시간이라기보다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며 설렘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이나 결혼으로 신북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들도 또한 그곳 직장이나 교회에서 보배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은 분명하다.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열정을 다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조덕준 목사는 신북교회 담임목사로 시무 중에 질병으로 소천(召天)하여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는 없게 되어 안타까우나 조덕준 목사와 청년 학생 시절에 신북교회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은 지금도 그 시절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조덕준 목사와 청년들

5) 조덕준 목사가 양육한 제자들

편찬위원회에서는 조덕준 목사가 양육한 제자들에게 청년·학생 시절 조덕준 목사와 함께했던 모습을 듣고 옮기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당시의 추억을 떠올려 보도록 지금은 중년이 된 일부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조덕준 목사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들의 눈빛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들은 것을 옮겨 써서 기록하는 것보다 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북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나 타지에서 연락이 닿는 제자들에게 당시의 활동 모습과 자신의 인생에 각인 돼 있는 조덕준 목사의 사역과 존재감을 원고로 부탁해서 도착순으로 수정 보완하여 싣는다.

현재 신북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자들은 최영옥, 박수인, 박자경, 정희숙, 기지영, 현희정, 박소영, 정희경 등이고 장성렬, 정지영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별도로 원고를 받았다.

예수그리스도를 인격적 만남으로 감동

박 수 인(안수집사)

2002년 5월에 사단 군종병으로 제대 후 6월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국제자훈련원에 가족들이 조덕준 당시 전도사의 권유로 참석하고 난 후, 나에게도 적극 추천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의 예수님은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제자훈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자유함과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체험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동이 큰 은혜의 순간이었다. 이 체험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조덕준 전도사님의 추천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귀한 시간이었다. 조덕준 전도사님은 청년들에게 많은 체험의 시간을 가지도록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

CCC(한국대학생선교회) 도시 전도팀의 신북교회 방문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2003년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춘천지구(강원대, 춘천교육대, 한림정보대)에 소속 학생들이 여름수련회(2003년 06월 30일(월)~07월 04일(금) 4박5일)를 마치면 바로 수련회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도시 전도(2003년 07월 04일(금)~06일(주일) 2박3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덕준 당시 담임 전도사의 배려로 CCC 학생들은 신북교회에서 숙박하며 교회 주변의 어르신들 일을 도와드리면서 4영리로 전도하고, 천전초등학교 주변을 아이들에게 여러 색으로 만든 전도지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신북교회 팀

개인적인 격려의 시간도 기억난다. 2005년 즈음 조덕준 목사님께서 저녁에 예배가 없는 날에는 살을 빼야 한다고 하시면서 같이 운동하자고 저에게 제안하셨다.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난다.

"배우고 능력을 갖추고 훈련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수인이를 분명히 쓰신다."

그 뜻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계발하면서 영성 훈련도 함께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박수인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조덕준 전도사님의 신앙적 지도는 나의 청년 시절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조덕준 목사님과의 청년부 시절을 떠올리며

박 자 경(권사)

청년부 시절 조덕준 전도사님과의 기억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양평에 있는 제자훈련원이 떠오른다. 지금의 신앙 토대를 그 시기 제자훈련원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약 20여 년 전 이야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전도사님의 강권적인 권유로 혼자 제자 훈련에 참석했었다.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진로와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한적한 시골에 있던 제자훈련원에서 종소리에 맞춰 모이고, 때 되면 밥을 먹고, 그렇게 지겹게 말씀만 읽고 듣고를 반복했던 것 같다. 둘째 날 저녁 예배 때 송신호 목사님을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게 너무 깊게 다가와 저의 삶과 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뜨거운 은혜를 집에 돌아와 부모님 두 분을 잠도 안 재우고 늦은 밤까지 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청년 시절 조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하는 시기를 가질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중국 선교 여행을 갔던 것이다. 조 전도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섬기셨기에 중국에 선교를 제안하셨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처음 국내를 벗어나 드넓은 중국의 땅을 경험하게 되었다. 낯선 문화와 언어 때문에 걱정도 되

었지만 현지의 선교사님들께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걱정하던 것들을 다 사라지게 되었다. 선교활동을 통해 중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고, 신북 땅에 살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청년회 성경 공부 인도 중인 조덕준 담임목사

조덕준 목사님과 함께한 청년부 모임

정 지 영(경기도 하남 정윤교회 집사)

그동안의 청년부 모임은 예배를 드리고 친교 활동을 하는 방식이었다. 조덕준 목사님과 함께한 청년부 모임은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했다. 처음에는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삶을 나누면서 나의 힘들었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청년들이 조덕준 목사님과 함께 '한국제자훈련'에 참여하여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성경 공부도 청년 시절과 신혼부부 시절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기

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친밀해지고 신앙생활을 같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신앙이 깊어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신앙이 성숙 되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신혼 초에 신랑인 이영훈은 낯선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때 많이 하게 되었다. 성경 공부 후 교제를 통해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다.

여러 면에서 조덕준 목사님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그때 성장한 믿음으로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해 나갈 수 있었다. 오래 기억될 목사님이셨다.

청소년부를 돌아보며

정 희 숙(집사)

지금의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따뜻함'이다. 조덕준 전도사님과 목사님 시절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나에게 청소년부는 늘 한 발짝 위에 있는 세계처럼 느껴졌다.

청소년부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책임을 배워가던 작은 공동체였다. 봄이면 매 주일 아침 7시에 모여 5월 5일 신북지구 학생 체육대회를 준비했다. 여학생들은 발야구를, 남학생들은 축구를 연습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고, 그 시간마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연습을 마치면 교회로 돌아와 9시 예배를 준비했다. 학생회는 성가대를 섰고, 지금과는 달리 본당 앞자리에 앉아 찬양을 드렸다. 솔직히 졸기도 많이 졸았고, 그때마다 어른들께 꾸중도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꾸중조차도 우리를 품어주던 관심이었음을 알게 된다. 예배 후에는 11시 아동부 예배를 도왔고, 저녁 7시 예배가 있는 날이면 그전까지 교회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프로그

램이 없어도 그 시간은 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예배가 끝나면 학생회실에 모여 기도회를 했다. 함께 기도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자라갔다. 어른들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모임이 걱정되었고 결국 그 기도회는 몇 해 뒤 중단되었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냈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다. 5월 체육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여름수련회 준비가 시작됐다. 당시에는 전도사님 외에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준비를 학생회가 맡았다. 여러 팀으로 나누어 각자 역할을 맡고, 책임을 다하며 준비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낼 수 있었을까? 싶지만 그때의 우리에게 교회는 생활의 중심이었다.

여름방학에는 초등부 성경학교를 돕고, 학생회 수련회를 마친 뒤에는 문학의 밤을 준비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발표회였고, 대본부터 무대까지 모든 것을 학생회가 직접 준비했다. 긴 시간 교회에 머물렀지만 그 시간은 결코 부담이 아니었다.

문학의 밤이 끝나면 다시 크리스마스 준비가 시작됐다. 아동부와 학생회가 함께 준비한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학생회 조직을 맞이했다. 그렇게 계절은 반복되었고 우리의 시간도 함께 자라났다.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눈이 오는 날이면 그날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누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둘 옛 교회로 모였다. 우리는 교회 앞에 쌓인 눈이 얼지 않도록 함께 눈을 쓸었다. 특별한 지시도 계획도 없었다. 그저 교회가 먼저 떠올랐고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었다.

요즘 아이들을 떠올리면 이런 시간과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관계를 배우고, 공동체를 경험하며 자랐다.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지만, 이미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신북교회 72주년을 맞아 이 시간을 돌아보며, 그 시절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내 삶의 바탕이 되어 주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말없이 함께 모여 눈을 쓸던 그 날들처럼 교회는 늘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났다.

이 모든 것은 조덕준 목사님과 함께한 것이었다.

그때가 그립고 목사님이 그립다.

나의 멘토이셨던 조덕준 목사님

기 지 영(집사)

조덕준 목사님은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20대의 시절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때로는 아빠처럼, 삼촌처럼, 친구처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이다.

사모님께서 목사님께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우리 집이나 희숙이네 오시면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셨던 순진하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하셨다.

라면을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그때만큼은 라면을 먹으며 신앙적으로 그 시절 나의 힘듦에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다.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편안히 툭툭 던지시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언제든 교회에 가면 지금은 사무실로 바뀐 목사님 방에서 나오셔서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신 일, 고3 졸업여행을 가서 놀았던 일, 사택에 있던 은행나무를 털 때면 온몸에 은행 냄새를 풍기시며 웃으시던 목사님, 지금도 내 마음속 한쪽에 깊이 자리 잡혀있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 조덕준 목사님은 나의 청년 시절에 신앙의 멘토이셨다. 조덕준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다양한 경험의 훈련

현 희 정(집사)

조덕준 목사님이 신북교회 전도사로 계시던 나의 학창 시절엔 매일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내내 7일을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요약해 보면 기도, 말씀,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학생부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밤늦게까지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학생회 시절이 지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성경 타자, 성경 필사, 큐티 등으로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기를 지겹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령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매주 설교, 강의하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소년원 사역으로 교회 밖 사역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고, 소년원에서 나온 청년을 목사님 댁에서 지내게 하신 일이 충격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하신 분으로 기억납니다. 어려운 일을 어렵지 않게, 복잡한 일을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인지 부족한 저에게 이것저것 많은 일을 담당하게 하셨고, 음악과 찬양에 대해 공부한 적도 재능도 없는 저에게 찬양 인도도 맡기셨습니다. 신북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절은 그런 목사님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조덕준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목회하시던 학생과 청년의 시절에 받았던 훈련과 연단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준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보고 싶은 조덕준 목사님에게

장 성 렬(경상북도 김천시 운남교회 집사)

조덕준 목사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신북교회 마스코트 짱쓰예요~~~.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추운 겨울만 되면 늘 짱쓰~ 짱쓰~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던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신북교회 72주년을 맞아 목사님을 추억해 봅니다.

처음으로 신북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1등 항해사로 배를 타다가 오셔서 그런지 배가 볼록 나오고 친근한 인상이셔서 처음부터 목사님이 너무 편했던 거 같아요~. 그 당시 전도사님이던 시절 볼록하게 나온 배를 제가 종종 쓰다듬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버릇없는 행동인데도 그런 저를 늘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었네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늘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청년 시절 성경 공부에 대한 재미도 알게 되고 제자훈련원과 기도원 등을 통해 주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삼성전자에 취업하게 되었고, 저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간증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간증했던 기억도 나네요~. 생각해 보면 목사님은 때론 친구 같으면서도 때론 멘토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제 믿음이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은 모 교회인 신북교회를 떠나 있지만 저의 믿음의 처음과 성장을 이끌어준 조덕준 목사님 및 많은 분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후 장년이 되어 신북교회에서 섬김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덕준 목사님! 지금 당장은 우리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실컷 나눠요. 그리고 아직도 배 볼록하신 거 맞죠? 배 쓰다듬어야 하니까 그곳에서 다이어트하시면 안돼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학생회 시절의 추억

박 소 영(김충현 전도사 사모)

학생회 시절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면 다섯 교회(신북장로교회, 천전장로교회, 천전감리교회, 산천감리교회, 샘밭침례교회)가 순서대로 돌아가며 주관하는 학생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섯 교회가 서로 모여 체육활동(축구, 배구, 발야구, 줄넘기, 계주 등)으로 친교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학생부와 청년부가 같이 선수로 참여하는 교회의 연례행사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덕준 전도사님께서 1등을 하면 아이스크림을, 꼴찌를 해야 닭갈비를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교회 간의 화합과 교제를 위해 1등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지만 역시 그해에도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에도 당연히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토요일 학생회 예배가 끝나면 사택을 내어주신 전도사님과 사모님. 늘 함께 먹었던 떡볶이가 생각납니다. 예배가 끝난 후 차량 운행하실 때도 저와 동갑내기 친구들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시내 방향 먼저 운행해달라고 졸랐으며 전도사님과 1시간 넘게 드라이브하면서 시시콜콜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지. 웃고 떠들었던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허물없이 친구처럼 얘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조덕준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6)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

신북교회는 1980년대부터 20여 년 동안 기도하며 꾸준히 준비해 온 성전 건축에 대해 교회 창립 50주년(2003년)이 다가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교회의 현재나 역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교회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웬만큼 해 왔기에 성전 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신북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북교회는 교회의 역사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도 이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북교회에 행하신 일은 모두가 신북교회 성장에 중요한 디딤돌이요 전환점이 되었고, 그것은 어느 한때라도 어긋남이 없었으므로 신북교회의 온 성도들은 이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전 건축에 임할 수가 있었다.

신북교회는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을 위해 1999년 2월 7일에 백승욱, 민경천, 박광장, 백춘길, 최영철, 김봉우, 윤계월, 박민옥, 이영자, 오순옥, 정춘식, 이정순, 이범자, 조진구, 김규식, 지남숙, 장은희, 홍미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고(2000. 2. 13 주보), 건축위원회 조직으로는 위원장에 백승욱 장로, 총무에 박광장 장로, 회계 및 실무 협력 담당으로 김규식 서리집사를 선임하였다. 기본적인 조직만으로 건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단일 창구를 통해 수렴하고, 의사 결정도 신속히 해가며 성전 건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건축 실무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해서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건축 작업을 벅찬 마음으로 시작했다. 건축위원회는 198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계속한 건축헌금 내역과 헌금 진행 상황을 제직회와 교회에 보고해 왔던 일을 2000년에 들어서도 계속하며 성전 건축의 의지를 이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동안에도 하나님께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고 계속하였

다. 2002년 1월 27일 당회록에는 교회 대지 구입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성전 건축을 위한 대지 구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대지 구입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논의하던 중에 2002년 2월 27일 당회에서 김익보 원로장로 소유의 농토를 평당 20만 원 내외에서 구입하기로 1차 결의하였고, 2002년 5월 26일 당회에서는 대지 구입 관련 절차를 백승욱, 박광장 장로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한 결과 2003년 1월 29일 신북읍 율문리 256-18 번지, 김익보 원로장로 소유의 밭 1,500평을 평당 180,000원에 매입 완료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건축위원회는 건축설계를 춘천의 손호성 설계사무소에 맡겼다. 손호성 설계사는 교회의 이웃에 거주하며 어린 시절에는 신북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했었고, 학창 시절에는 교회 앞을 지나 학교에 다녔었다. 그런 인연으로 손호성 설계사는 신북교회와 여러 면에서 연결되어 있던 설계사였고, 당회원과 성도들 가운데 일부와는 동네 이웃으로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손호성 설계사는 춘천 건축 설계사 사회에서 촉망받는 젊은 설계사였다. 설계는 빠르게 진척이 돼서 2003년 5월 4일 건축설계 부분 변경(당회록)을 거쳐 3일 후인 5월 7일에 드디어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고(건축 경과보고서), 6월 11일 건축 허가 획득, 7월 5일 건축 공사 계약(디자인 캠프 건축회사), 7월 6일에 기공 예배(건축 경과보고서) 등 성전 건축을 위한 일련의 진행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설계와 관련한 후일담이 있다. 건축 설계 초안을 두고 당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선배 장로들은 창문을 크고 길게 하는 등 전통적인 교회 양식에 관심이 있었고, 후배 장로들은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선배 장로들이 흔쾌히 후배 장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 초안의 일부만 변경하여 세련되고 아름다운 현대적 이미지의 교회 모습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성전 건축은 교육관과 식당 등 부속 시설을 함께 건축해야 예배를 비롯한 여러 사역이 편리하겠으나, 당회와 건축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본당만 건축하기로 하였다.

본당 이외의 교육관은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식당은 현재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가 교회의 재정 형편을 보아 가며 시차를 두고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본당을 오가며 활동하기가 다소 불편하고, 성도들도 식당을 사용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겠지만 새 성전 부지가 현재의 성전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작은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손호성 건축 설계사는 성전을 설계하면서 어린 시절의 신앙심까지 불러일으키며 나름의 성경 지식을 반영하여 설계에 임했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편찬위원회는 이에 착안하여 교회에서 설계사에게 요구한 설계 구상과 계획을 설계사가 어떻게 설계에 반영했으며 자신의 설계 철학과 감각 등을 설계에 반영한 과정이 '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에 꼭 실려야 했기에 손호성[77] 설계사에게 그 내용 기술(記述)을 부탁하여 다음의 차례에 싣는다.

50주년 기념 성전을 설계하며

손호성 안수집사

신북교회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워진 역사가 오랜, 그리고 내 기억에는 소년 시절에 잠시 다녔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부모님께서는 불교신자였기에 언제부터인지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고, 나에게 있어서 신북교회는 친구 아버지가 목사로 계시는 우리 동네 초입새에 있는 그저 평범한 교회일 뿐이었다.

그리곤 한참의 세월이 흘러갔고, 나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 한 후 일정의 수련기간을 거쳐서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는

77) 손호성 설계사는 신북교회 설계 후 가족의 종교였던 불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여 신북교회에 출석하며 현재 안수집사로 시무 중이다.

데 2002년 어느 날이었다. 내가 소년 시절 신북교회에 다닐 때 그 당시 주일 학교 선생님이었던 박광장 장로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우리 신북교회가 새로운 대지를 매입한 후 새로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시면서 자네가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이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하였으니 신북교회 설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너무 기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교회 설계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나는 엄마와 함께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장로님께 심중에 있던 고민을 말씀드렸다. "장로님, 실은 제가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도 괜찮겠는지요?" 라고 하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외에 타 종교인들에 대한 배타심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괜히 어디 마귀를 섬기는 자에게 신성한 성전 건축을 의뢰하느냐고 반박하면 장로님 입장 난처해지실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때 장로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셨다. "이 사람아, 자네는 그저 아무 고민 말고 새로 세워질 우리 신북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잘 설계해 주면 된다네."라고. 그때 장로님께서 해주신 그 한 말씀은 진실로 나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큰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신북교회를 신축할 부지는 1,500평 정도 되는 넓은 부지였고, 건축면적은 150평이 채 빠지는 작은 규모였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 그 넓은 땅에 작은 교회를 어찌 배치할 것이며, 그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새로 세워지는 신북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단순히 종교적 영역이 아닌 그 어떤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것인지 등. 그리하여 장로님께 말씀드렸다. "어쩌면 기독교를 모르는 제 견해가 주제넘을지는 모르나 저는 새로 지어지는 신북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끌어안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길 바라며,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신북교회에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편안한 쉼을 주는 커뮤니티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개념으로 설계하고 싶다"고. 그러자 장로님께서는 "그래 그것 참으로 좋겠네." 하시면서 그 방향으로 설계를 해보라고 흔쾌히 말씀해 주셨다.

신북교회 설계의 배치 개념, 평면 개념, 입면 개념은 다음과 같다.

배치 개념

도로에 접촉이 되어 있는 부지 전면은 최대한 도로와 부지 레벨을 맞추어 접근성을 편하게 하고, 성전 앞 잔디 마당에는 조경수를 일부 식재해서 전면(前面) 도로

의 통행인들이 부지 내에 설치해 놓은 벤치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신축 교회 뒤 공간은 주차장 및 차후 증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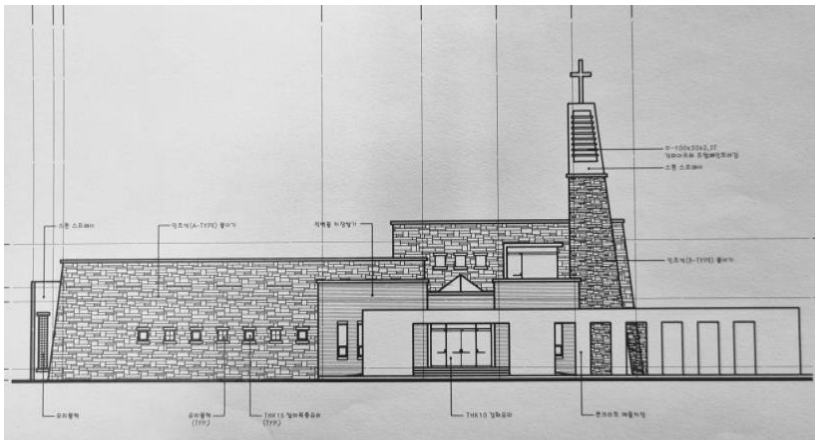
평면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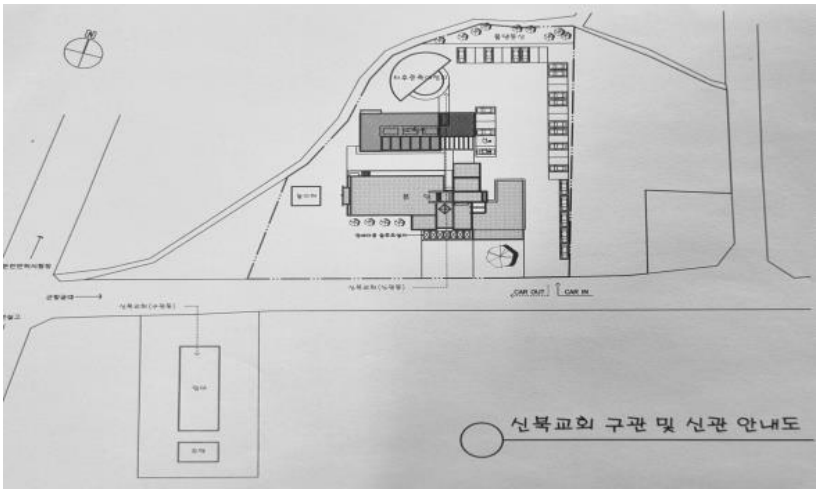
신축하는 교회의 건물 내부는 예배당 홀 기타 부속실들이 있고 다소 좁은 감이 있는 내부 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상부에 천창을 계획하였으며,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하여 전면도로와 주 출입구 사이에 완충공간으로 콘크리트 가벽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그 설치된 가벽은 교회 건물의 수평적 요소를 강조하는 건물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기도 하다. 또한 본당의 건물 규격은 12.2×24.4 미터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시나이반도 사막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의 그 최초 성막과 비슷한 규모이다.

입면 개념

신축 교회의 위치가 넓은 들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수평적 요소를 강조해 주었고, 종교적이며 기념비적 상징인 십자가를 세운 첨탑으로는 수직적 요소를 강조해서 안정감 있는 수평적 요소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외장 마감 재료는 최대한 자연적인 느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월의 때가 묻어도 밉지 않을 온화한 벽돌과 모든 빛깔을 끌어안는 회색 톤 스플릿 블럭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십 년 전에 지어졌던 최초 신북교회 이후, 새로 지어지는 신북교회는 2003년도에 신축 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04년도에 완공되었다.





교회 전면 설계도, 구관 및 신관 안내도

7) 기도와 찬양 위에 세워진 50주년 기념 성전

교회의 성전 건축은 일반 건축물 건축과는 목적이나 성격 그리고 건축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성전(聖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殿)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헌당(獻堂)하는 예배와 사역의 중심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시공사와 감리사에게 건축과 감리를 맡기고 건축 과정을 살피게 되는 데 비해 성전은 이에 더해 건축의 전반적인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신북교회는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2002년 7월 6일 현재 교회의 터에서 조덕준 담임 전도사의 주관 아래 신북교회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다.

새 성전 기공예배

기공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일의 첫 삽을 뜨는 예배에 감사의 마음으로 참석했다. 20년 전부터 선배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건축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도와 준비의 열매를 거두는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격할 일이었다. 조덕준 담임전도사는 성전 건축 기공 예배 다음 날부터 성전을 준공하여 입당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매일 특별기도회'를 기획하고 유리바다 찬양단(단장 김규식 집사)이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전교인 기도회에 돌입한다.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건축의 모든 과정과 일정을 맡기는 기도회는 교회로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계획이었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없지 않은데, 교회의 성전 건축 특별기도회는 건축 과정에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도 필요한 신앙적 절차요 조치였다. 조덕준 담임 전도사가 인도하는 매일 저녁의 성전 건축 특별기도회 열기는 웬만한 부흥회와 다르지 않았으며 기도회는 성전을 기공하여 입당하는 날(2004. 5. 23)까지 10여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당시 찬양단장 김규식 장로 회고)

서정임 사모는 성전 건축 당시 성전 건축 특별 기도회를 매일 실시한 데 대한 조덕준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매일 기도회를 여는 일은 목사님께도 부담이었지만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곤함 대신 큰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다소 힘들어했지만

결국 한마음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김규식 당시 집사님 가정은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며 찬양 인도에 반주까지 맡아 주셔서 목사님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규식 집사가 인도하는 찬양단과 성도들의 찬양이 매일 저녁 교회에 울려 퍼졌으며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신북교회는 성도들의 간절하고도 절박했던 기도와 찬양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당시 기도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공사 기간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공사 지연, 잡음이 없이 은혜롭게 공사를 마치게 인도해 주셨다.

백승욱 건축위원장과 박광장 실무 총무를 비롯한 건축위원들은 생업과 성전 건축을 병행해 가며 공사 인부들을 찾아 격려하며 공사 상황을 살폈고, 성도들도 수시로 건축 현장을 둘러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사 진척 과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더 매진할 수 있었다. 새 성전 건축 중에 신북교회 설립자인 차광훈 목사가 방문하여 격려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관심과 기도가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공사를 순조롭게 이끌어 주셨다.

성전 건축 중 설립자 차광훈 목사 방문(왼쪽에서 세 번째)

현재 신북교회 예배·성도 위원장으로서 성전 건축 당시에 건축위원회 회계와 유리바다 찬양단 단장을 맡아 섬기면서 기도회의 찬양을 앞장서서 인도했던 김규식 장로가 찬양단 설립과 그 의의 및 기도회를 이끌었던 소회를 편찬위원회에 원고로 제출한 것을 그대로 싣는다.

신북교회 유리 바다 찬양단의 설립 및 그 사역의 역사적 의의와 성전 건축 기도회에 임했던 소회(所懷)

김규식 장로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 전반에 경배와 찬양 사역이 빠르게 확산하였다. 그러나 신북교회는 오랫동안 전통적 예배 형식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찬양 사역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북교회의 찬양 사역은 1998년 1월 11일 김지한 목사의 부임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김지한 목사는 교회의 예배 회복과 영적 갱신을 위하여 찬양 사역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회에 찬양단 창단을 요청하였다.

당시 교회의 여건은 모든 면에서 풍족하지 않았고 찬양 사역에 대한 인식 또한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으나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단이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첫 찬양단을 발족하였으며 이는 다음 세대를 통해 교회의 영적 토대를 새롭게 세우려는 신앙적 선택이기도 하였다.

찬양단의 공식적인 출범은 2001년 중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이 사역의 열매로 2002년에는 찬양 보급을 위해 찬양집 「생명의 찬가」를 발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배와 찬양은 점차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신북교회의 예배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특별히 2002년 10월 6일 조덕준 담임 전도사의 부임 이후 찬양단 사역은 더욱 체계화되고 확대되었다. 이 시기는 찬양단 사역이 교회의 전체 영적 분위기를 이끄는 중심 사역으로 성장하던 중요한 전환기였다. 그 정점은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 공사 기간 내내 있었던 찬양 사역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2003년 7월 6일 성

전 건축 기공 예배 이후 2004년 5월 23일 입당 예배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찬양단은 거의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였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인간의 열정이나 조직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 기적에 가까운 사역이었다. 이 시기의 찬양은 단순한 음악 사역을 넘어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영적 동력이었으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한 중요한 통로였다.

이 기간에 다져진 찬양단의 영적 기초와 사역의 전통은 이후 신북교회 찬양팀이 오늘날까지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찬양단은 단지 예배의 한 순서를 담당하는 팀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흐름을 이끄는 핵심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신북교회 찬양단의 역사는 곧 신북교회 예배 갱신의 역사이며 다음 세대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섭리의 기록이다. 이 사역을 통하여 신북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였고, 찬양을 통해 공동체는 더욱 깊은 연합과 헌신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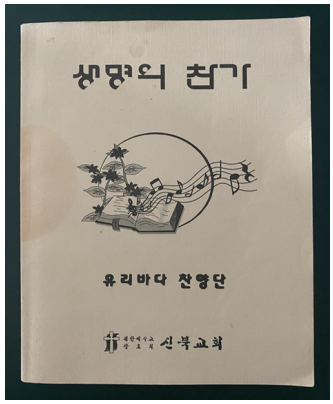
이 모든 여정은 인간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오늘의 신북교회가 누리는 예배의 풍성함은 이 믿음의 헌신 위에 세워진 귀한 열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유리바다 찬양단 단원(창단)

단장 – 김규식 집사　반주 – 김수정 김다희
백문일 장성렬 김익훈 정희숙
안재국 박소영 허　빈

· 생명의 찬가 발행

발행인 – 김지한 목사
편집인 – 김규식 장성렬 조민우 김익훈
정희숙 김송미 김수정 박소영
김진성



생명의 찬가집

위와 같은 다양하고도 은혜로운 사역과 과정들을 거쳐 신북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전은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56-18번지에서 2003년 7월 6일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린 지 6개월 만인 2004년 1월 12일에 준공 검사를 필하고, 이후 건축 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건축위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새 성전 입당 예배 및 임직식(2004. 5. 23. 주일. 오후 3시)에서 보고한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 경과와 건축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성전 건축 경과 보고서 및 건축 개요

건축 경과 보고서		건축 개요
년 월 일	보고 내용	
1999. 2. 7	건축위원회 조직	위 치 : 춘천시 신북읍 256-18 대 지 : 1,500평 연 건 평 : 150평 총공사비 : 955,000,000 토지조성비 : 308,000,000 건축비 총액 : 565,000,000 성물 구입비 : 82,000,000
2003. 1. 29	신북읍 율문리 256-18(1500평 매입)	
2003. 5. 7	설계 완료(손호성 설계 사무소)	
2003. 6. 11	건축 허가 취득	
2003. 7. 5	건축 공사 계약(디자인캠프건축회사)	
2003. 7. 6	건축 공사 기공 예배	
2004. 1. 12	준공 검사 필	
2004. 1. 16	춘천지방법원 등기 필	
2004. 1. 16	강원노회 유지재단 등록	
2004. 5. 23	입당 감사 예배	

성전 건축에 쓰인 총공사비 955,000,000원은 그동안의 누적 및 당해 년 건축헌금 6억 3천5백만 원과 농협 대출금 3억 2천만 원으로 충당했으며 대출금 상환 계획은 5년이었다. 성전 건축 당시의 교회 재정 상황을 보면 건축을 시작하기 전해인 2002년 교회 재정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이 수입 결산 174,718,533원(세입 예산 143,000,000원 대비 31,718,533원 증가), 세출 결산 171,735,013원(세출 예산 143,000,000원 대비 28,735,013원 증가)이고,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각 175,000,000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 대비 32,000,000원 증액한 내용이었다. 1년 사이에 세입 예산을 22% 증액 결정한 내용은 교회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공사비 중 일부 대출금도 5년 분할 상환으로 감당하기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다. 새 성전을 기공하여 준공하기까지 교회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적합하게 조성되었던 것은 신북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결과였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로 이끌었던 담임 교역자 조덕준 목사(입당 전인 4월 14일 목사 안수)와 건축위원장 백승욱 장로, 실무로 총무를 담당했던 박광장 장로, 기도회를 이끌었던 찬양단장 김규식 집사는 새 성전 건축에 크게 이바지한 청지기들이다. 오랜 세월 기도와 헌금으로 성전 건축의 밑거름이 되었던 성도들과 건축 과정에서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성도들도 그에 못지않게 건축에 힘을 보탠 교회의 기둥들이다. 신북교회의 곳곳에는 이들의 헌신과 찬양과 기도의 숨결들이 배어 있으며, 신북교회는 지금 그 위에 서 있다.

8) 50주년 기념 성전 입당 및 임직식

신북교회 당회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준공 후 입당에 필요한 준비를 동시에 계획하고 있다. 2003년 9월 28일 당회에서는 성전 입당예식과 함께 임직식을 계획하고 임직할 안수집사 4명과 권사 6명을 선택하기 위해 11월 2일 첫 주에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했다. 새 성전 입당과 함께 새 일꾼들을 세우고자 한 것은 교회의 사역이 새 성전에서 확대될 것에 대한 사전 준비였다. 이전부터 신북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혜안(慧眼)이 있었다. 11월 2일 공동의회를 앞두고 10월 26일 개회한 당회에서는 새로이 항존직분자를 세우는 데 따른 기준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기준의 내용은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자의 기준은 총회 헌법에 준하여 정하되 세례 교인으로 하고(서리집사 포함), 타 교회 이명 성도는 이명 증서 제출 시 본 교회 출석 2년 이상, 이명 증서 미제출 시 5년 경과 후에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함.'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준이 필요했던 것은 타 교회

전입 성도들과 본 교회 성도들 사이의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1월 2일에 예정대로 소집한 공동의회(금산교회 한철인 임시 당회장 진행. 59명 참석)에서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김규식, 김종태, 기대승, 오인환 서리집사가 안수집사로, 권사 투표에서 정순덕, 박근숙, 지남숙, 이미생, 김후순, 장재월 서리집사가 권사로 피택되었다.

새 성전 입당예배 및 임직식

항존직분자로 피택된 10명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한다.

김규식 피택 안수집사는 군인 신분이었던 1980년대 말경에 육군 2군단 102 통신단으로 전입하여 샘밭에 정착하게 되었고, 1990년 10월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하였다. 김규식 집사는 군에서 전역 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재정부 회계, 성가대, 음악부장, 찬양단장으로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다.

김종태 피택 안수집사는 북산면 조교리 태생으로 소양댐 건설로 조교리가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샘밭으로 이주하였으며, 신북교회 초대 권사였던 길수희 권사의 전도로 어머니인 권영순 집사가 신북교회에 출석하면서 중학생 때부터 학생회에 출석하여 청년회장, 아동부 교사, 아동부장, 성가대

원으로 교회를 정직하게 섬겼다.

기대승 피택 안수집사는 군문에 입문하여 첫 근무지로 육군 제2군단 제2공병여단 112대대에 배속이 되어 1975년 11월부터 신북면에 정착하였다. 대구에서 장로님의 아들로 신앙생활을 했었고 1980년 5월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하며 서리집사로서 구역 강사, 재정부 출납 등으로 교회의 직분을 충실히 섬겼다.

오인환 피택 안수집사는 신북교회 2대 권사인 박민옥 권사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신북교회 교회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외조모인 신북교회 초대 권사 깁갑순 권사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 제3 남선교회 회장 등으로 교회를 충성으로 섬겼다.

정순덕 피택 권사는 박광장 장로와 결혼하며 신북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결혼하기 전에 출석했던 홍천 중앙성결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신북교회에서는 구역장으로 구역을 오래 섬겼으며, 성가대원과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과 다음 세대 양육에 헌신하고, 제2여전도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교회를 정성껏 섬겼다.

박근숙 피택 권사는 백춘길 장로의 아내로 청년 시절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성가대원과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 이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시내의 충인성결교회에 출석하다가 신북교회로 복귀하여 구역장과 성가대, 제2여전도회장으로 섬겼다.

지남숙 피택 권사는 1980년대 초에 집안의 이모가 되시는 김갑순 권사의 전도를 받아 신북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먼저 신북교회 주일학교에 다녔고, 지남숙 피택 권사는 후에 신북교회에 출석하면서 세례를 받았으며 시온찬양대장, 구역장, 구역 강사 등으로 섬겼다.

이미생 피택 권사는 남편인 기대승 집사와 함께 신북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이미생 피택 권사는 유치부 교사로서 오래 섬겼으며 권사 피택 때에는 유치부 부장으르 유치부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강단 꽃꽂이 장식과 성가대, 구역장 등을 섬겼고, 임직자들 중에 유일하게 남편과 함

께 부부가 임직받았다.

김후순 피택 권사는 율문리 사랑마을에 거주하면서 이웃해서 살던 신북교회 전도 대장 김갑순 권사의 전도를 받아 신북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세례를 받고 신북교회 세례교인이 되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면서 구역장과 2여전도회 총무 등으로 섬겼다.

장재월 피택 권사는 경북 예천 서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남편 정 덕 집사의 근무지였던 화천군 사창리 소재 사내교회에 출석하다가 남편이 국군 101병원으로 전출 명령을 받으면서 사내교회의 목사님이 신북교회 김은일 목사님을 소개해서 신북교회에 출석하며 구역장과 여전도회 회계 등으로 섬겼다.

신북교회는 창립 50주년 기념 성전 입당 예배 및 임직식을 예정대로 2004년 5월 23일(주일) 오후 3시에 새 성전 본당에서 거행했다.

입당 예배 및 임직식 3주일 전에 있었던 2004년 5월 2일(주일) 제직회에서 '5월 23일에 있을 입당 예배 및 임직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제직회의록)고 다짐하면서 준비한 입당 예배와 임직식은 전에 없었던 성대한 예식이 되었다.

예식에는 신북교회 당회장으로 예식을 인도한 조덕준 목사를 비롯해 20여 년 전부터 신북교회 담임 교역자로서 기도하며 새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했던 김은일 원로목사, 예배 순서 담당자로 기도 금산교회 당회장 한철인 목사, 설교 강원노회장(성문교회) 이덕산 목사, 성경 봉독 춘천시찰장(벧엘교회) 김성태 목사, 임직자 권면 및 축하 순서의 권면 전 노회장(춘천동부교회) 임신영 목사, 축사 전 노회장(원주제일교회) 김용상 목사, 축사 전 노회장(춘천성광교회) 김광국 목사, 축도 전 노회장(한빛교회) 엄대섭 목사 등 강원노회와 춘천시찰회의 주요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하여 새 성전 입당과 임직자들의 임직을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었다.

35년 동안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호흡이 스며있고, 헌신의 땀과 손길이 배어있던 벽돌구조의 성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건축과 입당을 허

락하신 새 성전에서 신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감격과 감사와 환희의 예배 그 자체였다. 헌금으로, 기도로, 건축 실무로 헌신한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의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임직의 순서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는 힘들었던 지난날의 무게감을 감동과 감사로 바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탄성(歎聲)이었다. 20여 년 전부터 성전 건축의 꿈을 품고 준비를 시작했던 김은일 원로목사의 기쁨과 감회는 입당 예배에 참석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했을 것임이 분명했다.

창립 50주년 기념

새성전 입당예배 및 임직식

*입당예배 : 창 립 50주년기념 성 전
*집사취임 : 김규식 김종태 기대승 오인환
*권사취임 : 정순덕 박근숙 지남숙 이미생 김후순 장재월

일시 : 2004년 5월 23일 (주일) 오후3시
장소 : 신 북 교 회 새 성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북교회
[2010] - [8][2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2리 256-18
전화(033)242-8854 사택 242-2254

임직 집사
김 규 식 1965. 1. 4 음악부장
김 종 태 1962. 9. 30 아동부장
기 대 승 1954. 3. 5 재정부출납
오 인 환 1959. 11. 15 3남선교회장

임직 권사
정 순 덕 1958. 12. 17 2여전도회부회장
박 근 숙 1953. 3. 21 2여전도회장
지 남 숙 1954. 11. 25 시온찬양대장
이 미 생 1957. 8. 20 유치부부장
김 후 순 1953. 10. 17 2여전도회총무
장 재 월 1958. 4. 20 2여전도회 회계

건축경과 보고서
1999. 2. 7. 건축위원회 조직
2003. 1. 29. 신북읍 율문리 256-18 (1,500평 매입)
5. 7. 설계완료(손호성건축사 사무소)
6. 11. 건축허가 취득
7. 5. 건축공사 계약(디자인엠프건축회사)
7. 6. 건축공사 기공예배
2004. 1. 12. 준공검사 필
1. 16. 춘천지방법원 등기필
1. 16. 강원노회 유지재단 등록
5. 23. 입당 감사예배

건축개요
위 치 :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56-18
대 지 : 1,500평
연 건 평 : 150평
총공사액 : 955,000,000원
토지조성비 : 308,000,000원
건 축 총 액 : 565,000,000원
성물구입총액 : 82,000,000원

새성전 입당예배 및 임직식 순서지

입당 예배 순서에 이어 임직 및 안수식은 입당 예배 못지않게 거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안수집사 4명과 권사 6명은 받는 직분에 대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약한 후 겸손히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았으며, 이날 안수를 받은 10명은 한 명도 이사 등으로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2025년 12월 현재까지 20년 이상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임직 예식에서는 특이한 안수 순서가 있었다. 기존에 이미 권사로 임직하

여 교회를 섬기고 있던 선임 권사 5명이 권사 안수를 받은 것이었다.

2004년 4월 25일 당회록에 의하면 5월 23일에 있을 임직식에서 박민옥, 이영자, 오순옥, 정춘식, 이범자 권사에게 안수를 허락하는 기록이 있다. 과거에는 권사에게 안수 없이 권사가 권사의 직분에 취임만 했었으나 권사에게도 안수하도록 법이 바뀐 결과로 보인다. 그래서 권사 안수 총인원이 11명이나 되었다.

9) 성전 건축 관련『한국기독공보』기사

기독교 언론 신문 매체인『한국기독공보』가 신북교회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를 크게 보도한 적이 있다. 성전 입당 2년 후인 2006년 11월 4일(토요일) 자 9면 전체를 할애하여 보도한 기사가 그것인데 조덕준 목사의 목회 방침 인터뷰 내용과 함께 지역사회 친화적이고 전도에도 유용하게 쓰일 성전에 대한 보도 내용을 원문 그대로를 사진과 함께 옮겼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상을 받은 강원노회 신북교회
담 헐고, 잔디 마당 연 아늑하고 친근한 고향집 예배당

【춘천=박만서 부국장 대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면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교회가 흔하지 않다고들 말한다.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북쪽에 위치한 강원노회 신북교회(조덕준 목사 시무)는 최근 들어 교인들이 말 그대로 신이 났다. 왜냐하면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건축한 '50주년 기념 성전'을 2년 전에 완공한 이후 지속해서 교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한 바 있었

던 조덕준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인 2002년 담임으로 부임할 당시 1백20명이 출석하던 교인이 교회를 건축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 현재 1백8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부 어린이들도 30명이 넘어섰으며, 중·고등부 25명, 청년 20명 등이 출석하고 있어 농촌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미래형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조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단순히 교회를 새로 건축한 것만으로 교세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건축한 교회가 지역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설계와 외관이 아름답게 꾸며 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랑하는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북교회는 지난해 2월 강원도가 선정해서 시상하는 경관 우수건축물 비거주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건축물 중에서 자연 관광지임을 감안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아름다운 외관을 갖추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건축물에 주어진다. 신북교회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 1년에 한 건축물에만 주어지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주민들이 더 환영하는 '신북교회'

조 목사는 "교회 건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몇몇 입찰 업체가 응찰을 했지만 평범한 형태의 교회 건출물 보다는 지역을 상징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교회당을 건축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오늘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다"며, "건축이 완료되자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좋아한다."고 자랑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북교회는 이번 교회 건축을 진행하면서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얻었다. 건축 시작하면서 시작한 기도회는 건축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됐다. "건축하는 기간에 손가락 하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 말하는 신북교회 교인들은 "이같은 결과는 교인들이 하루도 빠짐없기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간증한다. 신북교회 교인들이 자신감은 전도로 이어졌으며 희망이 있는 미래를 설계하기에 이르렀다. 건축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을 다 해결하지도 못했으나 이 또한 신북교회 교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조 목사는 "건축을 마무리한 후 두 가지 사업을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다"고 소개한다. 첫째는 교육관이다. 이미 예배당 건축을 설계한 건축설계 사무실에 교육관 건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 예배당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또한 설계 중에 있으나 이미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교회에 '부흥 바람'

이같이 신북교회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한 교회 건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회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축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교인들은 계속되는 목회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전도를 통한 교세 확장에도 앞장서기 시작했다. 노회의 추천으로 총희 전도 학교를 수료하고 교회 내 전도 학교를 최근에 처음 시작했다는 조 목사는 "침체된 상태에 놓여 있던 교인들이 건축을 완료하면서 자신 있게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처음으로 실시한 전도 학교에 장로들을 포함해 18명이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목사는 현재에 머물 수 없음을 거듭 설명하며, "현재 지역 주민의 10% 정도 만이 기독교인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전도에 힘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노인들을 섬기는 일부터 나섰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교인이 아닌 지역 노인들이 주를 이룰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이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서울 청계천 나들이를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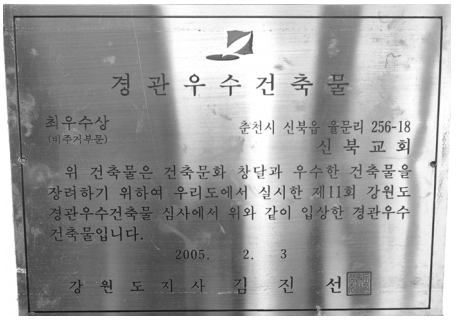
또 지역이 춘천 시내에 인접하고 있는 만큼 젊은 부부들의 거주율이 높음을 감안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기 학교도 구상 중이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그리고 춘천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특성을 감안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도 설계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 초·중학교에 장학금 전달과 소년·소녀 가정 돌보는 일,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보내는 등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다. "교회 건축을 마치고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조 목사는 "1차 목표는 지역 복음화이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춘천과 강원도를 복음화하는 것이 신북교회의 목표"라고 기도제목을 밝힌다.

주변 환경과의 아름다운 조화 뽐내

강원도로부터 지난해에 경관 우수건축물 비거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북교회(조덕준 목사 시무)를 들어서면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우선 수상 내용에 걸맞게 외관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경 관 우 수 건 축 물

최우수상
(비주거부문)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56-18
신 북 교 회

위 건축물은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 실시한 제11회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 심사에서 위와 같이 입상한 경관우수 건축물입니다.

2005. 2. 3

강 원 도 지 사 김 진 선

경관 우수 건축물 패

교회 앞 도로와의 경계는 높은 답을 대신해서 잔디가 깔려 있고, 이를 구분 지어 주는 낮은 높이의 나무는 어린아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다.

담임 조덕준 목사는 “교회 앞은 지나는 사람들 누구나 들어와서 쉬었다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교회 앞에 잔디를 심었다”며, “교회 앞 넓은 잔디에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텐트를 치고 휴식을 갖기도 한다”고 말한다.

교회에 들어서면 자연 채광으로 불을 켜지 않아도 환하며, 빛이 들어오는 천장 유리밖으로 보이는 십자가 종탑은 신비함까지 느끼게 한다. 연건평 1백50평의 단층 건물이기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찬양대 연습실과 사무실 그리고 유아실 등은 용도에 맞게 꾸며져 효용성을 높였다.

특히 아늑한 분위기와 함께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예배실에 들어서면 누구나 숙연한 느낌을 갖게 된다. 단상 뒤편에 설치된 십자가 바탕은 건축에 사용되고 남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나무토막을 모아 인테리어에 사용함으로써 재활용의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러한 신북교회의 예배당은 시골교회로서 상징성과 함께, 중동지방의 페르시아 건축 형태를 가미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비율에 따라 배율을 정해 신학적인 의미까지도 담았다.

조 목사는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내용까지 가미해 설계됐다”면서 “설계자가 최근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 등 교회 건축이 건축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도와 교회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감사했다. 또 “건축을 시작하면서 당회가 한마음으로 건축을 진행함으로써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기도 했다”며, “건축을 이끌었던 건축위원장 백승욱 장로와 실

무위원장 박광장 장로를 비롯해 건축위원과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2006년 11월 4일 토요일 제2582호 우리교회 한국기독공보 9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건축상 받은 강원노회 신북교회

담 헐고, 잔디 마당 연
아늑하고 친근한 고향집 예배당

'경관우수건축물' 로 강원도가 선정
투명한 천장 유리로 자연 채광
잔디 마당은 주민들의 휴식처

투명한 천장 유리를 통해 바라본 십자가 종탑

【춘천 = 박만서 부국장 대우】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면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편한 기념고 싶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교회가 춘하지 않다고를 말한다.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

초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복쪽에 위치한 강원노회 신북교회(조덕준목사 시무)는 최근 들어 교인들이 많 그래도 신이난다. 왜냐하면 교회 창립 50년을 기념해서 건축한 '50주년 기념상징' 을 건년인에 완공한 이후 지속해서 교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북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한 바 있었던 조덕준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전인 2002년 담임으로 부임할 당시 1백20명이 출석하던 교인이 교회를 건축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 현재 1백명씩 출석하고 있다. 춘천 아니라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위치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중부 어린이들도 30명이 넘어섰으며, 중·고등부 25명, 청년 20명 등이 출석하고 있어 농촌 교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미래형 교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조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단순히 교회를 새로 건축한 것만으로 교세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건축한 교회가 지역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설계에 걸맞게 아름답게 꾸며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자랑하는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북교회는 지난해 2월 강원도가 선정해서 시상하는 경관우수건축물 비기주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건축물 중에서 지역 경관지입을 감안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시 이룸다운 모관을 갖추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건축물에 주어진다. 신북교회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 1년에 한 건축물에만 주어지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

주민들이 더 환영하는 '신북교회'

조 목사는 "교회 건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몇몇 임원 입계가 유창을 했지만 광범한 협력의 교회 건축을 보다는 지역을 상징하면서 비전을 내다 보며 교회당을 건축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오늘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다"며, "건축이 완료되자 교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좋아 한다"고 자랑한다.

이 뿐만 아니라 신북교회는 이번 교회 건축을 진행하면서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얻었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기도회는 건축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됐다. "건축하는 가간 동안에 손가락 하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신북교회 교인들은 "이같은 결과는 교인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신북교회 교인들이 자신감은 뜨도로 이어졌으며, 지방이 있는 미래를 설계하기에 이르렀다.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다 해결하지도 못했지만 이 또한 신북교회 교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조 목사는 "건축을 마무리한 후 3가지 사항을 준비하여 기도했어 있다"고 소개한다. 첫 째는 교육관이다. 이미 예배당 건축을 설계한 건축설계 사무실에 교육관 건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 예배당과 어울림 수 있도록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 두번째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이나 외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또한 상당 중에 있으나 이미 소문으로 진해지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교회에 '부흥 바람'

이같이 신북교회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한 교회 건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회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재정적인 힘을 얻은 교인들은 계속되는 복음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전도를 통한 교세 확장에도 앞장서 가 시작했다. 노회의 추천으로 총회 전도위원을 수료한 조덕준목사는 전도폭발훈련 프로에 적용 시작했다는 조 목사는 "함께한 상태에 놓여 있던 교인들이 건축을 완료하면서 자신감에 찬모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이를 계시한 전도학교에 참포함을 포함해 1명이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목사는 현재에 머물 수 없음을 거듭 설명하며, "현재 지역 주민의 10% 정도 만이 기독교인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을 많아하며 전도에 힘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노인들을 섬기는 일부터 나섰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교인이 아닌 지역노인들이 주를 이룰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으며, 이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직접으로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서울 청계천 나들이를 하기도 했다.

도 지역이 춘천 시내에 인접하고 있는 만큼 젊은 부부들의 거주율이 높아을 감안해 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기학교도 구상중이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 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그리고 준친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특성을 감안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실계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초·중학교에 장학금 전달과 소년·소녀 가장 돕보는 일,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보내는 일 등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다.

"고희 건축을 마치고 교회에서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조 목사는 "1차 목표는 지역 복음화이지만 이기에 머물지 않고 한발짝 더 나아가 춘천과 강원도를 복음화하는 것이 신북교회의 목표"라고 기도 제목을 밝힌다.

mspark@dokongbo.com

지연 재공을 최대한 살리고 높은 담을 헐고 지역에 친화적인 신북교회의 교회 건축은 지난 해 강원도로부터 경관우수건축물 최우수상을 수상케했다.

건축실무위원장 박광장장로와 담임 조덕준목사(右)

주변환경과의 아름다운 조화 뽐내

강원도로부터 지난해에 경관우수건축물 비기주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북교회(조덕준목사 시무)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를 도깨게 된다. 푸른 수상나무에 감맞게 외관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아늑한 자태를 뽐낸다. 교회입 도로와의 경계는 둘 수 없는 낮을 대신해서 잔디가 깔려 있고, 이를 구성이어주는 낮은 높이의 나무는 어린이어도 편안 넘을 수있는 높이이다.

담임 조덕준목사는 "교회 앞은 지나는 사람들 누구나 들어서서 쉬할 갖 수 있도록 의기 위해 교회 앞에 휴식을 마련했다"며, "교회 입 넓은 잔디에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휴도를 치고 휴식을 갖기도 한다"고 말한다.

교회에 들어서면 자연 재료으로 꾸밈을 커지 않아도 환하며, 밝이 들어오는 천장 유리바으로 보이는 십자가 종탑은 신비함까지 느끼게 한다. 연건평 1백50평의 단층 건물이기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전양대 연습실과 사무실 그리고 유아실 등은 용도에 맞게 꾸며져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아늑한 분위기와 함께 예배에 집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예배실에 들어서면 누구나 쉬연한느낌을 갖게 된다. 단상 뒤편에 십자로 십자가 바탕은 건축에 사용되고 남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나무토막을 모아 인테리어에 사용함으로써 재활용의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러한 신북교회의 예배당은 사골교회로서 상징성과 함께, 중앙지방의 폐프시아 건축 형태를 가미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비율에 따라 폐율을 정해 신학적인 의미까지도 담았다.

조 목사는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내용까지 기이해 설계했다"면서 "설계자가 최근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 등 교회 건축이 건축인으로 유니지 않고 전도와 교회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감사했다. 또 "건축을 시작하면서 당회가 합심음으로 건축을 진행함으로써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기도 했다"며, "건축을 이끌었던 건축위원장 백승목장로와 실무위원장 박광장장로를 비롯해 건축위원과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mspark@dokongbo.com

(기독공보 기사)

10) 김은일 원로목사 소천(召天)

김은일 원로목사가 신북교회에서 은퇴한 지 7년 만인 2004년 11월 5일 소천(召天)했다. 향년 77세였다. 감기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병세가 악화하여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故 김은일 원로목사는 군목으로 전역한 후 1973년 6월 1일에 신북교회 제9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여 1977년 3월 25일 위임목사로 취임하고 강원노회장 2회 역임하는 등의 24년 동안 사역 과정에서 신북교회의 융성기를 이끌었다. 1997년 11월 8일 은퇴하며 신북교회 원로목사로서 강원노회로부터 제1호 공로 목사로 추대받았던 김은일 목사는 '가벼운 감기 증세가 있어 병원을 찾았다가 입원하신 후 폐렴이 악화해서 입원 한 달 만에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한다. 한평생 복음과 교회를 위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큰 족적(足跡)을 남긴 행적에 비하면 너무나도 갑자기 허무하게 일어난 일이었다.

신북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故 김은일 원로목사의 장례를 신북교회장(葬)으로 모시기로 하였고, 강원노회는 강원노회장을 역임한 故 김은일 전 노회장에 대한 예우를 다해 강원노회장(葬)으로 모시기로 하여 故 김은일 원로목사의 천국 환송 예식은 11월 8일(월) 오전 10시(주보)에 신북교회 본당에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다.

故 김은일 원로목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보듬어 주었던 만큼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들도 많았으므로 김은일 원로목사와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슬픔은 컸다.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故 김은일 원로목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면류관이 클 것임을 굳게 믿으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김은일 원로목사와 이 땅에서 작별했다.

김은일 목사 소천 후 조현숙 사모는 현재까지 신북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신북교회는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에 김은일 목사 가정이 다섯 자녀 교육비 등에 대한 가계지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데 대한 송구스러움과 김은일 목사의 교회에 대한 기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정 기간 조현숙 사모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며 예우하기도 하였다.

11) 원로장로 추대와 은퇴 및 임직식

신북교회 당회는 2005년 3월 1일 당회에서, 2006년 백승욱 장로의 정년 은퇴를 1년 정도 앞두고 민경천 장로가 같이 임직했던 백승욱 장로의 은퇴 시에 동반 은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수락하기로 했다. 민경천 장로는 백승욱 장로가 은퇴한 후에도 장로 임기가 남으므로 선임 장로로서 교회와 당회를 이끌어갈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조기 은퇴를 결심했으며, 당회는 이를 존중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당회에서는 장로 은퇴 예정자 2명에 1명을 더 증설하여 장로 3명 선택을 4월 강원노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춘천시찰회의 수용을 전제로 4월 노회 장소를 신북교회가 제공하기로 노회에 제안하는 안을 결의하였다.

4월 26일 당회에서는 5월 22일 주일 예배 후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장로 3명, 안수집사 3명, 권사 3명을 선출하기로 하고, 조시연 협동 권사에 대한 시무 권사 신임 투표 실시를 함께 결의했다. 그리고 항존직분자 선택과 관련하여 기존의 항존직분자 피선거권 자격 기준에 장로 선택 기준을 추가하여 '장로는 본 교회 등록 후 5년, 안수집사와 권사는 2년 경과 후 부여하되 본 교회를 섬기다가 타 교회 전출 후 다시 돌아왔을 경우 상기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당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 2005년 5월 22일 소집한 공동의회(87명 참석)에서는 장로 3명 선택을 위한 1차 투표 결과 최영철 집사가 피택 되고, 2차 투표에서 투표자 2/3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장로는 1명 피택으로 의장이 선포하였다.

안수집사 3명 선택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김종찬 집사, 김인하 집사 2명이 피택 되고 나머지 1명은 2차 투표에서도 투표자 1/2 득표자가 없었

다. 권사 피택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장은희 집사와 김경남 집사 2명이 피택 되었고, 2차 투표에서는 나머지 1명에 대한 재적 1/2 이상 득표자가 없어 피택이 무산돼서 권사 피택자도 2명으로 확정되었다. 조시연 협동 권사에 대한 시무 신임 투표에서는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인 69명이 찬성해서 시무 권사 취임이 결정됐다.

신북교회 당회는 2005년 8월 28일 당회에서 2006년에 은퇴하는 백승욱 장로와 민경천 장로를 신북교회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로 결의하고, 9월 4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당회 결의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2005년 9월 4일에 소집한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에서 상정한 백승욱 장로와 민경천 장로를 은퇴와 동시에 신북교회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신북교회는 위와 같이 임직자 선택과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와 준비를 마쳤다. 새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하여 2년이 지난 2006년 5월 21일에 백승욱 장로와 민경천 장로의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박민옥, 윤계월, 오순옥 권사의 은퇴예식과 함께 김종찬, 김인하 안수집사, 장은희, 김경남, 조시연 권사 안수를 위한 임직예식을 본당에서 거행했다. 2005년 5월 22일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선택하였던 최영철 피택 장로는 장로 장립을 고사(固辭)하여 당회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백승욱 장로와 민경천 장로의 사역과 은퇴는 신북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백승욱, 민경천 장로는 신북교회의 두 번째 예배당인 목조 건물 시대에서 벽돌 건물 시대를 거쳐 새 성전까지 이어오는 신북교회 50년 역사의 견인자(牽引者)로서 역할을 다해왔고, 그 역할을 후임자들에게 모범적으로 물려준 장본인들이다.

김은일 원로목사와 김익보 원로장로를 신북교회 당회의 기초를 세운 당회 제1세대라고 칭(稱)한다면 백승욱 장로와 민경천 장로는 제2세대로서 1세대와 함께, 또는 1세대에 이어서 교회의 성장을 주도해 왔고, 신북교회에 1세대 당회원이 세운 전통과 역사를 이어받아 다음의 세대에게 발전적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까지 원만하게 해냈다. 당회와 공동의회는 이러한

업적을 귀하게 여겨 은퇴하는 두 장로를 신북교회의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데 이의가 없었다.

원로장로 추대 및 권사 은퇴, 항존직분자 임직예배

신북교회 당회원 1, 2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교회에 대한 섬김의 충성심이 남다른 세대들이었다. 당회원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 이전에 먼저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에서 모범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귀감(龜鑑)이 되었다. 저들은 모든 공적(公的) 예배와 기도회에서 있어야 할 장소와 시간에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충직한 청지기들이었다. 이에는 함께 은퇴하는 권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신북교회 항존직분 1, 2세대의 장로와 권사들은 예배와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로서 받은 직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이 투철하여 언제, 어디서나 항상 교회공동체의 든든한 중심이 되었다. 그러므로 장로와 권사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예배자와 기도자로서 또 섬기는 자의 상징적인 존재들로 성도들에게 각인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장로

와 권사들을 성도들은 신뢰하고 때로는 의지하면서 저들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발자취에서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의 방법과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신북교회 역사에서 앞사람이 간 길이 뒷사람의 길이 되고, 앞 사람이 행한 일이 뒷사람의 귀감(龜鑑)이 되는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것이 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었음은 전적으로 선배 당회원들과 권사들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선배 항존직분자들이 교회에 훌륭한 전통의 기반을 세우고 그 전통을 후세대들에게 잘 전수(傳授)해 주는 역할을 충직하게 수행해 주었다. 이를 물려받은 후대들은 그 역사와 전통을 그 후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어 교회가 쉼 없이 성장하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백승욱 장로는 김익보 원로장로가 선임 장로였던 시절에 후임 장로로서 선임 장로와 교회를 위한 섬김에서 정직하고 매사에 틀림이 없이 분명하게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선임 장로 시절에는 같은 날 장립한 민경천 장로와 함께 교회의 재정을 번갈아 가며 책임지고 담당해 교회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힘을 기울였다. 후임 장로들이 임직한 후에는 후임들을 아우르며 당회가 교회 사역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가는 일과 특히 새 성전 건축위원장으로서 교회 건축에 선도적 역할을 무리 없이 해냈다. 백승욱 장로는 강원노회에서 노회 임원으로 부회계와 회계를 거쳐 제103~104회기(2003.10.14~2004.10.11) 노회 부노회장을 역임하였고, 강원노회 장로회 제31대 회장(1999~2000)을 역임했다.

민경천 장로는 선임인 백승욱 장로를 도와 당회가 흔들림이 없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데 말없이 조력(助力)한 숨은 공로자다. 당회가 예민한 사안을 논의할 때 때로는 주장하는 자세로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민경천 장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섬기기를 다하는 자세로 임하며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특유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당회는 물론이고 교회까지도 화평의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데 힘을 기울였다.

새벽기도회 등의 기도회에서 늘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본을 보인

청지기로 기억될 민경천 장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민경천 장로는 춘천시찰회 남선교회 연합회의 제6대 회장(1996년)을 역임하며 춘천시찰회 연합남선교회를 이끌기도 했다.

백승욱 장로와 민경천 장로는 1980년 9월 4일에 신북교회 제2대 장로로 함께 장립하여 26년간 당회원으로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고 2006년 5월 21일 은퇴하게 되었다.

위에 소개한 두 명의 장로와 함께 은퇴하는 박민옥, 윤계월 권사는 신북교회 2대 권사로 1986년 5월 1일에 임직하여 20년 동안, 오순옥 권사는 1993년 신북교회 제3대 권사로 임직하여 13년 동안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 박민옥, 윤계월, 오순옥 권사는 임직한 날은 차이가 있지만 초대 권사였던 김갑순, 길수희 권사에 이어 교회에서 기도의 대명사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었으며 여성 봉사가 필요한 자리에는 늘 저들이 있었다.

박민옥 권사는 신북교회 창립 성도로서 청년 시절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시작으로 교회 봉사를 시작했으며 윤계월 권사와 함께 교회 초창기에 부인회로 시작한 여전도회의 조직과 운영의 기틀을 잘 잡아 주었다. 박민옥 권사는 오경근 집사의 아내로 부부가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외에도 성가대, 구역장, 여전도회장 등으로 섬겼다.

윤계월 권사는 백승욱 장로의 아내로서 백승욱 장로가 당회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함께 임직한 박민옥 권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대소사를 잘 살폈다. 윤계월 권사는 여전도회 활동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성가대, 구역장, 여전도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섬겼다.

오순옥 권사는 위의 두 권사보다 7년 정도 권사 임직이 늦었으나 김익보 장로의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집안의 많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김익보 장로가 장로의 사역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내조하였으며, 함께 은퇴하는 박민옥, 윤계월 권사 등 여성 항존직분자들과 호흡을 맞춰 교회가 필

요로 하는 사역에 충성으로 많은 힘을 보탰다.

백승욱, 민경천 장로의 은퇴와 원로장로 추대 및 박민옥, 윤계월, 오순옥 권사의 은퇴 예식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저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고, 명예로운 은퇴를 축하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축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예식이었다. 예식에 참석한 은퇴자 가족들과 교회의 동역자들은 충성된 청지기들이 교회에 남긴 헌신과 순종의 크나큰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이라 믿었다. 은퇴자들이 교회에 남긴 흔적들은 후진들이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원로장로 추대와 은퇴 예식에 이어 진행한 임직 예식은 은퇴하는 선배 직분자들과 새로이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이 섬김의 바톤을 전달하고 이어받는 시간이었다. 은퇴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평생 걸어와 그 짐을 내려놓고, 신규 임직자들이 안수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예식은 은퇴 예식이나 임직 예식만으로 치러지는 예식과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었다. 임직자들은 엄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해 충성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성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직분을 받았다.

임직자에 대해 간단한 이력을 소개한다.

김종찬 안수집사는 중학생 시절에 신북교회 학생회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며 신북교회에서 학생, 청년 시절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청년 시절 성가대 초창기에 대원과 지휘자로 활동하였고, 중등학교 교원으로서 발령 지역의 교회에 출석하며 섬기다가 본 교회로 돌아와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되었다.

김인하 안수집사는 허정대 권사와 김상수 집사의 장남으로 아버지에게 이끌려 신북교회 성도가 되었고, 서리집사 때 재정부 회계와 선교부 회계

로 다년간 섬기며 재정 관리에 신뢰감 있는 능력을 발휘했다. 그 외에도 남선교회 회장 등 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아내인 장은희 권사와 함께 내외가 항존직분자로 임직했다.

조시연 권사는 서울 양재동의 성광교회에서 권사로 임직을 받았고, 남편인 유충렬 협동 장로가 직장 은퇴 후 샘밭으로 이주하며 신북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신북교회는 조시연 권사가 협동 권사로 교회에서 구역 활동과 각종 예배, 기도회에 개근으로 참여하는 신앙심을 확인하고 시무 권사 안수를 결정했다.

장은희 권사는 인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 시절부터 샘밭에 정착하게 되면서 신북교회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신북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김인하 청년과 결혼하고, 내외가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장은희 서리집사는 성가대, 구역장, 여전도회장, 여전도회 연합회장 등을 섬기며 권사로 선택을 받았다.

김경남 권사는 20대 중반부터 신북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미혼자에게는 서리집사 임명을 안 하던 보수적인 때였던 30대 초반에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던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 학생회 지도 교사와 부장, 성가대, 시온 찬양대(여성) 지휘, 새벽 기도회 반주 등으로 섬기다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12) 김갑순 초대 권사 소천(召天)

신북교회 초대 권사로 1980년 9월 4일 임직하여 1984년 12월 31일에 은퇴했던 김갑순 권사가 은퇴 21년 만인 2009년 1월 31일 91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김갑순 권사는 딸인 박민옥 권사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면서 신북교회 일원이 되어 서리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아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섬기기를 다하다가 은퇴한 이후에도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 기도자로 사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김갑순 권사는 신북교회의 초대 권사로서 기도와 전도에서 전설적인 청지기였다. 권사의 임직을 받기 전부터 김갑순 권사는 신북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기도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새벽 기도뿐 아니라 틈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김갑순 권사의 기도가 신북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의 칠이 벗겨질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도한 일꾼으로 신북교회는 기억하고 있다. 길수희 권사와 함께 신북교회 초대 권사로 임직한 김갑순 권사는 신북교회 여성 기도자들의 기도를 두 권사가 앞에 서서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로 후배 권사들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기도자였다. 신북교회 초대 권사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신북교회에서 '권사'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상징적인 권사들이었다.

김갑순 권사는 전도에도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일꾼이었다. 김갑순 권사가 거주했던 사랑마을은 물론이고, 장거리까지 전도를 위해 방문하지 않았던 집이 없었을 정도로 전도에 진심이었던 김갑순 권사에 의해 신북교회에 출석하게 된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동네의 모든 이웃이 김갑순 권사의 전도와 기도의 대상자였다. 신북교회는 그의 전도에 힘 입어 성도의 수가 많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김갑순 권사는 가부장적이고 완고했던 남편 박선홍 집사까지 전도하여 가정을 믿음의 일가로 변화시켰으며 딸인 박민옥 권사의 전도를 받았으면서도 딸의 믿음을 능가하는 열정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 헌신했다.

故 김갑순 권사 믿음의 계보는 신북교회에서 딸인 박민옥 은퇴 권사를 거쳐 외손자 오인환 장로와 외손자부 이정숙 권사로 3대째 항존직분으로 이어오고 있다.

13) 50주년 기념 성전 헌당과 조덕준 목사 위임

신북교회는 2009년 11월 22일 새 성전 본당에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당 예배를 드렸다. 2003년 7월에 새 성전 터에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한 교회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 공사가 공사 개시 6개월 만인 2004년 1월에 건축을 완료하여 준공 검사를 받았고, 5월에 입당 예배를 드린 지 5년이 지나 새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린 것이다.

성전 건축 공사에 쓰인 총공사비 9억 5천 5백만 원 중에서 새 성전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3억 2천만 원의 대출금은 계획했던 대로 5년 만에 완전히 상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신북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성전 건축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끝냈다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감사로 가득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후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는 역대하 5장의 기록이 있다. 신북교회가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의 전(殿)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신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교회와 예배자들의 심령에 영광을 나타내신 일은 솔로몬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임에 성도들은 그 어느 예배보다도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시기 위한 교회이니 새 성전 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복음 사역은 왕성하였고, 조덕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 활동에는 항상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였다. 교회는 새 성전 입당과 헌당에서 오는 영적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중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신북교회의 안팎 환경은 지역 내에서도 거부감 없이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여서 복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에 큰 도움이 되었고, 교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성전의 새로운 시설과 환경을 잘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운영할 수가 있었다. 신북교회 새 성전이 시골 교회지만 전혀 시골 교회 같지 않고 그렇다고 도회적(都會的)인 교회 분위기가 지역 주민을 압도하지도 않는 편안해 보이는 교회이다 보니 외관에서부터 누구든지 들어와 보고 싶고, 개방된 잔디밭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쉬어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이라서 교회는 지역사회에 더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었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헌당 5년 전인 입당 예배 후부터 헌당하기까지 다양한 복음화 활동을 전개한 결과가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경험했던 만큼, 헌당을 통해 전도 사역에 더 뜨겁게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새 성전에 입당하고 처음으로 주일 예배 대표기도를 위해 강단에 올랐던 백춘길 원로장로는 이전의 성전보다 공간이 두 배 이상 넓어진 예배당에다 예배를 위해 성도들이 앉은 자리보다 빈자리가 더 많아서 빈자리가 별로 없었던 이전의 예배에 비해 낯설었던 모습을 마주하면서 순간적으로 '주여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자리를 언제 채우시렵니까?'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고 회고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의 빈자리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서서히 채워 가시는 중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서 하나님의 신북교회를 향한 계획은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

성전 건축 공사비 채무 상환이 끝나갈 즈음에 당회는 새 성전 헌당 예배와 함께 조덕준 목사 위임예식을 거행하기로 계획하고 2009년 8월 9일 당회(임시 당회장 한철인 목사)에서 조덕준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 결정을 위해 2009년 8월 30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당회의 요구로 8월 30일에 소집한 공동의회는 조덕준 목사가 당사자이므로 금산교회 한철인 목사를 공동의회 임시 의장으로 모시고 85명이 참석하여 조덕준 목사 위임 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70명이 찬성해서 2/3 이상이 찬성하였으

므로 한철인 임시 의장이 '조덕준 목사 위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강원노회가 위임국장을 파송하여 주관한 조덕준 목사 위임예배는 대표기도자로 강원노회 부노회장 하장수 장로(시온제일교회 시무), 말씀 선포(세상을 이기는 자)에 김용상 목사(원주제일교회 시무), 축도에 노회장 송건섭 목사(사북중앙교회 시무) 순으로 진행되었다.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와 장로 그리고 신북교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성전 헌당 예배와 함께 올려드린 위임예배는 조덕준 목사와 신북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었다. 조덕준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신북교회 사역을 위임받은 신북교회 세 번째 위임목사로서 신북교회의 성도들을 동역자로 하여 목회의 비전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헌당 및 조덕준 목사 위임, 항존직분자 은퇴, 임직 기념

14) 항존직분자 은퇴 및 임직

1998년에 권사 안수를 받았던 이범자 권사가 11년 동안 권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조덕준 목사의 위임목사 위임예식 순서에 이어 은퇴했다. 이범자 권사는 권사로 시무하면서 표나지 않게 권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으며 교회의 일에는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도리를 다했다. 은퇴 후에 교회 주변에 거주하다가 시내로 이사를 간 후 주위에서 시내 교회 출석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마다하고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신북교회 출석을 고수했을 정도로 교회와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컸던 권사였다.

신북교회 당회는 백승욱, 민경천 장로가 은퇴한 후 조덕준 담임목사, 박광장 장로, 백춘길 장로의 3인 시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날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기에 2008년 2월 23일 당회에서 장로 4명을 증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노회에 청원하는 안을 가결하였고, 3월 30일 당회에서는 항존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5월 11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4월 29일 당회에서는 장로 선택을 위해 소집하는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 4명, 권사 7명을 추가하여 총 15명을 선택하기로 결의했다. 5월 11일 120명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실시한 항존직분자 선택 투표에서 피택 장로에 김봉우 집사 1명, 피택 안수집사에 김주열 서리집사 1명, 피택 권사에 전영희, 전미옥, 이정숙, 황선신, 홍미향 서리집사 등 5명, 계 7명의 직분자를 선택하고 계획했던 장로 3명, 안수집사 3명, 권사 2명은 투표 결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 선택하지 못하였다. 계획했던 15명 중 7명만 선택이 된 것이다. 장로 4명 선택은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던 사항이었으므로 당회는 다음 해인 2009년 1월 28일 당회에서 2월 22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 해 5월에 선택하지 못했던 장로 3명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2월 22일에 개회한 공동의회는 정회(停會)와 3월 1일 속회(續會)(당회록, 주보)를 거치며 김종찬, 김규식, 오인환 집사를 피택 장로로 선택하였다.

피택 항존직분자들은 일정 기간 당회의 교육과 지도를 받고, 피택 장로들은 장로 고시 응시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고시에 전원 합격하여 성전 헌당 예배 및 조덕준 목사 위임예식과 함께 계획했던 날에 임직 예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장로 4명, 안수집사 1명, 권사 5명이 안수를 받은 임직 예식은 임직자들에게 일반적인 임직 예식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 헌당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북교회에 허락하신 새 성전을 위해 충성으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조덕준 목사 위임예식에서 위임목사를 도와 교회의 사역에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한 후에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임직한 임직자들의 초심(初心)은 단순하게 임직 예식만으로 임직하는 임직자들과는 다른 감격과 감동과 결단이 있었다.

신북교회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날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안수를 받은 직분자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김봉우 장로는 신북교회 유년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서리집사를 거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1998년 10월 24일 신북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했다. 장로 안수를 받기 전까지 재정부 회계로 교회 재정을 관리했고, 아동부 교사, 아동부장으로 헌신하며 구역 강사,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도 활동했다.

김종찬 장로는 학생회 2대 회장이고 청년 시절에 성가대 창단에 참여했으며 성가대 지휘자로 성가대 초기(初期) 정착에 기여(寄與)하기도 했다. 중고등부장, 구역 강사 등의 직분을 섬겼으며 2006년 5월 21일 신북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했었고 부친인 김익보 원로장로에 이어 2대째 신북교회 장로로 임직했다.

김규식 장로는 젊은 시절에 신북교회 일원으로 참여해서 서리집사로 찬양에 남다른 달란트가 있어 교회의 찬양을 담당하는 음악부장과 예닮 찬양단장으로 찬양 사역을 이끌었다. 특별히 새 성전 건축 시 건축위원회 회계, 특별 기도회 찬양 인도로 헌신했고, 남선교회 회장, 안수집사(2004. 5, 23 임직)를 역임했다.

오인환 장로는 모친의 태중(胎中)에서부터 신북교회의 구성원이었다. 각급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청년, 서리집사, 안수집사(2004. 5, 23 임직)를 거치면서 성가대원, 아동부장, 구역 강사, 재정부 회계 등을 섬겼다. 외조모 김갑순 권사, 모친 박민옥 권사에 이어 3대째 신북교회 항존직분자로 임직했다.

김주열 안수집사는 서울의 노량진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혜성 교회, 명수대 교회에 출석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 신북면으로 이주해서 신북교회 출석을 시작했다. 서리집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찬양대원으로 활동했고 교회의 선택을 받아 임직식에서 유일하게 안수집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

전영희 권사는 학생 시절에 학생회장으로 학생회원들을 이끌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었고 청년부와 성가대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결혼 후에 사업체를 따라 교회를 떠났었고 남편인 서승목 안수집사가 군인 교회인 천군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역하다가 신북교회에 복귀하여 권사 안수를 받았다.

전미옥 권사는 신북교회 백종원 집사와 결혼하며 신북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기적으로 근무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서리집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학생회 담당 교사, 구역 강사, 성가대 등을 충성으로 섬겼다. 故 백종원 집사 유족 출연 장학 기금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정숙 권사는 신북교회 오인환 집사와 결혼하면서 신북교회 성도가 되었다. 서리집사 사역 중에 제직회 서기로 섬겼고, 청년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청년부장으로 청년 양육에 힘썼으며 성가대 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남편인 오인환 장로와 함께 항존직분자로 임직했다.

황선신 권사는 남편 김종찬 집사의 임지에서 감리교회를 섬기다가 남편을 따라 신북교회에 정착하였다. 권사 안수 전부터 오랜 기간 강단 꽃꽂이로 예배 환경 조성에 헌신했고 아동부 교사와 노인대학 봉사, 구역장, 성가대, 여전도회장 등을 헌신적으로 섬겼다. 남편 김종찬 장로와 함께 항존직분자로 임직했다.

홍미향 권사는 남편 김규식 집사와 함께 신북교회의 일원이 된 후 서리 집사로서 구역장으로 구역 관리와 구역원들을 정성으로 섬기면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닮 찬양대 대원으로 예배 찬양을 주로 담당하였다. 여전도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남편 김규식 장로와 같이 항존직분을 받았다.

항존직분자 임직 기념

15) 기타 사역

2000년을 맞이한 신북교회는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슬로건 아래 1월부터 전도 특공대 모집(1. 23. 주보)을 광고하고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모여 활동하는 것으로 2월 13일 주보에 알리고 있다. 2000년 '꿈을 이루는 교회' 제1의 비전을 전도로 정하고 연초부터 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전도일진데 새천년을 시작하는 사역의 첫 행보로는 매우 적절했다.

교회가 전도 특공대뿐 아니라 기도 특공대도 조직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기도 특공대 기도회로 모이기를 힘쓴 것(2. 13. 주보)에서 신북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목회의 방향과 그 방향을 향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세와 결의(決意)를 엿볼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4월 3일부터 23일까지 세이레 특별 새벽기도회를 계획(4. 9. 주보)하고 21일 동안 쉬는 날 없이 진행하는 새벽기도회 때마다 매일 대표 기도자를 지정하여 기도회를 실시했다. 새천년 첫 세이레 특별 새벽기도회였던 만큼 주보에 소개했던 대표 기도자의 명단을 옮기도록 한다.

첫 이레 - 백승욱, 민경천, 박광장, 백춘길, 김익보, 최영철, 김봉우
두 이레 - 윤계월, 박민옥, 이영자, 오순옥, 정춘식, 이정순, 안정순
세 이레 - 조진구, 김규식, 지남숙, 장은희, 홍미향, 황두성, 김익훈

특기할 사항은 다음 세대인 황두성과 김익훈도 대표 기도자로 배정했다는 것이다. 기도회가 성인들만의 기도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였던 것으로 보아 새 시대를 시작하는 모습에서 교회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느낄 수 있다. 이후의 부활절, 추수감사절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에도 대표 기도자에 다음 세대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2000년 9월 21일 주보에는 권사 기도회를 오전 10시에 실시할 것과, 심야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 실시를 광고했다가 다음 주에 10시~12시로 두 시간씩 기도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광고하고 있다. 권사 기도회를 매일 실시했던 것이 특기할 만하다.

태신자(胎信者) 운동도 눈에 띄는 전도 사역이었다. 2000년 7월 23일 주보에 의하면 7월 23일에 시작하여 추수 감사 주일인 11월 19일까지의 태신자 운동 전개 계획을 광고하고 있다. 태신자 운동은 성도 1명이 전도 대상자 1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며 상대방이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전도의 한 방법으로써 전도 특공대 전도는 지원자 중심의 전도 방법이지만 태신자 운동은 전 교인들이 참여해야 하는 전도 방법이었다. 교회가 전도에 얼마나 진심으로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다. 2003년 9월 7일 제직회에서는 전도부에서 토요일 11시 30분에 전도 대원들이 학교 앞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할 것을 보고하는 내용도 기록으로 전한다. 전도에 대한 열정의 일단(一端)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6년에는 교회에서 제1기 총회 전도 학교를 개강하여 성도들의 전도 역량을 끌어 올리고 있다.

총회 전도학교 개강

교회의 사역이 전도와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 그때마다 참여해야 하는 성도들이 크게 부담스러웠을 법도 하지만 이는 신북교회가 새 시대를 향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강한 교회임을 알려주는 지표(指標)가 된다고 하겠다.

2000년에는 신북교회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이웃 교회와의 연합 활동도 있었다. 그 첫 번째가 같은 춘천시찰회 소속이고 교회 창립 연도가 같은 천전교회와 당회원들 간의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 당회를 3월 28일 오후 여섯 시에 신북교회 교육관에서 가진 것이다.(주보) 과거 부흥회가 있을 때 성가대가 서로 교차 방문하며 특별 찬양으로 교류한 적은 있었으나 교회가 천전리와 율문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인 연합 활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양 교회가 처음으로 당회 간에 연합을 시도하게 된 것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교류를 계기로 천전교회와는 2007년 10월 14일 춘천실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전교인 연합 체육대회(주보)로 교류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신북교회-천전교회 연합 체육대회

이 일로 두 교회는 형제 교회로서의 우의를 돈독하게 다질 수 있었다. 두 번째 교류는 신북교회와 가까이에 있는 천전감리교회와의 교류다. 신북교회와 천전감리교회의 교류는 연합 예배 형태로 이루어졌다. 2000년 6월 26일 주일 찬양 예배(주보)를 두 교회의 성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천전감리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드렸다. 이전에 각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성도들이 은혜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서로의 교회를 방문한 적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방문을 서로 약속하고 공동으로 예배드린 것은 처음이었다. 교파를 초월한 양 교회의 교류는 계속 이어지지 못했으나 같은 지역 내에서 교회가 상호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교류하는 일은 지역사회 복음화와 섬기기를 위해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었던 일이었다.

2001년에 눈에 띄는 사역으로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담임목사 부부

성지순례와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단기 선교 여행(중학교 1학년부터 장년부까지 1인당 60만 원 경비 자부담)을 실시하면서 8월 12일 주보에는 중국 선교 여행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광고가 실려 있다. 조덕준 전도사가 인솔하고, 조덕준 전도사가 전에 사역했던 서울의 모 교회 청년들과 함께 구성한 선교팀은 어린이까지 포함하여 20명 정도의 규모였으며 대부분이 청년과 학생들이었다. 학생 시절에 중국 선교 여행에 참여했던 박자경 권사를 통해 선교 기념 사진에 있는 신북교회 가족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았다. 이범자 권사 내외를 제외한 심현주, 황두성, 최영옥 청년, 정희경, 김진성, 김수정, 박자경, 허빈은 모두 학생이었다. 조덕준 전도사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신북교회 청년부와 학생회에게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귀중한 단기 선교 경험을 제공하였다.

중국 단기 선교 여행

중국에 대해서는 선교 여행뿐 아니라 중국 선교사에 대한 지원도 하면서, 중국 선교사 선교비 지원 시 주보에 이름을 올릴 때 선교사 실명(實名)보다 가명(假名)인 김바울로 기록하여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 중 혹시 고초를 겪을 지도 모르는 위험에 세심하게 대처한 모습을 보인 기록도 있다.

중국 단기 선교와 선교비 지원은 조덕준 전도사가 중국 선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기에 선교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전통적인 주일 찬양 예배 시간 변경도 있었다. 2002년 1월 6일 제직회에서 3월부터 주일 찬양 예배를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논의하였고, 1월 27일 당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현재의 주일 찬양 예배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시간이 이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새 성전 건축을 전후해서 진행한 교회의 영적 준비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 신북교회 당회는 2003년 4월 27일 당회에서 새 성전 건축 기공과 교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었다. 세미나는 강사로 장신대 최윤배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8월 17일 주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최윤배 교수에게 주일 2부 예배 설교와 오후 찬양예배 세미나를 맡기기로 미리 결정하였다. 또한 당회에서는 50주년 기념세미나뿐 아니라 50주년 기념 및 새 성전 입당 기념 부흥 사경회도 계획했다. 부흥 사경회는 입당 후 첫 주간에 열기로 하고, 주제는 '성장하는 교회'로 정하여 새 성전에서 신북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신앙적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신앙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새 성전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준비로 교회와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치밀한 목회 계획에서 신북교회의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다. 2003년 12월 1일 당회는 새 성전 입당을 기점으로 성도 1인당 1명 이상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태신자 운동을 2000년에 이어 다시 전개하여 넓어진 예배당 공간을 전도로 채우기 위한 사전 준비도 빼놓지 않았다.

2004년 7월 4일 제직회는 임직자와 제직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성경 공부를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고, 제직회의 결정에 따라 9월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경 공부'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가 전 제직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시작되었다.(2004. 9. 5. 제직회의록. 강사 담임목사) 전도, 기도, 세미나, 성경 공부로 이어지는 새 성전에서의 사역 준비와 활동으로 새 천년 대에 새 성전에서 펼쳐질 교회 사역이 어떠할지를 가늠할 수 있다.

2003년 12월 1일 제직회에서는 새 성전 준공으로 크게 개선될 성전의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자는 의견에 따라 2004년부터 1천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노인대학 개강을 결정하였고, 2004년 1월 4일 제직회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교회와 지역의 어르신들이 영화 관람이나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노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노인대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04년 7월 5일과 6일 양일간 속초 금호리조트에서 봉사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노인대학 명칭을 '즐거운 대학'으로 바꿔서 운영을 계속하였다.

노인 대학

주보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본 주일학교 행사 내용을 보면 2001년 6월 6일 주일 광고에 원주제일교회에서 개최한 강원노회 아동부 교육대회에 출전한 신북교회 어린이들의 명단이 있다.

독창 - 박소명. 글짓기 - 오세현, 김혜진, 박병헌. 구연동화 - 김윤미. 성경암송 - 박낮음. 성경 고사 - 김민선, 김용수. 그리기 - 김종헌, 이상훈. 중창 - 김다희, 백민지, 백민주, 오세은. (박낮음 어린이가 성경 암송에서 3위에 입상)

1973년에 시작한 학생회의 신북지구 기독학생연합 체육대회는 2007년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매년 가을에 열리는 학생회의 문학의 밤 행사도 '등대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열려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재능을 발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2005년에 신북교회는 1970년 10월 제34회 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제104회 강원노회(4월 14일~15일)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회 장소를 제공했다. 노회 내에서 신북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섬기기를 다한 것이다. 3월 20일 고난 주간 주일에는 총동원 주일로 지키며 홍수환, 옥희 부부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었으며, 9월 25일 주일에는 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으로 장신대 예배학 교수 주승중 목사를 초빙하여 신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도들의 영성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1990년대에 교회 또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경로 관광에 대한 기록이 2000년대 초반에는 없다가 2006년부터는 매년 실시한 것으로 주보에 기록하고 있다. 초반에는 교회 건축 준비에 집중하느라 중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중반 이후부터는 2006년 2월 27일, 2007년 2월 27일, 2008년 4월 15일, 2009년 3월 26일 등 매년 실시하여 어르신들을 공경했던 교회의 지극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2007년에 특기할 사항으로 11월 5일부터 참석자들에게 개역 개정판 성경과 새찬송가를 선물로 증정하면서 40일 작정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하였고 40일 동안 개근한 성도의 명단을 주보에 게재하고 있다. 명단은 조시연, 김창봉, 박순례, 안명헌, 신순녀, 유충렬, 권영순, 정순덕, 정영자, 박남옥, 최화순B, 임영저, 허정대, 오순옥, 김규식, 홍미향, 이연화, 박현숙 등이다.

2008년에는 2009년 1월 11일에 계획한 신년 대부흥회(강사 최성욱 목사) 준비를 위해 대단한 열정으로 금식 릴레이 기도를 계획하고 실천한 기록이 있다. 부흥회를 4개월여 앞두고 부흥회 전(前) 주까지 15주를 이어가며 연인원 75명이 금식 릴레이 기도에 참여했다(9월 21일부터 15주 동안의 주보)는 것에서 교회가 부흥회 준비 기간부터 또 부흥회를 통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다. 교회가 매년 장기간의 기도회를 계

획하고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했던 모습은 신북교회가 기도에 어떠한 열정으로 임했는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의 마지막 해인 2009년에는 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아 서울장신대학교 문성모 총장을 모시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덕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다양하고도 특별한 사역 프로그램을 매년 도입하여 성도 양육을 위해 적용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역이었다.

창립 55주년 기념 세미나 - 문성모 총장

담임 교역자 조덕준 목사는 2006년부터 2000년대 마지막 해인 2009년까지 4년 연속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유명 부흥 강사들을 초청해 신년부흥회를 개최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신북교회 양의 무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꼴을 잘 먹여서 영적으로 살찌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으며,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은혜가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신북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적 있는

한 해의 사역을 은혜롭게 해 나가기 위한 목회적 의도였고,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의도한 대로 신년 부흥회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한 해를 그 도전을 앞세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양무리들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상반기에는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을 계획하고 담임목사는 이스라엘 아카데미 세미나(2.16~21 대전 헬몬 수양관), 노회 전도 세미나(3.23~24 명성 수양관) 등 사역과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며 전도주일을 준비했다. 조덕준 목사는 4월 26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성도들에게 총동원 전도주일에 초청할 알곡 신자 명단을 작성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적극 독려했다. 총동원 전도주일을 준비하는 구호는 강렬하고도 확신에 차 있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데려오자!'. 교회는 4월 26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서울 온누리 교회 장로인 윤형주 가수를 초대하여 간증과 찬양을 들으며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했고, 5월 17일 주일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초청했던 사람들을 저녁에 초대해서 모임을 가지며 식사 교제를 통해 새 신자들의 교회 정착에 힘썼다.

윤형주 장로 간증과 찬양

조덕준 담임목사는 2009년 한 해에만 이스라엘 아카데미 세미나(2월)를 비롯해 노회 전도 세미나(3월), 노회 세계선교부 답사(6월. 몽골), 춘천시찰회 교역자 국내 선교지 탐방(6월), 21세기 목회 영성 세미나(8월), 노회원 수련회(9월 대만) 등에 참석하면서 목회자의 리더십 향상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2000년대 기록을 마치며 참고로 신북교회의 담임 교역자들이 2000년대에 목회의 목표로 제시하며 지향했던 연대별 교회 표어를 기록으로 남긴다.

연 도	표 어	연 도	표 어
2000	꿈을 이루는 교회	2005	하나 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2001	꿈을 이루는 교회	2006	강권하여 내집을 채우라
2002	주보 및 자료 미 보존	2007	지경을 넓히는 교회
2003	주보 및 자료 미 보존	2008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2004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 교회	2009	힘차게 비상하는 교회

9.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2010~2016)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신북교회는 201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표어와 함께 시작했다. 2000년대가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사역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연단하고 훈련한 해였다면, 2010년은 그 연단으로 한층 성숙해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자신 있게 나설 것을 선언한 해라고 하겠다. 이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신년 초 첫 사역에서부터 나타났다. 신년 첫 주일(3일) 예배 다음 날인 1월 4일(월요일)부터 7일(목요일)까지 임재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개최했던 신년부흥회가 그것이다. 새해 시작부터 희망에 부풀어 있는 성도를 신앙으로 다잡아 가기에 부흥회만큼 효과적인 사역도 없었다. 조덕준 목사가 이 점에 착안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매년 1월이나 2월에 부흥회를 집중해서 계획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연중에 느슨해졌던 심령을 부흥회로 재무장하고 시작한 2010년은 신북교회가 해피 데이(HAPPY DAY)를 준비하고 실천하여 전도의 목적을 크게 달성한 해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HAPPY DAY 전도에서 찾은 것이다. 해피 데이는 성도들이 가족, 친구, 이웃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정해 중보 기도를 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며 개인적인 유대를 쌓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교회에서는 '해피 데이', 즉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날을 열어 전도 대상자를 해피 데이에 초대하고, 함께 축제를 즐기며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하도록 이끈다. 전도 대상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전도 방식인 것이다.

조덕준 목사는 1월부터 신북교회 해피 데이를 구상(構想)하고 이의 실현 방안 마련과 준비 과정 습득을 위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며 공부했다. 해

피 데이 전도 세미나(1.25~27), 해피 데이 진행체험학교(2.2~3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 해피 데이 전도 컨퍼런스(7.5~7), 해피 데이 전도 체험학교(7.20~21) 등이 조덕준 목사가 찾아 공부한 해피 데이 관련 프로그램들이다. 조덕준 목사는 해피 데이 토양 작업 1차 세미나(8. 9 천안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신북교회 성도 31명을 참석시켜서 해피 데이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적용 방법 등을 체험하게 하였다. 2차 세미나(8.16 안양 성결대학교)에는 조덕준 목사가 직접 성도들을 인솔하여 36명이 참여하기도 하면서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해피 데이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공유하면서 해피 데이를 준비했다.

1차, 2차 세미나에 참석했던 성도들의 명단이다.(주보)

1차 – 조현숙, 정유승, 주지선, 김종찬, 박광장, 백춘길, 김주열, 박근숙, 이영자, 전미옥, 지남숙, 박민옥, 이범자, 정기봉, 조천길, 황용진, 김복순, 박민숙, 박정숙, 백승자, 신순녀, 이옥녀, 임동희, 임영저, 홍현자, 권영순, 황경원, 나기수, 허문자, 김현수, 박소영

2차 – 조덕준, 서정임, 민경천, 유충열, 김규식, 김봉우, 백춘길, 오인환, 기대승, 최영철, 김경남, 김후순, 이미생, 장은희, 장재월, 정순덕, 홍미향, 나태훈, 민병철, 박정규, 손호성, 하경관, 김순복, 박현숙, 전점순, 최화순, 함남미, 홍정애, 백수영, 김덕연, 나윤주, 이창규, 정재심, 강현숙, 강현이, 현희정

해피 데이 준비를 위해 담임 교역자가 앞장서서 바쁘게 움직이고 성도들이 이에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해피 데이 날짜는 11월 셋째 주일인 추수감사 주일(21일)로 잡혔고, 해피 데이 준비기간 중의 주일 찬양 예배를 해피 데이 찬양 예배로 드리기로 당회(8.29)에서 결정하였다. 추수 감사 주일을 해피 데이의 날로 잡은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날이 감사 축제의 날이기도 했으나 11월 1일부터 해피 데이 날인 21일까지 추수 감사절 세이레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었고,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해피 데이에 초청할 잠재적 성도들을 위해 집중해서 중보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

이었다.

많은 성도가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중보 기도하면서 준비한 해피 데이 축제 당일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는 없으나 45명이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다.

1년을 기도하며 노력해서 교회에 등록한 인원으로는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신북교회 성도들은 해피 데이를 준비하고 전도를 실천해 보면서 전도의 중요성과 전도에 대한 의무감을 크게 깨달으며 자신의 신앙 성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해피데이 준비 현수막

2) 아동부 교육관과 당회실 증축

새 성전에 입당한 2004년 5월 23일 이후의 신북교회는 '교육관 건축'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다. 교육관 건축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기는 했었으나 기성세대들은 좋은 환경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다음 세대들은 낡은 교육관에서 예배와 교육활동을 하게 하는 것

에 대한 교회의 부담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본당과 70~80미터 떨어져 있는 구(舊) 성전의 교육관을 오가기 위해 자동차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건너다녀야 하는 것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 새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2009.11.22)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부담은 있었지만 교육관·식당 등 부속 시설을 점차적으로 건축하기로 한 계획에서 교육관 건축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당회는 2010년 4월 18일 당회에서 교육관 건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건축을 의결하고 건축위원회(위원장 박광장 장로)에서 건축 전반을 관장하도록 했다. 당장 교육관 건축 공사비가 모두 마련된 것은 아니었으나 본당 건축 때처럼 부족분은 대출해서 충당하기로 했으며,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당회실까지 증축하기로 하고 건축을 시작하였다. 교육관과 당회실의 건축 면적은 합하여 64평이었다. 8월 22일 교회 주보에는 '교육관이 완공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 20시에 화요 기도회로 본당에서 모인다.'고 전하는 광고가 있다.

본당을 기도로 건축했던 경험이 있는 교회로서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에 주 단위이기는 하지만 기도회를 계획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8월 29일 당회에서는 진행 중인 교육관 건축 공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고, 10월 10일 당회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공사비 대출 필요금액 9,000만 원 대출을 승인했다. 총공사비 1억 9천 2백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는 했으나 교회의 재정(2010년 예산 2억 9천만 원) 운용 면에서 크게 부담이 되는 액수는 아니었다. 교육관 및 당회실 64평 증축을 마치고 2010년 11월 14일에 입당 예배(주보 및 교회연혁)를 드린 것을 보면 당회의 교육관 건축 일정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셈이었다.

교육관 건축을 계획하면서 당회실까지 증축을 확대했는데 본당 건축 당시에는 교회 로비 출입문 옆에 사무실과 당회실을 겸한 목양실을 마련했었고, 그 당회실은 실제로 입당 후 헌당하기까지 5년여를 담임 교역자가 다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교회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을 담당하는 전도사들이 별도로 사용할 공간은 없었다. 이렇듯 새 성전을 만족할 만큼 넓게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건축 공사비 부담도 부담이었지만 교회 건축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 건축상 용적률의 제한을 받게 되어 당장 꼭 필요한 공간만 건축할 수밖에 없었다. 본당 건물에 예배당, 다목적실인 당회실, 성가대 연습실, 화장실 외에는 여유 공간이 없었으므로 목양실을 겸한 당회실을 증축하는 일도 우선 필요한 일이었다. 당회실은 애초에 설계상 계획이 없던 2층 옥상 공간 일부에 1층 교육관의 곡선 디자인과 같은 모습으로 증축하였는데 현재의 목양실이다. 1층의 목양실은 전도사가 상주하며 사무를 보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교육관 건축이 행정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용적률 적용 기준이 확대됐기 때문이었다.

교육관 설계는 계획했던 대로 본당을 설계했던 손호성 설계사에게 맡겼다. 앞으로 식당과 교육관을 하나의 건축물로 설계할 계획으로 남겨 두었던 부지 외의 공간에 우선 교육관만 설계해야 했던 손호성 설계사는 기존에 구상했던 계획이 어긋나게 된 데 대해 곤혹스러웠던 생각을 피력(披瀝)하고 있다. 1차 본당, 2차 아동부 교육관, 3차 물댄동산 교육관 및 부속시설을 차례대로 설계했던 손호성 안수집사가 소견을 기록해 제공한 관련 글의 해당 부분을 발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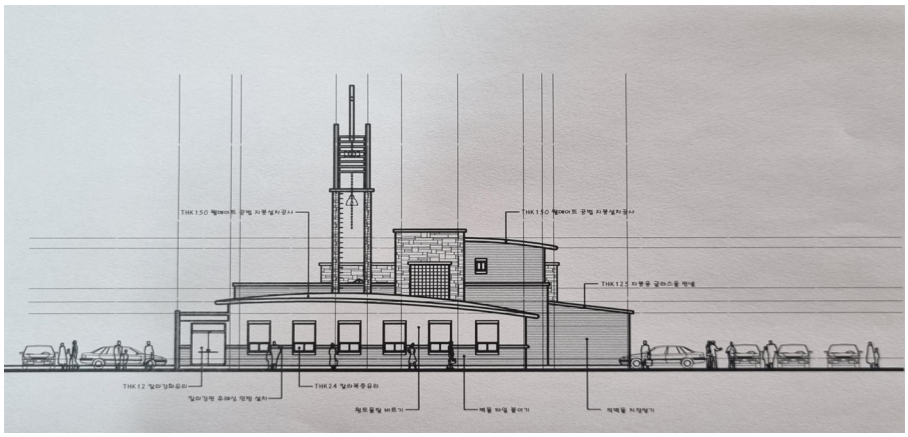
‘본당 건축 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지속적인 부흥을 한 신북교회는 사용 공간이 부족하여 증축 허가를 받아 1차 증축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증축하게 된 공간은 목양실과 교육에 필요한 교실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교회 측에서는 기존건물의 수평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전면부의 콘크리트 가벽을 활용하여 증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었다.

당초 처음 교회를 신축할 때 미래에 있을 증축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사업이 설계자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

는 것이 아닌 교회의 여러 형편과 제직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어야 하다 보니 그 모든 것을 조율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따뜻하며 저렴하게 최대한 효율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나는 거기에 무엇보다 아동부실만큼은 동화 속에 나오는 스머프의 집 같은 곡선의 형태와 동화적인 요소를 담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 월메이트 공법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직선적인 요소가 강한 기존의 본당 건물과는 다른 좀 엉뚱하고 이상한 형태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교회 제직분들을 설득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제직회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희한한 나의 제안을 수락해 주고, 그리하여 직선과 사선의 기념비적인 형태와 완만한 자유곡선의 동화적인 모습이 어우러진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지금의 신북교회 본당 정면 파사드[78]를 완성할 수 있었다.



곡선 형태의 교육관 측면 설계도

78) 건축물의 정면 외벽을 보존하고 다시 새로 지은 건조물의 외벽으로 사용하는 역사적 건조물 보존 수법

3) 조덕준 목사 소천(召天)

조덕준 목사가 신북교회 당회장으로서 목회를 위해 모든 열정을 다 쏟았던 2010년이 조덕준 목사 사역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2010년 12월 26일 주일 새벽에 조덕준 목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것이다. 향년 55세의 아까운 나이였다. 조덕준 목사가 신북교회 담임 교역자로서 목회자 생애 마지막 해의 비전이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향해 달음박질하면서도 정작 무너져 가는 자신의 육신은 간과하였던 것이 화근(禍根)이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를 따라 조덕준 목사의 영혼을 부르셨겠으나, 조덕준 목사와 함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던 신북교회 성도들은 그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다.

연초에 자신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음을 확인한 조덕준 목사는 교회에, 심지어 당회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술에 의지하는 치료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능력을 믿고 온 힘을 다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교회 사역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우매(愚昧)한 성도들의 입장으로 보면 자신의 육신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 일이었으나 조덕준 목사는 병원 치료보다 교회 사역과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킨 것이다. 그만큼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컸던 지도자였다.

조덕준 목사가 교회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린 것은 11월 7일 주보를 통해서였다. 주보에 '조덕준 담임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광고가 처음으로 실렸다. 조덕준 목사는 건강 이상 상태로 해피 데이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 계속 강단을 지키면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12월 중순에 가서야 당회에 2개월간의 병가를 요청했다. 조덕준 목사는 위암 말기로 위독한 상태이면서도 12월 19일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 강단에 섰다. 박광장 선임 장로가 예배를 인도해야 할 만큼 조덕준 목사의 몸

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덕준 목사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의 변화'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것이다. 그만큼 강단과 설교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것이 조덕준 목사 생애의 마지막 설교였다.

당회장이 소집하고 박광장 선임 장로가 당회장의 위임을 받아 주재한 12월 19일 오후의 임시 당회에서 담임목사가 요청한 2개월 병가를 허락했다. 담임목사 병가 중 성탄절 및 주일 예배 설교와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춘천남시찰회 소속 광진교회의 박은주 목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당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당회장이 이를 허락하고 광진교회의 박은주 목사가 수락하여 토요일이었던 12월 25일 성탄절 설교를 박은주 목사가 담당했다. 조덕준 목사는 당회에서 담임목사의 병가를 허락한 다음 주일인 12월 26일 주일 새벽 02시 15분 사택에서 가족과 당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

신북교회 성도들은 201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에 와서 담임목사의 부음(訃音)을 들었다.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겼고, 목자 잃은 슬픔과 충격으로 예배에 임했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조덕준 담임목사의 이름을 마음 속으로 부르고 또 부르며 눈물을 삼켰다. 조덕준 목사가 자신을 불살라가며 열정을 다하던 사역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고, 조덕준 담임목사가 2010년 교회의 표어로 제시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신북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遺言)이 되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귀결될 것이니 조덕준 목사의 유언은 성도들이 평생을 두고 감당해야 할 신앙적 과제가 되었다.

신북교회는 故 조덕준 목사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12월 28일(화)에 유족과 신북교회 성도, 강원노회의 동역 목사, 장로들이 애도하며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故 조덕준 목사 천국 환송 예배를 무거운

분위기에서 엄숙하게 드렸다.

조덕준 목사는 2002년 10월 6일 신북교회 제11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여 2004년 4월 14일 강원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09년 5월 3일 새 성전 헌당과 함께 위임목사로 취임했던 신북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취임한 지 1년 7개월여 만에 신북교회 성도들의 환송(歡送)을 받으며 교회를 떠나갔다. 故 조덕준 목사의 유해(遺骸)는 진흙으로 빚은 유골함에 담겨서 자신이 교회 어르신들의 사후에 모시겠다고 생각하여 조성한 교회 동산에 가장 먼저 모셔졌다.

故 조덕준 목사 천국 환송 예배에서 신북교회를 대표해 박광장 선임 장로가 성도들의 애석(哀惜)한 마음을 담아 故 조덕준 목사에게 올렸던 추도사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추도사 (追悼辭)

조덕준 목사님,

열흘 전까지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강단입니다. 목사님께서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강단입니다. 그런데 그 강단에 오르시지 못한 채 이렇게 시신으로 가로로 누워 계시다니요. 지금도 흐르는 땀방울을 연신 훔치시며 열정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목사님의 투박한 음성이 생생한 것은 어인 일입니까?

목사님, 무엇이 그리 급하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우와 우매한 양떼를 남겨 두시고 홀연히 떠나셨습니까? 우리들은 목사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 것을 실감할 수 없지만 이제 목사님을 사진으로밖에 뵐 수 없음에 우리들만이 이 땅에 남겨진 것을 알겠습니다. 목사님과의 잠시 이별을 슬퍼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와 믿음이 부족했던 연유인 것 같아 심히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조덕준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55년 2개월이라는 짧은 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지만, 목사님 삶의 역정은 결코 간단하지도 짧지도 않으셨습니다. 전도가 양양했던

1등 항해사의 길을 버리시고 중국 선교사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선택하신 것이나 만학의 열정으로 마흔을 넘긴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신 것이 그렇고 신북교회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소명에 우직하게 순종하시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교회와 저희들을 섬기신 것이 그렇습니다. 중국 선교사 시절에 역경 속에서 뿌리신 씨앗은 지금 말씀의 동토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고, 그 열매의 한 분인 왕위카이 목사님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비통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목사님, 신북교회의 이 성전은 목사님의 기도로 지어진 교회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기공 예배부터 입당 예배까지 9개월여 동안 목사님은 하루도 거르시지 않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이끄셨습니다. 목사님의 체취가 곳곳에 배어 있는 신북교회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잊으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고요. 구 교회에서 옮겨 와 교우들이 앉은 자리보다 빈자리가 더 많아 썰렁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때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득했던 것은 목사님께서 맡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신 결과이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닐런지요.

조덕준 목사님, 새해의 표어를 ‘빛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로 정하시고 신북교회 양떼들이 혹여나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일까 노심초사하시며 목회 계획을 구상하시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새해의 표어는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기신 유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유언을 따라 신복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더 나아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기 위해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목회의 힘겨움 속에서도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소년원 사역을 자청하시어 6년여에 걸쳐 봉사 활동에도 남다른 헌신을 하셨습니다. 가톨릭과 불교를 망라한 소년원 종교위원회의 회장을 2년에 걸쳐 역임하시면서 비행 청소년 선도와 전도에 앞장서신 것을 국가가 인정하여 법무부 장관 표창이 확정되었답니다. 표창장이 주인을 잃었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목사님의 삶은 이렇듯 어느 것 하나 저희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자신을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다가 오히려 육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신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으니 목사님을 따라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천국에서 목사님을 반드시 다시 만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신북교회는 조덕준 목사님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2010년 12월 28일

신북교회 교우 대표 박광장 장로

신북교회 당회는 조덕준 담임목사 장례 준비와 교회의 행정 체계 유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조덕준 담임목사가 소천한 당일 16시에 춘천시찰장인 나순형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하는 임시 당회를 긴급 소집해서 교회의 당회장 선임 건을 논의했다. 당회원들은 현재의 나순형 춘천시찰장이 신북교회 대리 당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원노회에 청원하기로 의결했다. 장례를 비롯한 향후 당면한 교회의 행정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故 조덕준 목사 장례 후 2011년 1월 2일 오후에 개회한 당회는 故 조덕준 목사의 퇴직금 정산과 유족의 생활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고 조덕준 목사 소천 직전 치료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구입했던 승용차와 부의금 전액을 유족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원 필요 금액이 부족할 때는 대출하여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당회장 조덕준 목사의 유고에 따른 교회 대표자를 박광장 장로로 변경할 것도 결의했다. 당회에 앞서 1월 2일 주일 예배 후에 나순형 대리 당회장이 주재한 정기 제직회에서는 故 조덕준 목

사 조문을 위해 신북교회를 방문했던 왕위카이 중국 선교사에게 100만원의 선교비를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이 제직회에서 재정부장인 박광장 장로가 故 조덕준 목사 장례 비용 일체와 유족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제직회의 허락을 받았다.

임시 의장인 나순형 목사는 교회가 장례 진행과 사후 대처를 위해 은혜롭게 하나 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감사 인사를 했고, 박광장 장로는 장례에 협조한 성도들과 유족 지원 헌금에 동참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제직회의록) 장례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신북교회 당회와 제직을 비롯한 성도들은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정임 사모는 신북교회 역사편찬위원회의 요청으로 편찬위원회에 보낸 글 말미(末尾)에 조덕준 목사가 소천한 후 신북교회를 떠나 모자(母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일들을 담담(淡淡)하게 전하고 있다.

> '장례 후에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진학하여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전도사가 되었고, 현재는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 조민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학업을 마치고 현재 연세대학교 중문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보니 가족을 돌보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은 너를 위해 나를 중국으로 보내신 것 같구나.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구나." 허허 웃으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신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그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4) 제12대 담임 교역자 이석진 목사 부임

이석진 목사

신북교회는 담임목사의 유고 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담임목사 청빙 광고를 내기보다 당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담임목사 청빙 후보자를 물색하기로 했다. 교회 역사상 담임목사 시무 중 소천이라는 초유의 일을 겪은 신북교회는 단시일 내에 담임 교역자 청빙을 마치고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 안정을 회복해야 했다.

2011년 2월 19일, 나순형 대리 당회장이 주재한 당회는 당회원들이 담임목사 유고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정한 춘천남시찰회 소속 광진교회 이석진 담임목사를 신북교회 제12대 담임 교역자로 청빙하고자 하는 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그리고 2월 27일 주일에 임시 제직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 청빙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당회의 소집 요구로 2월 27일에 소집한 제직회의는 재적 102명 중 52명이 참석하여 당회에서 상정한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무기명 투표로 물은 결과 투표자 50명 중 찬성 43표, 반대 7표로 이석진 목사를 신북교회 제12대 담임 교역자로 청빙하기 위해 당회에서 상정한 안건은 가결되었다.

이석진 목사는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M.Div) 이수 후 1998년 강원노회(원주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춘천남시찰회 광진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다가 신북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이석진 목사가 2011년 3월 13일 신북교회 제12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였다. 이석진 목사는 故 조덕준 목사의 병가와 유고 기간 성탄 예배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맡아 준 박은주 목사의 남편으로 이석진 목사와 박은주 목사는 강원노회 내 유일한 부부 목사이기도 했다. 이석진 목사가 신북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박은주 목사는 신북교회의 교육 목사의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석진 목사가 신북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부임한 후 첫 당회인 3월 27일 당회에서 다음과 같이 목회의 초점을 제시하였다.

1)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기도
2) 금요기도회 100명 목표.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 및 새벽기도회 부흥
3) 현재보다 미래의 소망을 위한 교회학교 부흥과 활성화

이석진 목사는 이어 5월 당회에서 6월부터의 목회 중점을 제시함으로 신북교회를 이끌어 갈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목회 중점
1) 목적 – 예배는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임을 깨달아 전 성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2) 목표 – ① 전 교인 온전한 성수 주일
② 전 제직의 공 예배 참석
③ 의식 예배와 삶의 예배 일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3) 구호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자.

신북교회의 전체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자로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도 참된 예배자와 기도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밀알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한 비전으로 선포한 것이다.

5) 이석진 목사의 사역

이석진 목사는 부임하고 나서 교회 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 교회 주변 6개 리의 이장님들을 찾아 부임 인사를 하고(당회록) 신북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다가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이석진 목사가 신북교회에 부임한 다음 해(2012년)에 신북교회에서 발족한 '신북기부천사운동'의 연결

고리가 되었다. 이석진 목사는 교회 내부적으로 목회의 초점으로 제시했던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교회학교 교사 임명의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대학을 개설하여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대학에서 교사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만 임명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8월 28일 당회에 교사대학 개강 계획을 보고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았다.

신북교회 교회학교 교장인 이석진 목사는 교사 대학을 6주 계획으로 10월 9일 개강하여 매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박은주 목사와 강의를 담당하였고 연내에 2차 교사대학까지 운영하여 교사대학 교육 수료자를 다음 해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하였다. 교회학교 교사의 교육 전문성 제고와 교회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사대학 개설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시도였다면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반 운영도 의욕적으로 시작하였다. 4개 반(1반-만남반, 2반-성장반, 3반-성숙반, 4반-사역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한 성경 공부반(8. 28 당회록)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며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가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11년 9월 25일 당회 회의록에 의하면 10월 13일에 신북읍 6개 리의 어르신 대상 관광계획을 결정한 내용이 있다. 이석진 목사 부임 이전부터 교회가 경로 관광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계속 추진한 것이다. 이석진 목사는 어르신 관광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경로대학으로 연결하여 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경로 대학을 개설하기로 했다. 그 준비를 위해 11월 13일 주일 찬양 예배를 경로대학 준비 일일 세미나(강사 제천 명락교회 이명선 목사)를 겸한 예배로 드리는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 12월 7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대학을 개강했다. 농한기의 어르신들을 교회에 모셔서 전문 강사와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로대학은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사역이었고, 교회는 이런 일들로 지역사회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갔다.

신북 경로대학

2012년 목회 계획 수립을 위한 2011년 11월 27일 정책 당회에서 이석진 목사는 다음과 같이 목회 비전을 제시하였다.

- 2012년 비전 – '섬김과 나눔의 교회(막10:45)'
- 표어 –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 사명 선언문 –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 우리 교회의 기도 – 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석진 목사가 제시한 비전에는 신북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섬김과 나눔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신북교회는 2012년 상반기 사역에서 '섬김과 나눔'의 비전 실천을 위한 사역으로 동절기에 운영했던 경로대학 발표회를 3월 7일 수요일에 열었다. 어르신들이 겨우 내내 경로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기량과 솜씨를 발표한 발표회에는 어르신들의 가족과 지역 인사를 초청했고 지역사회 유관 단체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인사들이 교회에 발걸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가 어르신 대상 행사를 통해 어르신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의 물꼬를 조금 더 넓게 트는 기회가 됐다.

신북교회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이때 시작한 사랑 실천 운동이다. 성도들에게 월드비전에서 지원한 플라스틱 제품인 사랑의 빵을 배부하고 성도들이 연중에 동전을 모아 이웃에게 사랑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실시한 사랑의 빵 모금에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비록 모금액(2013년 624,400원. 사업 보고서)이 많지는 않았으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전을 모으는 성도들의 손길은 따뜻했다. 사랑의 동전은 연말에 교회의 지원금과 합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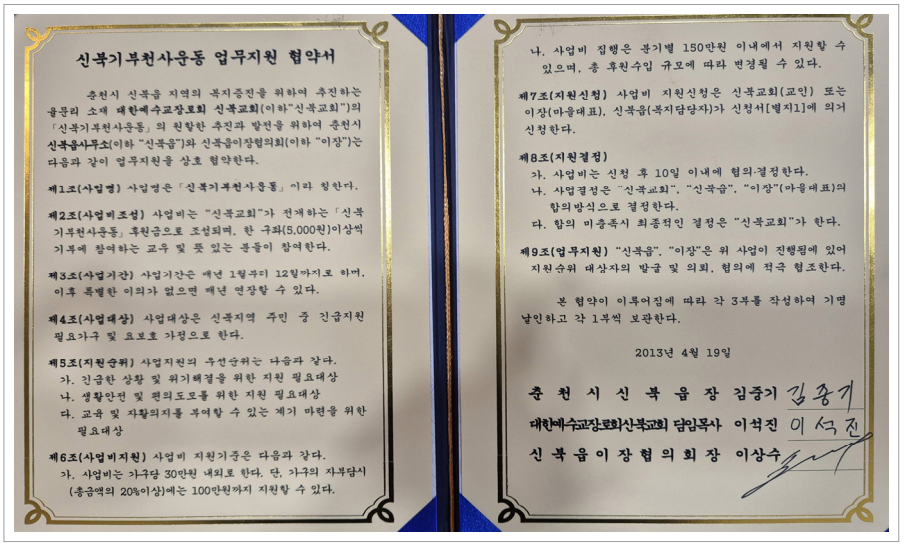
신북교회는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의 영역을 넓혀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도 시작했다. 신북교회가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교회의 장학 기금과 장학 헌금으로 장학금을 주며 격려하는 일은 계속해 왔으나 신북읍 소재 각급 학교를 찾아가 장학금을 수여하는 일은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신북교회 당회(2012.5.27)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회 주변에 휴식 공간 마련을 논의하는 등 교회가 섬김과 나눔의 범위를 서서히 넓혀 가고 있었다.

6) 「신북기부천사운동」 발족

신북교회가 2012년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이웃 사랑 실천 활동을 2012년부터 「신북기부천사운동」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었다. 신북교회에서 「신북기부천사운동」을 발족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박광장 원로장로는 '시무 장로 시절에 춘천남시찰회의 홍천중앙교회(이민수 목사)에서 이미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던 기부천사운동의 후원자 초청 행사에 이석진 목사, 박은주 목사와 함께 참석했다가 기부천사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벤치마킹하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박광장 장로는 전부터 홍천중앙교

회에서 운영하는 기부천사운동의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박광장 장로는 2012년 1월 29일 당회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신북기부천사운동」 발족을 제안했고, 당회가 이를 수용하여 2월에 세부 계획서를 준비하여 3월 제직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제직회의 허락을 받은 당회는 5월 27일 「신북기부천사운동」 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장 이석진 목사, 총무 사회봉사부장(백춘길 장로), 위원 당회원(박광장 장로, 김봉우 장로, 김종찬 장로, 김규식 장로, 오인환 장로), 기타 사회봉사부장 추천 인사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는 우선 「신북기부천사운동」 활동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교인들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1구좌 5,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후원금 모금에 성도들이 후원자로 적극 동참해 주어서 2013년 「신북기부천사운동」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후원자가 94명(교우 88명, 외부 후원자 6명)이었다. 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담임목사는 기부천사운동 운영 경험자로서 「신북기부천사운동」 발족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후원자로도 참여하여 발족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후원자 1인 1구좌 이상으로 조성한 후원금으로 지역사회에서 후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은 교회의 조직이나 노력만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당회(2013.2.24)는 「신북기부천사운동」을 신북교회와 지역사회가 연합하여 전개하는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고 신북읍사무소와 신북읍이장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북교회의 협조 요청에 읍사무소와 이장협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춘천시 신북읍 김중기 읍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이석진 목사, 신북읍이장협의회 이상수 회장이 2013년 4월 19일 신북읍사무에서 신북기부천사운동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신북교회가 신북읍사무소, 이장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나서면서 교회가 행정기관 및 단체와 연합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신북기부천사운동 업무지원 협약서

춘천시 신북읍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율문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이하"신북교회")의 「신북기부천사운동」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춘천시 신북읍사무소(이하 "신북읍")와 신북읍이장협의회(이하 "이장")는 다음과 같이 업무지원을 상호 협약한다.

제1조(사업명) 사업명은 「신북기부천사운동」이라 칭한다.

제2조(사업비조성) 사업비는 "신북교회"가 전개하는 「신북기부천사운동」 후원금으로 조성되며, 한 구좌(5,000천)이상씩 기부에 참여하는 교우 및 뜻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

제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이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매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업대상) 사업대상은 신북지역 주민 중 긴급지원 필요가구 및 요보호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승위) 사업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긴급한 상황 및 위기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대상
나. 생활안전 및 편의도모를 위한 지원 필요대상
다. 교육 및 자활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필요대상

제6조(사업비지원) 사업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비는 가구당 30만원 내외로 한다. 단, 가구의 자부담시 (총금액의 20%이상)에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집행은 분기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총 후원수입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사업비 지원신청은 신북교회(교인) 또는 이장(마을대표), 신북읍(복지담당자)가 신청서[별지1]에 의거 신청한다.

제8조(지원결정)
가. 사업비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협의결정한다.
나. 사업결정은 "신북교회", "신북읍", "이장"(마을대표)의 합의방식으로 결정한다.
다. 합의 미충족시 최종적인 결정은 "신북교회"가 한다.

제9조(업무지원) "신북읍", "이장"은 위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지원승위 대상자의 발굴 및 의뢰, 협의에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 3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4월 19일

춘천시신북읍장 김종기 김종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북교회 담임목사 이석진 이석진
신북읍이장협의회장 이상수

업무 협약서

'신북기부천사운동' 사업명의 천사(天使)'는 사전적인 의미로 '선하고 어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뜻'과 아라비아 숫자 '1004'의 중의적(重義的)인 의미로 사용했다. '1004'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천사 1004명 확보를 목표로 하여 장차 신북기부천사운동을 신북읍의 대표적인 복지 운동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신북기부천사운동 업무지원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북기부천사운동 업무지원 협약서

춘천시 신북읍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율문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이하 "신북교회")의 「신북기부천사운동」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춘천시 신북읍사무소(이하 "신북읍")와 신북읍이장협의회(이하 "이장")는 다음과 같이 업무지원을 상호 협약한다.

제1조(사업명) 사업명은 '신북기부천사운동' 이라 칭한다.

제2조(사업비 조성) 사업비는 "신북교회"가 전개하는 「신북기부천사운동」 후원금

으로 조성되며, 한 구좌(5,000원) 이상씩 기부에 참여하는 교우 및 뜻있는 분들이 참여한다.

제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이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매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업대상) 사업 대상은 신북지역 주민 중 긴급지원 필요 가구 및 요보호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순위) 사업지원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긴급한 상황 및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 대상

나. 생활 안전 및 편의 도모를 위한 지원 필요 대상

다. 교육 및 자활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필요 대상

제6조(사업비지원) 사업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비는 가구당 30만원 내외로 한다. 단, 가구의 자부담 시(총금액의 20% 이상)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집행은 분기별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총 후원 수입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사업비 지원신청은 신북교회(교인) 또는 이장(마을대표), 신북읍(복지담당자)가 신청서 「별지1」에 의거 신청한다.

제8조(지원결정)

가. 사업비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협의 결정한다.

나. 사업결정은 “신북교회”, “신북읍”, “이장”(마을 대표)의 합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다. 합의 미충족 시 최종적인 결정은 “신북교회”가 한다.

제9조(업무지원) “신북읍”, “이장”은 위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지원 순위 대상자의 발굴 및 의뢰, 협의에 적극 협조한다.

2013년 4월 19일

춘 천 시 신 북 읍 장 **김 중 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담임목사 **이 석 진**
신 북 읍 이 장 협 의 회 장 **이 상 수**

신북교회가 「신북기부천사운동」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한 첫해의 추진 실적을 이장협의회에서 보고(2013.12.23)한 사업 내용을 요약했다.

2013년 신북기부천사운동 사업 보고

□ 수입·지출 현황 (2013년 12월 27일)

구 분	항 목	금 액	합 계
수 입	기부천사 후원금	12,529,641	13,253,861
	사랑의 빵	624,400	
지 출	사업비	9,149,740	9,915,140
	CMS 수수료	660,000	
	이체 수수료 외	5,400	
	봉사자 교육	100,000	
잔 액			3,238,721

(단위 : 원)

□ 추진 실적

1. 긴급 지원 사업 추진 : 13건(추천 기관 : 신북읍 사무소 12건. 학교 1건)

수 급 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경 로 당	쌀 10㎏ 48포, 라면 48박스	2,232,000
권 * 철	사각지대 위기 가구 긴급지원	465,930
학 생 4명	춘성중, 한샘고 학생 장학금	1,000,000
유 * 숙	장애 노인 수급자 이유식 구입	300,000
김 * 준	장애 수급 가구 씽크대 등	283,000
김 * 준	장애 수급 가구 선풍기 구입	52,250
최 * 자	만성 질환 수급자 입원치료비	200,000
유 * 숙	장애 노인 가구 탈수기 구입	138,000
김 * 숙	독거노인 수급 연탄 보일러 교체	294,000
김 * 희	장애 노인 수급자 간병비	300,000
지 * 진	실직자 긴급 생계비	100,000
박 * 한	장애인 가구 전기매트 구입	145,000
전 * 천	응급 수술 환자 의료비	300,000

2. 요보호 가구 방문 서비스 지원 : 12가구(추천 기관 - 신북읍사무소 10가구. 신북교회 2가구)

연 월	지원 방법	가구 수	소요 금액
2013. 7	수급자 정기 가정 방문 서비스	11	593,680
2013. 8	수급자 정기 가정 방문 서비스	12	546,240
2013. 9	수급자 정기 가정 방문 서비스	11	517,000
2013. 10	수급자 정기 가정 방문 서비스	10	541,840
2013. 11	수급자 정기 가정 방문 서비스	10	450,000
2013. 12	수급자 정기 가정 방문 서비스	12	690,000

* 지원 내용 : 방문 미용 서비스 파마 2회, 반찬 서비스, 김장 김치 나눔, 상품권, 생필품, 현금, 침구류 세트, 병원 차량 서비스(5회) 월 1회 쓰레기 청소, 재활용 수거 등

3. 신북기부천사운동 발전 제안
   - 기부 천사운동 교회 구성원 중심 운동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 운동으로의 발전적 확대 방안 모색
   - 지역사회 각종 단체와의 협조 체제 확대 구축
   - 지역사회 내 소재 각급 교육 기관과 협조를 통한 기부 운동의 교육 연계 방안 모색
   - 연 2회(상·하반기) 이장협의회에 사업 보고 실시

4. 신북기부천사운동 후원자 수 - 94명(교우 88명, 외부 6명)

신북기부천사운동은 신북교회가 2012년 발족하고 2013년 4월에 신북읍사무소, 신북읍 이장협의회와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2025년까지 13년 동안 지역사회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원한 지원금 총액이 1억 6천2백7십만 원에 달하며, 수급 혜택을 받은 연인원이 1천5백 명을 상회하고 있다. 신북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랑 실천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터이지만 발족 초기부터 표방했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후원자로 많이 참여하여 신북읍 공동체가 운영하는 대표적 주민복지 실천 운동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신북기부천사 운동의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정기 지원과 부정기 지원으로 나눠 추진하는데 각급 학교 장학금(연 100만 원)과 추석 명절 선물(연 150만 원 내외), 월동 연료(연 700만 원 내외)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북기부천사 발족과 후원

7)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2013년은 신북교회가 창립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10월 7일에 창립한 신북교회는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도우시는 능력을 따라 중단 없는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 왔다. 하나님께서는 60년 동안 신북교회에 담임 교역자 12명, 장로 9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25명에다 수많은 서리집사와 성도들을 불러 세우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결과 신북교회는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으며 현재의 위치에 굳건히 서 있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하시는 일에 신북교회를 사용하시는 일은 놀라웠다.

신북교회는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향해 일하신 60년을 기념하여 10월 6일 주일에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고 다음 날인 10월 7일 월요일에 창립 기념으로 지역 주민 초청 잔치와 홈 커밍 데이(Home Comming Day) 행사를 개최했다.

1부 행사로 10시부터 12시까지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초청하여 예배당에서 하늘소리 선교단, 사물놀이, 수 이벤트, 마술 공연, 경품 추첨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진 후 교회 식당으로 옮겨 여전도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60회 생일잔치 음식을 점심 식사로 푸짐하게 대접했다.

교회가 유대 관계를 넓혀 가고 있던 교회 주변의 지역 단위 리, 노인회, 부인회와 농협, 수자원공사, 504 항공대 등 단체, 기관, 군부대에서 축하의 뜻을 다양하게 보내 주었으며 홈 커밍 데이 행사에 참석한 교회의 옛 동역자들도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교회가 지역 주민 초청 잔치와 홈커밍데이 행사를 위해 준비한 60주년 기념 타월이 400매였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호응해 주어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고 그만큼 신북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신북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주민 초청 잔치는 교회가 2012년에 목표로 했던 '섬김과 나눔의 교회'와 2013년 표어인 '미래와 희망'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게 하는 중요한 이벤트였다. 이러한 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였다.

2부 행사인 홈커밍데이 행사는 주민 초청 잔치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본당에서 진행했다. 신북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지역의 교회로 이명(移名)해 간 옛 성도들을 교회 60돌 생일날에 초청하여 함께하는 행사는 주민 초청 잔치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옛 성전에서 함께했던 성도들을 새 성전에서 다시 만나는 반가움의 감회는 특별했다. 옛적에 섬겼던 작은 교회에서 널찍하게 새로워진 교회로 변화한 모습을 바라보는 방문 성도들도 옛

성전에 대한 추억과 새 성전에 대한 놀라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홈 커밍 데이에 참석한 성도들이 12명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었으나 오랜만에 재회하는 마음만큼은 서로가 풍성했다. 방문 성도들은 고향 집에 돌아온 양 아름다운 경관으로 지어진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였다.

교회에서 준비한 교회 역사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참석자들은 이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날 교회를 방문했던 성도들의 명단이 있다. 새 성전 건축 위원장을 역임했던 백승욱 장로를 비롯하여 김청호 장로, 양만직 장로, 신상근 장로, 우경준 목사, 이정자 권사, 김은숙 권사, 신북교회 제10대 담임 교역자였던 김지한 목사, 김재봉 전도사, 전채자, 함의영, 오경란 권사 등이 그들이다. 신북교회를 떠난 후 10년 이상, 길게는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목사나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아 주어진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여럿이었다.

8) 이석진 목사 사임과 선교사 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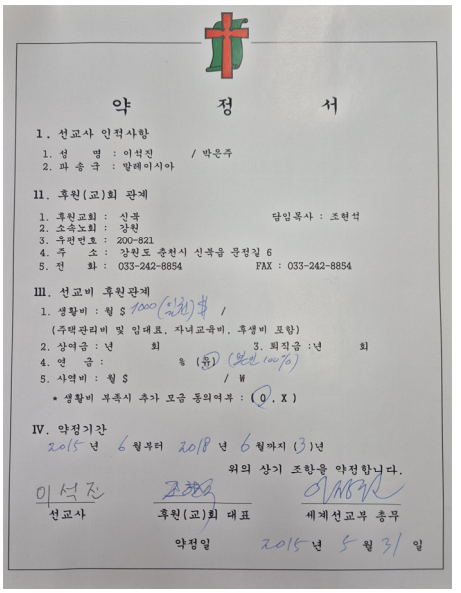
이석진 목사는 2013년에 위의 사역 외에도 지금까지 신북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며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힘썼다. 에니어그램 영성 수련회(3.11~13. 강사 - 정용구 박사. 좋은 땅 교회 출석. 주제 - 에니어그램을 통한 갈등, 치유, 변화),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5.26. 강사 - 이상만 목사. 오이코스 코리아 대표. 백석대학교 전도학 교수). 부부 세미나(6.23. 강사 - 이은하 박사. 주제 - 행복한 부부로 되어 가는 Best friend). 일본 비전트립(중고등부, 8. 5~8 인솔자 - 박은주 목사. 원창영 전도사. 참여 학생 - 권재호, 권용호, 김가현, 김도은, 김은빈, 김애리, 배지원, 이세화, 이주향) 등이 이석진 목사가 1년 동안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의 훈련과 교육을 위해 신북교회에 도입했던 프로그램들이다.

일본 비전 트립

이석진 목사가 신북교회에 부임한 지 3년 차인 2013년 10월 27일(주일)에 이석진 목사 신북교회 위임 여부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당회의 결의로 소집됐다. 예배 후 본당에서 방의준 목사(홍천 은평 교회 시무)가 대리 당회장으로 주재한 공동의회에 126명이 참석하여 투표하였으나 위임 여부 기준 적용 사무 착오로 11월 3일(150명 참석) 주일에 공동의회를 다시 개회하고 재투표한 결과 찬성 투표자가 투표자 2/3 이상인 법적 기준 100명에 미달하여 안건이 부결되었다. 위임목사 안건이 부결된 후에 이석진 목사는 다음 임지를 준비한 끝에 말레이시아 선교사 사역을 결정하였고 신북교회 부임 3년 8개월 만인 2014년 11월 30일 자로 신북교회에서 사임했다. 신북교회는 이날 오후에 이석진, 박은주 목사의 선교사 파송 예배를 겸하여 송별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이 'Ten-Ten Support가 되어 주세요'. '이석진, 박은주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위해 매월 10분 중보 기도와 10불(1만원)을 후원하는 선교 동역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북교회는 파송 예배에서 교인 대표 박광장 장로 명의로 2015년부터 매월 US $1,000씩 후원하는 선교사 후원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석진, 박은주

목사에게 전달했다. 당회는 이석진 목사가 사임한 후 후임 담임목사 청빙 시까지 10월 13일 신북교회에 등록했던 심재훈 목사에게 임시로 강단을 맡기며 설교를 부탁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이석진 목사 사임 후에 '이석진, 박은주 목사 말레이시아 선교사 파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북교회가 작성하고 서명하여 전달했던 후원 약정서 외에 신북교회가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 동안 매월 미화 1천불씩 후원하는 후원 약정서를 이석진 선교사, 신북교회 대표 조현석 목사, 총회 세계선교부 이정권 총무가 2015년 5월 31일 서명하고 선교사 파송식(2015년 3월 31일 신북교회)에서 이석진 선교사에게 전달하였다.



약 정 서

I. 선교사 인적사항
1. 성 명 : 이석진 / 박은주
2. 파 송 국 : 말레이시아

II. 후원(교)회 관계
1. 후원교회 : 신북 담임목사 : 조현석
2. 소속노회 : 강원
3. 우편번호 : 200-821
4.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문정길 6
5. 전 화 : 033-242-8854 FAX : 033-242-8854

III. 선교비 후원관계
1. 생활비 : 월 $ 1000(일천)불 /
(주택관리비 및 임대료, 자녀교육비, 후생비 포함)
2. 상여금 : 년 회 3. 퇴직금 : 년 회
4. 연 금 : % (원) (본인 100%)
5. 사역비 : 월 $ / ₩
* 생활비 부족시 추가 모금 동의여부 : (O, X)

IV. 약정기간
2015 년 6 월부터 2018 년 6 월까지 (3)년
위의 상기 조항을 약정합니다.

이석진 조현석 이정권
선교사 후원(교)회 대표 세계선교부 총무

약정일 2015 년 5 월 31 일

선교비 후원 약정

9) 제13대 담임 교역자 조현석 목사 부임과 사역

조현석 목사

신북교회 당회는 대리 당회장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시무) 주재로 11월 30일 당회실에서 신북교회 제13대 담임 교역자 청빙을 위한 당회를 개최하여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를 구성하고(위원장 박광장 장로) 담임목사 청빙 공고를 기독 공보에 내서 12월 19일까지 제출 서류를 받기로 하였다.

12월 21일 청빙위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 서류를 접수한 결과 70명이 지원한 내용을 당회에 보고

하고 담임목사 선정 작업을 서두르기로 하였다.

청빙위원회가 서류 검토와 녹음 설교를 들으며 선정 작업 끝에 담임목사 후보자로 선정한 두 명(김○훈, 조현석 목사)의 목사에게 주일 설교를 요청하여 듣고, 항존직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 종암교회 부목사로 시무 중인 조현석 목사(45세)를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당회는 위원회로부터 선정 결과를 보고 받고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 제직회를 2월 1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임시 제직회에서 청빙 위원장이 청빙 과정을 보고하고 담임목사 청빙 대상자를 조현석 목사로 하는 청빙위원회와 당회의 최종 결정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니 임시 제직회의 의장 김한호 목사가 헌법에 따라 제직들의 의견을 물었다. 조현석 목사가 담임목사 후보자로 제직회 소집 일주일 전인 1월 25일 주일 강단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합3장 3~9절)는 제목의 설교(주보)를 들었던 제직들은 조현석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담임목사 청빙 예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월 보수액 – 250만 원. 상여금 연 4회(월 보수액) 2. 연금 – 전액 교회 부담
3. 자녀 학비 – 중·고등학생 각 1명의 교납금 전액 지원
4. 사택 관리비 – 월 30만원 지원
5. 공과금 – 전액 지원

조현석 목사가 2015년 3월 1일(주일) 신북교회 제13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였고 부임하는 주일에 선포한 첫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출발을 위하여'(빌립보서 3장 12절~14절. 주보)였다. 조현석 목사는 신북교회 담임 교역자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며 신북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고 했던 바울처럼 신북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바울을 본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자고 당부했다.

조현석 목사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기 전에 담임 교역자 부재 상태에서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게 된 신북교회는 당회를 중심으로 교

회의 비전인 표어 설정에서부터 서리집사, 부서장 임명까지 전년도 내용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새해를 시작했었다. 조현석 목사는 부임해서 가장 먼저 교회가 지향하는 표어를 기존의 '예배와 기도의 날개로 비상하라'에서 '주의 임재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교회(대하 7장 15~16절. 3월 15일 주보)'로 변경하고 신북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역대하 7장 15절~16절)

조현석 목사가 교회 표어의 배경으로 삼은 역대하 7장 15절~16절은 신북교회 성도들이 삶으로 반응해 내야 할 과제의 말씀이 되었다. 교회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와 기도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배가 의식적인 행사이기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고, 기도는 형식보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는 체험의 기도가 되게 하겠다는 조현석 담임목사의 목회 신념은 목회 실제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조현석 목사는 설교에 임하는 각오에서 목회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웅변적(雄辯的)으로 보여 주었다. 조현석 목사의 설교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어느 예배나 기도회에서든 설교자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있는 대로 발산하는 설교였다. 조현석 목사가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기는 했으나 그의 우렁차고 호소력 있는 설교에서는 영적 에너지가 넘쳐났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가슴으로 전해지는 감동과 은혜에 깊이 매료되었다. 조현석 목사는 어느 설교에서 "나는 설교에 목숨을 건 목사입니다"라고 외친 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이 그 능력과 힘을 공유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평범한 사실을 조현석 목사는 신북교회에서 증명하기 시작했다.

조현석 목사가 설교 시간마다 온 힘을 다하여 선포하는 말씀으로 성도들

은 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으나 혹여나 담임목사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우려하던 중에 어느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건강에 대해 권면한 일화가 있다. '목사님, 앞으로 시간 많으니 천천히 하시지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하시라'는 장로의 권면에 담임목사는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조현석 목사는 말씀 선포에 목숨을 건 목사가 맞았고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말씀의 힘으로 신북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조현석 목사의 의지는 자신의 설교 방식에서만 아니라 새벽기도회의 강사를 초청한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조현석 목사는 신북교회 2016년 표어로 내세운 '주의 임재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교회'를 연초부터 실현하기 위해서 1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변화산 특별새벽기도회 일정을 계획하고 새벽기도회의 설교자로 다섯 명의 외부 강사를 초청했다. 조현석 목사가 특별새벽기도회 동안 강사로 매일 새벽에 한 명씩 초청한 강사는 춘천 시내에서 교파별로 대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들이었다. 새해 초에 여러 일정으로 바빴을 대형 교회 목사들을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있는 신북교회의 새벽기도회 강사로 초청하고자 했던 담임목사의 발상과 실제로 성도들이 유명 목사들의 훌륭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준 정성과 노력에 성도들은 탄복했다. 신북교회에 부임해서 1년도 안 된 새내기 담임목사가 춘천 지역이나 전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목사들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터인데, 조현석 목사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해냈다.

강사 목사 중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도 있었는데 신북교회 성도들이 그런 강사들에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다. 춘천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의 일면식도 없었던 담임목사로부터 특별새벽기도회 강사로 초청을 받고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며 먼 길을 달려와 준 강사 목사들의 섬김에 대한 자세도 본받을 만했다.

2016 변화산 특별새벽기도회 일정 및 강사 목사(주보)

일 자	찬 양	기 도	강 사 (시무 교회)
1월 4일(월)	예 닮 찬양단	박광장 장로	이원호 목사(소양성결교회)
1월 5일(화)		백춘길 장로	조현석 목사(신북교회)
1월 6일(수)		김봉우 장로	손학균 목사(석사감리교회)
1월 7일(목)		김종찬 장로	김창환 목사(온누리교회)
1월 8일(금)		김규식 장로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1월 9일(토)		오인환 장로	이수형 목사(춘천순복음교회)

조현석 목사는 말씀 선포 외에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는 목사였다. 설교에만 목숨을 건 목사가 아니라 기도에도 목숨을 건 목사였다. 새벽 기도 때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쏟아가며 절규하듯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에서나, 성도들 가정의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까지 불러가며 또는 성도들의 생업인 사업장을 위해 구체적이면서도 예배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간구하는 중보 기도는 듣고만 있어도 '아멘'이 절로 우러나오는 기도였다. 조현석 목사가 한 번은 새벽기도회에서 '나는 새벽기도회 시간만 되면 힘이 솟아나는 행복한 목사'라며 그 이유는 성도님들을 가운데 모시고 수석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서, 차석 장로님은 맨 뒷자리에서 끌고 밀며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은 분명한데 담임목사가 기도회를 이끌어 가는 일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힘 주어 말한 적이 있다.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따라 열심히 기도회에 동참하니 든든하여 기도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표현이었다. 조현석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말씀 선포와 기도하는 일에 일사각오(一死覺悟)로 임한 목회자였다. 신북교회 성도들은 그런 담임목사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북교회를 행복하게 섬겨갈 수 있었다.

신북교회는 1월 당회에서 2016년 4월에 개최하는 제126회기 강원노회 장소를 신북교회가 제공하기로 하는 안을 강원노회에 제안하기로 했고, 3월 27일 당회에서 선임 장로인 박광장 장로를 준비 위원장, 백춘길 장로를

부위원장, 당회원을 준비 위원으로 하는 강원노회 개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3월 당회가 신북교회 제13대 담임 교역자 조현석 목사가 주재한 마지막 당회가 되었으며 조현석 목사가 신북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은 13개월에서 멈춰 섰다.

조현석 목사 사역

10) 조현석 목사 소천(召天)

조현석 목사는 2016년 3월 30일(수) 새벽기도회 시간에 전과 다름없이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목청껏 말씀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소 강대상 바닥에 쓰러졌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던 새벽기도회 참석자들은 놀람과 동시에 뛰쳐나가 안전 조치를 취하며 119 신고로 빠르게 대처했으나 조현석 목사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조현석 목사는 119구급차에 실려 한림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사의 진단 소견은 뇌출혈이었으며 출혈이 과다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 정도였으면 두통 등의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었으나 워낙 건강해 보였던 조현석 목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역에만 집중하느라 건강 체크 기회 한 번 가져 보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었다. 신북교회는 담임목사의 회

복을 위해 매일 저녁 8시에 중보 기도회로 모이고(주보), 한편으로는 조현석 목사를 서울의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병세의 차도가 없어 한림대 병원으로 다시 모시고 와서 입원 치료 중에 하나님께서 4월 6일에 조현석 목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 갠 하늘에 날벼락 같은 뜻밖의 일로 조현석 목사의 가족과 신북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과 비탄(悲歎)에 빠졌다.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은 40대 젊은 목회자를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하는 회의(懷疑)가 없을 수 없었다. 5년여 전에 조덕준 목사의 소천을 목도(目睹)했던 신북교회 성도들은 그때의 슬픔을 떠올리며 더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의 섭리를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마는 신북교회는 슬픔 중에 장례를 준비해야 했다.

故 조현석 담임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는 4월 8일 오전 본당에서 유가족과 춘천시찰회와 강원노회 동역자, 신북교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예배에 참석한 유족들과 조문객들은 애석한 마음으로 조현석 목사와 헤어지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기약하면서도 너무나도 짧았던 조현석 목사의 생애와 사역을 못내 아쉬워했다.

故 조현석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걸었던 목사로 자신이 선언했던 대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당장은 애달팠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보면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목사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중에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 수만 있다면 슬픔을 넘어선 안목으로는 오히려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 일이다. 그런 면에서 故 조현석 목사는 목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한 목사로 기억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목사였다.

故 조현석 목사는 담임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신북교회에 부임해서 교회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첫 사역을 시작했으나, 사역의 큰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부임 13개월 만에 목회의 막을 내렸다. 故 조현석 목사의 유해는 화

장 후 춘천 안식원에 모셔졌다.

신북교회 성도들은 故 조현석 목사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에서 조현석 목사를 추모하는 마음을 추도사에 담아 그의 영전에 올렸다.

추 도 사 (追悼辭)

조현석 담임목사님, 지난 주 수요일 새벽기도회 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목청껏 선포하시던 그 자리에 지금은 누우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우리들을 맞으시다니요.

그리고 목사님 발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다니요. 그것도 마흔다섯 황금 같은 나이에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모님과 성현이, 수현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지, 성도들을 뒤로한 채 유언 한마디 없이 홀연히 떠나셔야 했을 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토록 간절하셨습니까?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할 천국, 목사님은 열망하셨던 대로 천국에 가셔서 소망을 이루셨지만 여기 남아 있는 우리들의 찢어지는 이 마음은 어찌해야 합니까? 목사님은 무심하게도 우리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줄 믿으며 위로를 삼겠습니다.

목사님은 생전에 부모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이 순종하시면서 부모님 존경을 늘 자랑하시던 효자이셨으며, 사모님에게는 본인보다 늘 가족을 먼저 챙기시는 든든한 남편으로, 심방을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시면 먼저 가족을 떠올리셨을 만큼 가족을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성현이, 수현이에게는 엄격하셨지만 늘 자상하신 아빠이셨습니다. 목사님의 빈자리가 여기저기 크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후 목사님의 목회는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설교 시간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은 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마음을 깊은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새벽마다 울부짖으시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사역에 늘 일사각오로 임하시면서 온 성도들에게 함께 이 일을 꼭 이루어 가자고 독려하시며 앞장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일 년도 안 돼서 교회 조직 개편은 물론 부 교역자 체제까지 다 갖추시고 신바람 나게 목회하실 일만 남았는데 이제 그 첫 발을 떼시자마자 갑자기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다니요.

조현석 목사님, 아버님께서 지난 설 때 오셔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몸 상하지 않게 하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하셨다는데 효자이셨던 목사님께서 그 말씀에만은 불순종하신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일 년 동안 너무 열심히 목회하시느라 심신이 지치셨을 테니 5월에 있을 춘천 시찰회원 해외 탐방에 내외분이 참여하셔서 좀 쉬고 오시라는 당회원들의 권면까지도 사양하시며 '제가 아직도 부족하기에 그 기간 동안 기도원에 다녀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시던 말씀에 저희들은 그저 목이 메일뿐입니다. 교우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니 부디 건강 잘 챙기라 신신당부하신 것이 엊그젠데 그 말씀은 오히려 목사님께 필요했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현석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년 1개월이라는 짧은 사역 기간 동안 죽음을을 무릅쓰시면서까지 선포하신 말씀과 목 놓아 부르짖으신 눈물의 기도, 사생활은 포기하신 채 오직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에만 몰두하셨던 그 헌신은 신북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길이 남아 앞으로 신북교회 믿음의 역사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 제시하신 목회 비전인 '주의 임재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 세상을 행복하게'는 신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임을 알아 목사님께서 못다하신 일을 저희들이 이어서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바라보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현석 담임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별의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2016년 4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대표 박 광 장 장로

신북교회는 조현석 담임목사 사후 유가족에게 1억 원을 전달하여 정착을 지원했고,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1남 1녀의 자녀들에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등록금과 교회가 담임목사 청빙 시까지 이장희 사모에게 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향후 故 조현석 목사 유고 설교집을 출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간 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당회록) 했다. 2025년 현재 아들 조성현 군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으며, 딸 조수현 양은 대학 졸업 후 취업했다가 다시 대학에서 공부하며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장희 사모도 직장인으로 생활하며 춘천의 모 교회 권사로 시무하고 있다.

신북교회에서 4월 21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126회기 강원노회는 담임목사 유고 상태인 신북교회에서 영광교회로 변경하여 개최했고, 신북교회에서는 강원노회 회기를 127회기로 한 회기 미뤄서 10월에 개최했다.

10. 사역의 지평을 넓혀 가는 교회(2016~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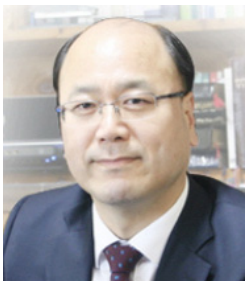
1) 제14대 담임 교역자 이창봉 목사 청빙과 위임 과정

신북교회는 당회장이 유고 상태임에 따라 후임 목사 청빙을 서둘러야 했다. 당회는 대리 당회장으로 김한호 목사(춘천 동부교회 당회장)를 강원노회로부터 파송 받아 2016년 4월 27일 당회를 개회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설교는 신북교회에 출석 중인 심재훈 목사에게 담임목사 청빙 때까지 계속 맡기기로 하고, 박광장 장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에서는 담임목사 청빙 공고를 기독 공보에 게재하고 5월 20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하기로 했다.

청빙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 검토와 녹음 설교를 들으며 며칠에 걸쳐 청빙 절차를 진행하여 세 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설교 말씀을 요청해서 들은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하기로 하였다. 후보자 중 한 명은 사전 설교 전에 다른 교회 청빙으로 제외됐고, 이창봉 목사와 신○식 목사의 설교를 2주일 동안 순서대로 들었다. 설교를 들은 후 청빙위원회는 항존직분자 회의를 소집해서 항존 직분자들의 의견을 투표로 물어 최종 결정에 참고하기로 하고 투표한 결과 회의 참석자 32명의 표를 두 명의 목사가 각각 16표씩 동수를 얻어서 1주일 기도 후에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주일 기도한 후에 재투표한 결과 이창봉 목사 지지표가 75%로 많아서 청빙위원회는 항존직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창봉 목사를 신북교회 담임목사 후보자로 당회에 보고하였고, 당회는 이를 수용하여 담임목사 청빙의 마지막 절차를 위해 임시 제직회를 7월 3일에 소집하였다.

임시 제직회(의장 김한호 대리 당회장)에서 청빙위원장 박광장 장로가 청빙 절차 경과를 보고하고 항존직분자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파주 한소망교회 부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이창봉 목사를 신북교회 담임목사로 청

빙을 결정한 청빙위원회와 당회의 안을 임시 제직회에 상정하니 제직들은 만장일치로 청빙안을 가결하였다.


이창봉 목사

이창봉 목사는 2016년 7월 31일 신북교회 제14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였다. 신북교회 당회(2018.2.3)는 이창봉 목사가 부임 후 2년 가까이 시무한 상태에서 이창봉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모시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공동의회(2018.2.11)는 96.35%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신북교회는 2018년 5월 20일 주일에 강원노회 주관으로 이창봉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모시는 위임 예배를 드렸다.

신북교회 역사편찬위원회는『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편찬을 계획하면서 이창봉 위임목사를 집필자로 위촉하였고, 이창봉 목사는 본인 부임 이전까지의 신북교회 역사를 삼인칭(三人稱) 관점(觀點)에서 사료(史料)와 증언을 토대로 집필했다. 이창봉 목사 부임(2017.7.31)과 위임 이후 신북교회 72주년(2025년)까지의 역사는 집필자가 신북교회 당회장으로서 몸소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당회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사역이었다. 신북교회 역사편찬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이창봉 위임목사 부임 전후의 본인 관련 사항과 시무 기간의 역사는 집필자가 자전적(自傳的) 형식으로 일인칭(一人稱) 관점(觀點)에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하여 역사 기술(記述) 관점을 이전의 삼인칭에서 일인칭과 삼인칭을 혼합한 관점으로 변경하여 집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이창봉 위임목사 부임 이후의 역사는 관점을 변경하여 기록했다.

2) 신북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나에게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소망교회를 섬기는 중에 2011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14개월 동안 양산 양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기간에 담임목사의 고충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해한 후 2013년 3월부터 새롭게 한소망교회를 섬긴 것은 큰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었다.

선임 역할을 하는 선배 목사들이 1년의 기간 동안 순식간에 담임목사로 나가는 바람에 선임 역할을 감당할 목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극적으로 한소망교회를 다시 섬길 기회가 주어졌다. 비록 짧은 담임목사 경험이었지만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기도나 말씀이 더 성숙하고 깊어졌다고 했다. 본인 스스로도 다시 한소망교회에서 지내는 기간은 담임 목회를 제대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나의 목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2016년에는 구체적으로 담임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교회 청빙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세히 살폈다. 하지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다.

류영모 목사께서 총회장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소망교회 출신 목회자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총회장이 되시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한소망교회 출신 목회자 중에서 한 명도 담임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강원도였다. 그래서, 특별히 강원도 지역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광고는 유심히 살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청빙 공고가 신북교회의 광고였다. 다른 여느 교회와 달리 신북교회는 제출 서류에 고등학교 학생기록부 첨부를 요구했다.

1년 전인 2015년에도 학생기록부를 요구하는 청빙 조건이 눈에 들어와 조금은 신기하게 여겼었다. 그때 만약에 이 교회가 조만간 다시 청빙 광고를 내면 재고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청빙 광고를 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했다. 개인적으로 학생기록부를 첨부 조건으로 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 시절부터 소명을 품고 목회자로서 성품과 자질을 구비한 목회자를 교회가 기다리고 있으며, 마지못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는 거절한다는 나름의 소신을 읽을 수 있었기에 오히려 청빙 조건이 반갑게 여겨졌다. 신북교회에 지원하면서 제출했던 목회 계획서 일부를 그대로 싣는다.

【목회 비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아름답고 따뜻한 동행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회복-예배의 감격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두려움과 감격,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아무런 도전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지도록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울리도록 말씀을 가까이하는 훈련(성경공부)을 병행하며, 삶을 붙들어 주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아낌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2단계] 확대-예배의 삶

주일에 경험하는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선 주일예배의 감격을 유지하며 가정이나 소그룹에서 평일에도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보에 예배 모임을 위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구역장 또는 소그룹 리더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예배를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도록 리더 양육에 힘쓰겠습니다.

[3단계] 확산-섬김의 삶

'예배'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이라면, 이웃과 사회를 영과 진리로 섬기는 삶은 '봉사'입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는 '문화와 카페'를 통하여 봉사의 삶을 추구하며,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는 '경로대학', '쉼터(경로당)', '독거노인 돌봄' 등의 봉양 활동을 통하여 봉사의 삶을 추구하며 예배의 실천을 확산시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단계] 확립 – 예배자 훈련 시스템을 통한 세계 선교

예배와 봉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처럼 일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균형의 영성'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에 흐르는 영성을 더듬으며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예배와 봉사'의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통하여 또 다른 '예배와 봉사'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회 계획서에서 밝힌 청운의 꿈을 안고 면접을 보기 위해 신북교회로 달려오는 마음은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러웠다.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게 되는 첫선을 보는 예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즉,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한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지금 보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조금은 긴 내용이라서 따분한 설교인데 신북교회 성도들은 설교나 말씀으로 설교자를 만나는 감격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예배드렸기에 넉넉히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래는 첫선을 보였던 청빙 설교문 원문이다.

제목 : 부활을 살라
말씀 : 요한복음 21:1-14

요즘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면접시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함께 입사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면접 시험관들 앞에 앉았습니다.
시험관 한 명이 묻습니다. “자네는 중, 고교 시절 축구를 했구먼?”
“그래,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인가?”
손오공 왈, “네. 이전에는 안정환이었으나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그래, 안정환 훌륭한 선수이지~ 그 안정환이 골 넣고 반지 세레머니 한 때가 언제지?” “네.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아, 그렇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군.
그래, 자네 생각에는 안정환의 반지가 정말 행운의 반지라고 생각하는가?”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시원시원하군. 자네는 합격일세!”
손오공이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오정이 손오공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어떻게 합격했느냐고 물었지요.
그리고 사오정이 무조건 답만 딸딸 외워서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이 사오정을 보는데, 시선을 딴 데로 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자네 이름이 뭔가?”라고 물었는데,
사오정 하는 말이 “네. 이전에는 안정환이었으나,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자네 왜 그러나? 언제부터 그랬어?” “네.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어허, 그 참! 자네 혹시 머리가 이상하게 된 것 아닌가?”
“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네는 불합격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딸딸 외워서 외운 대로 한다고 되던가요?
신앙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 삶의 고백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한 번은 일산 암센터에 심방을 갔습니다. 암 투병 중인 성도님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교회 권사님처럼 보이시는 분께서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몇 마디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나요? 제가 기도를 해 드려도 될까요?"
"나 예수 안 믿어." "왜 안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아, 죽으면 다 끝이야! 천국은 무슨 천국"
그래서, 제가 얼른,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아 글쎄... "그래, 그 부활 말이요. 부활해서는 또 안 죽을 거 아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 여편네 또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아, 천국에서 또 볼 거 생각하면 부활 안 하고 싶어. 그냥 딱 눈 감고 영원히 잠들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살라'고 권면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미 새로워지는 부활을 살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20:11-23, 두 번째 사건은 요20:26-29.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를 경험해야지만 '부활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새 창조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신앙 고백 또는 새로운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일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일이 요한에 따르면 벌써 예루살렘에서 '두 번' 있었지만,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도마는 위대한 신앙고백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포함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는 아직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 생활**로 되돌아갑니다.
아직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기까지,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까지는
부활은 아직 주님의 사건일 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요.

제가 다녔던 장로회 신학대학에서는 신대원에 입학하면
그 해에 반드시 2박 3일 영성 훈련을 받게 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는 성도들을 섬길 수 없거든요.
성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기는 커녕 자신이 상처의 늪에서 허덕일 수 있기 때문에
2박 3일 필수코스로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죄, 인간들의 상처에 자리하는 죄의 영향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날, 결국에는 모든 죄와 사망을 주께서 멸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삶에 있는 죄의 영향력은 내가 처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내가 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상처로부터 자유 해야 합니다. 과거를 치유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행한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명을 외면하며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도 **"헛수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를 하지만
무슨 재미가 있어서, 무슨 보람을 느끼고자 열심히 고기를 잡겠습니까?
먹먹해진 가슴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냥 나고 자란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파도에 자신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혼돈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보려 하지만 안 됩니다.
되돌아가기에는 주님과 함께한 3년의 추억이 아련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나아가 예수의 흔적이 이도 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날이 점점 밝아옵니다.

그때, 어스름한 새벽녘에 바닷가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끼니는 챙겨가며 고기를 잡느냐는 것입니다.
먹먹한 가슴을 달래길 없어 갈릴리 호숫가에 나온 것이지
정말, 먹고 살자고 고기를 잡으러 나온 것이 아니었던 그들에게
허기를 채울 끼니로서의 고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 베드로와 함께했던 요한은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이른 아침에 빵과 함께 먹을 고기를 찾으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이른 아침에 더 이상 고기잡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물을 던지면 잡게 될 것이라는 말도 이상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갈릴리 사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5:1-11의 사건이 생각나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던 그 때도, 지금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군중들과 거리를 좀 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갈릴리 호수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마등처럼 그 때의 일이 지나가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육지에서 100m 정도의 거리인 배에서 내려 주님께로 갔습니다.
옷이 다 젖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잡은 물고기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을 이곳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 속에
주님을 향해 갑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요한은 침묵합니다.
다만 바닷가에 있는 **숯불을 주목하게 합니다.**
숯불과 함께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 **숯불**은 식사를 위해서 피웠겠지만, 이 **숯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던 그 날 밤에 베드로가 쬐던 그 **숯불**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온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숯불을 쳐다보며
그 때 그 숯불 앞에서 벌어진 자신의 세 번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 방해가 될까싶어서 다른 제자들은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배를 향하여 가서
그물을 육지에 올리고는 '큰 물고기'를 셉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153마리임을 확인합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가져오라는 생선 '옵사리온'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 중에 "삼세 번"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요한도 이런 표현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요한은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보여 주고자
오늘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세 종류의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① 21:5의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빵과 함께 먹는 진미, 삶거나 구운 물고기'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끼니는 해결하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② 21:6, 8, 11의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물고기입니다. 당시 문헌에서 비유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6,8,11절은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의 댓가로 얻게 되는 물고기입니다.
초대 교회 이후,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은밀하게 모임을 가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 표식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들이 이 물고기를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사용했던 이유는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글자를 모은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물고기의 진정한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익투스, 물고기는 **베드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소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 익투스, 물고기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깨달음의 소도구**입니다.
③ 21:9,10,13의 **"생선"**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다섯 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번,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6장에서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빵과 함께 나누고 있는 생선, 옵사리온은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공관복음과 달리 성만찬 이야기를 따로 말하지 않는데,
요한은 성만찬을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빵과 물고기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식사,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 식사는 초대교회 때 주일마다 떡을 떼는 축제를 통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추억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들을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의 기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들이 단순히 제자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들이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억을 통하여 모든 것이 능력과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전에 행했던 어리석음과 무지, 부족함, 연약함, 상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섬겼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쉽게 실패했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쓰라린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새롭게 만져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순간들로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새롭게 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최고의 순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부활을 살도록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큰 상처와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순간들입니다.
바로 그 상처, 그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새사람으로 곧추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단 둘이서 해변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때, 주님께서 물으셨던 사랑은 **"신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때,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입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보다 강도가 약해졌지요?)
이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신적인 사랑,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전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 때, 베드로는 여전히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음과 똑같은 물음 같지만)
이번에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가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로 묻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신적인 사랑, '아가페'가 아닌,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지?"
이 질문에 베드로는 고민하며 이전에 했던 두 번의 대답처럼 대답합니다.

여기 주님과 베드로가 나눈 세 번의 대화는 베드로의 세 번 부인으로 말미암은 상처를 매만지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 내가 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 필레오의 사랑은 또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너도 잘 알지?
이제 위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는 살게 될 거야."

요한이 "필레오"와 "아가페"를 구분하며 말하고 싶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갈릴리의 사랑, 친구로 삼아 주신 사랑만큼은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필레오의 사랑과 이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의 노래로 부활의 주님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부활을 살아갈 사랑의 노래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피어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까?

1973년 대학생 남편과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400달러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외딴곳에서 살던 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장거리 전화라도

할라치면, 일주일 내내 하루 한 끼로 생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날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다만 힘겨운 삶에 대한 넋두리 속에서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일.
가진 것 없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어도,
여전히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입가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퍼져 나간 찬양이 바로
"I LOVE YOU, LORD"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전의 모든 상처를 만지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곳에 거하십니다.
이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상흔(傷痕)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삽시다.

부임 설교로 이 말씀을 나눈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가 부임하기 전에 신북교회를 담임했던 조현석 목사가 1년 만에 뇌출혈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북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류영모 목사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신북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지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귀띔을 해 주셨던 터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의 아픔과 고통, 혼란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

일어서자는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메시지가 너무 길었다. 그나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익히 아는 내용이기에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익히 아는 내용이기에 더욱 더 따분하고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청빙 설교를 한 목회자는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청빙할 것인가 항존직분자 모임에서 투표를 한 결과 동표가 나왔다. 둘 중에 내가 먼저 청빙 설교를 하고 다른 분은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했다. 이는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서였다. 심리학에서는 먼저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먼저하는 경우에는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객관적이면서 유리한 평가를 얻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나중에 하는 경우에 비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설령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감동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내가 먼저 청빙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다른 분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마음을 비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청빙을 받기는 쉽지 않겠구나!'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내가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다. 만약에 둘 중에 언제 하겠느냐 물었다면 나도 나중에 하겠다고 선택했을 것이다.

청빙위원회는 두 번째 청빙 설교를 들은 그날에 두 사람을 놓고 항존직분자 투표를 했다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표는 아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후보자 모두 동수가 나왔다. 그러자 청빙위원장인 박광장 장로가 한 주 동안 기도해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주일에 항존직분자들은 다시 투표를 했다. 많은 표 차이로 나를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다. 특별히 목회자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변별력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마음들이다. 어떻게 한 번의 설교로 청빙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청빙위원회는 목회자를 옆에서 돕는 사모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폈다고 한다. 청빙위원회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모를 기준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하였다.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이다. 목회는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고민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배우자가 옆에서 어떻게 돕느냐가 목회에서는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당회가 어떻게 목회자의 목회를 도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청빙위원회는 변별력의 기준으로 사모의 됨됨이를 살폈던 것이다. 우미연 사모는 한소망교회에서도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으로 통했다.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도 남았다.

우미연 사모에 대한 평가는 신북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주방 봉사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감당하는 궂은 일을 함께 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살폈다. 특별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못해도 2주에 한번 꼴로 맛있는 주전부리를 준비하여 가정을 방문했다. 한 가지 더 칭찬을 하면, 성도들이 섬겨 주시면 꼭 어떻게든 보답하는 성격이다. 빈 그릇을 그냥 돌려주는 법이 없다. 성도들이 섬겨 주신 그릇에 꼭 작은 정성이라도 담아서 그릇을 돌려주자, '목사님께 뭘 받아보는 건 처음이네!', '이렇게 챙겨 주시면 부담스러워서 다음에는 목사님께 뭘 드릴 수 없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말하는 성도들도 많다. 옆에서 지켜보던 나는 '매번 그렇게 신경 쓰면서까지 보답하려고는 하지 말라', '목회자는 기도로 보답하면 된다'고 말하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본인 마음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섬긴다. 지나 온 10년을 돌아보면, 모두에게 한결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남들을 의식하거나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이 섬기는 것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 신북교회 목회 사역 시작

2016년 7월 31일, 누가복음 12:13-21 말씀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신북교회 목회 사역을 시작했다. 2016년 남은 5개월은 전임 목회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충격을 차분히 정리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목회 방향을 정했다.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자마자 이전 것을 새롭게 한다면서 너무 미래 비전을 말하는 것은 어설프기 짝이 없고 시기상조이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것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마음에 남은 충격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제일 먼저 한 사역은 중보기도 학교였다. 제일 먼저 중보기도자를 세워 중보기도를 동력으로 목회를 새롭게 펼쳐나가고자 9월 23(금)~24(토) 양일간 12명을 훈련했다.[79] 중보기도학교 내용은 한소망교회 중보기도학교 커리큘럼을 그대로 활용했다.

다만, 한소망교회는 중보기도팀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목회자는 강의하는 컨퍼런스 형태이지만, 신북교회에는 중보기도팀이 없어서, 새롭게 중보기도 팀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소그룹 모임 형태로 중보기도 학교를 진행했다. 이제 중보기도학교 수료자를 중심으로 중보기도팀을 운영하고자 했지만, 생각보다 사역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아직 성도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대심방을 통하여 성도 전체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중보기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없었다. 뒤돌아보면, 이때 무엇보다도 중보기도팀을 제대로 운영해야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빨리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했다는 반성과 함께 다음 중보기도 학교를 진행할 때는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리라 다짐했다.

부임하여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첫 사역은 10월 3일(월)부터 11월 20일(주일)까지 진행된 '회복의 40일 특별새벽기도'였다.

사자가 싸우다 생긴 흉터를 아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자는 자신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강렬한 태양 빛을 쬐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성도가 치열한 싸움 끝에 생긴 온갖

79) 중보기도학교 1기 수료자-김경남, 김후순, 나미선, 박근숙, 오한숙, 우미연, 이영자, 장은희, 장재월, 정순덕, 최화순, 홍미향(홍주희 개명 전)

상처를 아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쬐는 것이 최선이다. 하나님의 치료 광선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은 가능하다. 이 신념을 따라 무리가 되겠지만, '회복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했다. 40일 동안 성경 66권을 개관하면서 배부한 교안으로 제본을 하여 책으로 성도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회복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며 한소망교회에서 하듯이 동판을 제작하였다.

동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복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 2016년 10월 3일 ~ 11월 19일 오전 5:30

말씀의 회복

전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 교역자 (5명)

이창봉(우미연) 정수근(김성희) 민현식

♣ 교우 (46명)

권영순 기대승 김경남 김덕연 김봉우 김순복 김시철 김익보 김후순 나미선
라희자 민경천 박광장 박민옥 박수인 박자경 박현숙 백수영 백춘길 손재열
신다은 신선우 신순녀 안명헌 오경근 오세은 오순옥 오인환 오한숙 유충열
이미생 이성희 이영자 이정숙 임동희 장재월 정 덕 정순덕 정슬기 조시연
조천길 최성순 최수정 최영철 홍옥희 홍정애

(총 51명)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북교회

아직 성도들의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40일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40일 동안 성경 66권을 개관한다는 일은 나 스스로도 만만치 않은 과제였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는 '회복의 40일'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특별새벽기도회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회복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면서 10월 23일 주일에 예배자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예배를 통한 회복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점 말씀과 기도로 회복의 물꼬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새롭게 비전을 나누며 함께 달려가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생긴 일이다.

금요기도회 반주를 은혜 가운데 열심히 섬겨주던 김다희 자매가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금요기도회 찬양팀으로 함께 섬기던 배성민, 백민지 집사가 용인으로 전출되어 떠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2016년을 마무리하였다.

2017년은 "거룩한 교회 온전한 성도"(엡4:23~24)라는 표어로 힘차게 출발했다. 새해 1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직수련회'를 진행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일단 많은 제직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한 제직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그만큼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을 보면서 다음 해부터는 '제직수련회'를 대신하여 '리더십 수련회'를 진행했다. 2017년은 실질적으로 목회 원년이라고 할 수 있기에 내가 꿈꾸는 목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보는 해로 삼았다.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성도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체질을 파악하고 삶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다. 그렇다고, 한소망교회에서 진행했던 성공의 사다리(양육 프로그램)를 그대로 답습할 마음은 없었다. 교회의 토양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아무리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프로그램만 돌린다고 성도들이 성장, 성숙하

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내가 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신북교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양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프로그램	날 짜	참가인원
1	Q.T학교(1기)	2.26-4.4(6주)	16.5명
2	행복전도학교	상동	6명
3	Q.T학교(2기)	5.16-6.29(6주)	13명
4	중보기도학교(2기)	7.8-7.15(2주)	11.5명
5	섬김이 학교(1기)	8.26-9.23(5주)	12.5명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문제점(한계)이 하나둘 드러났다. 양육 프로그램은 양육 대상자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신북교회는 양육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았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양육 대상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두 개의 양육 프로그램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양육 프로그램 이수자는 물론 실제로 진행자인 나 스스로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양질의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첫 실패를 거울삼아 양육 프로그램을 하나씩 진행하게 되었지만, 양육 프로그램 지원자가 많지 않고, 양육 훈련을 받은 사람만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뿐, 더 이상 새로운 지원자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양육 프로그램 위주의 사역은 신북교회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양육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북교회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선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성도들과 공유하는 간증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기대 효과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고, 양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분위기가 전환되는 파급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양육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 목회는 지양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하여 실질적인 성숙을 꾀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직까지 신북교회의 토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절기마다 특별새벽기도회를 40일씩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절기마다 특별새벽기도회는 21일, 3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부임 후 처음 맞는 사순절이기에 사순절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거룩한 동행 21일'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매일 묵상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헨리 나우웬의 기도를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한 주 고난 주간은 가상 칠언을 묵상하며 성금요일을 맞이했다. 2017년 사순절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내가 오기 전 신북교회를 담임했던 조현석 목사 1주기 추도예식을 이 기간(4월 6일 목요일)에 가졌기 때문이다. 조현석 목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함께 참석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교회가 정성을 다하여 유가족을 위로하며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4) 항존직분자 임직 및 권사 은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교회는 5월 28일(주일)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 쏟았다. 이날에 있었던 임직 예식 순서지이다. 임직 예식에 이어 권사 은퇴식도 함께 진행했다. 임직하는 안수집사와 권사들은 2017년 2월 26일 공동의회에서 피택되었다.

은퇴 권사 및 임직자 소개

조시연 권사는 협동 권사로 신북교회를 섬기다가 2006년 5월 21일 권사로 임직하여 11년 동안 시무 권사로 교회를 섬겼다.

이영자 권사는 1986년 5월 1일 당시 최연소 나이(40)에 신북교회 2대 권사로 임직을 받아 31년 동안 시무 권사로 교회를 섬겼다. 이영자 권사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며, 선배 권사들과 함께 권사의 본을 보이기에 힘을 기울였다.

권사 은퇴 및
집사 · 권사 임직 감사예배

1부 예배 — 인도 : 이 창 봉 목사

예 배 선 언 ..... 인 도 자
예배로 부름 ..... 고린도전서 4:1~2, 요한복음 4:24 ..... 인 도 자
기 원 ..... 인 도 자
영광의 찬송 ..... 할렐루야 찬양대
기 도 (신촌교회) ..... 정태철 장로
성 경 봉 독 ..... 출애굽기 31:1~6 (위은세성세민교회) ..... 정희성 목사
찬 양 ..... 할렐루야 찬양대
설 교 ..... 브살렐과 오홀리압 (춘천동부교회) ..... 김한호 목사
설교후 기도 ..... 설 교 자

2부 임직식 — 집례 : 당회장 이 창 봉 목사

소 개 ..... 당회서기 ..... 백춘길 장로
임직자 서약 ..... (집사, 권사에게) ..... 당 회 장

■ 집사에게
1. 문: 신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오,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답: 예, 서약합니다.
2. 문: 본 장로교 교리는 신 구약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답: 예, 서약합니다.
3. 문: 이 지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예, 서약합니다.
4. 문: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예, 서약합니다.

■ 권사에게
1. 문: 신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오,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답: 예, 서약합니다.
2. 문: 본 장로교 교리는 신 구약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답: 예, 서약합니다.
3. 문: 아래분은 본 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많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예, 서약합니다.
4. 문: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에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예, 서약합니다.

교우들 서약 ..... 당 회 장

■ 본교회 교우에게
문: 신복교회의 교우들이오,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민병철, 박병현, 신종우, 박정규, 박수인, 마득운, 최성순, 최화순, 홍정애, 임동희, 백승자, 합남미, 최수정, 최원희, 최윤정 씨를 본 교회 집사,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기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예, 서약합니다.

권 사 취 임 ..... 당 회 장
집 사 안 수 ..... (안수위원, 당회원) ..... 당 회 장
권 사 안 수 ..... (안수위원, 당회원) ..... 당 회 장
선 포 ..... 당 회 장

본 신복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민병철, 박병현, 신종우, 박정규, 박수인, 마득운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복교회 집사, 최성순, 최화순, 홍정애, 임동희, 백승자, 합남미, 최수정, 최원희, 최윤정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복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3부 권사 은퇴식

예 식 사 ..... 당 회 장

본 교회에서 시무한 조시연, 이명자 권사가 정년이 되어 영광스럽게도 그 직무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소 개 ..... 당 회 장
은 퇴 사 ..... 당회서기 ..... 백춘길 장로

본교회 조시연 권사는 2006년도에 본교회 시무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11년을, 이명자 권사는 1996년도에 본교회 시무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31년을 하루같이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교회 은퇴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축 복 기 도 ..... 당 회 장
은퇴권사 선물 전달 ..... 당 회 장

4부 권면 및 축하

권 면 (금산교회) ..... 한철인 목사
축 사 (영광교회) ..... 전진구 목사
집사 · 권사 임직증서 전달 ..... 당 회 장
특 송 ..... 임직자일동
인 사 ..... 임직자대표 ..... 민병철 안수집사
광 고 ..... 박광장 장로
* 결단의 찬송 ..... 십자가를 질 수 있나(통 461) ..... 다 함 께
축 도 (화천 예성 교회) ..... 원만희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64년간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 시대를 열어갈 일꾼들을 세우는 예식을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복교회는 더욱 지역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정 어린 격려와 기도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복교회 담임 목사 외 전 교우일동

광고(알리는 말씀)

1. 은혜 중에 귀한 예식을 개최하도록 인도하시고 임직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임직자들께서 교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헌물 하였습니다. 새워진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회에서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돌아가실 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 석식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교회 식당으로 이동하시어서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전 1:12)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given me strength, that he considered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권사에 취임한 최성순 권사는 춘천남시찰회 소속 동산교회에서 권사 안수를 받고 이명하여 와서 협동 권사를 거쳐 시무 권사로 취임하였다.

민병철 안수집사는 김갑순 권사의 전도로 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청년회를 거쳐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로 섬겼다.

박병현 안수집사는 함께 입직하는 최수정 권사와 결혼하며 신북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가대원으로 섬겼다.

신종우 안수집사는 2006년에 신북교회로 이명하여 와서 같이 임직하는 백승자 권사와 부부가 성가대를 열심히 섬겼다.

빅정규 안수집사는 2004년에 신북교회로 이명하여 함께 임직받는 최원희 권사와 부부가 성가대원으로 섬겼다.

박수인 안수집사는 모태 신앙으로 신북교회에서 성장하였으며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컴퓨터, 음향 시설 등을 도맡아 관리했다.

마득운 안수집사는 2010년대에 부부가 신북교회로 이명하여 젊은 세대

들과 잘 융화하면서 성가대원으로 섬겼다.

최화순 권사는 김주열 안수집사의 아내로 1990년대 중반에 신북교회로 이명한 이후 줄곧 주방 봉사로 섬겼다.

홍정애 권사는 김봉우 장로의 아내로 결혼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며 교회에서는 성가대 대원으로 섬겼다.

임동희 권사는 김종태 안수집사의 아내로 교회학교 교사로 오랜 시간 봉사하며 교회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백승자 권사는 신종우 안수집사와 함께 부부가 항존직분을 받게 되었으며 구역장과 성가대를 열심으로 섬겼다.

함남미 권사는 2000년대 초반에 신북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학교 교사의 달란트로 구역장과 교회학교 교육에 힘썼다.

최수정 권사는 교회학교에서부터 성장하여 결혼하면서 남편인 박병현 안수집사를 전도하였으며 청년회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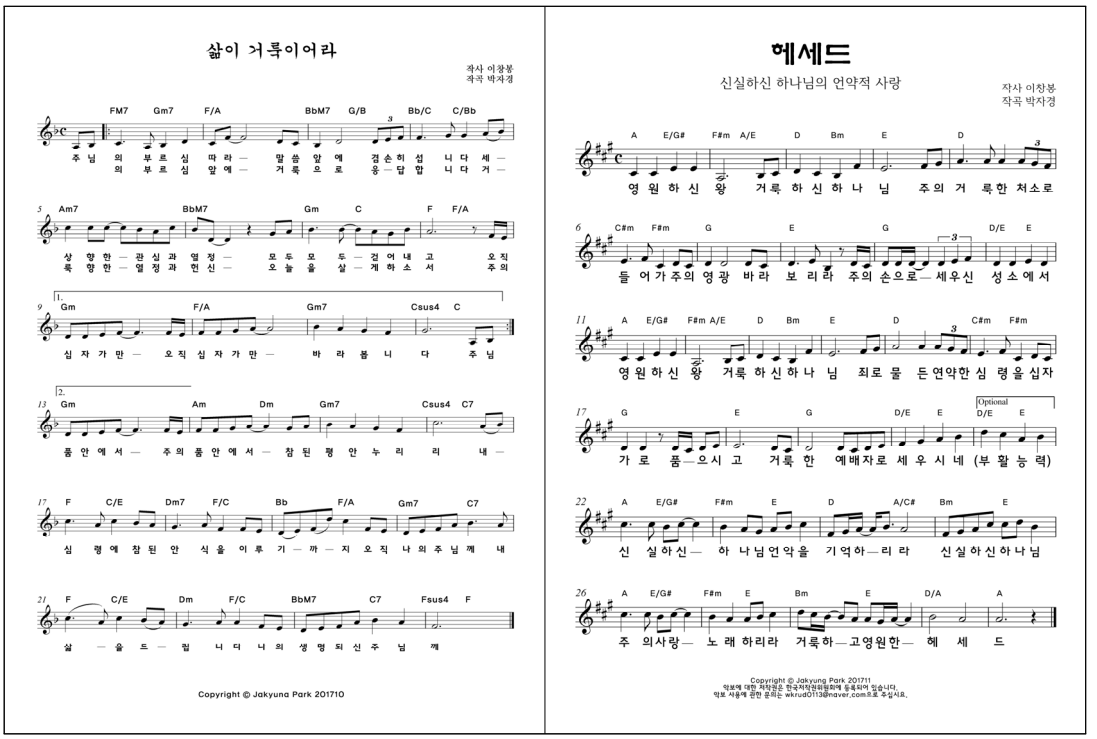
최원희 권사는 박정규 안수집사의 아내로 남편과 춘천국군병원 교회를 섬기다가 신북교회로 이명하여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다.

최윤정 권사는 해피데이 축제 때 장은희 권사의 전도로 신북교회에 출석하며 구역장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다.

권사 은퇴 및 집사, 권사 임직 감사예배

직분을 받은 안수집사 6명, 권사 9명과 함께 신북교회는 새롭게 힘찬 도약을 시도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였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새벽기도회는 '삶이 거룩이어라'는 표어를 가지고 10월 30일(월)부터 11월 25일(토)까지 24일 동안 진행되었다. 특별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주제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하여 부르며 '삶이 거룩이어라', '헤세드'를 노래하였다.



삶이 거룩이어라

작사 이창봉
작곡 박자경

주 님 의 부 르 심 따 라 — 말 씀 앞 에 겸 손 히 섬 니 다 세 —
의 부 르 심 앞 에 — 거 룩 으 로 응 — 답 합 니 다 거 —

상 향 한 — 관 심 과 열 정 — 모 두 모 두 — 걷 어 내 고 오 직
룩 향 한 — 열 정 과 헌 신 — 오 늘 을 살 — 게 하 소 서 주 의

십 자 가 만 — 오 직 십 자 가 만 — 바 라 봄 니 다 주 님

품 안 에 서 — 주 의 품 안 에 서 — 참 된 평 안 누 리 리 내 —

심 령 에 참 된 안 식 을 이 루 기 — 까 — 지 오 직 나 의 주 님 께 내

삶 — 을 드 — 림 니 다 나 의 생 명 되 신 주 님 께

Copyright © Jakyung Park 201710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작사 이창봉
작곡 박자경

영 원 하 신 왕 거 룩 하 신 하 나 님 주 의 거 룩 한 처 소 로

들 어 가 주 의 영 광 바 라 보 리 라 주 의 손 으 로 — 세 우 신 성 소 에 서

영 원 하 신 왕 거 룩 하 신 하 나 님 죄 로 물 든 연 약 한 심 령 을 십 자

가 로 품 — 으 시 고 거 룩 한 예 배 자 로 세 우 시 네 (부 활 능 력)

신 실 하 신 — 하 나 님 언 약 을 기 억 하 — 리 라 신 실 하 신 하 나 님

주 의 사 랑 — 노 래 하 리 라 거 룩 하 — 고 영 원 한 — 헤 세 드

Copyright © Jakyung Park 201711
악보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악보 사용에 관한 문의는 wkrud0113@naver.com으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다. 찬양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 동시에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공동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가을에 온 성도가 힘차게 거룩한 삶,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노래하던 그때가 아직도 마음 한 켠에는 감

동으로 남아 있다. 언제든지 이 두 찬양을 부르면 2017년 감사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소환될 것만 같다.

2017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갈무리하며 2018년을 새로운 목회 원년으로 삼고 싶었다. 2017년은 부임한 지 1년 차이기에 소신 있게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힘을 빼는 일을 싫어하는 '소심형'이었기에 먼저 가볍게 전체를 파악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면, 이제 마음을 실어 소신 있게 목회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5) 위임목사 취임

2018년은 좀 더 야심차게 표어를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요14:6)로 정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목회에 임하였다. 이처럼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연초에 마련되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위임목사 결의를 했기 때문이다. 당회에서 담임목사의 위임을 결의하고 이를 공동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2018년 2월 21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처음에는 당회가 위임목사 결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미 4년 전에 위임목사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부결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섣부른 공동의회는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시기상조로 여겼기 때문이다.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당회의 판단을 신뢰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생각보다 빨리 위임목사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를 2월 11일 주일에 연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조금 긴장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신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고 그 비전을 공유하는 순간이어야 함을 깨달으며 "물댄 동산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음은 그날 선포한 설교문이다.

물댄 동산 같은 교회
고린도전서 16:1-12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예로부터 익히 들어온 친숙한 속담들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코끼리를 만지고 각자 생각대로 믿는 시각장애인처럼 부분을 보고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는 큐티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를 조금씩 묵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룬 문제들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10가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경쟁적인 파벌의 문제 ②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문제
③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
④ 창녀와 합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선전하는 문제
⑤ 부부 사이의 성 관계 문제 ⑥ 결혼과 금혼에 대한 문제
⑦ 우상의 제사에 쓰인 고기를 먹는 문제 ⑧ 성령의 은사들로 인한 문제
⑨ 죽은 사람들의 부활 문제 ⑩ 예배에서 일어나는 비행들로 인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러한 '10가지 문제들'을 다루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항상 골머리를 앓았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10가지 문제들'로 파악하는 것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설파한 교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십자가**(1:18)로 시작해서 **부활**(15장 부활 장)로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 다음 **'십자가의 도'**로 교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나아가 고린도 교회의 신령함을 다루면서, **'부활 교리'**로 마무리를 합니다.
영과 육의 관계를 예리하게 구분하면서 '십자가'로 죄를 분리하며 은사와 은혜로

'부활'을 경험하도록 이끕니다. 고린도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면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써 내려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다룰 만큼 규모가 크고 신령한 체험들과 영적인 분별력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들끓는 날파리와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정리해야 할지를 바울은 알려주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고린도교회를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로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15장까지 고린도교회를 위해서 지혜로운 권면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갈무리하면서 바울이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1-4절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은 기근, 핍박 등으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교회와 마게도냐교회에 했던 것처럼 고린도교회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형제애를 발휘하여 연보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다음 5-12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과 먼저 디모데를 보내는 이야기와 함께 고린도교인들이 궁금해 하는 아볼로의 고린도 방문 여부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에서 겨울을 날 계획을 말합니다. 현재로서 에베소에 좀 더 머물려고 하는 이유는 대적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사역을 할 기회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아볼로에 관해서 바울이 나름대로 자세히 언급합니다. 아볼로는 지식과 학문에 능통한 자로서(행 18:24)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1:12) 고린도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를 방문하도록 거듭 권고한 것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는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자신들의 인기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엿보게 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고린도교회의 특징'**을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물댄 동산 같은 교회'**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당대의 로마 제국의

제2의 수도다운 도시에 위치한 큰 교회였습니다. 건물이 크다기보다는 교회 구성원들이 많고 다양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인지 고린도교회는 물**댄 동산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물댄 동산 같은 사역**을 요구합니다.

바울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두 번의 'send[보내다]'가 등장합니다.

3절,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11절,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3절에서는 **'물질을 보내라'**는 권면이, 11절에서는 **'사람을 보내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먼저 물질을 보내는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갈리디아교회들, 마게도냐교회들. 고린도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헌금)를 하도록 합니다. 연보가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 주일 모일 때마다 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기쁨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이 때, 바울은 **'모아 두어서'**라고 말하면서 '저축'을 권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고 말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미래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미래를 품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허황된 미래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신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탐욕과 편안를 위해서 하는 저축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는 저축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미래를 품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를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통장을 세 개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더라구요. 한 개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또 하나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거침없이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저축해 두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데, 왜 우리 삶은 인색할까요?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해서입니다.**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지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

겠다는 **결단**. 그리고,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러한 **'지혜와 결단, 성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서슴없이 저축한 헌금을 보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물질을 보낼 때도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세우도록 권합니다. 물질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치를 가집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신실한 사람'**을 잘 분별하여 세우고 그에게 물질을 맡기도록 바울은 권면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이처럼 바울의 권면대로 **'지혜와 결단, 성숙'**을 갖추게 될 때, 물댄 동산 같은 교회로 쓰임 받게 됩니다. 물질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사람을 보내는 교회'**로 준비되도록 권면합니다. 사실, 고린도교회는 '지도자 문제'로 조금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편지를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예수'**를 들먹이며 분파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사도라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이해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아볼로가 이해하는 예수님과 게바-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다릅니다. 심지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체험하는 예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서로 같을 수 없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교회는 이러한 다양성을 좀처럼 인정하질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였고 이렇다 할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기준이 되는 '사도신경'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으로 자리 잡은 것은 4, 5세기의 일입니다. 사도신경이 신앙고백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교회는 많은 상처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국의 황제가 직접 사도신경을 정리하는 데 관여했겠습니까? 그러니 초창기 고린도교회도 사소한 의견 차이와 이해의 폭과 결이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교회에 가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편이 승기를 잡는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교회이기에 바울은 그나마 중립적인 사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어떻게 대우할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의 당부는 두 가지입니다.

10절,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정황상 디모데가 어느 계파 사람인지 따지면서 논쟁이나 분열을 일삼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 파 사람들이 바울의 후계자로서 디모데를 받아들이면서 융숭한 대접을 한다든지, 반대로 다른 계파 사람들이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몰면서 편협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지도자로서 자신 앞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마음 아픈 일은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분쟁과 다툼, 분열과 시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보다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지고,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지도자를 향하여 조심성 없이, 거침없이 막말을 하며 혈기를 부리는 모습 속에서 심한 모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분쟁과 분열, 시기와 다툼이 디모데 앞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11절,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디모데가 언제든지 필요를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의 역량을 임의로 평가하면서 계획보다 빨리 보내려고 한다든지, 반대로 계획보다 늦추어 오래 붙잡아 두려고 한다든지.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일에 억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올 때에는 혼자 오지 아니하고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바랍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상황이 다릅니다. 요즘에야 혼자서도 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씩 다닙니다. 하지만, 2천 년 전에 혼자 여행을 다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안전이나 거리의 문제 때문이라도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주의 일을 힘쓰고 돌아올 때에 함께 오는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댄 동산 같은 교회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잘 훈련하고 잘 세워서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북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댄 동산 같은 교회는 두 가지를 잘 보냅니다. 물질과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너희의 은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3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물질'입니다. 나아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너희의 은혜'**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보내는 물질과 사람을 **'은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의 은혜'를 your gift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사람을 '선물'이라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만, '은혜'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은 탁월한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고린도교회가 물질을 정성껏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을 도우며 또 다른,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세워서 함께 보내는 일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15:10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너희의 은혜'라는 표현 속에서 물질과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댄 동산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되, '물질'과 '사람'이 차고 넘치며, 가정과 지역, 나라와 열방으로 물질과 사람이 흘러가도록 하는 교회가 물댄 동산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댄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하여 워싱턴에서 평화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제목으로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 중에 격앙된 목소리로 수차례에 걸쳐 I have a Dream을 외쳤습니다. 비록 그는 꿈을 외친 후 5년 만에 흑인 인권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의 총탄에 생을 마쳤지만, 그의 외침은 여전히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1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도 I have a dream을 외쳐봅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신북교회가 물댄 동산 같은 교회가 되리라는 꿈이....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양강 댐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북한강을 따라 서울 도심을 적시듯이 신북교회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서울의 도심을 적실 것이라는 꿈이....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다음세대가 없어 꿈을 접고, 미래를 포기하는 시대 속에서도, 신북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고, 신북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꿈이....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전국이 가뭄으로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소양강 댐 아래 위치한 우리는 가뭄 걱정을 하지 않듯이 한국교회가 늘어나는 부채와 물질의 궁핍으로 힘들어할 때에 신북교회의 풍성한 물질과 탁월한 일꾼들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꿈이....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사야 58:11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신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물댄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물댄 동산의 비전으로 신북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자고 뜨거운 열망과 두렵고 떨리는 겸손으로 성도들에게 호소했다. 예배 후 공동의회를 대리 당회장 한철인 목사에게 부탁하고 나는 조용히 내 방에서 공동의회의 결과를 기다렸다. 그날 공동의회의 결과는 참석 인원 137명 중 찬성 132표, 찬성율이 96.5%로 신북교회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위임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 주었다.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만큼이나 기대도 크다는 뜻이었다.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청빙 결정이 나자 바로 가장 나를 아껴주고 염려해 주는 선배 목사인 이정재 목사(의정부 신곡교회 담임)께 공동의회 결과를 알렸더니 이정재 목사는 류영모 목사께 연락을 드리고 위임 예식 일정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 주셨다. 선배 목사의 조언대로 류영모 목사께 연락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시듯 류영모 목사께서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다. 위임 예식은 노회 주관이니 노회가 정하는 날짜에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바쁘신 일정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5월이면 언제든지 맞출 수 있으시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5월 말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노회에서 위임목사 허락 절차를 거친 후 위임국 주관으로 위임 예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5월 20일에 진행된 위임 예식은 아래 순서지대로 진행되었다.

□ 위임목사 소개

이창봉 목사
(우미엔 사모)

■ 약력
·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졸업
· 장로회 신학대학 목회 신학박사 과정 중
(목회와 사회복지 전공)

■ 경력
· 부산초읍교회 전도사, 부목사
· 일산 한소망교회 부목사
· 신북교회 담임목사

□ 인사의 말씀

오늘 위임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위임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주일 사역으로 인해 바쁘신 중에도 이창봉 목사의 위임을 축하하며,
격려와 기도로 사랑해 주심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북교회 당회원 및 교우 일동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 행 20:24 -

이창봉 목사 위임예식

일시 | 2018. 5.20(주일) 오후 4시
장소 | 신북교회 본당
주관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문정길 9 (율문리 256-18)
☎ (033) 242-8854

목사위임예식 순서

오후 4:00 — 집례 | (노회장, 위임국장) 안봉엽 목사

예 식 사		집 례 자
찬 송	208. 내 주의 나라와	다 같 이

1. 내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피흘려 사신교회를 늘사랑 합니다
2. 내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아끼사 늘보호 하시네
3. 이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생명 다하기까지 늘봉사 합니다
4.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언약을 늘기뻐 합니다
5.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 아멘 -

기 도		(부노회장) 이칠성 장로
성 경 봉 독	마 16:18-19	(노회서기) 이민수 목사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찬 양		신북교회 찬양대
설 교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소망교회 위임목사) 류영모 목사
소 개	위임받을 목사	위 임 국 장
서 약		위 임 국 장

1. 위임받는 목사에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한다.)
1) 그대가 신북교회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2) 그대는 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3) 그대는 본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2. 교우들에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한다.)
1) 본 교회 교우 여러분은 이창봉 목사를 위임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2)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3) 교우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시무하는 동안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C · O · N · G · R · A · T · U · L · A · T · I · O · N · S

기 도		위 임 국 장
선 포		위 임 국 장

"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의 권위로 **이창봉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위임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 하노라" 아멘

위임패증정		위 임 국 장
권 면	1) 위임받은 목사에게	(전노회장) 송건섭 목사
	2) 교우들에게	(전노회장) 원만희 목사
축 사		(전노회장) 조좌상 목사
축 가		(한소망교회) 윤주용 목사
인 사		위임받은 목사
광 고		(준비위원장) 박광장 장로
찬 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다 같 이

1. 나의생명 드리니 주여받아 주셔서 세상살아 갈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 손과발을 드리니 주여받아 주셔서 주의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3. 나의음성 드리니 주여받아 주셔서 주의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4. 나의호화 드리니 주여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뜻대로 쓰소서
5. 나의시간 드리니 주여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 아멘 -

축 도		(전노회장) 한철인 목사

광 고

1. 오늘 예식을 위해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예식을 축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정성으로 기념품을 준비했사오니 꼭 받아 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예식 후에 교회식당에 소찬을 준비했사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소망교회 출신 목회자들과 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 화분을 보내주어 교회 로비를 가득 채웠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는 신북교회 창립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신북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행보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

이창봉 목사 위임 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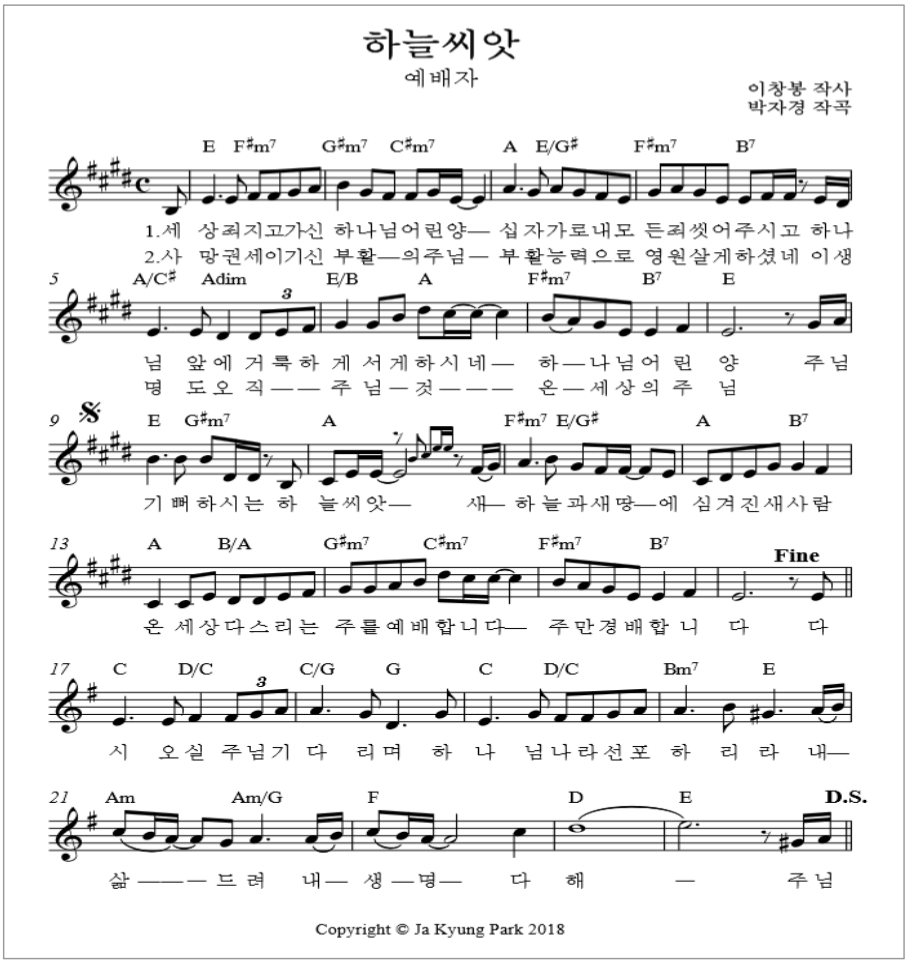
위임 예식을 전후로 좀 더 목회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가장 먼저 10주 과정의 성경 아카데미를 '성경에서 가장 궁금한 101가지 질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4월 17일(화)부터 6월 26일(화)까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총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80] 아울러 찬양팀 워크숍을 6월 1~2일(금, 토) 이틀간 진행하고, 찬양팀 밴드 워크숍을 7월 14일(토)에 진행하면서 예배의 질을 보다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며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쉽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하여 찬양팀 밴드

80) 성경 아카데미 수강자 명단-이미생, 장재월, 이영숙, 최보향, 정희숙, 우미연, 백춘길, 박근숙, 기대승, 박수인, 나은경, 정슬기

워크숍을 11월 3일(토)에 다시 한 번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눈에 보이는 변화나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임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는 10월 29일에서 11월 24일까지 21일간 '사랑으로 복음을 빚으리'라는 표어 아래 바울의 일생을 더듬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아래는 21일간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리한 표이다.

복음으로 사랑 빚으리		
1 day	행 7:54-8:1	스데반의 순교
2 day	행 9:1-9	바울의 회심
3 day	행 9:19-25	아라비아 광야 생활
4 day	행 9:26-31	나는 만났노라, 예수님을…
5 day	행 11:19-30, 12:25	소중한 만남: 수리아 안디옥 교회
6 day	행 13:1-3	위대한 첫걸음: 1차 전도여행 시작
7 day	행 13:13-14, 42-52	견디지 못해 떠난 마가
8 day	행 14:19-28	돌에 맞아 죽은 바울
9 day	행 15:22-35	예루살렘 사도 회의
10 day	행 15:36-41	뼈아픈 결별: 2차 전도 여행
11 day	행 16:6-15	동양에서 서양으로 간 예수님
12 day	행 18:5-17	고린도의 갈리오
13 day	행 18:18-22	아시아의 진주 에베소
14 day	행 18:23, 19:1	3차 전도 여행
15 day	행 19:8-10	아시아 선교 본부 두란노 서원
16 day	고전 13:4-7	지옥문 앞에 선 고린도 교회
17 day	고후 12:1-10	시지포스 신화
18 day	행 20:17-35	죽어서라도 가야 할 예루살렘 길
19 day	행 27:18-26	지중해의 악마, 죽음의 광풍
20 day	행 28:11-16, 30-31	죄수 바울, 로마에 발을 딛다
21 day	롬 15:22-29	다시스와 사라고사 전도
22 day	딤후 3:10-17	로마 대화재와 그리스도인 대학살
23 day	딤후 4:9-18, 21	바울의 유언: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4 day	행 20:24	위대했던 사도의 최후

사랑으로 복음을 빚어낸 바울의 순교자적 삶을 조명하면서 21일 동안 불렀던 찬양이 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주체 찬양 '하늘 씨앗'을 직접 작사, 작곡하여 함께 부르며 사랑으로 복음을 빚어가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이제 특별새벽기도회는 사순절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3주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듯했다. 하지만, 사순절과 추수감사절 시즌에 3주 동안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기대했던 폭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오히려 변화에 저항하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까

지 했다. 물론, 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다. 분명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임목회 경험이 부족하고 짧은 시간에 눈에 띄는 성과나 효과를 기대하던 사람으로서는 만족보다는 실망이 당시에 앞섰다. 전체를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두운 부분으로 인해서 쉽게 무기력감까지 경험했다. 2018년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했었다. 나아가 물댄동산 교육관을 성공적으로 건축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2019년을 맞이하는 해의 겨울에는 충성스런 청지기들이 교회를 떠나는 힘든 일이 있었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힘들다고 널브러져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나 혼자라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라면 더욱이 공동체의 내밀한 사정까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부족한 리더의 최선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새해를 열어갈 결심을 했다. 아직도 아쉬운 일꾼들이 떠나기 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따라 2019년 표어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Renew our days)"**(애5:21)로 정하였다.

이 기도 제목은 그 누구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이었다. 송구영신예배에서 이 표어를 외치며 2018년의 아픔과 시련, 온갖 복잡한 감정들을 떠나보내고자 했다. 2019년에는 교육관 건축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새해를 열면서 안일하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1월 1일부터 5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솔직히 이때는 영적으로 침체기를 지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충직한 청지기들의 교회 이동 때문이기도 하고, 교육관 건축이라는 감당하기 버거운 책무가 있었고, 정책 당회에서 본인의 설교에 대해서 묵직한 충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설교가 길다. 설교가 어렵다. 설교가 좀 메말라 있다.' 평소에도 쉽게 웃으며 넘기기 힘든 말들을 목회자로서 큰 타격을 입

어 영적 침체기를 겪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힘겨웠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준비하여 내 입에 맞게 표현을 조금만 고쳐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메시지로 전했다. 어떤 이들은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도용했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류영모 목사는 가끔 부교역자들에게 당신의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가르치셨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설교문을 가지고 쓸데없는 열정을 쏟느니 차라리 완성된 설교문을 빌려서라도 정성껏 설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가르치셨다. 이 교훈을 따라 '나의 설교가 길고 어렵고 메말랐다면 이 시대의 최고 설교가의 설교는 비판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곽선희 목사의 설교문으로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메시지를 전했다.[81]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2년 5개월 동안 신북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뒤돌아보면서 당회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인했다. 담임목사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최선일 뿐 성도들에게는 최고가 아니었다. 내 기준에서 설교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서는 무조건 설교를 짧게 하기로 결심했다. 8장씩 하던 설교문을 6장을 넘지 않도록 줄이는 작업을 하면서 설교 준비에 새로운 열정을 쏟았다.

영적 침체를 겪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다. 가뜩이나 교육관 건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때 이른 영적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통하여 본인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2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사역 세미나'를 진행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한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 사역을 했던 두 분의 목사를 초청하여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길 원했다.

2/10	경배와 찬양	윤주용 목사(한소망교회)
2/17	예배 특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이정재 목사(의정부 신곡교회)
2/24	예배위원회 헌신예배	이창봉 위임목사

81) 눈을 새롭게(1.2), 귀를 새롭게(1.3), 입을 새롭게(1.4), 손을 새롭게(1.5)

6)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

당회는 2019년에 접어 들면서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을 결의하고 준비에 돌입했다.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탄력을 받으면서 동시에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를 3월 24일 주일 오후에 드렸다. 다음은 기공 예배 순서이다.

《인도 : 김규식 장로》

예 식 사	이곳에 모이신 교우 그리고 내빈 여러분, 일찍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짓고, 저속한 모든 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큰 헌신과 봉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파는 이 기공식이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다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물댄 동산 교육관 기공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인 도 자
기 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시 48:1). 영원하신 하나님!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자연으로 남아 있던 이 땅에 감히 주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나무를 모으고 돌을 모아 귀한 건물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은총 안에만 머물러 있던 이 땅이 구속의 은총의 도구로 더욱 값지게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주님! 이 땅을 더욱 성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지어지는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 공고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땅을 파며 드리는 이 예배가 야곱이 자신의 돌베개를 놓고 드렸던 예배와 같이 큰 꿈을 꾸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인 도 자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전능왕 오셔서(10장) ……	다 같 이
기 도	……	백춘길 장로
말씀 봉독	…… 고린도전서 3:9~17 ……	인 도 자
특 송	…… 우릴 사용하소서 ……	할렐루야 찬양대
설 교	…… 수고한 대로 상 주시리라 ……	이창봉 목사

경과 보고	(건축위원장이 건축의 경과를 보고하고 설계자, 시공자를 소개한다.) 설 계 – 손호성 건축사무소 손호성 집사 시 공 – ㈜뉴원 종합건설 김민규 대표, 김원기 장로	박광장 장로
테이프 끊기	이제 준비된 테이프를 끊으며 기공을 선언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테이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기공을 선언한 후에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테이프를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 도 자
기공 선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회중 앞에서 물댄 동산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공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테이프를 끊습니다. 하나, 둘, 셋! 다함께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창봉 목사
개토 선언	제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팝니다!”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봉 목사 :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훈련받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땅을 팝니다. 회 중 : 아멘. 이창봉 목사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내적 평안을 전달할 건물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팝니다. 회 중 : 아멘. 이창봉 목사 :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모든 과정을 의탁하며 우리가 오늘 이 땅을 팝니다. 회 중 : 아멘.	이창봉 목사
개 토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파는 첫 삽 뜨기(개토)의 순서입니다. 내빈 여러분과 대표께서는 개토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인 도 자
광 고	……	박광장 장로
찬 송	…… 주의 말씀 듣고서(204장) ……	다 같 이
축 도	……	이창봉 목사

물댄동산 기공예배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이 기공 예식을 시작으로 조금씩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다. 한소망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어떻게 진행할지 배웠던 터라 '교육관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미 2018년 말에 '교육관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 작정서'를 받아서 한 달치 명단을 로비에 게시하여 본인이 신청한 날에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회가 끝나면 강단으로 올라와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담임목사의 안수기도를 받고 하루 중 한 번 금식하며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다. 교육관 건축이라는 막중한 일을 아무 잡음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관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기도 후에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도 지원자가 일정표에 빼곡하게 채워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을 볼 때는 마음 한 켠이 든든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기도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에 뜨거운 열정이 피어오르기를 바라면서 위원회 중심의 사역들을 계속 이어갔다. 지금까지는 교회 사역이 위원회 중심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신북교회

당회원들은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귀한 장로들이었다. 하지만, 개인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공동체는 건강해지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귀한 희생과 헌신, 섬김이 당대에 그치고 만다. 장로들의 희생과 헌신, 섬김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스며들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사역이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2019년에는 위원회를 세우는데 역점을 두고 '위원회별 헌신의 달'을 정하여 사역을 진행 중이었다. 2월에는 예배 위원회 헌신의 달로 정하여 '주일 예배 사역 세미나'를 진행했었다.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 기공예배를 드린 벅찬 감격을 가지고 4월에는 선교위원회 헌신의 달로 정하여 선교 세미나를 진행했다.

4/7	선교 특강(선교 전문가에게 듣는다)	손귀연 목사(JDM 총무)
4/14	전도, 선교 위원회 헌신예배	이창봉 위임목사
4/21	연합 찬양 예배	부활주일 감사 찬양 예배
4/28	선교 특강(지금 중국에선)	전문해 목사

특별히 부활주일 감사 찬양 예배는 경배와 찬양 형식으로 메시지 중심보다는 찬양 중심으로 '연합 찬양예배'를 드렸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았다. 성도들의 반응이 별로였다는 말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탓에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이 기존 예배보다는 경배와 찬양예배에서 더 도드라지기에 평소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던 부분이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경배와 찬양 형식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었다.

위원회를 세우는 작업은 6월에도 계속되었다. 6월은 교육위원회 헌신의 달로 정하여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

6/2	청소년 세대 알기	청소년부 김충현 전도사
6/9	교사여, 다음세대에 날개를 달아라!	최규명 목사(원주 충정교회)
6/16	교육 위원회 헌신 예배	이창봉 위임목사
6/23	미리 맛보다	아동부 나미선 전도사
6/30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합주회	

6월 한 달 교육위원회를 세우는 교육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성도들에게는 다음세대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위원회별 사역 세미나가 진행된 과정들을 돌아보면 사회봉사위원회는 따로 사역 세미나를 진행한다든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역들은 없었다. 그 이유는 사회봉사위원회는 이미 신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사역이 하나 있었다. 바로 7월 14일 주일에 개최한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을 위한 여전도회 바자회'였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아.나.바.다.[82]의 정신으로 일일 장터에 가지고 와서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을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헌금으로 드린다는 취지에서 바자회가 열렸다. 하지만, 바자회에 걸맞은 수식어인 '성황리'라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무색한 규모의 바자회가 젊은 여전도회원들의 헌신 속에 이루어졌다. 담임목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컸다. 개인적으로 바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청소년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남들이 입던 옷을 입으며 자랐기 때문일까, 아니면 성전을 돈 바꾸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며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셨던 예수님의 호통이 마음 한 켠을 채우고 있기 때문일까, 여하튼 바자회로 인해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한 탓에 바자회를 하겠다면 막지는 않겠지만, 주의할 부분들을 명시하며 소극적으로 허락하고 협조한 탓으로 바자회가 너

82)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무 초라한 것만 같아 미안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7월의 미안함을 사라지게 하는 행사가 8월 30일(금)에 있었다. 바로 '물댄동산 사랑 축제'이다. 비록 아직 물댄동산 준공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물댄동산 교육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물댄동산 준공을 기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물댄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물댄동산 사랑축제'를 열었다. 행사를 준비하던 기획안 일부는 아래와 같다.

2019 물댄동산 사랑축제

▶일정 (8/30일 금요일)

순서 및 시간	역할 및 세부순서	담당자	비 고
7:00-7:30	요리 경연 준비 참석자 자리배치 및 안내	교역자실	경쟁 6팀, 비경쟁 5팀
7:30-8:00	요리 경연	각 팀별로	
8:00-9:00	요리 심사 아가페 애찬	전교인	심사는 당일 모든 참석자 - 1등 2팀, 2등 2팀, 3등 2팀 심사 후 함께 식사 교제
9:00-10:00	물댄 동산 땅 밟기	전교인	준비 찬양(10분) - 식당 각방마다 다니면서 땅 밟기 및 통성기도 - 2층 4개 방 / 3층 1개 방 / 옥상

▶요리 참가 팀

참가팀 (경쟁)	요리 종류	지원 항목
7여전도회	샌드위치, 소떡소떡	
청소년부	떡볶이	음료 준비
오순옥 권사 가정	두부 요리	
신선우 집사 가정	샐러드, 감자전	
이미생 권사 가정	낙지볶음	
이정식 집사 가정	BBQ	
박광장,백춘길 장로	해물 칼국수	
4여전도회	쫄면, 쑥 인절미	

참가팀 (비경쟁)	요리 종류	지원 항목
이영자 권사	팥 시루떡	
위임목사 가정	어묵 탕	
204구역	편육, 약과	
박순영 집사	LA갈비	
교회 준비 : 밥, 김치 등		

흙먼지가 날리던 공터 위에 말끔하게 세워진 새 건물에서 요리 경연을 펼친다는 사실만으로 벅찬 감동이 있었다. 물댄 동산 교육관(식당)에서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는 감격을 미리 맛보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바자회에 대한 아쉬움은 깨끗이 사라지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물댄동산 교육관에서 '노아모임'도 9월 19일(목)부터 새롭게 진행되었다.[83] 아래는 노아모임 기획서이다.

【노아(노년을 아름답게)모임】

대상: 1여전도회 회원 중 신청자(10명 내외)
장소: 물댄동산 아가페 홀
기간: 2019.09.19.(목)~11.28(목), 10주간 (10/3 제외)

주로 독거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추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초(超)고령기를 보내는 (독거) 여성 노인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신앙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83) 참가자 명단 : 권영순, 이정옥(87), 오순옥(85), 박민옥(84), 김덕연(82), 박봉심(80), 전점순(77), 신순녀(76)

주차	제목	인물	활동	준비물
1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노아	내 인생의 말씀	
2	새로운 출발&아름다운 마무리	아브라함, 사라	축복 편지	편지지, 필기구
3	(야외활동)			
4	아름다운 동역자	모세와 미리암	내 인생 18번	
5	세 여인의 믿음	라합, 나오미, 룻	나의 유산	사진
6	(야외활동)			
7	위대한 어머니 Ⅰ	한나	영상 편지	촬영 영상
8	위대한 어머니 Ⅱ	마리아	영상 기도	촬영 영상
9	(야외활동)			
10	위대한 만남	시므온과 안나	나의 소망 리스트	

새로운 교육관 물댄동산에서 진행된 노아모임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이 심겨지기를 바랐고 10번의 만남을 통하여 노년을 아름답게 바라보기를 소망했다.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고 삼악산 케이블카를 타러 갔을 때는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케이블카를 타면서 늑장을 부린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이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사랑과 존경, 기쁨을 담아 어르신들의 늑장을 기꺼이 애교로 받아 주었다. 삼악산 정상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동안, 마치 내 어머니를 보는 것 같다며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나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지만)일이라며 감격스러워 하셨다. 한 집사님은 그때까지 예배시간이면 어김없이 수면 모드로 돌변하시곤 하셨다. 하지만 노아모임 이후에는 예배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셨다. 어르신들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한글도 잘 모르시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4영리를 펼쳐 보인 적이 있었다. 물론, 할아버지는 곧바로 고개를 돌리셨다. 한 번의 실패의 고배를 마신 후에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중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실 때 그냥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다. 가끔 찬양을 불러 드리면서. 그렇게 할아버지의 마음은 조금씩 바뀌시면서 성경을 통해

서 한글을 깨우치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교회 출석을 하기에는 고령이라 여기고 교회에 모시고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으로 만족하시며 생을 마감하셨다.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하시고 복을 받으신 모습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미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물댄동산 교육관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제 10월 6일 주일에 물댄동산 교육관 완공을 감사하며 정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 경과보고 및 완공 감사 예식 순서이다.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 경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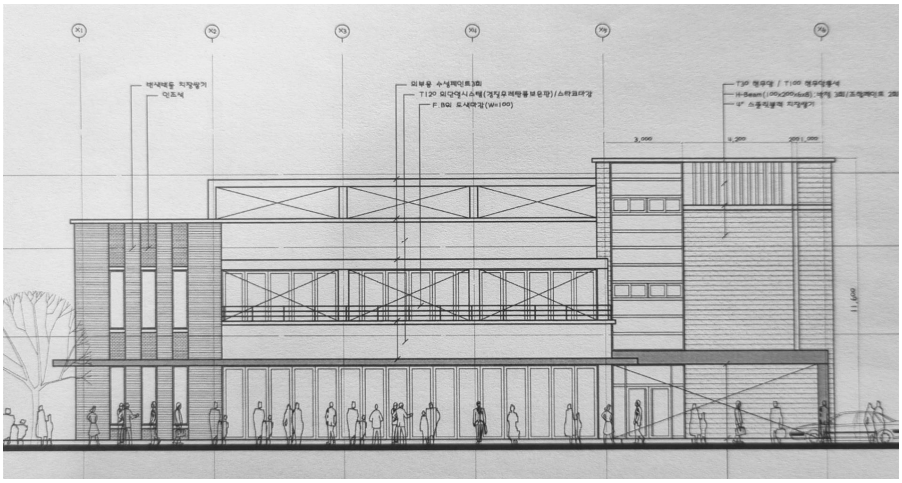
건축위원장 박광장 장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17년 10월 29일 식당과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고, 손호성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1층 식당 86.5평, 2층 교육관 66.1평, 3층 17.5평 (연면적 170.1평)으로 설계하여 2018년 12월 5개 건설업체에 입찰 설명회를 하여 ㈜뉴원 건설에 7억 6천 9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21일 문화재 시굴 결과,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 3월 24일 착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하여 1층 식당, 2층 교육관, 3층 목양실과 2차 1,2층 25.7평을 증축하여 연건평 195.8평을 6개월 공사기간과 총공사비와 부대비용 합계 10억 1천 4백만 원으로 완공하여 오늘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계 감리를 해 주신 손호성 건축사님,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을 해 주신 뉴원 건설 김민규 대표님과 현장을 총괄하신 김원기 상무님, 소방과 통신 전기시설 감리를 해 주신 사조기술단, 이레주방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님들의 물댄 동산 릴레이 금식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물댄 동산 교육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물댄 동산 교육관 건축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인도 : 김규식 장로

예 식 사	사랑하는 교우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다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물댄 동산 교육관 준공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 도 자
기 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 48:1). 처음과 마침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곳에 물댄 동산 교육관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하늘 소망을 품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인 도 자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아 하나님의 은혜로(310장) --------	다 같 이
기 도	----------	백춘길 장로
말씀 봉독	---------- 느헤미야 4:1~6 ----------	인 도 자



물댄동산 설계도 (손호성 안수집사)

특 송	---------- 하나님의 은혜 ----------	할렐루야 찬양대
특별 영상	-------- 물댄동산이 완성되기까지 ----------	다 같 이
설 교	---------- 건축이 완성되기까지 ----------	이창봉 목사
경과 보고	(건축위원장이 건축의 경과를 보고하고 설계자, 시공자를 소개한다.) 설 계 - 손호성 건축사무소 손호성 집사 시 공 - ㈜뉴원 종합건설 김민규 대표, 김원기 장로	박광장 장로
감사패 증정	지금까지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감사패 증정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설 계 - 손호성 건축사무소 손호성 집사 시 공 - ㈜뉴원 종합건설 김민규 대표, 김원기 장로 건축위원장 - 박광장 장로 건축 위원 - 김규식 장로	맡 은 이
특별 찬양	---------- 우크렐레 찬양 ----------	장 태 화 유 문 규
광 고	----------	박광장 장로
찬 송	--------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445장) --------	다 같 이
축 도	----------	이창봉 목사

물댄동산 조감도 (손호성 안수집사)

물댄 동산 교육관 설계자인 손호성 안수집사의 설계 관련 설명이다.

신북교회는 8여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또 한 번의 증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그동안 신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바램이었던 식사 교제의 장소와 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2018년 12월 17일에 제 2차 증축 허가를 득하여 식당 및 교육관 증축 공사를 착수하였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170평에 2층 규모의 콘크리트구조 건축물로써 1층은 식당, 그리고 2층은 교육관 용도로 구성되었으며 외장 마감은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치장벽돌과 스플릿블럭을 사용하였다.

교회 형편을 고려하여 최대한 건축비 절감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했으나 이번 교육관을 증축하면서 꼭 표현하고 싶은 것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본당 건물과 교육관 사이에 5~7미터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영성과 은혜가 넘치는 수(水)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하여 식당을 활용하여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식사 교제를 할 때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함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두 번째는 교육관 정면 파사드에 십자가 고난의 예수님과 그 열두 제자를 상징하는 오브제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덩그러니 비어 있는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후 그 공간을

물댄동산 준공감사예배

활용도 하고 벽과 벽으로 구획된 상부에 원형으로 오픈된 개구부를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교육관 건축은 그렇게 2019년 8월 28일 준공되었다.

7) 박광장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숨 가쁜 한 해를 보내면서 기존에 해오던 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는 잠시 접어 두고, 이제 종교력으로 새해를 여는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를 12월 16일(월)부터 20일(토)까지 일주일 동안 가졌다.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면서 32명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였다. 물댄동산 교육관 건축과 함께 새로운 힘찬 도약을 알리는 첫걸음으로 '2019 새생명 초청' 행사를 12월 22일, 25일 양일에 가졌다. 이때, 가족 중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2025년 현재까지 출석하고 계신 새 가족들을 포함하여 21명이 대거 등록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그토록 심각하게 유행하리라고는 감지하지 못했다. 간간히 외신으로 접하는 소식에 가볍게 혀를 차는 정도였는데 이제 한국 교회를 강타하는 소용돌이는 점점 거세질 조짐을 보였다. '코로나 19'와의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미리 보내주시고 든든한 지원군으로 서게 하셨다. 이일이 그토록 감격적인 이유는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을 겪는 중이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신북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평생을 섬기신 박광장 장로가 은퇴하면서 그 공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박광장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예식 순서지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 행 20:24 -

□ 약력 소개

박광장 장로
(정순덕 권사)

- 1949년 09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출생
  (부:박태신 / 모:김수희 권사의 차남)
- 1966년 01월 세례(부평교회)
- 1972년 12월 신북교회 등록
- 1979년 02월 09일 결혼(처: 정순덕 권사) / 슬하 1남 1녀
- 1993년 10월 30일 안수집사 임직
- 1998년 10월 24일 장로 장립
- 2017-2018년 102.103회기 총회 총대
- 2018년 01월-12월 강원노회 장로회 회장 역임
- 2019년 12월 15일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 인사의 말씀

오늘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북교회 당회원 및 교우 일동

박광장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예식

일시 | 2019.12.15(주일) 오후 4시
장소 | 신북교회 본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북교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문정길 9 (율문리 256-18)
☎ (033) 242-8854

장로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예식 순서

C · O · N · G · R · A · T · U · L · A · T · I · O · N · S

오후 4:00 집례 | (신북교회 위임목사) 이창봉 목사

예 식 사		집 례 자
찬 송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 이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왈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기 도		정태철 장로 (강원노회장로회 직전회장 신촌교회)
성 경 봉 독	디모데후서 4:7-8	집 례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설 교	아름다운 고백	정희성 목사 (춘천시립합창 밝은세상시민교회 시무)
약력 및 발자취 소개		영 상
원로장로 추대패 증정		집 례 자
꽃다발 증정		기관 및 가족
축 가		이 대 성
송 공 사		백춘길 장로
축 사		한철인 목사 (직전 춘천시립합창 금산교회 시무)
인 사		박광장 원로장로
광 고		백춘길 장로
찬 송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같 이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아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아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 도	집 례 자

광 고

1. 오늘 예식을 위해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예식을 축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정성으로 기념품을 준비했사오니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4. 예식 후에 교회식당에 소찬을 준비했사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 한 사람의 은퇴와 원로장로 추대를 위해 노회 차원의 대대적인 예식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박광장 장로가 신북교회를 위해서나 강원노회 안에서의 역할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눈물과 땀을 생각한다면 결코 지나치다 말할 수 없으며 존경의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신북교회는 박광장 장로의 은퇴 예식에서 시무하는 동안의 헌신과 충성을 기리는 송공사를 헌사(獻辭)했다.

송공사(頌功辭)

박광장 장로님,

신북교회의 전 교우들은 장로님을 우리 교회의 원로장로님으로 자랑스럽게 모실 수 있도록 오늘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께서는 월남전 참전 후 전역하시면서 소양댐 건설로 수몰된 고향을 뒤로 하고 샘밭에 정착하시면서 신북교회에 등록하신 후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결 같은 믿음의 열정과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신북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오셨습니다. 신북교회 66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의 힘이 컸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북교회를 향한 장로님의 헌신은 우리교회 역사에 큰 족적으로 선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장로 시무 21년 중 선임 장로 시무 15년 동안 교회가 겪어야 했던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때마다 장로님께서는 늘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난관을 극복해 가는 중심에서 헌신의 소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는 신북교회가 오늘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신북교회 교우들이 증인입니다. 장로님께서도 인간이신지라 무거운 짐을 피하고 싶을 때도,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싶으셨을 때도 없지 않으셨을 테지만 장로님께서는 묵묵히 그 짐을 감당하시며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원대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기르시지만 장로님께서는 행동으로 우리들의 귀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물론이고, 온갖 궂은 일에도 항상 장로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집안일보다도 교회의 일을 우선하시면서 충성된 청지기의 본을 행동으로 보여 주신 솔선수범의 대명사이셨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후진들이 가야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 길잡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역을 정직과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에서의 복은 물론 이 땅에서의 복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박 장로님을 통해 증거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모친이신 길수희 권사님의 기도가 장로님 대에서 믿음의 일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또 장로님의 뜨거운 기도는 자녀들 대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앞으로 신북교회가 장로님과 같은 청지기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만 같아 장로님의 은퇴를 바라보는 후배 장로들과 교우들의 마음은 무겁고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은 은퇴하시지만 저희들 곁에 늘 계셔서 지금처럼 기도와 헌신과 사랑의 자리를 지켜 주실 테고, 무엇보다도 아직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아직도 식지 않으셨으니, 장로님께서 저희들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든든할 것이며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회에서 장로님의 빈 자리가 클 터이지만 장로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길이 있으므로 그 길에서 당회원들은 지혜를 찾으며 교회의 복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교우 일동

박광장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예식

8) '코로나19' 기간의 사역

'코로나19' 기간에도 2020년을 준비하면서 물댄 동산의 비전을 함께 품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며, 2020년 표어를 **"우리는 한 가족(family)입니다"**(엡 2:19)로 정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혼돈과 공포, 경악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 있다. 처음 가는 길은 두려움과 공포, 혼란과 주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마련이다.

물론 믿음으로 담대히 어떤 환경도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본 모습이요, 기본 자세라고 가르쳐 온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회 제한 조치 발동과 함께 혼돈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국가 조치에 반기를 드는 것이 굳건한 신앙인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동의에 해당하는 국가 조치는 수용하는 것이 신앙인의 겸손이요,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실, 신앙은 언

제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외줄타기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믿음의 행보를 옮기는 수밖에 없다. 신북교회는 이 원칙을 따라 때로는 국가 조치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국가 조치를 최대한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예배 금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코로나19'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물론 그때는 최고조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를 때이다.) 국가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예배도 집회에 속하기 때문에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일이다. 예배도 집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집회의 성격을 띨 수 있지만 예배 자체는 집회가 아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1인이 예배를 진행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는 분명히 집회는 아니지만, 예배이다.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 문을 닫는 일은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극성일 때 한 주간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은 적은 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은 없었다. 코로나 감염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한 후 이상이 없는 당회원들이 본당에 입장하여 최대한 거리를 두고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주일 예배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시행하면서, 자가 검역을 통하여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을 하고 공간이 허락하는 제한 인원으로 충분히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다. 신북교회 공간은 허용된 최소 인원이 35명 정도였기에 국가 조치에 순응하여 35명으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는데, '코로나19' 정점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신기하게도 예배 인원이 35명을 넘지 않게 하셨다. 이처럼 국가가 제시한 '코로나19 방침'을 따르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원칙을 존중하되 형식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대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점점 확산해 갈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다. 이미 대형 교회들은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배 실황을 생중계하며 성도들을 예배자로 세워 갔다. 하지만, 신북교회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예배 실황을 생중계할 수 있는 카메라조차도 없었기 때문이다.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볼멘소리를 한두 번 하면서 교체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송 시스템을 운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는데, 새벽기도만 참석하시는 한 성도 분이 교회의 필요한 일에 쓰시라며 5백만 원을 헌금하셨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다.

헌금을 재정부에 맡기면서 혹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이 돈만큼은 꼭 필요한 일에 쓰면 좋겠다고 당부를 한 후 당회에서 5백만 원 헌금의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인터넷 방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쓰자고 제안했다. 이때 부족한 금액 3백만 원을 보충하여 카메라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서야 비로소 예배 실황을 생중계로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돈을 핑계 대며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순간 교회는 위축되기 시작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판단이나 어리석은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돈은 결코 핑곗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치셨다. ‘코로나19’는 3년여 동안 이어졌지만 교회의 사역은 계속 이어가야 했다.

9)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2020년을 앞두고, 당회는 교회 창립 70주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로드맵은 제시해야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 할 수 있기에 투박하지만 4개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세웠다.

70주년 기념 사업은 다양하면서도 일회성인 계획보다 단순하고 지속 가능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우선 성도들의 개인적인 영성 성장을 위하여 성경 통독과 연대기 성경 녹음 보급 등 성경 관련 사역에 집중하고, 다음으로 사역의 영역을 지역 사회로 넓혀 기존의 지역 사회 섬기기 활동을 지역 주민 초청 윷놀이 대회까지로 확대하여 주민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행사로 정착시키며, 더 나아가 해외선교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 현지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창립 70주년 목회 로드맵 (70주년 기념 사업 위원회)

구 분	예배와 영성(개인)	사회봉사(지역 사회)	해외선교(필리핀)
2020년 (67주년)	70-700 성경 통독 기획	기부 천사 운동	재정 지원
2021년 (68주년)	70-700 성경 통독 (3개년 계획) 신약 성경 필사	지역 사회 섬기기 제1회 주민초청 윷놀이 대회	필리핀 선교지 교회 개척 계획 (3개년 계획)
2022년 (69주년)	BELLS LIFE, 연대기 음성 성경	지역 봉사(에코 지킴이) 주민초청 윷놀이 대회	선교지 선정, 단기선교
2023년 (70주년)	성경 요약집, 기도집 발행 성경통독 명단 쓰기 성경 제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 주민초청 윷놀이 대회	선교사 파송(현지인 목사) 선교지 교회 개척 봉헌

그런데 마치 한편의 개그처럼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모든 것을 잠정 중단시켰던 '코로나19'가 2020년 전체를 삼켜버렸고 설마하며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가 2021년 전체까지 삼켜버린 것이다.

2020년은 모든 것이 처음이기에 좌충우돌하면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면 2021년은 '코로나19'에 점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 교회 트렌드 전문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 방송의 확산이다.

웬만한 교회라면 모두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가나안 성도를 대거 양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제 편한 자세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예배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비록 '코로나19' 조치로 뾰족한 대안도 없이 목회사역을 연명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 결과물을 2021년을 위한 정책당회에서 공유했다. 위기의 시기에는 덩치가 큰 교회보다 소규모 교회가 유리하다.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에 맞게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북교회는 중·대형 교회는 아니고, 그렇다고 소규모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신북교회는 다른 교회를 모델로 삼기보다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성공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 영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로 사역의 영역을 확장해 가며 더 나아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계획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9-1) 성경 통독 70-700 운동과 연대기 성경 보급

당회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이렇다 할 대안이나 변화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신북교회는 2021년을 맞이하여 보내게 되었다.[84] 그나마 감사한 일은 기본 충실하자며 '성경 70-700 통독 대행진'을 시작한 일이다. 이 사역은 순수하게 본인이 생각해 낸 것은 아니다.

물론, 성경 통독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었지만, 성경 통독을 마치 이벤트 행사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잖은 반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역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려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 찬양도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드리는 찬양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에 비하면 성경 통독은 다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경 통독에 집중한 것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당회가 함께 고심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노력했기에 가장 시의적절한 사역이 진행되었다. 바로 '성경 70-700 통독 대행진'이다.(70-700에는 70주년을 기념하여 성경을 700독 통독하자는 목표가 담겨 있다)

아래는 4년 동안 진행된 '성경 70-700 통독 대행진'의 연말 현황과 최종 현황이다.

성경 70-700 통독 대행진 연도별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명)	60	66	82	111
통독 수(회. 누계)	170	215	465	710

84)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은 '교회 사역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5월 어린이 주일에는 아동부 김현희 전도사 기획으로 '드라이브 스루 선물 팡팡'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10월에는 '교구별 오후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70-700 성경통독 (70주년 700독)

(총 인원) : 111명 / (전체 누계) : 710회

신순녀 47	김종찬 12	백수영 7	백원술 4	차경순 3	김인하 1	안영미 1
박민옥 41	김충현 12	이영자 7	임동희 4	현희정 3	김주열 1	우승민 1
안명헌 36	백춘길 12	홍정애 7	정순덕 4	황선신 3	김혜정 1	유수정 1
박현숙 26	김용애 11	김영자 6	최영철 4	김순복 2	김화순 1	윤흥묵 1
기대승 20	정희경B 11	박수연 6	최윤정 4	나은경 2	노한주 1	이무혁 1
이미생 20	신종철 10	박수인 6	최화순 4	손재열 2	민경천 1	이민우 1
백승자 17	우미연 10	안봉준 6	황규호 4	송인재 2	박소영 1	이연자 1
이창봉 17	오인환 10	안현미 6	김만식 3	오계화 2	박예선 1	이연화 1
유충렬 16	전점순 10	장재월 6	김선희 3	오순옥 2	박자경 1	임종숙 1
홍미향 16	지남숙 10	전미옥 6	김양호 3	정슬기 2	박정숙 1	장옥란 1
김종열 15	김종태 9	함남미 6	김연희 3	정우량 2	박정규 1	정 덕 1
이정숙 15	박민숙 9	기지영 5	라희자 3	최원희 2	박주선 1	정이춘 1
조현숙 15	김규식 8	윤명중 5	박은영 3	한상옥 2	박필승 1	정희숙 1
최성순 15	김봉우 8	장은희 5	장춘배 3	홍재완 2	배경만 1	조윤진 1
박광장 13	박순영 8	김덕연 4	전동숙 3	김세진 1	신종우 1	홍현자 1
김후순 13	이영숙 8	박근숙 4	조천길 3	김영례 1	신호선 1	

4년 동안 진행된 ‘성경 70-700 통독 대행진’ 사역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해는 2022년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씨름했다. 새벽기도와 수요 설교를 연대기 성경의 진행에 따라 말씀을 전했다. 사역 가운데 한 번은 성경을 연대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연구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경을 연대기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가졌다.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도 그 설교를 정리해 보면, 실제로 설교 본문이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설교자가 3년~5년 주기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들의 설교 본문이 반복되는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똑같은 말씀으로 열 번도 전할 수 있다. 하지만 설교 본문이 마치 일부분으로 제한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설교 말씀을 편식해서 듣고 신앙생활을 하

는 성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기 쉽지 않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얕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전하지 않는가? 회중이 친숙한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려운 말씀들을 녹여낸다고 핑계를 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해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의 은사 없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힘겨운 사역들을 감당하겠는가! 감사한 사실은 부족하지만 나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골고루 말씀을 전한다는 점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책의 주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음을 파악하고 있기에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하더라도 연구, 주석, 주해의 과정 자체는 매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내놓는다는 자부심이 있다. 물론, 때로는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정말 맛없는 요리일 수 있다. 쓴 재료를 달게 만들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를 섞는다든지, 재료의 색을 빛깔나게 하기 위해서 인공 색소를 섞는다면 진정한 셰프라고 할 수 없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때로는 혀와 눈은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본연의 맛과 영양을 전달한다면 이런 사람이 진정한 쉐프가 아닐까. 최고의 요리를 제공하는 셰프의 심정으로 연대기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매일, 매주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여 전했다. 성도들은 어쩌면 조금 고역의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대형 교회 목회자의 달콤한 식사를 기웃거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설령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겠는가! 목회자가 본인 한 사람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만 진짜라고 믿는 분이 있는 한, 본인을 최고의 셰프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힘겹더라도 이 길을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연대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나누었다. 이처럼 2022년 한 해를 연대기 성경에만 매달리게 된 진짜 계기가 있었다.

'코로나19'가 2021년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지만 2022년까지 지속되었고, 이런 '코로나19'의 여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성경 통독과 함께 2022년에는 '연대기 성경'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개인은 물론, 구역별로, 교회 전체 성경 통독 횟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성도들도 고무되었다. 성경을 읽는 재미 못지않게 성경 1독을 했다고 보고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 2022년에는 연대기 성경으로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생각하며 성경 통독을 하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연대기 성경 통독을 낭독하고자 하는 신청자 10명을 모집하여 연대기 성경 통독을 녹음했다.(녹음 참여자 - 박광장, 백춘길, 김규식, 황규호, 박근숙, 차경순, 정희경B, 박자경, 김용애, 현희정, 정슬기) 처음에는 아래와 같이 의기투합하여 시작하며 이창봉 담임목사, 이정숙 권사가 1회차를 녹음했지만, 2회차부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백춘길 장로, 현희정 집사로 대체하여 매 주일 오후에 녹음이 진행되었다.[85] 매 주일 오후에 기도로 시작한 뒤, 각자가 주어진 분량을 읽어 나가면서 실수가 많았다.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잘못 읽기도 하고, 헷갈려서 줄을 바꾸어 읽기도 하고 쉽지 않은 사역인데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성경 통독 사역에 매진하였다. 성도들은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연대기 성경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통독했다.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연대기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연대기 성경을 각 가정마다 보급했기 때문이다. '연대기 성경 통독'을 처음 기획했을 때, 연대기 성경 없이 성경 통독은 불가능했기에 어떻게 연대기 성경 통독을 진행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교회가 전교인 가정에 한 권씩 보급한다고 해도 최소 150권은 있어야 하고, 권당 42,000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광고 시간에 나누었는데 세 분의 집사(오진호 안수집사, 박순영 집사, 유수정 집사)가 각각 100만 원씩 헌금하기로 작정한 의사를 표시하

85) 통독팀 명단: 김규식, 김용애, 박광장, 박근숙, 박자경, 백춘길, 정희경B, 황규호, 차경순, 현희정 [녹음, 편집: 정슬기, 우미연]

여 나머지 금액은 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150권을 주문 제작하게 되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2022년을 준비하는 정책 당회마저 생략했다. 하지만 신북교회 당회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일념 아래 대형 교회가 비껴갈 수 없는 '코로나19'의 타격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2022년 표어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한 몸 공동체"(엡1:6)로 정하고, 'BELLS LIFE'를 살자고 제안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2021년에 '코로나19'가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한국교회는 안개 길을 걷는 것처럼 헤매고 있었다.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부푼 희망으로 2022년을 힘차게 열어가고자 몸부림친 기세로 호기롭게 2022년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9-2) 필리핀 신북인테리어교회 개척

내부적으로는 70-700 성경 통독을 통한 말씀 운동에 전념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창립 70주년을 위한 선교 정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회는 처음 시작하는 선교 사역이 성공적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무모하게 일을 벌이기보다 실질적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선교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검증되지 않은 선교사와 무리한 선교 사역을 진행하지 않고 신북교회 출신의 선교사 두 분을 1차적으로 선교 대상으로 하여 충분한 논의 끝에 우선적으로 원창영 선교사가 사역하는 필리핀 팔라완을 탐방하기로 했다.

7월 1일(금)부터 7월 8일(금)까지 나와 김규식 장로가 교회의 뜨거운 축복과 기도 속에 필리핀 팔라완으로 선교 탐방을 떠났다. 이하는 김규식 장로가 필리핀 팔라완을 탐방하고 당회에 제출한 선교 보고 자료이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Missio Dei(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슬로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신다."이다. 교회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선교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 이 역사적 증거에 근거하여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앞이 깜깜한 현실에 함몰되어 믿음을 잃지 않고,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선교의 발걸음을 옮길 계획이었다. 이후 선교사역은 꼭지를 달리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하겠다.

2022년 선교 탐방 보고 및 제안서

목 차	내 용	세 부 내 용	비 고
1	방문목적	가. 신북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가 해외 (필리핀 팔라완)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선교센터나 교회 건립에 앞서 사전 답사를 위함. 나. 교회가 세운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교회/센터)** 건립하는 것이 현지 선교사(원창영 목사)와 신북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위함.	
2	방문지역	**마닐라를 경유한 필리핀 팔라완 전지역** (마닐라(1)-푸에르토프린세사(1)-브룩스포인트(1) - 에스파뇰라, 플롯, 인테리어, 나라-푸에르토프린세사(1), 윤영록 선교사 선교센터 방문-타이타이-엘니도(1) - 엘니도와 푸에르토프린세사중간지점(1)- 푸에르토프린세사(1)-마닐라-인천공항)	7박 9일 기내 1박
3	방문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7월 9일(7박 9일/기내 1박)	
4	방문인원	이창봉 목사, 김규식 장로	2인
5	방문결과	**1.푸에르토 프린세사** ● 장점- 현지 선교사에 의한 유지 관리 용이. 기숙시설 확충으로 사역의 확장성 기대. ● 단점- 지가 상승으로 교회 예산 범위 내에선 건립 불가. 소요 예산(최저 6,000만 원 이상)	

목 차	내 용	세 부 내 용	비 고
		2.플롯 인테리어 ● 장점 ▪ 원창영 선교사의 주 사역지 중 한 곳 ▪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이 필요한 곳 ▪ 인접한 곳에 초등/고등학교 두 곳이 있어 전도 용이 ▪ 교회의 필요성 -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한국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전도해도 이후에 보낼 교회가 없음 - 근처에 현지 이단 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있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절실히 요구됨 ▪ 원창영 선교사가 교회 건축 목적으로 구입한 땅이 있음 (230평, 가로 15m*세로 50m) ▪ 단기 선교팀이 가서 협력 사역하기가 용이함 예) **장년** - 지역민들에게 선진 농업기술 이전으로 소득증대 (토마토, 감자, 상추, 오이 등) **청소년** - 현지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나 찬양 집회를 통한 연대 강화로 지속적 교류 ※ K문화(음악, 음식 등)로 주민들과 소통 강화 ● 단점 - 공항에서 자동차로 2시간 30분 거리 다소 먼 곳 ※ **그 밖의 지역은** 팔라완 전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6	소요경비	가. 항공(인천-마닐라 왕복/마닐라-푸에르토 왕복)요금 및 마닐라 1박, 여행자 보험2인, 공항픽업 소계: 2,732,990 나. 항공기 좌석 지정비용 소계: 166,000 다. 항공기 수화물 초과비용 소계: 80,000 라. 인천공항 저녁 식사 소계: 28,600 마. 원창영 선교사 사례금(주유포함) 소계: 500,000 바. 교회 방문 시 베이스기타 헌물 소계: 310,000 사. 교회 방문 시 성찬기 헌물 소계: 80,000 아. 현지 체류비(숙박/식사/음료등7박64식), 코로나검사 원창영선교사를 통해 1차 환전(4만ps) 소계: 1,000,000 2차 환전(3만ps) 소계: 750,000 자. 공항 주차료 소계: 72,000 차. 춘천-인천 왕복도로비 소계: 28,700 **합계: 5,748,290** 카. PS(페소) 현 잔액:1,423(한35,570) -35,570 **총계: 5,712,720**	

목 차	내 용	세 부 내 용	비 고
7	사역제안	**플롯 인테리어 지역에 교회 건립시** 가. 교회 명칭: SamBat Interior Church(샘밭 인테리어 교회) 나. 건축 내용: 교회1동(8m*12m) 사택1동(5m*7m)2룸 기숙사1동(4m*12m)15인 예상 다. 건축 기간: 3개월~4개월 라. 소요 예산: 3,000~3,500만원 마. 관리 및 운영: 현지인 목사 선임 후 원창영선교사와 협력 바. 교회 건축 후 유휴부지에 가축사육과 농산물 재배로 자립화 강화 목표 사. 신북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 운영과 관리의 주체가 아닌 협력 파트너(비법인) ● 선교 후원 - 월 20만원*36개월 하면 자립가능 ● 주기적인 방문으로 Partnership 강화 ● 교회 후원에서 개인 후원으로 유대감 형성 강화 ● 주기적인 방문으로 선교적 마인드 함양 아. SBI Church 기대효과 ● Living Together Church 와 SBI Church 상호간 여름성경학교 및 성경 공부, 수련회캠프운영 ● 인테리어 지역에서 꿈도 비전도 없는 학생들에게 복음전파 ● 성적은 좋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숙사 제공 후, 예배와 기도, 성경공부 등을 통해 크리스천 학생들로 육성 ● SBI 기숙 학생 중 신앙 및 성적우수자를 푸에르토 기숙사로 수직 연결해 고등 및 대학교육까지 기독 청년들로 훈련 ● 필리핀 및 팔라완 지역의 크리스천 리더들로 육성	
8	단기선교	가. 1차 단기선교 ● 일시: 2022년 11월 초 ● 대상: 세계 선교부원 및 중 장년 ● 인원: 8인에서 10인까지 ● 신청: 8월 중 모집공고(항공예매, 코로나 접종 등 변수가 많은 관계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 기타 일정 및 준비 사항 등은 신청한 사람들과 협의 ※ 교회 지원 없음 나. 2차 단기선교 ● 일시: 겨울 방학 중 ● 대상: 청소년 및 청년	

목 차	내 용	세 부 내 용	비 고
		● 인원: 8인에서 10인까지 ● 신청: 10월 중 모집공고 ※ 교회 지원 여부 논의 필요 다. 선교지 방문 시 유의 사항 ● 공항 및 현지에서 카드사용 불가 ● 국내에서 환전 필요(현지서 환전 시 수수료 발생) ● 현지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주의	
9	기 타	가. Living Together Church ● 교회 내부 천장공사 소요 예산 : 1,500,000 (포항 오천교회) ● 기숙사 천정 공사 소요 예산 : 200,000(신북교회목적헌금) ● 신북교회 선교비 : 학생 4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 ● 김규식 장로 선교비 : 학생 4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 ● 현재 기숙사생은 총 8명 나. 기도요청 ●SBI Church에 원창영 선교사와 협력할 현지 목회자 선임을 위해서	

창립 70주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떻게 신북교회 역사에 족적을 남길까 고민하면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역사의 발자취가 되게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 만약에 신북교회 70년이라는 역사 인식이 없었다면 어쩌면 '코로나19'를 핑계 대며 상황 논리에 빠져서 지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왔기에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적잖이 고민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내적으로는 '연대기 성경 통독'이었고, 외적으로는 '선교지 탐방'을 시작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영혼은 타는 목마름으로 가득했다. 차츰 '코로나19'의 마수가 걷히기 시작하자,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9-3) 교회 환경 리모델링

예배는 잘 드리고 싶다고 해서 잘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하는 내적 자질은 물론이요, 외적으로도 예배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신북교회는 2003년에 건축한 교회의 모습을 2022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건물이 20년을 지나면서 점점 불편하고, 시대의 감각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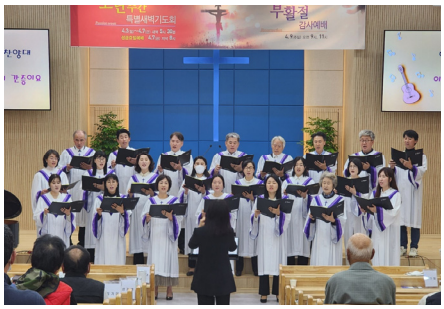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설 문제로 불편함을 겪었다. 성도들은 예배당이 극장식으로 경사진 바닥(계단이 아닌 평면 경사)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찬송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예배 중에 일어서야 하는 순서에도 일어서지 않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찬양팀은 찬양을 부르면서 악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항상 악보대에 시선을 고정하다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마음껏 드려지지 않았다. 예배하는 성도들도 왼쪽 모서리에 설치된 빔 프로젝트의 투영물을 보기 위해 불편한 자세로 찬양을 불러야 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회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명분으로 본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자는 결정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하니 본당의 의자와 기울어진 비탈은 다음 기회에 새롭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을 진행할 경우 경비가 이중으로 들고, 리모델링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 설득하며, 성도들에게 의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제안했다.

이미 상반기(4월)에 교회 앞 잔디 마당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 차례 잔디밭 조성을 위한 헌금(1인 1장 잔디 헌물. 1장 2,000원)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었다. 이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소요 금액보다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 외부를 새롭게 단장하는 데 한마음으로 즐거이 동참했었다.

잔디밭 리모델링 전과 후

하지만 당회는 또 다시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며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당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뜻을 모아 의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직들에게 공개하고 '내가 앉는 의자는 내가 구입하자'는 마음으로 의자 헌금을 드리기로 마음을 모으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헌금은 순식간에 모였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리모델링 역사를 이루셨다.



본당 리모델링 전과 후

정말 하나님께서 신북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시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다. 이런 표현이 결코 빈말이나 진부하지 않은 것은 리

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10월, 11월 두 달 동안 주일 예배가 물댄동산 교육관 1층 식당에서 진행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기에는 좁고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 있지만, 물댄동산 교육관을 건축하던 은혜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소도구인 그 당시 제작된 십자가를 앞쪽에 두고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렸다. 교회가 어수선하고 힘든 시기로 여겨질 수 있는 기간에 더욱 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에 집중하는 영성은 신북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성장 발전케 하는 저력이다. 이러한 힘과 영성을 허락하시고 가꾸어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신북교회 70년의 영광은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영광이기에 당회는 2023년 표어를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 해로 보내기로 계획했다. 이미 2020년부터 계획하여 진행하던 사역들을 꽃피우는 해로 만들고자 새해부터 힘차게 2023년을 열었다. 신북교회 70주년 기념 행사로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된 행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북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2023년까지		70-700 성경통독	2023년 이후		'교회 70년사' 편찬 작업
1월	5일	노회 신년하례식	7월	24-26일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대전 헬몬 수양관)
	8일	신년 감사 축복 예배 (박광식 문화 선교사)		31-8/1일	유치/아동부 여름 수련회 (화천 참빛 기도원)
2월	11일	1회 신북읍 주민 윷놀이	8월	4일	혹서기 상인 위로(샘밭 장터)
	15일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성경 일기 캠프		13일	전교인 탁구 대회
	20-25일	필리핀 단기선교(청소년부)	9월	1-2일	피택자 수련회
	26일	공동의회(항존직 투표)		17일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창립 70주년 감사예배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
3월	7일	신북인테리어교회 기공예배		23일	추석, 사랑의 쌀 나누기

2023년까지		70-700 성경통독	2023년 이후		'교회 70년사' 편찬 작업
4월	9일	부활주일 온가족예배	10월	8일	70주년 전교인 기념사진 촬영
5월	7일	어린이 주일 심쿵 잔치		17일	강원노회(신북교회)
	14일	전교인체육대회 (천전교회와 함께)		22일	70주년 그림 그리기 대회
	21일	선교헌신예배 (리빙투게더교회 MOU 체결)	11월	5일	임직식
	21일	피택자 교육(12주간)		19일	추수감사절 온가족 예배 가족 찬양 대회
6월	23-28일	필리핀 단기선교(아동부)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24일	신북 흠뻑 축제 참가(지역)			
	25일	신북인테리어교회 헌당예배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보고

신북교회 창립 70주년 행사들을 보면, 신앙 공동체의 5W[86]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신북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 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70주년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경험했다. 우리 힘으로는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극적인 역사와 만남 속에서 친히 이루어 가셨다. 신북교회 당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친히 행하시는 행보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따라간 것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수고와 헌신,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일이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각각의 행사를 자세히 서술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교회 사역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예배와 선교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창립 70주년을 감사하며 특별히 준비되는 예배는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월 8일에 있었던 '신년 감사 축복 예배'이다. 박광식 문화 선교사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 극적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색소폰 소리에 맞추어 드리는 온 성도의 찬양은 단순히 목소리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었다. 이전까지는 신북교회 음향 시스템이 노후 되어 참 문제가 많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박광식 문화 선교사가 연주를 하는데 음향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줄은 미처 몰랐다.

동일한 깨달음이 9월 17일에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창립 70주년 감사예배'에서 다시 한 번 있었다. 특별히 이 날은 주일 낮 예배에서 찬양과 설교 말씀을 모두 김정석 목사가 맡아서 했다. 역시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음향 시스템의 위력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

86) ① 교제(Welcome) ② 예배(Worship) ③ 말씀(Word) ④ 섬김(Work) ⑤ 증거(Witness)

함을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너무 많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사람이 문제이지 환경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똑같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나쁜 환경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부재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었어야 했건만 지금까지 이렇다할만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대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예배자로 세우는 사명에, 신북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창립 70주년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중 두 번은 귀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문화 예배였다. 창립 70주년을 감사하며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는 바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식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식은 언제나 벅찬 감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신북교회 창립 70주년에 즈음하여 새로운 출발의 기수로서 새 일꾼이 세워지는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직 예식에서 아쉬웠던 순서들을 좀 더 의미있게 가지고 싶어서 일반적으로 '악수례'를 하는 시간에 십자가 전달식을 겸하였다. 모든 항존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의 마음으로 남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런 바람을 담아서 평소에 기억에 남을 십자가 전달식을 겸하였다. 담임목사인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십자가를 목에 걸면, 임직자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했다. 임직예식을 모두 마치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임직예식에서 처음 보는 순서이지만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은 참으로 의미 있는 순서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때의 고백 때문일까! 지금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과 충성, 봉사에 힘을 아끼지 않은 항존직분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9-4) 필리핀 팔라완 선교 정리

이제 예배와 함께 교회의 기둥인 선교 부분을 더듬어 본다.
필리핀 팔라완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진행했던 선교지 탐방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략하게 진술했다. 지금까지 신북교회에서 진행되었던 팔라완 해외선교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연 도	날 짜	타 이 틀	인 원
2022년	7.1(금)~7.8(금)	팔라완 선교 탐방	이창봉 담임목사, 김규식 장로
2023년	2.20(월)~2.25(토)	청소년부 단기선교	김충현 전도사 외 4명
	3.7(화)	신북인테리어교회 기공 예배	현지인만으로 진행
	5.21(주일)	선교헌신예배 (리빙투게더교회 MOU 체결)	신북교회에서 (이창봉 담임목사, 원창영 선교사)
	6.23(금)~6.28(수)	신북인테리어교회 헌당 예배	이창봉 담임목사, 백춘길, 김종찬 장로 장년 및 아동부 총 15명
2024년	6.8(토)~15(토)	아동부 단기선교	김봉우, 김규식 장로, 김현희 전도사 외 아동부 총 15명

신북인테리어교회 건축 개요 및 후원 내용

건축 개요		후원 내용(원)	
대지	152평	제이 알 목사 선교비(월)	200,000
교회	26평	장학생 10명 지원(월)	200,000
사택	17평	기숙사 운영비(월)	100,000
기숙사	10평	자립 지원(종돈 2마리)	1,000,000
식당, 화장실	10평		
공사비	33,822,000		
추가 공사비	7,000,000		

신북인테리어교회 기공, 건축, 봉헌, 2주년 기념

10)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신북교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섬기기 활동을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전개해 오다가 2012년 2월 '신북기부천사운동' 발족으로 모든 섬김의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신북기부천사운동'은 교회가 이웃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사역에 대해 주민들이나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이장 협의회에서 감사하는 뜻을 전해 오는 일은 있어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교류할 기회는 없었다.

주민들이 교회 앞길을 자주 오가면서도 실제로 교회에 들어와 보기에는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져서 거리감을 가질 수 있는 면도 있었다. 신북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기 위해 교회의 안팎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였다. 교회 외부 환경에서부터 잔디밭의 경계석 높이를 낮추어 누구든지 지역 주민들이 경계석을 넘어와 잔디밭에서 쉬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하

고, 교회 내부 시설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지역의 주민이나 기관단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리모델링 전에도 지역사회 친화적으로 설계했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신북교회 당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지역사회를 찾아가 섬기는 활동은 지속하면서 주민들이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사역을 구상하여 그 첫 행사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지역 주민 초청 윷놀이 대회'를 개최했다. 2023년 2월 11일(토)에 개최한 『제1회 신북읍 주민 초청 윷놀이 대회』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교회의 사회봉사부장이 신북읍 이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연례적인 신북기부천사운동 결산 보고 끝에 신북교회가 주관하는 주민 초청 윷놀이 대회 행사 개요를 설명하고 각 리 단위의 주민 참여 협조를 적극 당부했다. 신북읍 자치 단체나 리 단위에서 주관하는 지역 주민 친목과 단합을 위한 행사는 매년 있었으나 농한기인 정월 대보름 전후에 민속 전통 놀이인 윷놀이로 각 리의 주민들이 연합 친선 활동을 한 것은 신북교회가 주관한 윷놀이 대회가 지역에서 처음이었다.

신북교회는 춘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신북읍장, 각 리의 이장과 윷놀이 대표 선수, 신북읍 자생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를 위해 행사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푸짐한 선물과 점심 식사를 준비하여 섬겼다. 신북교회 역사 이래 신북읍 전역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치른 가장 큰 행사요 축제였다. 윷놀이 대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호응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본당 개회식, 잔디밭 윷놀이, 식당 점심으로 이어진 행사는 지역 주민과 교회가 아름답게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윷놀이 행사에 참석했던 기관단체의 장들을 비롯하여 주민 대부분은 신북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었다. 신북교회가 의도했던 대로 주민과 교회가 친선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교회에 들어와 축제를 즐기며 교회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로 추진하였던 신북읍 주민 초청 윷놀이 대회는 주민들과 교회의 기대가 잘 어우러져 매년 정월 대보름 전후에 실시하는 연례행사가 되었다.

2025 신북 주민 윷놀이 대회

신북교회는 교회의 각종 시설을 개인이나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그 결과 소양강 노인복지관에서 봉사자나 일자리 참여자 교육 장소로 2024년에 6회 764명, 2025년에 12회 2,109명이 이용하여 2년 동안 2,873명이 이용했다. 그 밖에도 신북읍 맥국터 농악 보존회원 10여 명이 매주 2~3회씩 연습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고, 사회봉사 활동 단체나 취미 생활 동아리 등에서 세미나나 활동 장소로 사용하는 그룹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북교회가 지향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해가 갈수록 역할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소양강댐 노인 복지관 교육

11) 항존직분자 임직·은퇴·원로장로 추대

신북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사역에 필요한 항존직분자를 세우기로 하고 당회의 소집 요구로 2023년 2월 26일과 3월 19일에 항존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2회에 걸쳐 개회하고 다음과 같이 직분자를 선택하였다.(3월 19일에 실시한 회의는 임시 공동의회로 2월 26일 회의에서 선택하지 못한 인원 추가 선택)

피택 장로 2명 - 김종태(2.26), 신종철(3.19. 협동 안수집사로 2월 26일 투표에서 안수집사 시무 허락을 받았으나 3월 19일 투표에서 피택 장로로 선택)

안수집사 시무 허락 1명 - 신종철, 윤명중(2.26)

피택 안수집사 6명 - 오진호, 김만식, 노한주, 우승민(2.26)
정우량, 손호성(3.19)

권사 시무 허락 1명 - 정희경B(2.26)

피택 권사 4명 - 안현미(2.26), 박순영, 박자경, 유수정(3.19)

피택 및 시무 허락 항존직분자들은 당회의 교육을 받고, 피택 장로들은 장로 고시에 합격하여 2023년 11월 5일 임직 예식에서 임직 안수를 받고 시무를 시작하였다.

임직 항존직분자 소개

김종태 장로 - 학생회, 청년회 출신으로 교회학교 교사, 부장의 직분을 섬기면서 춘천시찰회 아동부 연합회장 역임

신종철 장로 - 협동 안수집사로 시무 중에 1차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 시무 허락을 받았으나 임시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

윤명중 안수집사 - 안수집사 시무 중에 신북교회로 이명하여 찬양단장과 구역장으로 섬기다가 시무 안수집사 취임

오진호 안수집사 - 부모님에 이어 신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외 선교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섬김

김만식 안수집사 - 모태 신앙으로 군인 교회를 섬기다 2015년 신북교회 등록. 구역 강사 찬양단, 찬양대원 봉사

우승민 안수집사 - 정희숙 집사와 결혼하며 신북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남선교 회원으로 교회를 섬김

정우량 안수집사 - 현희정 집사와 결혼하며 전도를 받아 신북교회 출석. 청년 구역 강사, 재정 회계 담당 봉사

손호성 안수집사 - 신북교회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었으나 새 성전 및 교육관 설계 후 불교에서 개종하고 찬양대원 봉사

정희경B 권사 - 남편 윤명중 안수집사와 함께 신북교회에 이명해 와서 협동 권사로 찬양단 리더로 섬기다가 시무 권사 취임

안현미 권사 - 서울에서 신성교회를 섬기다가 춘천 이주 후 2010년 부모님 인도로 신북교회 등록 후 찬양대, 수요 기도회 반주 봉사

박순영 권사 - 청주 동산교회 출신으로 사업상 샘밭으로 옮겨 신북교회 등록 후 구역장과 구역 강사 섬김

박자경 권사 - 신북교회 유년주일학교 출신으로 중학생 때부터 찬양대 반주를 시작하여 오랜 기간 반주자로 봉사

유수정 권사 - 가업인 춘천 육묘장을 운영하며 육묘장과 가까운 신북교회에 다년간 출석하고 찬양대로 봉사

2023년 12월 31일에 최영철 안수집사와 박근숙, 김후순 권사가 은퇴하였다.

최영철 집사는 1998년 10월 24일 안수집사 안수를 받고 25년 동안 교회의 시설 관리와 구역 강사 등의 사역에 헌신했다.

박근숙 권사는 2004년 5월 23일에 권사 안수를 받고 19년 동안 구역장, 주방 부장 등의 사역에 헌신했다.

김후순 권사는 2004년 5월 23일에 권사 안수를 받고 19년 동안 구역장, 여전도회장 등의 사역에 헌신했다.

70주년 기념 임직 예식

2024년 12월 29일에는 백춘길, 김종찬 장로가 은퇴하였고, 기대승 안수집사와 지남숙 권사가 은퇴하였다.

백춘길 장로는 고등학교 시절 신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1998년 10월 24일에 장로로 장립한 후 26년 동안 당회원으로 섬겼다.

김종찬 장로는 중학교 시절에 신북교회로 이명하여 와서 2009년 11월 22일 장로 임직 후 15년 동안 당회원으로 섬겼다.

기대승 안수집사는 2004년 5월 23일 안수집사 안수를 받은 후 20년 동안 구역 강사, 안내 위원 등으로 섬겼다.

지남숙 권사는 2004년 5월 23일 권사 안수 후 20년 동안 구역장과 권사회장 등을 역임하며 주어진 직분을 잘 섬겼다.

신북교회 당회는 2024년 12월 당회에서 백춘길 은퇴 장로를 신북교회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2025년 1월 공동의회에서 백춘길 은퇴 장로를 신북교회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로 결의했고, 2025년 2월 9일에 백춘길 은퇴 장로에 대한 원로장로 추대

예식을 거행했다.

백춘길 원로장로는 1969년 5월에 신북교회에 첫 발을 들인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북교회에서 성장하며 성가대 창단 대원, 성가대 지휘, 학생회 부장, 안수집사, 춘천시찰회 장로 연합회 회장, 135~136회기 강원노회 부노회장, 108회기 총회 재정부 실행위원을 역임했다.

백춘길 원로장로 추대식

12) 할렐루야 찬양대 재창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이상 예배 활동을 제한당했던 기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보니 찬양대의 조직은 유명무실해졌다.

그 사이에 코로나 이전에 찬양대를 지휘했던 지휘자가 가정 사정에 의해 다른 교회로 옮겨 가고 반주자 사정도 여의치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예배가 정상화된 후에도 신북교회는 찬양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3년 하반기에 할렐루야 찬양대를 재창단의 수준으로 새롭게 조직하였다. 찬양

대장 김종찬 장로, 총무 윤흥묵 안수집사, 지휘자로는 교회음악을 전공하고 오랜 세월 여러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헌신했던 임창호 은퇴 권사를 신북교회의 음악 디렉터 겸임으로 초빙했다. 반주자는 예전의 박자경 권사, 대원으로 소프라노 박수현, 전동숙, 유수정, 홍미향(홍주희로 개명), 조윤진, 안현미, 최원희, 알토 정순덕, 김혜정, 나은경, 안영미, 손재열, 테너 박필승, 백춘길, 베이스 김종찬, 윤흥묵, 손호성, 박수인, 김영진을 임명하여 재출발하였다. 할렐루야 찬양대 재창단 후 첫 찬양으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였던 2023년 10월 8일 주일 예배에 '주와 함께 가리라'는 신앙적 결단을 다짐하는 제목의 찬양을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다.

3년여 동안 찬양대 찬양 없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에 익숙해질 즈음에 찬양의 수준이 완성도가 높아진 데서 오는 감동과 여운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찬양에서 받은 은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신북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 힘입어 신북교회는 꾸준히 성장하며 발전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열어가는 출발점에서 찬양대도 이에 걸맞은 모습으로 교회와 함께 찬양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찬양 세미나를 개최해 찬양대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임창호 지휘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직도 규모와 기능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2023년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기획했다. 찬양대원들은 지휘자의 지도를 따라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제목의 찬양곡집으로 3개월간 정성을 다해 연습해서 소규모 음악회를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의 칸타타와 함께 감사와 영광의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 칸타타가 있는 2023 성탄절 예배는 예배에서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었음을 성도들의 소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었다.

신북교회의 절기 칸타타는 이를 시작으로 부활절과 성탄절에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올려지는 예배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어 2024년 부활절, 성탄절 예배도 칸타타와 함께 온 성도들이 감동과 축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주일과 절기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은 심령 깊이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25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재정비하여 대장에 윤흥묵 안수집사, 총무에 윤흥묵 집사의 아내인 김혜정 권사를 임명하여 신북교회 찬양대 최초로 부부가 대장과 총무로 섬기게 하였으며 소프라노 대원에 소프라노를 전공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차다은 자매를 비롯해 백승자 권사, 홍정애 권사, 이성옥 집사, 알토 대원에 최윤정 권사, 전미옥 권사를 추가 임명하여 찬양대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커졌으며 찬양에 대한 대원들의 수준도 점차 향상해 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휘자가 찬양대를 신앙과 찬양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다 신북교회가 '코로나19' 기간에도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한 만큼 찬양대 자원도 풍부해져서 하나님께서 신북교회 할렐루야 찬양대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뜻을 교회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순종으로 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신북교회 할렐루야 찬양대는 2025년에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꾸준히 성장했다. 부활절 칸타타에 이어서 준비했던 2025 성탄절 칸타타(찬양곡집 - 고요 속의 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결정체였다. 찬양대의 칸타타 찬양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흐르더라는 어느 성도의 고백이 있었을 만큼 찬양대의 찬양은 온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신북교회는 이렇게 2025년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은혜롭게 마감할 수 있었다.

2025년 성탄절 칸타타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로서 찬양대 재창단에 임했던 임창호 권사의 소회와 소망을 글로 받아 옮겼다.

신북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임창호** 권사

할렐루야!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휘자 임창호 권사입니다.

2018년까지 서울 원일교회, LA 나성순복음교회, 춘천동부교회에서 30여 년을 봉사하고 은퇴하였습니다. 2023년 팬데믹이 끝나가는 해 기독음악예술원 춘천분교를 함께 섬겨 오던 신북교회 반주자 박자경 권사로부터 찬양대 지휘 권유를 받은 후 이창봉 목사님과 김규식 장로님으로부터 교회의 비전을 듣고 저로서는 끝난 줄 알았던 찬양대를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70주년의 전환점에 찬양의 기틀을 세우는 데에 디딤돌이 되고자 결심하고 9월 첫 주부터 준비하여 10월 8일 70주년 기념 주일 예배 찬양으로 첫 발을 디

뎠습니다. 예배에 누를 끼칠까 염려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대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지각도 결석도 없이 최선을 다해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임지휘자들과 함께 다져온 저력과 믿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은혜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감동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며 준비하는 모든 대원들의 자세는 지금까지의 어느 교회보다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며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대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침서입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음악으로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노력한다.
2. 매일 영적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임한다.
   (음악회의 연주나 발표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휘자로서 기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영적 지도하에 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모든 성도들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예배 찬양뿐 아니라 선교 활동, 교회음악 교육활동, 특별음악행사를 통하여 품격 있는 교회로 발전하는 찬양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 김익보 원로장로 소천(召天)

1960년대 중반에 신북교회로 전입해 와서 교회의 어려웠던 시기에 함께하며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익보 원로장로가 2024년 6월21일 향년 99세로 소천했다.

1971년 장로 장립 후 1997년 은퇴와 함께 원로장로로 추대 되기까지 26년 동안 신북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소천하기 전까지 교회에 출석하던

김익보 장로는 노년에 노환으로 병석에서 자녀들의 수발을 받다가 2023년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전 교인 사진 촬영에 함께한 것을 마지막으로 교회 출석을 못하였고 기념 촬영 후 8개월 만에 소천했다.

故 김익보 장로의 활동 상황은 1990년대의 '김익보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난의 소개로 갈음한다. 故 김익보 장로의 장남 김종찬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 가문에서 3대째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였다. 김익보 장로는 생전에 '내가 고향인 평안도에서 혈혈단신으로 월남해서 갖은 고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되뇌었다. 2024년 6월 24일에 신북교회 예배당에서 교회장(葬) 및 강원노회장(葬)으로 모셨던 故 김익보 원로장로 천국환송 예배에서 신북교회 성도들이 김익보 장로의 숭고했던 삶과 헌신을 기리며 김익보 장로에게 올렸던 추도사를 싣는다.

추 도 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이 땅에 지으심을 받으시고 99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故 김익보 장로님.

병석의 오순옥 권사님과 아들, 며느리를 비롯한 자녀 손들의 극진한 간호를 뒤로 하신 채 영혼의 하늘 소망을 이루시고 무너진 육신만이 이 자리에 누우셔서 저희들을 맞으시는 장로님, 작년 10월 전 교인들과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진을 함께 찍으신 것이 교회에 마지막 발걸음이 되셨으며, 오늘 이후 장로님을 이 땅에서 다시 뵐 수 없음에 저희들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합니다.

장로님께서 평생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신북교회에서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 일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은 알지만 헤어짐의 아픔과 슬픈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음은 저희들이 장로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희들도 장로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셨을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기에 그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겠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나시고 6.25 전쟁과 그 와중에 집안의 막내아들로서 부모 형제와의 생이별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역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장로님께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품으시고 통일과 가족 상봉의 소망이 누구보다도 간절하셨을 텐데 이 땅에서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셨으니 꿈에도 그리시던 가족 상봉의 소망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시고 통일의 소망도 곧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40대 중반에 신북교회 초대 장로로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일념으로 하나님과 신북교회를 충성의 본으로 섬기셨던 김익보 장로님, 신북교회가 오늘까지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한 김익보 장로님의 헌신이 초석이 되었기 때문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바로 옆의 구 성전을 건축할 당시 성도들이 가정생활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시절에 성전 건축을 앞장서서 이끄시며 일꾼들과 섞여 땀 흘리셨던 장로님, 지원받은 군용 트럭으로 산천리 냇가에 가서 신축 성전 바닥에 쓸 돌맹이를 청년, 학생들과 같이 나르시거나, 장로님네 경운기로 배후령 기슭에 올라 새 성전 울타리 조성에 쓸 어린 노간주나무를 캐다가 옮겨 심던 일을 장로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은 아련한 추억이라기보다 성도가 교회 일을 어떻게 충성으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변변한 교육 시설이 없었을 때 장로님네 사랑방은 학생회원들의 모임 전유물이었으며 먹을거리도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학생들의 믿음은 그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했었습니다. 추위가 매섭던 성탄의 계절에 장로님네 비닐하우스는 성탄절 소품을 만들기에 얼마나 아늑하고 따스했었던지요. 그 사랑방과 비닐하우스에서 북적이던 어린 것들이 성장하여 목사와 장로가 되고 집사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그러한 희생과 섬김의 헌신은 신북교회의 70년 역사에 밑거름과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위해 장로님을 그렇게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당회에서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하시거나 직분을 감당하실 때 마음 상할 일도 많으셨겠으나 장로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심으로 장로가 교회에서 지켜야 할 자리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후배들도 장로님처럼 교회를 꿋꿋하게 지키며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진으로 밖에 뵐 수 없는 故 김익보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다복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서 고향에 두고 오신 가족들을 그리워 하시며 가정을 이루시고 자

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실 때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시며 아끼셨을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장로이셨던 아버님의 대를 이어 아들에게까지 장로의 직분을 3대에 걸쳐 이어가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저희들은 알기에 이 땅에서의 장로님 인생과 가정은 축복 그 자체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버님으로 할아버님로, 믿음의 선진으로 장로님을 존경했으며 사랑했습니다. 집안과 교회에서 장로님의 빈 자리가 크겠지만 장로님께서 그 동안 뿌리

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열매로 그 자리를 채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례를 이어가 장차 그 나라에서 장로님을 반갑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히 가십시오.

2024년 6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교우 일동

14) 집필을 마치며

(14-1) 모호함이 주는 여백의 미

처음에는 신북교회가 세워진 1953년부터 2025년까지 '72년의 역사'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빛바랜 달력을 벽에서 떼어 내듯 '72년의 역사'를 그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으로는 오랜 숙원을 풀어내는 듯해서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면면히 흐르는 신북교회 역사를 교회사 편찬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딱 '72년의 역사'로 재단하기에는 모호한 구석이 많다.

네시베 카흐라만이 쓴 책, 「인생의 모호함에 관하여」 머리말에 나오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다.

나는 인간의 말이 너무 무섭다.
그들은 모든 것을 너무 명확히 말한다.
이건 '개'고 저건 '집'이며,
여기가 시작이고 저기가 끝이라 한다.

나는 인간의 이성도 조롱 섞인 장난도 무섭다.
그들은 미래도 과거도 모두 안다 하고,
그들에게는 이제 그 어떤 산도 신비롭지 않으며,
그들의 정원과 재산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나는 늘 경계하고 막으리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사물의 노래를 기쁘게 듣는다.
너희 인간의 손이 닿는 순간, 사물은 굳어버려 노래를 멈춘다.
너희는 결국 나의 모든 사물을 죽인다.

이 시가 72년사를 마무리하는 복잡 미묘하고 모호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준다. 글 쓰는 작업을 마치는 모호함을 어찌 설명할 수 없지만 모호함이 여백의 미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기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AI의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일까? AI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 질문을 하고, 무엇인가 정보를 요구하면 AI는 그때그때마다 검색된 정보를 요약 정리해 줄 뿐이다. 물론, AI도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의 맥락을 파악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를 '기억'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억은 지(知), 정(情), 의(意)라는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이다. 지적인 이해, 정서적인 공감, 의지적 결단이 함께 어우러진 '기억'을 AI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2016년부터 시작한 본인의 사역은 제외하고 지금까지 써내려온 신북교회의 역사를 AI에게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AI는 엄청난 분량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해 줬다.

신북교회 72년 역사 핵심 요약

1. 역사적 배경 및 태동 (1950년대)

신북교회는 2천 년 전 고대 맥국시대의 생활 주거 공간이었던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이권신 권사가 마을 공회당에서 아이들을 모아 예배를 드린 전도 모임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차광훈 군목과 김용수, 이영선 집사 등의 헌신으로 미군 부대에서 구한 12평 천막에서 1953년 10월 7일 신북교회가 공식 창립되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어린이 전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1957년에는 서울 남대문교회의 지원 등으로 목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2. 연단과 헌신의 여명기 (1960년대)

1960년대는 잦은 교역자 부재로 인해 교회가 정체기를 겪었던 연단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박석원, 이영선 집사 등 소수의 평신도 직분자들이 강단을 책임지며 교회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후 1967년 정삼조 전도사가 부임하여 안정을 찾았고,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 봉사와 헌금을 바탕으로 1969년 40평 규모의 세 번째 예배당(벽돌 구조)을 신축하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안정적 성장과 부흥의 시기 (1970~1990년대)

1970년대 초, 박우만 목사가 부임하여 예배당을 봉헌하고 신북교회의 첫 위임목사가 되며 조직 교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어서 1973년 부임한 제9대 김은일 목사는 24년간 장기 시무하며 교회의 대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김 목사는 온유한 성품으로 '심방 목회'와 '전도 목회'에 집중하였으며, 이 시기 교회는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2.5배 증가하고 재정 수입이 약 7배 증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교회학교와 학생회가 크게 부흥하여 다수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4. 새 성전 건축과 다음 세대 비전 (2000년대)

1998년 김지한 목사 부임으로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찬양단을 창단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2002년 부임한 조덕준 목사는 청년·학생

사역과 제자 훈련에 각별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교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창립 50주년 기념 새 성전을 2004년에 완공 및 입당하였으며, 이 성전은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담을 허물고 잔디 마당을 갖춘 친근한 형태로 건축되어 지자체로부터 건축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덕준 목사는 목회에 헌신하던 중 2010년 55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소천하였습니다.

5. 지역사회 섬김과 영적 성숙 (2010년대)

2011년 부임한 이석진 목사는 '섬김과 나눔'을 비전으로 삼고, 2012년 '신북기부천사운동'을 발족했습니다. 이 운동은 신북읍사무소 및 이장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소외 계층과 학생들을 돕는 대표적인 지역 복지 사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5년 부임한 조현석 목사는 '주의 임재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말씀과 기도의 본질 회복에 목숨을 걸고 목회에 임했습니다. 새벽마다 피를 토하듯 설교하며 헌신했으나, 부임 13개월 만인 2016년 새벽 기도 인도 중 강단에서 쓰러져 소천하며 성도들에게 큰 영적 울림과 헌신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결 론

신북교회의 72년 역사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그리고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담임 교역자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천막에서 시작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등대이자 나눔의 요람으로 성장한 신북교회는, 모든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기도로 세워주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신북교회의 '72년 역사'라고 하지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본인의 '10년 사역'에 대한 요약은 없다. 왜냐하면, 2016년 이후의 10년 이야기를 자료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2016년 이후의 사역은 또 다른 이를 통하여 다시 써야 하리라.

만약 AI에게 본인의 10년 사역을 정리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2016년 부임한 이창봉 목사는 2018년 물댄 동산 교육관 건축과 함께 물댄 동산의 비전을 제시하며 예배와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영성을 더하여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사람이 드러나거나 주목을 끌지 않는 군더더기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힘썼으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비전 트립 차원의 선교를 한 단계 높여 실질적으로 필리핀 팔라완 현지 교회(신북인테리어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교사역을 진행하며 그 지평을 넓혀가며 제2의 부흥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14-2) 신북교회 72주년 감사 이야기 예배

신북교회 70주년을 맞이하여 2023년 교회창립기념일에 '신북교회 70주년 감사 이야기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이야기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할 역량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햇수로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야기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을 만나게 하셨다. 민간 방송국에서 PD로 오래 동안 일하신 김동규 집사를 2025년 1월에 알게 되면서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극적으로 2025년 교회창립주일에 '신북교회 72주년 감사 이야기 예배'[87]를 드리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무슨 예배냐,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토크쇼이지'라고 여기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형식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예배 신학에 근거하여 인간적인 재미나 흥을 돋우는 쇼에 그치지 않도록 예배 콘티를 작성하여 품격 있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신북교회 72주년 감사가 있는 이야기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이다. 비록 형편에 맞지 않고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세우면

87) https://www.youtube.com/watch?v=qL8uphbkacM&t=4336s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친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72주년 감사 이야기 예배

그렇다. ‘신북교회 72년사’를 편찬하게 된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유이다. 비록 뜻을 이룰 역량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세운다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뜻을 받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의 삶의 향연이 ‘신북교회 72년사’이다. 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과 땀의 주인공들 이름을 불러 가며 좀 더 자세하게 쓰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모호함으로 끝을 맺지만, 이 모호함을 여백의 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잘 알기에 이 즈음에서 조용히 붓을 내려놓는다.

II

이야기

1. 믿음의 대화
2. 신앙의 여정
3. 은혜의 간증

Ⅱ 이야기

1. 믿음의 대화

1) 이영선 은퇴 장로님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14:00 ~ 16:00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이영선 장로님 자택
대 담 : 이창봉 목사, 백춘길 편찬위원장
정 리 : 백춘길 편찬위원장

백춘길　이영선 장로님,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선　신북교회를 처음 세울 때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70년이 지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주시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백춘길　장로님 감사합니다. 신북교회가 올해 창립 72주년을 맞아 역사책을 편찬하면서 이영선 장로님께서 상주에 사신다는 소식 듣고 교회의 옛날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목사님과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아직도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참 좋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영선 실제로는 1928년생으로 98살인데 호적에는 1919년생으로 돼 있어요. 일제 치하 시대에 나이를 올려 신고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봐요. 후년이면 백 살인데 아직 아픈 데가 없고 병원에도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백춘길 장로님,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북교회 창립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창립에 참여하시기 전에 신앙 생활하셨던 얘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영선 내가 이북의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나고 자랐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는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해방이 되고 공산 치하에서도 교회에서 찬송 인도도 하고 필요할 때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이북이 공산당 세상이 돼서 공산당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나도 공산당한테 감시를 받다가 1950년에 전쟁이 나고 그해 12월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자유를 찾아 월남했지요. 그리고 피난 다니다가 신북면 샘밭에 자리 잡고 살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이 살려 주셨어요.

백춘길 그러셨군요.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신북교회 창립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이영선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했는데 그때 우리 집 앞에 살던 차광훈 목사님을 알게 됐고, 목사님은 군목으로 2군단 중령이었어요. 알고 보니 나하고 같은 평안도 사람이라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차광훈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군단장님께 말씀드려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해 보라고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군단장을 찾아갔지요. 그때는 별이 두 개더라고요. 샘밭에 교회를 하나 지어 달라고 부

탁했더니 자기는 군인이라 언제 떠날지 몰라서 직접 짓지는 못한 대요. 그래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천막을 구해서 교회를 세우고 차광훈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본 게 신북교회의 시작이에요. 전쟁 후였지요. 천막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썼어요. 그때는 내가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이창봉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월남하셔서 얼마 안 됐을 때이고 전쟁 후였는데 돈을 많이 버셨다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영선 장거리에 있는 국민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했어요. 문방구와 도매업을 했는데 군인들이 많았고, 학교, 면사무소 등에 납품하면서 그 외에도 도배지, 과자, 사진, 잡지 등 여러 종류를 팔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요.

이창봉 그래서 다들 어려운 시기에 교회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으셨겠군요? 교회 연혁에 의하면 차광훈 목사님이 신북교회 창립 목사님이시고 이건신 권사님이 함께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창립 예배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영선 차광훈 목사님이 창립 목사님 맞아요. 군목이면서 설교를 많이 해 주셨어요. 창립 예배를 드릴 때 함께했던 이건신 권사님은 우리 집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서울 사람이었는데 자식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동생이 식당을 운영했어요. 이 권사님이 장거리에서 전도 활동할 때 모였던 사람들 하고 문정리에서 몇 명, 우리 식구들과 군인, 항공대 비행 조종사 등 여러 명이 천막 교회에서 예배를 보게 되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었어요. 그래도 천막 교회가 비좁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지요.

이창봉 창립 예배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차광훈 목사님은 군목이시니까 민간 교회 관여를 직접 못하시고 초대 담임 교역자로 장

기택 전도사님을 모셨더군요.

이영선 그랬어요. 장기택 전도사님은 나하고 두 살 차인가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었어요. 전도사 하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랬지요. 내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전도사님 숙식도 무료로 제공하고 그랬어요. 한 일 년 있다가 갔어요.

백춘길 교회를 세우시고 신북교회 제1호로 세례를 받은 분이 김용수로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장로님은 세례를 언제 받으셨었나요?

이영선 김용수가 맞을 거예요. 나는 이북에서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으니까 월남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김용수는 그때 나보다 아래 나이의 청년이었어요.

백춘길 교회 초창기 기록을 보니까 교회에 서리집사님들을 세 분 세우셨더군요. 이영선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박석원 집사님이 신북교회 초대 서리집사님들이셨지요?

이영선 교회를 세우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웠지요. 집사 중에 내가 나이가 가장 많았고, 천막 교회를 세울 때부터 열심이었으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강단이 비었을 때는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 두 집사들이 내 말을 잘 따르고 서로 열심히 했지요. 나는 장사를 했고 둘은 미군 부대에 다녔던 걸로 기억해요. 김용수는 지병이 있어서 일찍 죽었다고 들었고, 박석원은 장로까지 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순수하게 열심히 충성했던 일꾼들이었어요.

백춘길 그 당시에 담임 교역자들이 자주 바뀌셨더군요.

이영선 신북교회 오셔서 2년도 못 있다 가시곤 했어요. 생활비도 못 드릴 교회 형편이었으니 오래 계시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였지요. 그러니 집사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꾸려가야 할 때가 많았지요. 교역자는 없어도 성도들이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교회 돌보는 일을 내 집 일하듯이 했으니까요.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백춘길 1954년 주일학교 일지가 아직 남아 있어서 살펴봤더니 유년주일학교 교장까지 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더군요. 주일학교 조직에 서기 김춘식, 회계 김용수, 반사에 권석규, 정유호, 김해봉, 이정자, 박민옥의 이름들도 보이던데요.

이영선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교장을 하기에는 자주 바뀌니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교장을 하고 반사들 여럿이서 가르치느라고 고생하면서도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사랑말에 살던 이정자, 박민옥이 기억나네요. 둘이 다 처녀였었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때 배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했을 거예요.

백춘길 유년주일학교 1회 졸업생 명단이 있어서 봤더니 이재원, 박민수, 정차남 등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북교회 교회학교 반사를 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더군요. 이재원 목사님이라고. 이재원 선생에게 배웠던 박민재가 커서 또 목사가 되고 그랬더군요.

이영선 맞아요. 교회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해서 목사가 됐지요. 교회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지요. 이재원 목사는 요즘에도 연락이 와요. 나한테 전화번호도 있고. 목회 열심히 하고 은퇴했다고 들었어요. 박민재도 국민학교 선생 아들인가 그랬는데 잘 됐다고 들었어요.

백춘길 천막 교회에서 목조 교회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있겠지요?

이영선 교회가 천막이니까 아주 불편했었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넓혀야 했어요. 열 평 조금 넘는 공간에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넓힐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마침 산천리에 마을 공회당을 판다고 내놨대서 그걸 사고 목수를 사서 헐어다가 조립해서 지었지요. 천막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거리 길옆에 땅을 마련해서 기와까지 옮겨 와서 지었어요. 종탑은 나무 기둥으로 세웠고요. 돈을 주고 집을 사서 헐어다가 짓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짓는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요. 교회에 돈이 없으니 들어가는 돈을 거의 내가 다 내다시피 했지요. 장사는 계속 잘 됐었습니다.

백춘길 교회 연혁에 의하면 남대문교회에서 12,000원을 지원받았다고 돼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영선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저 필요한 대로 내 돈으로 썼던 기억만 납니다. 천막 교회에서부터 나무로 지은 교회까지 다른 사람이 지었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랑 다른 얘기여서 섭섭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신북교회에 사용하신 것은 감사할 일이었어요.

이창봉 장로님, 신북교회는 어떻게 떠나게 되셨습니까? 떠나신 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영선 내가 시내에다가 양복점을 내고 총판까지 운영하게 돼서 사업을 위해 시내로 나갔어요. 그때도 아이들은 신북교회에 나갔었지요. 교회는 소양로에 있는 소양성결교회로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도 신북교회에서처럼 충성스럽게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안

돼서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서른일곱이었을 거예요. 그 후에 장로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일했더니 총회에서도 유명해져서 총회 석상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출세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양복점은 동업자가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도로 내려가서 장로 신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역할을 하며 목회를 했어요. 이북에서부터 설교에 대한 달란트가 있었나 봐요. 신북교회에서도 전도사나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장로인데도 설교를 부탁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김천에서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다가 교회를 깨끗하게 짓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지은 거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은 은퇴해서 이렇게 삽니다.

이창봉 장로님 평생은 교회와 복음 사역에 헌신하신 삶이셨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고 천국의 상급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장로님, 장시간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서 신북교회 역사책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북교회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신북교회가 큰 교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듣게 되네요. 참으로 내가 그 교회를 세우느라고 많이 고생했지만 지금 와서는 큰 보람이 됩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계속 평안하여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이 되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백승욱 원로장로님

일 시 : 2025년 7월 10일(목) 14:00 ~ 16:00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백승욱 원로 장로님 자택
대 담 : 이창봉 목사, 김규식 장로, 백춘길 편찬위원장
정 리 : 백춘길 편찬위원장

백춘길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신북교회에서 2006년에 은퇴하신 후 청평에 계실 때 뵙고, 대구에 오신 다음에는 못 뵈었습니다. 장로님과 윤계월 권사님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백승욱 반갑습니다. 신북교회에서 잊지 않으시고 이창봉 목사님과 백 장로님, 김규식 장로님, 그리고 사모님과 권사님들께서 먼 길인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군요.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백춘길 장로님, 죄송합니다. 먼 길이기는 하지만 자주는 아니라도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샘밭 토박이셨는데 대구에까지 내려오셔서 사시는군요.

백승욱 오가는 일이 쉽지 않은 거리이지요. 신북교회 생각 자주 했었고 생각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가볼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민경천 장로님이나 박광장 장로님 포함해서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겠지요? 대구에 와서 살게 된 거는 우리 종완이가 경주에 터를 잡고 살아서 가까이 사느라고 내려왔어요.

백춘길 예,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교회가 늘 평안합니다. 김익보 장로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은퇴하신 지가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권사님도 그러시고 매우 건강해 보이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백승욱 김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 일 참 많이 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아직 내외가 건강하게 지냅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데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도님들과 즐겁게 지내고, 나이가 좀 들었다고 교회에서 잘 대우해 줘서 참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평일에는 이 주변이 운동하기가 좋아서 나가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고, 내가 하모니카 부는 재주가 있어서 노인네들 있는 데서 한 번씩 불어 주면 그렇게들 좋아하셔서 그런 재미로 살아요. 다만 귀가 잘 안 들려서 그게 좀 불편해요. 우리 윤 권사가 통역을 잘해 주지요.

백춘길 장로님, 신북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시게 되셨으며 천막 교회 시절과 당시 이영선 집사 등 교인들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백승욱 신북교회는 30살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북교회에서 70세에 장로로 은퇴했지요. 교회 출석하기 전에 천막 교회에 '회개하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어요.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회개하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문구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아마 주님께서 부르신 거겠지요. 교회에 출석하고 얼마 있다가 세례를 받고 6개월 만에 서리집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남자 일꾼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영선 집사님 생각이 나지요. 이영선 집사님은 이북에서 월남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이 많고 찬송도 잘하셨어요. 신북교회 창립 멤버셨고요.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에 교회 일을 많이 하셨어요. 목조 교회로 옮기고 생업을 위해 교회를 떠나셨지요.

이창봉 당시의 교회 상황을 기억 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백승욱 성도들이 얼마 안 됐지만 믿음이 진실했고 정성도 대단했어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10원짜리 지폐나마 다

리미나 인두로 다려서 드릴 정도였으니까요. 목회자도 셋방살이를 살아야 했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어요. 사택에 비가 새서 이엉을 엮어 지붕에 올라가 수리했던 기억이 나고, 십시일반으로 돕고 살자는 뜻에서 쌀을 모으는 성미를 주도했던 기억도 나네요.

이창봉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1969년에 교회를 새로 지으실 생각들을 하셨고 실제로 벽돌조 교회를 건축하셨더군요.

백승욱 장거리 목조 교회가 시장통이라 시끄럽고 건물이 낡아 비가 새고 여기저기 썩은 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수리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김익보 장로님(당시 서리집사)의 제안으로 더 넓은 터로 옮겨 짓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당시에 땅 등기 문제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진행했습니다.
1969년 봄에 건축을 시작해서 5개월 만에 준공했어요.

이창봉 40평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고 그 기간에 건축비나 자재, 인력 등을 조달하느라 어려움도 많았겠지요?

백승욱 그래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교회 건축에 가장 많이 필요한 벽돌은 교인들이 다 직접 찍어서 썼어요. 모래는 미군 부대(캠프페이지)에서 지원한 트럭을 이용해 교인들이 강가나 개울에 가서 퍼 날랐고, 시멘트는 시내 중앙로에 있었던 김정하 장로님 철물점에서 급할 때는 외상으로 조달해서 썼어요. 목수 품삯은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조금씩 주며 어렵게 공사를 했습니다. 웬만한 잡일은 성도들이 노력 동원으로 메꾸었어요. 벽돌을 찍어서 말릴 때 학생들이 자주 와서 물을 뿌리고 했으니까 전 교인들이 동원돼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북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이창봉 그래도 당시에 집사님들이 열 명 정도였던데 집사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겠지요?

백승욱 그래요. 당시에 김익보 집사님을 중심으로 박석원 집사님, 백봉운 집사님, 나, 그리고 민경천 집사님 등이 일을 많이 했지요. 힘들기는 했지만 기쁨으로 교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성전이 완공되어 갈 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에 감격하기도 했었지요. 그 때가 참 순수하고 좋았어요. 성도들 훈련이 많이 됐지요.

백춘길 성전 준공 1년 후인 1970년에 성전 봉헌예식과 제34회 강원노회 개최까지 교회가 감당했더군요. 성전 건축 부채가 적지 않았을 테고 노회를 2박 3일씩 진행했던 때니까 노회원 숙박 문제도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백승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제직들이 얼마 안 되는 교회 사정으로 건축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위해 일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한 대로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부채 해결을 위해 기도 많이 했고 성도들이 헌금들도 열심히 했어요. 김익보 집사님이 건축비를 외부에서 지원받는 일에서부터 부채 해결에 많은 역할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할 때 일꾼들을 보내셔서 사용하셨어요. 성전 봉헌과 함께 강원노회를 유치해서 개최했는데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노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봉헌한 일은 감격스러웠습니다. 노회를 개최하자니 자리도 부족하고 장의자가 필요해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의자를 사서 20개를 채웠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숙박 여건도 부족해서 여관 대신 성도님들 가정에다 모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노회를 잘 치를 수 있었어요.

백춘길 교회의 상징인 종탑에 얽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종탑에 대한 이야

기를 듣고 싶습니다.

백승욱 최언년 집사님이라고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노년에 남의 집 일이나 빈 병,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유산으로 남은 쌀 등을 판 돈으로 교회의 종탑을 바꾸자고 교회에서 결정해서 전쟁 부산물이었던 포탄 피 종탑을 철골 구조 종탑으로 바꿔서 지금도 교회에 서 있을 겁니다. 최언년 집사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셨던 분이셨지만 종탑으로 교회에 그 이름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창봉 장로님 시무하시면서 김은일 목사님과 함께 김익보 장로님, 민경천 장로님 이렇게 네 분이 당회원으로 20년 가까이 헌신하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서리집사 시절에도 일이 많으셨겠지요?

백승욱 제가 당회원이 되기 전 서리집사 시절에 교회 건축에 참여하고, 박우만 목사님과 이종국 강도사님을 거쳐 김은일 목사님이 오시고 4년 후에 위임이 되셨는데 목사님께서 군인으로 퇴직하셨으나 자녀가 다섯이나 되고 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습니다. 목사님 부임 후에 교회가 점차 안정 돼 가고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해서 위임이 되셨습니다. 교회 형편상 사택도 넓혀 드리지 못했었는데 위임 전에 20평 사택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회원으로 일할 때는 애환도 많았으나 당회원 모두가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성격이나 성향이 서로 다른 면이 많았지만 김익보 장로님이 선임으로 장로 세 명이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크게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김은일 목사님께서 존경받으실 만한 성품과 인격으로 솔선수범하시며 교회를 섬기신

사역에는 같은 당회원으로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창봉 김은일 목사님 후임이셨던 김지한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교회를 떠나실 때 선임 장로로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백승욱 그랬었지요. 그때는 담임목사님께서 임시 목사로서 위임목사에 대한 기대가 크셨으나 당회에서는 선뜻 그 기대를 충족해 드릴 수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었지요. 결국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교회를 개척해 떠나셨는데 가실 때 제가 그랬어요. 성도를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도 자신이 부임해서 등록한 몇 명만 데리고 개척해 나가셨지요. 그때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 주셨어요. 교회에서는 개척을 지원하며 목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잘한 거였어요.

이창봉 조덕준 전도사님을 담임 교역자로 모실 때 춘천시찰회나 노회에서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다면서요? 주일 예배 시간에 선임 장로의 역할도 있으셨을 테고요.

백승욱 노회와 시찰회에서 “왜 신북교회 정도에서 전도사를 담임으로 모시느냐”며 반대했습니다. 제가 시찰회와 노회 임원회에 찾아가 “우리가 모시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눈물로 항의하고 싸워서 관철시켰습니다. 시찰회와 노회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교회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담임 교역자가 전도사 신분이라 주일 예배 인도를 장로가 해야 해서 선임인 내가 찬송가 인도를 위해 사전에 몇 번이고 불러 보며 준비했던 기억이 있고, 전도사는 광고나 축도를 할 수 없어서 장로인 제가 광고를 해야 했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꼼꼼히 읽고 또 읽어서 준비를 단단히 했었습니다.

김규식 새 성전 건축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현재 교회 건축 터(부지)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백승욱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부지 선정을 위해 여러모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익보 장로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비닐 하우스 농사를 지으시던 땅을 매각하시기 위해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고 넓이도 괜찮아서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1,500평을 매입했는데 평당 가격은 김 장로님께서 부르신 가격 그대로 한 평에 180,000원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규식 새 성전 건축하실 때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셨는데 설계나 건축비 관리, 건축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백승욱 건축위원장으로서 건축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번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건축하다 보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은 신협의 비과세 통장을 활용해 이자 수익이 높은 쪽으로 관리했습니다. 설계는 손호성 설계사에게 맡겼는데 설계사의 의견과 건축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본당의 바닥을 경사지게 설계한 것은 뒷자리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은 제가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위원장은 청탁이나 변경 등에 대한 요청이 있어도 결정된 대로 한다면서 막아내며 원칙을 지키는 일에만 충실했고, 건축 실무는 박광장 장로님에게 맡겼습니다. 박 장로님이 실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걱정 없이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박 장로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조덕준 목사님과 성도들이 새 성전 기공에서 봉헌까지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 특별기도를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건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규식 장로님의 꼼꼼하시고 빈틈없는 성격은 교회에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교회 일 하시기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그리고 노회에서도 회계를 거쳐 부노회장까지 역임하셨지요?

백승욱 저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무엇이든지 꼼꼼하게 해야 직성이 풀렸지요. 교회 일은 꼼꼼하고 정확하면 문제 될 것이 없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셨겠지만 틀림은 없었으니까요.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일들이 정직하고 분명하면 하나님께나 성도님들께 부끄러울 게 없었지요. 노회 일도 똑 같아요. 부노회장, 회계, 재정부장, 고시 출제 위원 등 중요한 일은 다해 봤습니다. 고시 출제 때는 보안을 위해 백춘길 장로에게 타자 치기를 부탁해서 했을 정도로 철저히 했습니다. 총회 총대로 총회에 가보니 엉터리가 많아 실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백춘길 벽돌조 교회 건축할 때 담임 교역자가 정삼조 전도사님이셨는데 건축을 끝내고 교회를 떠나셨더군요. 전도사님과는 계속 소식을 주고 받으셨다고요?

백승욱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수고가 많으셨는데 새 성전에서 사역을 못 하시고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셔야 했어요. 양구 어느 교회로 가실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에도 소식은 오고 갔었고 충청도에서 목사 안수받으실 때 교회에서 축하 패를 만들어서 제가 대표로 직접 안수식에 찾아가 전달했습니다. 거제도에서 소천 직전에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에 찾아가 '옛날에 제가 부족해서 잘못해 드려 죄송하다'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목사님이 손가락을 움직여 반응하셨습니다.

백춘길 장로로 일하시면서 어려운 일 등 여러 일이 많으셨을 텐데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요?

백승욱 교회 일 다 그렇지요, 뭐. 쉬운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무조건 사심 없이 충성으로 섬겼다고 생각해요. 장로가 돼서야 넥타이를 맬 일이 생겼어요. 평생 넥타이 맬 일이 없었으니 농사짓느라 넥타이를 매 봤나, 밤새 거울을 보고 혼자 연구해서 매는 법을 터득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혼자 노력해서 해결했지요. 나중에는 노회 갔을 때 일부러 김익보 장로님 넥타이도 자신 있게 매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백춘길 김익보 장로님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선임으로 모시고 같이 일하실 때 어떠셨어요?

백승욱 조금 욱하는 성격은 있으셨지요. 그러나 교회 일하는 데 장점이 많은 분이셨어요. 한 마디로 대외 활동에서나 헌금 등 교회 사역에 늘 앞장서는 교회의 대들보셨지요. 추진력도 대단하셨어요. 민경천 장로님과 저는 잘 도와드리려고 애썼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김 장로님은 꼭 필요했던 분이셔서 저는 실무를 챙기며 형님처럼 모시고 협력했었습니다.

김규식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윤계월 권사님과 계속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북교회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욱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신북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이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옛날 생각을 해보니 교회에 남은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온 제직과 성도님들, 이렇게 그때 사진을 보니까 이름을 한 번씩 다 불러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저 온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 형편 처지가 어렵지 않게 우리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다 부흥 발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창봉 목사님을 처음으로 뵙습니다. 이 목사님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오니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드려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생활 잘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저 천국에서 같이 함께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신북교회 성도 여러분께 예수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박민옥 은퇴 권사님

일 시 : 2025년 3월 23일(일) 13:00 ~ 14:00
장 소 : 교회 사무실
대담 및 정리 : 백춘길 편찬위원장

백춘길 권사님 안녕하시지요? 교회에서 매주 뵙기는 하지만 많이 건강해 보이셔서 뵙기가 좋습니다. 새벽 기도도 계속 열심히 나오시고요.

박민옥 예 평안해요. 이제는 새벽 기도회도 가끔씩 빠져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백춘길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건강하신 편이신데 권사님도 건강하신 걸 보니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박민옥 내가 올해 90인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도 오고 밖에 나가 다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남 보기는 건강해 보여도 다니면 어질어질하고 그렇지만 누구한테 의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잖아. 이제 아들 며느리도 그런 건 모르지.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그런데 이제 힘도 없고 그래. 그런데도 그저 뭘 하고 싶을 땐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어서 좋고

감사하고 그래요.

백춘길 권사님 혹시 부모님 닮으신 건 아니세요?

박민옥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 김갑순 권사님은 97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오래 사신 편이고, 아버지는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보다는 짧게 사셨지만 그래도 그때는 오래 사신 거죠.

백춘길 교회 오시는 주일날은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예배 보시고 식사하시고, 가까운 분들과 교제하시고 그러시는데 평일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박민옥 평일에는 뭐 솔직한 말로 좀 심심하죠. 심심할 땐 목사님이 하루 두 곡 이상 찬양을 하라고 그러셨잖아.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자전거를 갖다 놔서 타려고 며칠은 했는데 요새는 또 안 해.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솔직한 말로 나는 아무것도 진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식들서부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 부러울 게 없어서 감사해요. 요즘에는 평일에 복지관에 매일 가요. 매일 안 가면 우리 오인환 장로가 또 신경이 쓰인대요. 혼자 어떻게 계시나 그래서 그래. 가기 싫어도 어떤 땐 걔 때문에 가고, 그것도 가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 9시 10분에는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여름 같으면 이제 일하다 가면 되는데 여름 전에는 그때 깜깜하잖아. 집에 가서 한참 누워있다 보면 또 게을러지고. 복지관에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점심도 주고 재미나는 것도 해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요.

백춘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할 때부터 다니 신 분이시거든요.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민옥 우리 집이 사랑말에 있었어요. 장거리에 뭘 사러 자주 나오고 그랬는데 장거리 공회당에서 노랫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웬 할머니가 얘기도 해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그게 재미있어서 자주 들렸는데 나중에 천막으로 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교회 가는 건 네 자유지만 연애는 걸지 말래. 신앙은 자유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 연애 안 걸을 게. 아버지,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연애만 확실히 안 걸으면 자유를 준대요. 그래서 연애를 걸지도 않았어. 솔직한 말로 연애를 못 걸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쎄 나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과 같은 부대인 통신대에 있었대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도 했지만 나는 연애 같은 건 안 되고 혹시 누가 나를 좋아해도 나는 안 된다고 그랬어.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랬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진짜 왜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백춘길 권사님은 아버님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네요.

박민옥 그랬어요.

백춘길 이제 처음 교회로 돌아가 볼게요. 권사님. 권사님께서 공회당에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천막 교회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민옥 공회당에서는 할머니 권사님이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넓은 방에서 하니까 좋았어요. 공회당에 나는 몇 달 안 다녔어요. 두 달인가? 왜냐하면 조금 선선하다 할 때 그때까지 나가고 천막 교회로 올 때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군단에서 군인들이 많이 나온대요. 공회당은 임시로 빌린 거라서 예배를 오래 드릴 수가 없고, 공회당 가까운 데다가 터를 받아서 천막인가를 짓는다는데

일하는 사람들 점심을 해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서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줬어요. 어머니 때문에 거기 오래 나가 있으면 싫어하고 그래서. 일하는 군인들이 한 서너 명 되더라고. 그렇게 천막 교회를 지었어요. 군인들하고 민간인 몇 사람이.

백춘길 그때 혹시 차광훈 목사님이라고 보셨어요?

박민옥 차광훈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지을 때 오셨던 분이. 그분이 오시니까 권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공회당에서 예배 보던 사람들이 천막 교회로 다 왔어요. 처음에 오니까 바닥이 그냥 자갈 바닥이더라고요. 그리고 차광훈 목사님은 교회에 오래 계시지 못했어요. 예배만 드리고 빨리 어딘가로 가시더라고요.

백춘길 아마 군목이시니까 다른 교회로 돌아다니셔야 해서 바쁘셨을 테지요. 그리고 천막 교회에서 예배는 어땠고 천막 교회 후에는 어땠나요? 천막 교회에 대해 기억나는 것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세요.

박민옥 천막이니까 아휴, 답답했지 뭐. 그냥 자갈 바닥에다 강대상 하나 있었는데 처음이니까 미약해서 그랬겠지만 서글프더라구요. 마음속에 우리 신북교회는 어떻게 해야 진짜 좀 잘 짓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 천막 옆을 찢어서 문을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더웠어요. 그때는 교인이 다 해도 열 명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그때도 중학교 학생들은 많았어요. 천막 교회 후에 교회 옆에 조금 떨어진 데다가 목재로 교회를 짓더라고요. 산천리에서 공회당을 헐어다가 지었대요. 천막 교회에서는 전도사를 모셨다가 두 번째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모셨었어요. 비쩍 마르고 키가 큰 양반이었는데 이름을 잊어 버렸어요.

백춘길 김승규 목사님이실 거예요. 교회 연혁을 보니 장기택 전도사님 후임으로 목사님이 오셨었거든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박민옥 그런 거 같네요. 처녀 때 교회에 목사님 모신 걸 보고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마산에 가서 한 3년 살았어요. 남편이 군인이었거든요. 시집가기 전에는 십일조를 못 내고 월정헌금을 내고 그랬는데 마산으로 이사를 갔으니 월정헌금을 신북교회에 부치면 신랑이 알 것 같아서 그걸 모아 두었다가 친정에 온 김에 예배도 드리고, 월정헌금도 낼 겸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없대. 목사님이 없으니까 서운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목사님도 모시지 못하게 됐나 싶은 게. 계시던 목사님이 가셔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나 했더니 윗샘밭 교회(천전교회인 듯) 목사님이 거기 예배드리고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가 다 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더라구요.

백춘길 남편 얘기하셨는데 오경근 집사님이 군인이셨잖아요? 금슬은 좋으셨어요?

박민옥 금슬이랄 게 뭐 있나? 서로 믿고 산 거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도 있지만 다 옛날 얘기고, 하여튼 심성은 착했고 애들을 끔찍이도 아꼈어요. 이북에서 월남해서 식구들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랬겠지요. 남한테 인심은 안 잃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서리집사 직분을 주셔서 거기에 맞춰 사느라고 애도 썼지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셨지만 애들은 힘들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하다가 가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백춘길 예, 그러셔야지요. 오 집사님은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만나면 무어라도 사 주시려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좋으셨어요. 권사님이 주일학교 반사도 하셨던데 주일학교 얘기 좀 해주세요. 주일학교 반사는 몇 년을 하셨어요?

박민옥 우리 교회가 어렵긴 했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았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섯 반으로 나눠서 가르쳤어요. 문정리 살았던 내 친구인데 이름을 잊어 버렸고, 나하고 팔촌 간인 박민희 하고, 재심이, 영화, 그리고 남자로 군인 몇이서는 엄청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나보다 늦게 권사가 된 영화랑은 새벽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잊어버렸어요. 반사는 결혼할 때까지 했어요.

백춘길 천막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장거리 목재로 지은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때 성도들은 꽤 있었어요? 교회 상황은 어땠나요?

박민옥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몇 년 사이에 교회가 부흥이 돼서 신도들이 50명 정도는 됐어요. 어른들만이요. 그리고 천막보다는 번듯한 목재 교회가 좋았지요. 20평 정도 됐는데 의자도 없을 때니깐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땐 신나더라고요.

백춘길 마산에서 올라 오신 후엔 계속 신북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신북교회 역사에서 권사님의 친정어머니이신 김갑순 권사님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어머니를 전도하셨겠지요? 어머니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박민옥 맞아요. 감사하게도 남편이 전근을 안 다니니 계속 신북교회 성도로 살아왔지요. 어머니 얘기는 기적 같은 얘기예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프면 병원에 가기보다 굿을 하고 그랬어요. 무당을 서면에서 데려다가 굿을 했는데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니까 못 고친대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또 점을 한대요. 집에다 뭘 해놓고 이제 빈다고 그래요. 점쟁이가 왔는데 준비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일을 다 했어요. 떡도 내가 하고. 내가 하면서도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이 하긴 하는

데 어머니를 위해서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요. 그 침 뱉은 것도 점쟁이는 모르면서 빌기를 이틀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낫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셔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번에는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는 고치고도 남을 테니 교회에 가자고 졸랐더니 교회에 나오셨는데 사랑말에서 내가 남동생이랑 교대해 가면서 업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프셔서 걷지를 못하니까. 그때 교회에서 마침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내가 바보가 됐어. 그때 그 목사님을 잊어 먹었어. 생각이 안나요.(목사님 이름을 잊으셔서 그러신 것보다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신데 부흥 강사님의 이름을 잊으신 것이 죄송하다는 표현인 듯)

백춘길 권사님 괜찮으셔요. 연세가 있으신데 잊으시는 건 당연하시지요.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도 자주 잊어 버려요. 권사님 바보 아니셔요. 그래서요, 권사님. 부흥회에서 은혜받으셨어요?

박민옥 그래요. 어머니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손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강사님이 믿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처음 나오셨는데도요. 그걸 보고 나는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 아휴, 그래서 그냥 이제 살았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사시겠구나. 그렇게 하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어머니 병이 심장병인가 그랬는데 도립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랬거든. 입원했다가 도로 보내서 집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야. 그렇게 오시자마자 저기 뭐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셨지요. 감사하게도 그 사이에 병은 다 나으셨어요.

백춘길 하나님께서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고쳐 주셨군요. 친정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셨지만 전

도에도 남다른 열정이 있으셨어요. 사랑말 동네뿐 아니라 전도하신 가정이 꽤 많았지요?

박민옥 벽돌로 지은 교회였는데 교회에 나오시고 한 1년 좀 넘었나?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사랑 마을에 전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동생들이 서울 사니까 집에 올 때마다 고기를 사 와요. 집에서 부모님이 고기를 못 잡수신다고 동생들이 고기를 사오면 그걸 식구들 안 주고 끓여서 전도할 집에다 가져다가 주는 거야. 그런 정성이 통했는지 한두 사람 빼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었어. 사랑말 백 집사님네는 아들 종원이가 먼저 교회에 나왔어요. 어머니가 사탕을 사서 갖다주면서 전도를 했다고 엄마한테서 들었어요. 종원이가 나오고 부모님도 나오시게 됐지. 지남숙 권사네를 비롯해서 여러 집이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없다고 봐. 장거리에도 전도하러 안 다닌 집이 없었으니까. 아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교회의 강대상 아래에 나무로 된 마루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하시던 자리의 칠이 닳아서 벗겨질 정도였으니까. 낮에도 시간만 되면 교회에 기도하러 다니셨고 한 자리에만 앉아서 기도하셨으니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생각만하면 눈물이 났어요. 사람의 힘으로 전도랑 기도 그게 되겠어요? 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엄하시고 보수적이셨는데도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오셨을 정도였으니까요.

백춘길 김갑순 권사님이 그때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던 분이셨지요. 박광장 원로장로님의 모친이신 길수희 권사님하고요. 교회에서 누구나 인정했었어요. 김갑순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시고 1980년에 신북교회 최초로 길수희 권사님과 같이 권사에 취임하셨어요. 딸이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권사가 되셨군요.

박민옥 당연하지요. 믿음 생활은 내가 먼저 했지만 나는 기도나 전도에서 엄마 반의 반도 못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권사의 자리에 먼저 부르신 건 당연해요. 신북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잖아요. 엄마를 따라가 보려고 애도 써 봤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처음 권사가 돼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백춘길 김갑순 권사님이 권사에 취임하시고 6년 후인 1986년에 권사님도 권사에 취임하셨어요. 윤계월, 이영자 권사님과요. 어머니와 딸이 같은 교회에서 권사가 되셨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박민옥 마음이야 좋고 감사했지요. 집안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걱정도 많이 했어요. 엄마만큼 잘 해낼 수 있을지요. 우선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하는데 엄마 권사님처럼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전도는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권사를 시키신 거잖아요. 목사님 심방 다니실 때나 교회에 궂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다른 권사님들하고 하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춘길 기뻐하시다 마다요. 권사님 자녀들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교회에서 하시는 걸 보고 자라서 그 본을 받아 잘 성장했지요?

박민옥 생각만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애들이 엇나가지 않고 첫째 딸 영환이도 시집가서 권사 직분 받고 잘 섬기고 있고, 인환이는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막내 혜영이는 사모가 돼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남편 목사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으니 이만하면 복 받은 거지요. 부자로 살지는 못했고,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 같아요. 신북교회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백춘길 그러시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일 테지요. 권사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신북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잖아요. 교회도 크고 예쁘게 짓고요. 교회를 바라보시는 권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요?

박민옥 말로 다 못할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지요. 옛날에 목사님 안 계실 때도 그랬지만 교회에 목사님이 두 분이나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까지 온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충성으로 교회를 섬긴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신북교회를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신북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도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북교회는 계속 은혜가 넘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앞으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백춘길 권사님 건강 허락되시는 대로 지금처럼 계속 기도해 주세요. 새벽기도를 포함해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후배들이 닮아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권사님.

박민옥 고마워요 장로님,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불러 줘서요. 말을 잘했나 모르겠네. 교회는 물론이고 목사님과 사명 받은 일꾼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할게요.

4) 조현숙 사모님(故 김은일 목사님 사모)

일 시 : 2025년 4월 6일(일) 13:00 ~ 14:00
장 소 : 교회 사무실
대담 및 정리 : 백춘길 편찬위원장

백춘길 사모님 안녕하세요?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조현숙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음악 감상도 하면서 가끔 사모님들과 만나서 식사도 합니다.

백춘길 사모님 연세가 적지 않으신데도 건강하셔요.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조현숙 특별히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라고 해 봐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다였는데 지금은 힘이 들어서 못 하고, 먹는 것은 고기를 안 좋아해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채소 중에서도 콩나물과 두부, 그리고 양파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백춘길 신북교회에 1960년대 말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조현숙 우리 목사님이 서울 육군 본부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대구로 발령이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춘천 육군 제2군단 군종참모로 오시게 됐고 군목 사택이 없어서 사는 집을 신북교회 근처에 얻다 보니 신북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백춘길 김은일 목사님은 가장으로서 모습은 어떠셨어요?

조현숙 가장으로는 군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일찍 일어나셔서 자녀들을 다 깨우고 이불을 정돈하셨습니다. 저녁이면 가정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군인이다 보니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을 따라 자주 이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서울에서만 계속 살다가 이곳 춘천에는 다섯 번째로 이사를 왔습니다.

백춘길 슬하에 4남 1녀를 두셨는데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조현숙 지금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백춘길 목회 내조하시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조현숙 제가 부족해서 늘 기도하며 같이 심방하며 TV나 신문에 특별한 기사가 나면 메모했다가 목사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주의 일 하면서 상처받을 일도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셨고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신 일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참 많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백춘길 목사님께서 신북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셨을 때 마음이나 느낌은 어떠셨나요? 목사님 목회의 철학이나 신념으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현숙 처음에 담임으로 부임하실 때 참 감사했습니다. 군종감 대령으로 진급하시려고 했는데 진급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일찍 은퇴해서 일반 목회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신북교회에 계시던 박우만 목사님이 진해로 가시면서 “목사님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주의 일 합시다” 하셨습니다. “창원에 150명 되는 교회가 났으니 이쪽으로 오세요”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한 달만 기도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했

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는데 오시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틀 전에 신북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신북교회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이 이곳에 초중고를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으라고 하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철학이나 신념은 늘 정직하고 진실하자, 주일 강대상만큼은 꼭 지키자, 가정예배를 철저히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백춘길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당시인 70년대 초에는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때 상황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조현숙 처음 교회 맡았을 때는 교인이 40-50명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니까 박민옥 권사님과 장로님 등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 이정순 권사님, 이춘구 집사님, 나중에 길수희 권사님, 김갑순 권사님, 허정대 권사님 등 여러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도 군인 가족이 많이 나와서 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1 병원 김소령 부인, 박정숙 집사가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항공대 김영근 준위, 배굉호 사병 등이 충성스럽게 봉사하였습니다. 찬양도 잘 부르셨습니다. 김중령 부부, 항공대 이소령, 소위, 중위, 대위 참 군인 가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근 장로님, 양만직 장로님, 김청호 장로님 부부, 박경애 대위 부부가 나와서 세례받으시고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백춘길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려웠던 일도 있으셨겠지요?

조현숙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마을 홍길선 할머니가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 하루는 밤 12시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왜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냐고 물었더니 밤 12시에

제사를 드렸으니, 예배드리고 우상단지 태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까지 목사님, 저, 박정숙 집사 셋이 가서 12시에 예배드리고 우상단지를 가까운 냇가에 가서 태웠습니다. 다시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백춘길 목사님 목회하실 때의 상황을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조현숙 목사님 목회하실 때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박광장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하실 때 120-130명, 백춘길 장로님이 학생회 부장하실 때 90-100명, 청년회가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백승욱 장로님, 민경천 장로님 장립하셨습니다. 세 분 장로님이 성격이 다 다르십니다. 김익보 장로님은 큰소리부터 하시지만 곧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5분만 지나면 자상해지시고 금방 언제 그랬냐는 식이십니다. 교회의 궂은일이라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셨고 근면하셨습니다. 백승욱 장로님은 성격이 꼼꼼하셔서 글자 하나만 틀려도 안 됐습니다. 항상 정확하시고, 시간도 철저히 지키십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 엄격하셔서 교회의 틀을 잡아 가는데 도움이 되셨습니다. 민경천 장로님은 모든 일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셨습니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개성이 강하셨던 장로님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져가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신북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셨습니다. 세 분이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잘 메꿔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북교회를 위해 세 분을 하나로 만들어 완전한 인격체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그립습니다. 백승욱, 민경천 장로님과 함께 김갑순, 길수희 권사님이 취임하셔서 목사님 목회에 큰 도움이 되셨고, 김갑순 권사님은 기도뿐 아니라 전도하는 게 일이셔서 신북교회의 전도대장이셨습니

다. 길수희 권사님은 조용한 성격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많이 도와 주셨고, 김갑순 권사님과 함께 낭랑하고도 거침없던 기도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항존직분자들이 참 열심히 본분을 다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박민옥, 윤계월, 이영자 권사 취임, 박광장, 서승목, 백춘길 집사님들이 안수집사로 취임하셨는데 그때 부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백춘길 목사님 내외분은 4남 1녀를 모두 목사 또는 목사 사모로 키우셨는데 특별한 계기나 일들이 있었는지요? 복된 가정의 어머니로서 기르신 보람이 크셨겠어요?

조현숙 주의 종으로 만든 계기는 아들 중에 사춘기 때 가정에 근심을 끼치는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저희 가정에 자녀들이 다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군요.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일반 목회, 둘째는 신학 교수, 셋째는 선교사, 넷째는 군목, 딸은 사모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같이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셋째는 다니엘, 혜란이는 한나, 성찬이는 사무엘로 성경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막내가 군목이 아니고 일반 목회를 하지만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백춘길 목사님께서 24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교회에는 큰 자랑이었고 사역의 업적도 많으셨는데 생각이 어떠셨는지요?

조현숙 처음에 은퇴하고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은 평안하게 쉬니까 좋기도 하였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교회가 그립고 성도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은퇴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역의 업적이라고 해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백춘길 목사님 은퇴하시는 기념으로 교회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설교집을 발간해 드렸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그때의 소감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현숙 설교집을 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막상 설교집을 내고 보니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하시면서 더 좀 잘 준비할 걸 그랬다고 하시면서도 교회에 매우 감사하다고 두고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은퇴 기념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저희 내외는 생각했습니다. 당회원들과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써 주신 덕분이었고 편집을 담당해 준 백춘길 당시 집사님께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설교 사례가 너무 빈약하다고 마음에 늘 두고 계셨습니다.

백춘길 목사님 은퇴하시고 자유로운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은퇴 후 생활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조현숙 목사님 은퇴하시고 자유롭게 생활하셨습니다. 박광장 장로님 다니시던 미군 부대 교회에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신북교회를 다 건축한 다음에 저희가 살아갈 집을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는데, 신북교회가 빨리 건축을 하지 않아서 다시 기도를 바꾸어 '저희 집부터 주십시오.' 그러던 중 박광장 장로님이 미군 부대 근무를 빼고 저희와 함께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동면으로 신남으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신남에 갔는데, 풀이 무성하고 바람은 세게 불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니 너무 처량하고 쓸쓸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춘천에다가 저희가 살 집을 주십시오. 신북교회와 완전히 반대 방향에 마련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더니 석사동 주택을 우선 전

세로 주셨습니다. 그다음 후평동 아파트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춘길 요즘 주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조현숙 지금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 주의 일을 하니까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신북교회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백춘길 그 외에도 생각 나시는 것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숙 지난 날을 생각하니 제가 처음에 신북교회에 왔을 때가 서른세 살이었는데 교회에서 집사직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전도회 회장을 2년하고, 박민옥 권사님이 오래 하셨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새소리, 바람소리, 사이렌 소리만 들려서 여기가 최전방이구나 하면서 무덤도 있고 해서 3년 있다가 서울로 가자고 한 것이 지금 6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30대에 왔는데 지금은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신북교회는 복 받은 교회입니다. 아름드리나무가 하루아침에 아름드리가 된 것이 아니고 뜨거운 태양과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나이테가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아름드리나무가 되듯이 우리 신북교회도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장로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권사님들의 놀라운 기도와 집사님들의 수고와 성도님들의 사랑이 합쳐 신북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북교회에 대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목사님이 시무하실 때 우리 내외에게 성지 순례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 오래도록 기억납니다. 그때 만해도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을 때인데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견문을 넓히라고 기회를 주셔서 일곱 개 나라를 여행할 때 매우 행복했고, 더 열심히 신북교회를 섬겨야 하겠다고 다

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북교회에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신북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크게 즐겁고 자랑스럽습니다.

백춘길 사모님,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신북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며 즐겁게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현숙 장로님, 대단치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신북교회 성도님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신북교회 성도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신앙의 여정

신북교회와 함께한 나의 인생

민 경 천 원로장로[1)]

나의 고향은 북한 땅 황해도 연백입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평화로운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8 이북이 공산당의 세상이 되고, 6.25 전쟁 중에 자유를 찾아 잠시 남쪽으로 내려가 피해 있다가 돌아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12살의 어린 나이에 친척 형님을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내려왔으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향과 부모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 땅에 내동댕이쳐진 나는 갖은 고생을 하며 사춘기와 청년 시절을 고아처럼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셔서 너만이라도 잠시 피해 있으라고 남쪽으로 내려보내신 것이 부모 형제와의 영원한 이별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은 좌절의 시간이었고 어린 나이이다 보니 살아갈 일도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살길을 찾아야 해서 독학으로 공부하다시피 하여 육군 하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군문(軍門)에 몸을 맡긴 후 첫 발령지가 101 국군병원이었고 가까이에 신북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어 기도할 만큼 나의 믿음이 성숙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외따로 떨어져 나간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어린

1) 이 글은 민경천 원로장로님께서 연로하셔서 구술(口述)하시는 이야기를 편찬위원회에서 녹취하여 글로 옮긴 것입니다.

아들을 혼자 보내 놓으시고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 것인지는 내가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군문으로 인도하셨고 신북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자라는 청년을 배필로 맞을 수 있도록 교회 정삼조 전도사님께서 인연의 다리도 놓아 주셨습니다. 앞길이 막막했던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산가족으로서의 슬픔과 한은 평생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에만 얽매여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신북교회와 아내 이영자를 통해 위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북교회는 나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어 주었고, 성도들은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내 이영자와 함께 믿음의 일가를 이루고 1남 2녀인 성희, 성혜, 성민이가 우리 가정에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로 주어졌을 때 고향과 부모를 생이별한 슬픔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 더 충성과 감사와 기도로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버려진 헌 신짝보다도 못했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고 자문할 때가 많을 정도로 우리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신북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북교회로 인도하셔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총각 시절이니까 1960년대 중반의 신북교회는 창립한 지가 10년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목조 건물에 기와를 얹은 신북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교회의 형편은 별로 좋을 것이 없었으나 성도들의 믿음은 신실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에 빠르게 적응해 갈 수 있었고 교회에서는 남자 일꾼이 많지 않아서였는지 나를 서리집사로 세우고 교회의 일을 살피고 봉사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함께했던 박석원 집사님, 김익보 집사님, 백승욱 집사님, 백봉운 집사님 등은 믿고 따라가도 어김이 없을 정도로 듬직한 청지기들이셨습니다. 신앙인생에서 처음으로 신북교회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일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뜻대로 청지기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임 교역자와 집사님들이 순전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 가는 일에 동참하면서 나는 신북교회의 일원으로서 신북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과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군문에서도 어려움 없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부사관 중의 꽃이라는 상사의 직책을 무난하게 허락해 주셨고, 심지어는 월남전 파병에서도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북교회의 성도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1980년에 부족한 나를 신북교회의 장로로 세워 주셨습니다. 김은일 목사님과 김익보 장로님, 백승욱 장로님과 당회원으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크나큰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선배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이끌어 가시는 일에 나는 오직 기도로 협력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그 다짐에 어긋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으며 또 그 증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내인 이영자 집사에게도 마흔도 안 된 이른 나이에 권사로 섬길 수 있도록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내외는 신북교회의 항존직 분자로서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의 달란트를 받은 자로 열심히 기도에 힘쓰며 교회 사역에 동역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역에는 달란트라고 할 것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순종했으나 기도하는 사역에서는 소홀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도 백승욱 장로님과 실무자인 박광장 장로님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주실 때 나는 당회원으로서 그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내외는 무슨 일에서든지 앞에서 이끌어 가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협력하는 일이 더

기질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퇴하여 노쇠해 가는 중에서도 교회가 성장해 가고 시대에 맞는 사역의 행보를 넓혀 가는 일을 보는 감사로 살아가는 지금이 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신북교회에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북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길에 항상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신북교회를 나의 고향으로 삼고 고향의 품에 안겨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창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여행

신 이 향 권사
(창원 명곡교회 은퇴)

신북교회 설립 7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60여 년 전 나의 청소년 시절 신앙생활 모습을 아련하게 떠올려 보며 추억을 더듬어 볼까 합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샘물이 솟아난다고 해서 샘밭이라는 지명이 붙은 이곳에 작지만 아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신북교회가 있어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며, 탁구나 배구를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놀이공간이 되었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축하 예배 무대를 통해 연극이나 합창 등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던 곳이었기에 그 시절에 청소년들의 유일한 문화공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60년대 우리가 자랄 땐 가정마다 자녀들이 5명 이상인 가정이 많았기에 교회는 작았지만 주일 학교와 학생회에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교회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해서 중학생이었던 나는 일찍 보조교사를 거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으며 그때 받은 가르치는 은사는 내가 24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학생들은 토요일 학교를 마친 후 교회로 모여 교회당을 청소하며, 직접 가리방을 긁고 롤러를 밀어 주보를 만들었고, 들꽃을 꺾어다 강대상 장식도 했던 경험으로 훗날 지금 내가 섬기는 창원 명곡교회에서 30년 넘게 성전 꽃꽂이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신북교회가 성장해 새 성전을 짓기로 했을 땐 학생들이 하교 후 시멘트 벽돌에 물주기로 새 성전을 짓는 데도 힘을 보탰으며 새 성전으로 이사 갔던 날은 잊을 수가 없었지요. 학신회(지금의 학생회)가 조직되어 초대 회장직을 맡았을 때는 부담도 되었지만 임원들의 협조와 함께 노력하며 백향목이란 문집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3이던 1969년 여름 하계 수련회로 학생들이 중도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땐 일기예보가 없었던 시절이라 갑자기 태풍을 만나 20여명의 학생들은 텐트가 쓰러지고 바람에 날려 밤새 태풍 속에 떨며 한잠도 잠을 잘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쓰러진 천막 기둥을 붙들고 기도와 찬송으로 태풍과 맞섰던 우리들의 용기는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했지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북교회에서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이 자양분이 되어 나의 신앙생활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3년 전 39년간 섬겨온 창원명곡교회에서 권사직을 내려놓고 후배 권사님들의 조력자로 조용히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북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도로 응원하며 나의 학창 시절 신앙생활을 더듬어 보는 아름다웠던 추억여행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 비전을 심어 준 신북교회를 추억하면서

배 굉 호 원로목사
(부산 남천교회)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젊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안중근 의사의 말입니다. 젊은 신학도인 제가 군대 시절에 보낸 신북교회에서의 짧은 시간은 정말로 귀하고 유익한 시절이었습니다.

인생의 황금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시절, 군인의 신분으로 신북교회에서 있었던 신앙생활과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제게 너무도 소중하고 보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활력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나아가 미래의 목회 비전을 가슴에 품어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 시간이었습니다.

1973년 당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당연히 국방의무로 군대에 가야 했던 시절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황금 시기 3년을 군대에서 썩히는 것은 너무도 아까워 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우리 주위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던 그 시기에 저는 기도하는 중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가는 군대에 당당하게 입대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그 힘든 군대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목사가 되어 목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처음에는 해병대를 생각하다가 집안의 반대로 군인이 가장 많은 육군에 입대하여 병사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저에게 주신 크신 은혜였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생활했던 제가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된 것과, 나아가 군 생활 중 신북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북교회는 신앙적으로 갈급하고 허전했던 젊은 청년 군인인 저에게 위

로와 활력을 불어넣어 준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당시 저는 강원도 춘성군 샘밭에 있는 제3보충대에 근무하면서 주일이 되면 군 교회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렸는데 부대 군목이 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고 종종 오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고 부재 시에는 신학과를 다니다 입대한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스스로 영적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차에 우리 부대와 가까이에 신북교회가 있음을 알고 군 예배가 끝나면 바로 신북교회로 달려가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등 하루에 네 번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시간이 나면 수요일 예배까지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후에 신북교회 바로 건너 편에 위치한 제102야전병원 부대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저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신북교회를 찾아가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고되고 힘든 군대 생활 가운데 큰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신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보너스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신북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에 성도의 교제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제대 후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일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지만 저에게 별로 관심을 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년이었던 박근숙 권사가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작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 안에 점차 깊숙이 들어와 청년들과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찬양대를 섬기고, 휴가를 내어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부흥회도 참석하여 은혜도 받고, 저에게 특송까지 하도록 배려를 해 주어서 '오 신실하신 주' 찬송을 부르면서 긴장이 되어 음정을 높여 큰 소리로 찬송을 한 추억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외분을 비롯한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연배가 비슷한 교회 청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임목사님(고 김은일 목사님)과 조현숙 사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잊을 수 없는데 특히 사모님을 통하여 종종 따뜻한 집밥을 대접받았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네 명의 아드님들(영찬, 문찬, 금찬, 성찬)과 따님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올라온 외롭게 보이는 군인인 저를 아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교제한 젊은 청년들(백춘길, 김종찬, 박근숙, 서명철, 박광장, 박민숙, 서연자, 오경희 등)과의 신앙적 교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의기투합하여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시간을 내어서 소양강댐에 가서 배를 타고 청평사에도 가고 춘천 시내에 가서 막국수와 닭갈비도 먹고 강원대 축제도 가고 강촌, 봉의산 등을 같이 다니면서 찬송도 많이 부르고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가 더 깊어 갔습니다.

따뜻한 경상도에서 자란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 중 스케이트를 배운 것은 정말 좋은 경험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겨울이 다가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군인들이 넓은 논밭에 물을 뿌려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즐기도록 야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제공했는데 저는 제대 하기 전에 꼭 스케이트를 배우고 싶어 신북교회 청년들에게 말하자 기꺼이 도와주어 처음에는 수십 번 넘어지고 자빠져서 밤새 찜질도 하고 괴로웠지만 이왕 시작한 것 반드시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고 계속해서 연습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넓은 빙판 위를 찬 바람을 마시면서 자유롭고 신나게 달리며 겨울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역시 잊을 수 없는 좋은 군대 시절의 추억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청년 중심의 새벽 송 팀을 꾸려 저도 같이 참여하여 성도들의 집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여고생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그 일을 계기로 그 후 찬양과 설교를 할 때 사투리 발음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 그 후 서울 경기지방과 국내외 집회를 인도했을 때 권사님들을 통해 우리 목사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시어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저 보고는 100% 다 알아들었다는 말을 듣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이것 역시 군대 시절 신북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식사를 대접받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김익보 원로장로님 댁에서 말로만 들었던 강원도 감자떡을 집사님이 만들어 주셔서 처음으로 맛있게 먹은 것도 좋은 추억입니다.

드디어 모든 병사들이 오매불망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제대가 다가오자 저는 기뻐하면서도 솔직히 신북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에 너무 아쉬워 내심 좀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성도들과의 이별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은 제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신북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어머니 옷까지 준비하여 주신 과분한 사랑을 늘 감사하며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02세에 천국으로 가신 어머님도 '세상에 아들이 제대하는데 어미까지 선물을 챙겨주는 교회가 있느냐'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제대 후 2년 만에 신학과 졸업 여행을 강원도 방면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인솔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너무도 보고 싶었던 신북교회를 찾아갔으나 평일 낮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라 많은 분들은 만나보지 못한 채 목사님을 비롯한 몇 분만 만나 인사를 나눈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마음속에 군대 생활 중 신북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꼭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어지는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찾아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대를 한 후 저는 신학공부(신학과 신학대학원), 결혼, 교회 사역, 목사안수, 노회사역, 선교사역, 부흥회 인도, 유학 생활, 목회하면서 신학대학원 교수 사역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고신총회 총회장으로 선임되어 국내와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바쁘게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원로목사로 은퇴한 후에도 35년 전에 시작한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위해 매년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선교사역을 계속하고 있으며 설교, 학교 강의와 저술 활동 또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유튜브를 만드는 일

까지 하며 지내는 중에 백춘길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가웠는데 '신북교회 72년 역사와 이야기'라는 역사서를 발간하는데 군대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던 저에게 원고를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하겠다고 대답하고 신북교회의 근황을 들으면서 예전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군대 시절 신북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주 안에서의 교제가 저의 목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는 데 큰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북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가 신북교회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많이 들었고 꼭 한번 같이 가자고 말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갔으니 이번 기회에 한 번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큰 아들 배아론 목사(고신대 신학과 교수)가 부모님 모시고 시간 내어서 신북교회로 가겠다고까지 해서 드디어 서로의 사정이 맞을 때 저의 군대시절의 신앙과 활력을 주었던 아름다운 추억의 현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신북교회를 섬기며 교제를 나눈 분들도 다들 은퇴를 하여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변했겠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예전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히 다 떠오르고 있어서 꼭 한번 만나서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신앙의 추억들을 회상하며 우리의 남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다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의 군대 시절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선물로 준 신북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후원자가 된 저는 72주년을 맞이한 신북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을 파수하며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이 계속 이어갈수록 전수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명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사명을 잘 이루어 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하드립니다.

신북장로교회 시절의 회고와 감사

박 민 재 목사
(경기도 고양시 주사랑교회)

♬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야요. 반짝반짝 빛나며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 철없이 장난하는 애들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 주소서. 가나안 복지 향해 광야를 가는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집어서 던지시리라.
♬ 여러분 우리 동무야 가만히 가만히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갑시다. 오늘에 배운 말씀을 잊지를 맙시다.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위의 찬송들은 제가 천전초등학교 4-6학년 때 교회서 열심히 부르던 어린이 찬송이었습니다. 신북장로교회가 장거리에 있던 1965년경일 것입니다. 당시 담임이셨던 이재원 선생님(현 원로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어 열심히 불렀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주일과 수요일 저녁 예배도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의 손을 붙잡고 밤에도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재원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어찌나 흥미 있었던지 연속극처럼 재미있어서 다음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과 들었던 말씀들이 신앙의 뿌리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시 주일학교 출석부에는 매 주일 '출석,' '요절,' '인도,' '헌금' 란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그 성적에 따른 상급이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헌금 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가 장거리에서 육군 병원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배당을 건축할 때 군 트럭에 학생들과 함께 돌을 열심히 실어 날랐고, 성탄절이면 사랑말과 장거리 문정리 등을 돌면서 새벽 송을 열심히 불

렀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가정에 준비해 주셨던 떡과 과자 등을 김익보 장로님댁에 모여 맛있게 나누어 먹던 기억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당시 주일 예배 시간에 고(故) 허봉원 담임선생님의 헌금 특송 ♬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힘찬 찬송 소리가 너무 은혜롭고 멋지게 들렸었습니다.

중3 때인가, 서면 위도에서 있었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비바람과 홍수에 텐트가 부서져서 죽는 줄 알고 떨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 모두가 텐트 기둥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공포에 떨던 시간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로 제게 영향을 주신 백춘길, 김종찬, 신이향, 신미향, 이화자, 이정자 등 이제 백발들이 되셨겠지만…… 모두 그립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춘천중학교에서 강원도 대표 100m, 200m 육상 선수로 지냈으며 졸업 후 서울 동북고등학교에 축구선수로 활동하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와 대학 선발 대표, 전 충무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있었음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영무 선수 등과 할렐루야 선교 축구단을 창단(한국프로축구 1호), 그리고 임마누엘 축구단을 창단하여 전국 방방곡곡과 낙도와 군부대 등과 해외에서 축구를 통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축구 국가대표 최초로 목사가 될 수 있었음도 주님 은혜 중 은혜입니다.

당시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 고(故) 김인순 권사님(천전감리교회)이 계셨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앙심이 깊으셨던 할머니께서는 맏손주인 제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선교사) 날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제가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음도 크신 은혜입니다.

저의 모교인 성균관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2년 동안 가르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 가치요, 최고의 보람이요, 사명으로 알아 목사(합신)가 되었습니다.

서울 할렐루야 선교 교회에서 10년간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1996년 지금 고양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30년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큰 부흥은 아니지만 부족한 종을 부르시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복 된 기회를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이제 올 2025년 12월 말이면 정년 퇴임(만 70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하고 성실하신 후임 목회자를 모시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은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였으며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돌이켜 보면 천전초등학교와 중학교(춘중) 시절 신북장로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제 신앙의 뿌리였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정 연 성 목사
(인제 기린교회 은퇴)

저의 지나온 목회 여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여정 속에서 신북교회는 제 삶과 사역에 깊은 흔적을 남긴 공동체이며, 지금도 제 마음에 사랑의 빚으로 남아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며 독학으로 공부하던 중 신앙생활을 통해 목회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과 부족한 학력 앞에서 그 소명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꿈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원노회 성서신학원을 통해 비로소 신학의 길이 열렸고 그곳에서 신북교회의 김은일 목사님을 만나 교수와 제자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서신학원에서의 공부는 단순한 학업을 넘어 말씀과 신앙, 그리고 목회의

기초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학력으로 영어 과목을 비롯한 공부가 쉽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 목사님들의 격려 속에 과정을 마칠 수 있었고 노회 전도사 고시에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6월, 저는 김은일 목사님의 권유로 신북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지방 신학교 3학년 편입을 준비하며 학업을 병행해야 했기에 공부와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신북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라 믿었습니다. 신북교회에서 저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아 교회학교 전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임 후 각 부서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고 부장 집사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회학교 주보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주보에는 예배 순서, 성경 읽기 계획과 퀴즈, 찬양 악보, 성경 공부 및 토론 내용을 담아 다음 세대가 말씀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썼습니다. 아동부는 성경 읽기와 퀴즈를 통해 말씀에 친숙해지도록 했고, 중·고등부는 찬양과 말씀 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청년부는 새롭게 모임을 조직하여 성경공부와 주제 토론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 갔습니다.

교회학교는 각종 연합 행사와 대회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춘천시찰 체육대회에서는 큰 교회들이 함께한 가운데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고, 성경 퀴즈대회에서도 당당히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름과 가을 수련회, 철야 기도회, 지역 초교파 학생 체육대회 등을 통해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 공동체 안에서 세우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교사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당회에 충분히 알리지 못한 일로 인해 오해가 생겨 목사님께 부담을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민경천 장로님의 중재로 오해는 풀렸으나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신북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북교회에서의 교육전도사 사역은 이후 저의 목회와 교육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일교회(현 옥계교회)로 부임하여 목회를 이어가며 서울장로회신학교

와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 목회 연구 과정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신북교회에서는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고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들께서 장학금을 모아 매달 보내 주셔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형편상 일일이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으나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제 사역의 큰 버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주천제일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농촌 교회의 현실에 맞는 교단 공과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어 총회 교단 아동부 공과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전 학년 공과를 집필하였고 2002년에는 여름성경학교 전 학년 공과를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노회 교사 강습회에서 주제 강의와 성서학습 강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교회학교 현장 사역의 경험, 그리고 특별히 신북교회에서의 교육전도사 사역이 실제적인 지혜와 토대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김은일 목사님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강원성서신학원에서의 배움은 신북교회 교육전도사 사역으로 이어졌고, 그 사역은 다시 이후의 목회와 교육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랑으로 저를 품어 주신 신북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북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저는 지금도 신북교회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언제나 푸르름은 그곳에…

김 금 찬 선교사[2)]
(에쿠아도르)

유년의 기억.

서울을 떠나 춘천의 샘밭 시골 생활을 시작할 때는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군목이셨던 아버님을 만나러 이미 몇 번 기차여행을 한 적이 있어서 시골은 낯설지 않았다. 덩그러니 큰 길가에 있던 교회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매년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면 새벽기도부터 참석하려고 동생을 업고 누나와 함께 즐겁게 다녔다. 그때는 교파 교단 생각지 않고 이웃 교회들과도 한 마음으로 체육대회, 심령 부흥회에 함께 어울리며 신앙생활을 했다.

20여 년 군생활을 마치신 후에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시무하시게 되었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부족함 모르고 성장했다. 지금도 떠오르는 여름수련회에 여러 번 겪었던 위험했던 빗속 물난리, 주님께서 모두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던 일, 어르신들이 탁구대를 마련해 주셔서 늦은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일, 사랑마을과 멀리 서승목 선생님 댁까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며 불렀던 크리스마스 새벽 송과 지금도 느껴지는 따뜻한 식혜 맛. 방학이면 개울가에 천렵이며, 족대를 들고 밤새 잡은 민물고기를 갖고 가서 매운탕 끓여달라고 무작정 떼쓰던 일, 김 장로님 사랑방에 모여 집사님을 귀찮게 하고, 겨우내 묻어 두신 무와 감자를 우리 것 인양 꺼내 먹고, 우리 집 인양 떠들었던 젊음이 넘치던 인환, 봉우, 광복, 광하와 종원이도…. 그런 시간들이 어느덧 멀리 저 뒤에 머물고 돌아갈 수도 다시 반복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시간 속

2) 김금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원로목사님이셨던 故 김은일 목사님(사모 조현숙 사모님)의 4남 1녀 중 셋째 아드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학생회부터 대학 시절까지 보내시고 그 후 신학대학원을 거쳐 목사 안수 후 JDM(예수제자운동 대표 윤태호 목사) 파송 선교사로 30여 년째 남미 선교활동 중 현재는 에쿠아도르 선교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에서 자라고 있던 작은 믿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기둥 같은 장로님도 되어 사명을 다하고 있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사역의 여정으로 부르심

우리네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히 생기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기에 주어진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샘밭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유년을 정서적 분위기와 함께 건강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아버님들과 형님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들이셨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겸손한 섬김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등교 길에 하나님께 인사하려고 잠시 교회에 들어가면 언제나 늦게까지 기도하시던 김갑순 권사님의 낭랑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온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랑 마을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아뢰시는 기도는 천국과 교회를 잇는 든든한 밧줄 같았다.

선교사로 삶을 드리도록 키워 주셨고, 받은 사랑과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고향 교회는 나의 첫사랑이며 내 마음속에 흐르는 기쁨의 시내이며, 소망의 등대로 떠올릴 때마다 넘치는 그리움과 추억으로 젖어 들게 한다.

신북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며 대학교를 마친 후에 신학을 공부하여 1989년 8월에 대한예수교 합동 강원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JDM(예수제자운동), SIM(국제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로 남미 볼리비아, 멕시코에서 선교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현재는 에쿠아도르 오지에서 교회 개척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교사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복음을 들고 문밖을 나선다.

일흔두 해를 맞이한 고향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을 이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료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여전히 믿음 소망 사랑의 산실로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하와 함께 짧은 추억의 앨범을 이만 닫습니다. 감사합니다.

" …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

〈예레미야 애가 3:27,28〉

신북교회와 나의 학창 시절

우 경 준 목사
(경기도 수원시 하늘문열린교회)

저는 1978년 2월 18일(토) 중고등부 예배에 처음 참석하여 1988년 12월까지 신북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가 신북교회에 출석한 시기는 중학교 1학년부터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장로회 신학대학교) 2학년 때까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기억되는 것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등부 부흥입니다.

제 기억 속에 1980년도로 생각하는데 당시 신북면(현재 신북읍)에서 학생회 교육전도사님을 처음 모셨고 학생회를 중등부와 고등부로 분리했습니다. 신북면에 8개 교회가 있었는데 신북교회 학생회가 가장 부흥했었습니다. 출석 인원이 100여 명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본 학생회 부흥의 이유는 ①토요일 오후 심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심방은 선생님들의 심방이 아니라 임원 중심의 심방이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로 분리되기 전 임원들은 주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지난 주에 결석한 학생을 찾아 심방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토요 학생 예배에 가끔 결석했었는데 결석하면 다음 주 토요일에

선배들이 심방을 오셔서 토요예배 참석을 종용하시곤 했습니다. ② 체육활동이었습니다. 당시 5월에 신북면 8개 교회 학생회 연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운동 - 특히 축구 - 을 좋아하는 불신 학생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불신이었던 학생이 축구가 좋아 대회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등록하여 많이 결신(決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③ 교회 봉사였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학생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교회 청소를 하며 단합을 이루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필자도 교회 청소를 하며 선배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점점 교회를 가까이했고 신앙이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④ 회지 발간이었습니다. 회지 이름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매년 년 말이 되면 시, 산문, 신앙 간증 등을 편집하여 발간했었습니다. 그 회지에 글 올리는 것이 좋아 등록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회 부흥의 원인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도 큰 몫을 하였지만 후배를 이끌어 주는 선배의 배려와 열정도 한 몫 했음을 기억합니다.

중고등부 학생회에 좋은 기억이 있으나 한 가지 아쉬운 기억도 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눈 후 초대 교육전도사님이셨던 강대원 전도사님이 6개월여 만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졌지만 예배를 함께 드렸고 모든 행사는 고등부 임원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중등부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고등부 임원들은 중등부 임원들이 있기에 중등부에 무관심하여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부, 아동부의 부흥입니다.

저는 1981년부터 교사로 봉사했었는데 1982년 여름성경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천전초등학교 전체 재학생 수가 6백여 명이었는데 그해 여름성경학교에 2백명이 출석했습니다. 2백명 안에는 유치원생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천전초등학교 재학생의 1/3이 정도가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이 참석했던 이유는 교회 소문이 잘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좋아 율문 4리 사랑마을 어린이들이 신북교회

에 오려면 천전감리교회를 지나서 왔는데 그래도 신북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이 천천감리교회에 출석한 학생보다 많을 정도로 교회가 좋게 소문나 있었습니다. 아동부의 부흥은 장년 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느 해인지 연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해 성탄절 발표회 때 유치부에 김현주 어린이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김현주 어린이는 사랑마을에 사는 불신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김현주 어린이의 부모님은 성탄 발표회 때 인사말을 하는 딸을 보기 위해 교회에 오셨는데 딸이 너무도 똑 부러지게 인사말을 했고 성도님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받은 김현주 어린이의 부모님이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나오셨고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신앙 성장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초등학생 때에는 여름성경학교와 성탄절에만 선물 받으러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초등학교 졸업식날 하나님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2월 18일 신북교회 학생회 예배에 참석하여 등록했습니다. 불신앙 가정에서 성장한 저였기에 중학교 시절에는 막연히 교회 가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성탄 이브날 교회에서 밤을 새우며 새벽송을 돌 때 가정에서 끓여주는 떡국 먹는 것이 즐거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신앙에 변화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큰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큰댁에는 아들이 없어 저와 형들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저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장례를 끝내고 토요일 학생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도 교사이셨던 김금찬 선생님(현재 에콰도르 선교사)이 저를 부르더니 장례를 치르며 제사상 앞에서 절한 것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교회에 많은 어른이 계셨지만 한 분도 저를 꾸짖는 분이 없었는데 김금찬 선생님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김금찬 선생님의 꾸짖으시는 말이 저에게 우상숭배 죄를 묻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 저의 대학 진학 진로가 수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 이보다

한 영혼 가르쳐 살리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 진학으로 진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하여 1987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1995년 2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97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7월 경기도 수원시에 하늘문열린교회를 개척하여 15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니 불신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제가 도중에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다음으로 헌신하신 지도 교사님들과 묵묵히 헌신하신 성도님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했고, 저는 등사기로 매 주일 주보를 찍어내는 일을 하며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1989년 1월 타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북교회를 떠났는데 지금 신북교회에서 받았던 신앙교육과 성도님들의 사랑, 그리고 헌신이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는데 초석이 되었기에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북교회에서 보낸 감사한 시간(2011~2014)

이 석 진 선교사
(말레이시아)

1. 슬픔 속에 시작된 부르심

2011년, 신북교회로 첫발을 내디디던 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전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레 병환으로 소천하신 직후였기에 교회 안에는 깊은 상실감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다. 강단에 섰을 때 마주한 성도들의 표정 속에는 그동안 감당해 온 마음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나의 목회가 향해야 할 첫길이 선명해졌다. '위로와 회복'. 하나님

은 눈물 속에서 멈춰 있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나를 조용히 초대하고 계셨다.

2. 한 가지 질문이 열어준 방향 - '신북기부천사'의 시작

교회 안팎의 정서를 조금씩 추스르던 어느 날, 내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깊이 머물렀다.

"신북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할까?"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의 삶과 숨결에 귀 기울이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소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싹튼 것이 바로 '신북기부천사'였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월 10,000원의 작은 정성을 한 구좌로 삼아 성도들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언젠가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어져 하나의 따뜻한 흐름이 되기를 바랐다.

작은 나눔이라도 모이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였다.

3. 함께 만들어 간 연대 - 신북기부천사의 확장

이 사역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신북읍장님과 공직자들, 각 리의 이장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돕는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구상이었다.

'1004명 후원자'라는 상징적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의 짐을 함께 나누겠다는 조용한 결의였다. 성도들의 기꺼운 참여는 경제적 어려움, 병환, 갑작스러운 사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던 이웃들을 실제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사역이 멈추지 않고 더 자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그 작은 씨앗을 심는 일에 나 또한 참여할 수 있었음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감사가 피어난다.

4. 신북교회를 떠난 뒤 선교지에서 다시 열린 길

신북교회를 떠난 후 하나님은 나를 말레이시아의 선교지로 이끄셨다. 그곳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나는 20개 마을과 13개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역의 형태는 달라졌어도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

원주민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자리에서, 예배 속에서 비치는 소망의 눈빛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깊이 느낀다.

그럴 때면 마음 속에서는 조용한 감사가 문득 피어난다. "주님,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5. 신북교회에서 배운 마음이 선교지에서 자라다

돌아보면 선교지에서 걸어온 길의 출발점에는 신북교회에서 배운 마음이 놓여 있었다. 지역을 품는 따뜻한 시선,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던 태도, 작은 나눔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믿음.

그때 심겨진 마음이 말레이시아의 작은 마을들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열매가 되고 있다.

6. 짧았지만 깊었던 시간, 지금도 이어지는 은혜

신북교회 72년의 긴 역사 속에서 내가 머물렀던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고, 목회와 선교의 여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마을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라 여전히 나를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 나는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품는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나의 신북교회 사역 2013~2014

원 창 영 선교사
(필리핀 팔라완 리빙투게더교회)

신학대학원 2학년~3학년 2년 동안 나의 신북교회 전도사 사역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도 나의 짧은 한국에서 사역의 거의 전부인 신북교회 사역은 큰 추억으로 나의 가슴에 남아있고 그 짧은 인연으로 현재 선교사역의 큰 도움을 받고 있어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43살의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 2학년이었던 나는 초짜 전도사로 사역지를 춘천 신북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추억과 지인들이 있던 나에게 춘천에서의 사역은 너무 즐거웠다. 하지만 춘천의 겨울은 내게 너무 혹독했다. 왜냐하면 지난 15년 이상 필리핀과 마카오의 더운 날씨에 적응된 나에게 춘천의 겨울바람과 차가움은 쉽지 않았다. 특히 첫해 겨울방학 1월~2월의 교회 2층 목양실 옆의 작은 방은 전기 판넬 보일러라서 따뜻한 공기가 없고 바닥 온기만 있었다. 영하 20도의 겨울 밤은 너무 추웠다. 옷을 껴입고 두툼한 겨울 이불과 요로도 추위를 잊기는 힘이 들었다.

지금 팔라완 사역을 하면서도 그때 겨울을 지내던 생각이 너무 추억으로 생생하다.

첫해는 중고등부 사역을 맡아 사역했다. 감사한 것은 신북교회 60주년 동안 처음으로 중고등학생 8명과 일본을 방문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작은 미약했기에 안될 것이라는 어르신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중고등학생들의 기도와 식사 커피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움직여 다녀오게 된 것이다.

아쉬운 것은 여러 번의 핸드폰 분실과 파손으로 인해 그 당시의 사진들이 하나도 내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뜨거운 여름의 오사카, 교토의 온

도와 습도는 힘들었지만 발전되고, 문화가 다른 세상을 견문하고, 일본에서 기독교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회가 삶에 가까이 있음에 학생들이 감사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

2년째는 아동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이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소통이 될까? 설교를 어떻게 쉽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내 안에 아이들과 어울리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고 놀랐다. 서울과 달리 순수한 영혼의 아이들이 내 맘을 감동케 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특별히 아동부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헌신은 전도사인 내게도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고, 지금도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립다.

이제 목사 8년 차이고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13년 차인 나지만 신북교회에서 나의 사역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아직도 많은 사역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교사분들로 큰 지원과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신북교회와 연결하신 큰 뜻에 감사하고 놀랍다.

신북인테리어교회의 설립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고 지금까지 이뤄지는 사역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신북인테리어교회의 제이알 목사의 초빙 과정, 교회 건축 과정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고 힘들었지만 2주년 기념 예배를 지난 주일 드리고 난 후 나의 감회는 그저 놀라움 그리고 한없는 감사뿐이다.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가정이 전도되고, 교회가 더 멋있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신북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든 것이었음을 보게 되었다.

3주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큰 행사로 치러지길 기도한다.

멋진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성장해 나가는 경험으로 또 다른 지역과 그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Shinbuk Interior Church

Ptr. Jay Ar Lingcawang

After Dedication of Church members grow to worship our Lord Jesus.also thanks to the Sponsors who trust me to minister here. Thank you for the Livelihood, we have 2 mother pigs they have 17 piglets i make them fattening to sell and have income but i fail because 2024 price of pig is low price then the food of pig is high cost.. second try i fail again but it is normal in livelihood. but today pig has a piglets i sell again to support food of a mother.

January 2024 dorm for student we start construct thank you this big help to the people who wants to stay for free we have 13 scholar but the other back out…

June 10-12, 2024 we have youth camp here in pulot interior church we have 50-60 campers teaching them to Worship in God. and the youth became a believer of Christ, our participants came from Brokspoint, Panitian and Living together church. then monthly we have youth fellowship. Also thank you to our visitors last year of june they paint the church. elders from korea and kids i acknowlegde thier effort they cook for us and they fellowship to us. their hearts is willing to help and to serve i salute you elders and kids from Shinbuk korean visitors.

Also thank you for the sound system, plates, spoon and fork. thank you also for the computer and Projector. Amplifier all the clothes. the members are very thankful for all the blessings we have.

January 2025 we have music camp one of tjñhe pastor from korea came here to teach music instruments for free., i really appriciate that. now the church has new extension and hoping you will see it in the picture our livlihood continue and the church grow step by step by God's grace. and now we have 5 old schalors and 5 new schalors.

This Coming june 29 we will celebrate 2nd church anniversary thanks to God because of Him everything is good. help us to pray the celebration is goin to improve their faith in Jesus. and this is my prayer concern for this our church.

Spiritual growth/maturity and shinbuk korean Church is not stop praying to the people of Spirtual and physical needs. thank you Shinbuk korean sponsors for trusting us here the ministry of your daughter church May the grace of Lord Always upon us and God bless you.

Prayer Request!

1. Spiritual growth/maturity of all members-
2. Good weather in June 29.church anniversary
3. Financial for church anniversary.
4. Church Service.(vihicle)
5. Always good health.

신북인테리어교회 2주년 사역을 돌아보며

Ptr. Jay Ar Lingcawang[3)]
(필리핀 팔라완 신북인테리어교회)

교회 헌당 예배 후에 교인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신북인테리어교회의 목회자로 신뢰하고 후원하신 후원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최초로 두 마리로 암퇘지 양돈 사역을 후원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두 마리의 종돈에서 17마리의 새끼를 얻었고 잘 키워서 팔았으나 거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2024년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낮고 사료 값이 비싸져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에도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돈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돼지를 팔고 종돈을 먹이고 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숙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13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고 삶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식사와 숙박이 제공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숙사를 나가서 현재 3명의 학생이 정기적으로 머물고 있으며 주말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며 기숙사에서 자면서 주일 사역 준비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0~12일까지 신북인테리어교회에서 유스 성경캠프가 있었습니다. 50~6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브룩스포인트, 파니티안, 리빙투게더 교회에서 왔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유스 펠오우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신북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아이들이 와서 교회 페인트

3) 이 글은 신북이테리어교회의 제이 알 목사님께서 보내신 영문 원고를 원창영 선교사님께서 번역해 주신 글입니다.

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것, 특히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 것들에 신북교회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교회 노트북, 프로젝터, 스피커, 앰프 등 음향기기를 후원해 주심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기와 스푼을 보내주심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비롯해 교인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캠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악기 연주를 무료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그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옆 부분을 연장해서 지붕도 씌우고, 타일도 깔고, 장의자도 추가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가 계속 발전하는 것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양돈 사역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이 모든 축복에 하나님과 신북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회는 5명의 기존 장학생과 새로운 5명의 장학생으로 총 10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6월 29일에는 신북인테리어교회의 2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주년 기념 예배가 잘 마쳐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깊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북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북교회 모든 후원자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교회의 성장과 필요가 채워지고 있고 나의 사역을 믿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신북교회와 모든 교인과 후원자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요청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
교회 재정의 건전성
교회 차량(Multi Cab)
항상 모두 건강하기를

신북교회로의 귀소(歸巢)

신 상 근 장로[4]
(서울 삼보교회 은퇴)

아내 윤을중 집사의 전도로 신북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0년대 초였습니다. 월남전 참전 후 귀국해서 육군 제2군단 통신대에서 상사 계급장을 달고 복무할 때인데 신북교회가 낯설기는 했지만 같은 2군단 군목 출신이시라는 김은일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맞아 주셨고 같은 통신대에 근무하던 오경근 선배 상사님과 육군 101 병원에 상사로 근무하던 민경천 집사님(후에 원로장로 은퇴)이 계셔서 교회에 어렵지 않게 적응하며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 근처 부대에 근무하던 김청호, 양만직 집사님(두 분 모두 전역 후 서울로 이사. 장로 장립 후 은퇴)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신북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같은 군인 신분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일이 무척 기다려지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주일학교에 다녔으니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함께여서 행복했었습니다.

신북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집사의 직분까지 주셔서 감사하게 섬기면

4) 이 글은 신상근 장로님께서 연로하셔서 편집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흔다섯 살에 정년을 맞아 전역하게 돼서 아직도 젊은 나이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일을 해야 했기에 샘밭에서의 생활 기반을 모두 정리하여 서울 양천구로 무작정 이사를 했습니다. 떠날 때의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 모두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었으니 망설여지기도 하였으나 샘밭에서는 생업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가족을 데리고 객지로 떠나는 데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가진 기술이라고는 군에서 통신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통신 관련 기술밖에 없는데 나이가 있으니 취직은 생각지도 못하고 문방구를 열어서 생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문방구가 잘 됐고 군인 연금도 나오니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정은 웬만큼 꾸려 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마침 영등포 노회의 삼보교회가 있어서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신북교회에서 했던 믿음의 생활이 삼보교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아내에게 권사를, 저에게는 안수집사에다가 영광스럽게도 장로의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신북교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보잘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신북교회에서 삼보교회까지 인도해 주셔서 귀한 직분까지 주시는 하나님과 교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2남 2녀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양육하면서 삼보교회에서는 장로로 12년을 섬기고 은퇴한 후 은퇴 장로로 교회에 출석하다가 아내 윤을중 권사가 갑자기 발병하게 되어 서울에서 2년 정도 힘들게 간병하다가 춘천에 사는 둘째 딸 선희가 아버지 혼자 엄마 간병은 버거울 테니 모시고 내려와서 같이 간병하자는 말이 고마워서 다시 춘천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 일로 신앙생활의 첫 둥지였던 신북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북교회에 돌아와 보니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도 널찍하게 확장하고 모든 것이 성장하여 변해 있었으며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

과 특히 떠날 때 배웅해 주셨던 여러분들도 아직 신북교회에 계시며 환영해 주셔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 푸근하고 아늑한 가족의 품에 안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옛날의 자그마했던 교회가 조금 낡았으나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이 벅찼으며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이 실감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93년 동안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신 신북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45년 만에 신북교회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신북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신북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신북교회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북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김 봉 우 장로

'피~융, 슈~욱, 퍼~엉!'

폭음탄 터지는 소리와 자욱한 연기. 약간의 혼란 속에 "누구야!" 하는 고함과 도망치는 발걸음 소리. 국민학교 시절, 까까머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은 볼품없는 작은 아이가 신북교회 목조 건물 시절의 모임을 방해하던 나의 모습이다. 당시 우리 집은 교회와 불과 10~20m 거리로 바로 코앞에 있었다. 교회의 종소리와 찬양 소리,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는 어르신들과

또래들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면서도 부러웠던 시절이었다. 그 부러움을 표출하는 방법이 이유 없는 훼방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그립고 아쉬운 시간이다.

평상시에는 건성으로 교회를 오가다가 신북교회가 벽돌로 신축되어 번듯한 외형을 갖춘 후로 여름성경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했다. 새벽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목에 건 출석부에 도장을 받던 그 시기가 예수님을 알아가던 첫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후 중·고등학교 시절에 매주 토요일 학생회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 또래들과 교제하며 성경 말씀을 조금씩 배웠다.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그저 함께 어울려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만족하며 시간을 보냈다.

당시 나는 토요 학생회 예배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등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했다.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분위기가 좋았고 인근 교회의 부흥회까지 따라다닐 정도로 열심이었다. 토요일 하교 후에는 교회에 모여 가리방(철필)을 긁어 등사기로 주보를 만들었고 학생회 문학지인 '백향목'을 발간하기도 했다. 신북 지역 학생들이 모여 경쟁하던 체육대회, 여름방학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교제를 나누던 그때 그 친구들이 그립다. 멀리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이지만 엊그제 일처럼 머릿속에 아련하다. 이런 나의 모습이 대견해 보였는지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셨다. 특히 박민옥 권사님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교회와 마을에서 만나면 항상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하시며 예뻐해 주셨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친아들인 오인환 장로보다 내게 그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다. 참으로 고맙고도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주변의 사랑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 세례를 받았고 그때의 축하와 묘한 기쁨은 내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는 선택의 폭이 좁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나는 "주님, 이 무기력함을 벗어나 제가 무언가 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특히 소득의 십일조를 철

저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서원하며 기도했다. 나약한 투정 같았던 기도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부러워할 분에 넘치는 직장을 주셨다.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아내 홍정애 권사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은혜를 누렸고, 선물로 주신 혜인이와 종헌이를 얻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금도 엄격하게 지키고 있으며 이 약속 이행에 앞장서준 믿음의 동반자인 아내 홍 권사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믿음의 뿌리가 없던 내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금의 신북교회 장로로 사역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다.

또한 평생 절에 다니시며 고단함을 의지하셨던 어머님께서 노인대학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머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은혜다. 어머님의 신앙이 천국을 사모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확고한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1998년 10월 24일 안수집사 임직, 2009년 11월 22일 장로 임직 등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을 주셨다. 임직 당시에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가 컸지만 그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전 건축과 교육관 신축, 성전 리모델링 사역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 훗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시는 일에 작은 역할을 하였습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신북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선배님들의 피와 눈물 섞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부흥이 있음을 깨닫는다. 시험과 슬픔의 때마다 극복할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부족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삶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청지기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축복의 통로 신북교회

김 규 식 장로

나의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이다. 1986년 6월, 국가의 부름을 받고 102보충대로 입대하였다. 당시 102보충대는 현재 항공대가 위치한 자리였으며, 신체검사를 위해 102국군병원(현 테크노파크 자리)까지 걸어서 이동하곤 했다. 그 길목 어딘가에 신북교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 교회가 내 인생과 깊이 연결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양구 21사단으로 배치 받아 군 복무를 하던 중 부사관을 지원하게 되었고 대전 통신학교에서 16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이수한 후 다시 102보충대로 발령을 받아 제2군단 사령부 102 통신단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셨음을 고백하게 된다. 무심코 지나쳤던 교회 앞을 여러 번 오가게 하신 일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한 나는 학업을 마친 후에도 장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았다. 군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전역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던 중 지금의 홍주희(개명 전 홍미향) 권사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은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의 모든 선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결혼 당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전역을 앞두고 약 1년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인지 깊이 고민하며 씨름하였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거주하던 율문리에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신북교회로 인도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몇 주 동안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갔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 작은 발걸음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절실함 그 자체였다. 많은 빚을 안고 시작한 사업 앞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개업 예배를 드리던 날, 교인들께서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은혜는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그 이후의 삶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들이었다. 사업은 염려와 달리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어린 시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삶의 기반이 허락되었다.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늘 마음에 새겼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특별히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 준 아내 홍주희 권사에게 깊은 감사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흔들리고 지칠 때도 한결같이 기도하며 동역해 준 아내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붙들어 주신 또 하나의 통로였음을 고백한다.

교회를 섬기는 기회 또한 은혜로 주어졌다. 사업을 통해 작은 부분이나마 교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교회 건축 당시 일정 기간 함께 참여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교육관 건축과 예배 갱신의 과정에서 부족하지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이 내게는 큰 감사의 제목들이다.

돌이켜보면, 학연과 지연이 없는 이 춘천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했던 지난날들을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인내로 세워 주셨기에 안수집사를 거쳐 장로의 직분까지 감당하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욱 깊어진다. 뿐만이 아니라 강원노회 노회원으로서 노회 임원이나 강원노회 장로회 임원으로 섬길 수 있음도 노회원들에게 신뢰받고 있는 신북교회의 총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모든 것이 신북교회를 통로로 하여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이다.

이제 남은 삶 또한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교회를 섬기고, 시찰회와 노회, 더 나아가 총회를 섬기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더라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겸손히 순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작게나마 쓰임 받기를 원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듯이 앞으로의 삶 또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칠십 년을 맞이하며…

기 대 승 은퇴 안수집사

70년 전 초라하지만
선배님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성전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들고 나며, 강산이
일곱 번 변하여 70년 세월.

이제 더 나은 70년을
준비하며 지역사회에
복음으로 일어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0년 200년

빛을 들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 걸음이
자손만대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다음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가르치고
양육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지역엔 영혼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is LOVE
아멘.

바람의 감사

윤 흥 묵 안수집사

바람이 색(色)인가요
생(生)의 색을 바람에 심어 놓으면
레오파르디의 공허한 노래
침묵의 공간, 평화를 넘어선
무풍의 우주
코스모스

무한한 청록색의 하늘이 되어
생으로 스며 듭니다.
띄엄띄엄 밀려 나오는 생각들
어디로 보내야 안식할는지
바람에 심은 생은 오늘도 고뇌합니다
달콤한 흙 내음 계절 속에 심어진 비밀
우리의 바람은 하늘에 묻어나고 실려
그 공기에 묻힙니다
골막한 칠십 생이 작히나 감사한지
채우시고 가꾸실 아버지께 맡겨져
이 가을 다시 빛납니다.

신북교회 반주자로 살아온 30년…

박 자 경 권사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박민옥 권사님 댁이었다. 아버지는 '피아노를 배워서 교회 반주를 해야 해' 하시면서 당시 교회 반주자이셨던 오혜영 사모님께 나를 맡기셨고 나는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학교를 등교하기 전 아침 7시에 출발해서 피아노를 치고 학교에 등교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며 배우는 것이 재미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반주자가 되기 위해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연습했다. 초등 중학년이 되면서 동네에 있는 솔지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그때 처음 선생님이 '하늘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 악보를 주시면서 연습해 보라고 하셨다. 4성부를 한 번에 보고 연주하기는 어려웠지만 화성

의 아름다움에 떠듬떠듬 끝까지 연주했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작곡 전공자이셨던 선생님께 배우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콩쿨에 나가 입상도 하고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그 당시 수요예배 반주자가 공석이 되면서 수요예배 반주를 시작으로 반주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처음 반주한 날 초긴장 상태로 얼굴은 빨개지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겨우겨우 반주를 마쳤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반주에 맞춰 예배를 드린 성도들과 김은일 목사님은 매우 힘드셨을 텐데… 하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든다. 하지만 조현숙 사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의 칭찬에 힘입어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난다. 중학생이 되면서 할렐루야 성가대 반주를 하게 되었다. 이전 반주자 선생님께서 성가 악보의 반주 부분과 노래 부분을 알려 주신 게 전부….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백춘길 장로님께서 성가대를 지휘하셨는데 처음 해 보는 합창 반주자에 맞춰 찬양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 주보에 반주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에도 몇 년이 걸렸다. 그 시절에는 어린아이가 반주를 하니 이름을 올리기까지는 힘들었던 것 같다. 반주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토요일 하교한 후에는 중고등부 예배, 주일은 성가대 반주와 대예배 반주, 주일 저녁 예배 찬양팀 반주, 저녁 예배 반주를 했고, 저녁 예배 마치고 중고등부 기도회 반주까지…. 주중에는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반주 연습으로, 주말에는 온전히 교회 반주로 헌신하는 시간들이었다. 한번은 주일이 설날이었는데 가족들은 모두 예배를 마치고 경기도에 있는 큰댁으로 가시고, 반주를 해야 해서 나만 혼자 남겨두고 가셨던 일도 기억이 난다. 고3 때는 야간자율학습과 주말 자율학습을 하던 시기였는데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다. 학생들 지도에 철저하신 담임 선생님이시라 주말 학습을 빠질 수 없었는데 반주를 해야 하는 관계로 백춘길 장로님 찬스를 사용했던 일도 있었다.

모든 생활이 교회 중심이셨던 부모님은 반주를 하게 되면서 교회에 피아노를 헌물하셨다. 새 성전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랜드 피아노와 신디사

이저를 구입하면서 설렜던 기억도 난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님은 교사가 되길 원하셨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속 반주를 하면서 음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사촌언니의 도움을 받아 음대에 진학했고 피아노와 작곡, 실용음악을 공부하며 체계적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었다. 제이락(JLOC)이라는 춘천연합찬양팀 건반주자로 예배 음악 전문가들과 함께 사역하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덤으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난 곳이기도 하다. 음악 공부를 하면서 유학의 꿈을 품고 준비하던 중 상담을 만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공부하여 목사님과 부모님의 진심을 다한 기도 덕에 상담교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의 43년 삶 중에서 30여 년을 신북교회 반주자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할렐루야 찬양대 재창단을 이야기하며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예배가 축소되면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해체되었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회복된 후 기독음대와 동부교회 교회음악으로 친분이 있었던 임창호 교수님을 지휘자로 모시어 제2의 신북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재창단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저희 교회에도 음악 전문가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했었는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사건이었다. 저의 삶은 신북교회 반주자로 주중은 주일 예배를 위한 연습으로, 주말은 예배를 섬기며, 늘 긴장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주의 자리는 예배의 가장 중심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한다. 반주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반주의 자리를 통해 30년을 늘 찬양 속에 거하게 하셨던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예닮 찬양단

정 희 경 권사
(예담 찬양단 인도)

예닮찬양단은 신북교회 모든 예배의 경배찬양을 맡은 찬양단입니다. 2024년 이전의 신북교회 찬양단은 각 예배 별로 명칭이 달랐습니다

주일 1부 - 헵시바, 주일 2부 - 예닮, 주일 오후 - 쉐키나, 금요 기도회 - 헤세드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존의 여러 찬양단은 예닮 찬양단이란 명칭으로 통합했습니다.

그 동안 전통 예배로 드려졌던 예배 형식이 2022년부터 주일 1부, 2부 예배가 열린 예배로 형식이 바뀌게 되면서 예닮 찬양단이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주일 1부는 열린 예배로, 2부 예배가 전통 예배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닮 찬양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장 – 윤명중 안수집사. 찬양 인도 – 정희경 권사
반주팀 : 건반 – 박소영, 안현미. 기타 – 윤명중. 베이스 – 정슬기.
색소폰 – 기대승
싱어팀 : 김만식, 우승민, 정우량, 최성순, 박은영, 정희숙, 김영례,
김세진, 기지영, 현희정, 강지민, 강지훈

예닮 찬양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진정한 예배의 찬양을 드리기위해 세워진 찬양 공동체입니다. 예닮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찬양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 단원들이 먼저 삶의 예배자로 드려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완성도보다는 마음의

진실함이 고백되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재이며 더욱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저의 찬양 사역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찬양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더욱 깊은 예배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훈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영성훈련에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예닮 찬양단은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며 교회의 예배와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신북교회에서 배운 사랑

조 성 현 전도사
(대구 평강교회)

저는 목사님의 아들, 흔히 말하는 PK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신실한 척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시기에 아버지께서는 담임 목회를 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다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신북교회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신북교회에 온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아버지와 함께 저희 가족은 강원도 춘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신북교회는 제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며 인생의 방향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었습니다.

신북교회와 저는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3년은 학생의 시간으로, 3년은 청년과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은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잊히지 않는 기억과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신북교회에서 제가 배운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천이었습니다. 담임목사로 섬기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저와 저희 가족은 길 잃은 어린양처럼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신북교회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는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겪어 온 신북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장로님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북교회에서의 시간은 제게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북교회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과 현재 담임목사님이신 이창봉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저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은 하지 말아라. 너무나도 힘든 길이다. 너는 이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그때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절대 사역 안 해요. 제가 어떻게 아빠처럼 사역을 해요. 저는 절대 못 해요.”

그만큼 저는 사역의 길을 두려워했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는 사역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인지 잘 알고 계셨기에 저에게 권유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역자

로 부르셨고, 신북교회에서 귀하고 소중한 섬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교육전도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구 평강교회 소년부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북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준 곳이며,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배운 곳입니다. 또한 제 인생의 방향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준 곳입니다.

비록 이제는 떠나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저에게 도전을 주는 곳이며, 잊지 못할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신북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 은혜의 간증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 양 호 집사[5]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양호 집사입니다. 제 아내는 이연자 권사입니다.

제가 이 모자를 쓰고 주님 전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위배 되는 것 같아서 모자를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모자를 쓰면 하나님께서 저를 못 알아보실까 봐 벗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이러한 머리를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저는 신북교회에 등록한 지가 올해 4년이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신북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에 감사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과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오래 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그 좋은 것들 다 버리고 강원도 춘천 신북읍 발산리 송지골이라는 고지대 고을에 저를 안착하게 해 주신 것이 저희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욕심을 다 떨쳐버리고 세상과 분리하여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쪽으로 부르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딴 사람보다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살면서 샘밭을 내려다 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뜻에서 그곳으로 저를 불러올리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부지 같은 사람을 산속 계곡에 정착시키신 것은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서

5) 김양호 집사님은 2021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위의 간증을 하시고, 6개월 후인 2022년 5월 29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큰 영광으로 나한테 보답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사 와서 교회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 이연자 권사가 신북교회로 교회를 결정하자고 하여 알아보았더니 저와 이연자 권사가 직분을 받은 서울 목민교회와 같은 교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이연자 권사가 이 신북교회에 등록하였고, 등록하기 전에 저희가 예배에 한두 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인지 주일이 되면 기다려지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기만 하면 즐거운 것이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의 향기로운 말씀 그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교회의 어르신들과 장로님, 집사님들을 만나면서 예배 전에 차 한잔 교제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갑자기 감기 기운으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치료보다는 검사가 먼저라고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대학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술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그저 3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말 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것을 잊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사 온 것도 고마운데, 3개월 더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다니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원래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 주실지가 아주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절 도와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 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했을 텐데 저는 이상하게도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초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10분 만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3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퇴원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하늘 같은 산의 큰 계곡에서 안개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속에서 아주 큰 천둥과 같은 소리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런 목소리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음성이었고, 한편으로는 조용한 소리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면서 안개가 걷히고, 안개가 걷힌 곳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음성이 하나님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치료는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키우던 염소부터 정리하고, 그동안 쓰던 모든 장비를 정리하는데, 아내가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김양호 집사 믿음 큰 줄 아시고 당신을 받아 주시네요. 뭐. 하나님께서 당신 할 일이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치료 계속하여 봅시다'며 치료를 시작해 보자고 간곡하게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치료를 시작하였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좋은 결과가 보이 시작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항암치료, 방사능 치료 두 가지 다 부작용 없이 치료가 잘되어 좋아지고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 하였습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1년이 넘도록 살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우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감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얼마나 연장하여 주실 지는 모르지만 저의 기도는 모든 신북교회 교우님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다가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실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북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박 순 영 권사

안녕하세요? 박순영 권사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운영 중인 농장에 큰 화재를 당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저는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라고요.

저는 18년 전쯤 이곳으로 귀농 후 바닥부터 시작하여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긴 시간도 아닌 두 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80억 정도의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까?"

울면서도 저를 뒤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친정 가족이 전부 기독교인인 기도하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려고 노력했다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박순영 권사 대단하다'고 칭찬할지라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일대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불이 나서 망했다고 울면서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하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승승장구하는 와중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물질적으로는 농장의 규모가 18만 5천 수에 달할 정도로 커지다 보니 사실 억이라는 돈이 돈 같지 않았습니다. 억 단위의 돈이 한 달에 몇 번씩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돈이 별로 저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잠깐 제 뒤로 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에 ‘내 자식은 나처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처럼 바닥을 기고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간과하고 제가 준비하려 했습니다. 집도 사주고, 앞으로 아이들이 건물로 월세도 받아먹고 살 수 있게끔 나처럼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불은 제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대가였습니다. 불이 났는데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제 교만의 크기를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두 시간 만에 80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저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고, 다시 낮아진 모습으로 제가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따뜻한 관심 가운데 농장으로 찾아오셔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또 다른 장로님께서는 저와 저희 사업체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정말 많은 질책을 당하시면서도 정말 저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뭐라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화재 초창기만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미 걸어왔던 길이잖아. 이제 더 잘 아니까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일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런 아픔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천국 백성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죽었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면 다시 힘이 생기고 숨이 쉬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 숨 막히는 고통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

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화재로 인한 재건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어찌 된 일인지 시청에서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으로 내놓는 바람에 민원인들 반대에 부딪혀 세 번의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중 3차에 누락되면 재건축할 수 없어서 행정 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2차에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저는 죽을 것 같았고, 정말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2차까지 심의가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제가 너무 힘이 들었었나 봅니다. 목사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려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가시게요? 아니, 그런 상태로 힘이 빠져서 그렇게 쳐져서 그냥 가시면 어떡하려고요?"라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권면하시며 기도해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권사님은 쳐져 있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 씩씩한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권사님은 씩씩하지 않으면 권사님 모습에 맞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힘이 있어야 어울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 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습은 씩씩한 모습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힘이 없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처질 때 기도해서 다시 씩씩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약해지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사람들이 찾아올 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하나' 걱정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제가 씩씩하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호흡의 공간이 있어서 저는 항상 씩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보루를 저희에게 항상 남겨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에 들어오려고 했던 5만 수 닭이 있었는데 어찌어찌하여 이천에 닭이 들어갈 수도 없던 농장에 저희가 8천만 원을 들여 수리를 했고,

현재 5만 수의 닭들이 알을 열심히 잘 낳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샘밭 농장 공사가 계속 딜레이되는 바람에 "내 눈을 들어 먼 곳을 한번 쳐다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2차에 도시계획 심의가 불발되었을 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 농장의 닭 계약이 내년 3월 혹은 길면 7~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이 끝나면 이자 나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화천에 5,370평의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은 860평 건물이 지어져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제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보험도 안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돕는 손길들도 있었고, 기도하는 형제들도 있었고, 언니가 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출도 하고 이천의 농장에서 나오는 돈을 모아서 이제는 저희 큰아들 박대훈 이름으로 농장을 매입해서 오늘 2만 2천 5백 수의 닭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늦어지는 것이나 빨라지는 것도, 일이 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제 믿음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마음은 '좀 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신앙심 깊고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것이 항상 소원입니다. 그러나 행동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고 늘 기도합니다. 제가 2차 심의까지 기각되었을 때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엎어지려고 하면 목사님이 다시 뒷덜미를 '안 돼' 하고 딱 잡고 세워 놓고 또 힘들어서 쓰러져 있으려고 하면 '안 돼' 하고 뒷덜미를 딱 잡고 세워 놓는 일들이 오랜 기간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늘 '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저 설교를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하는 감사한 마음이 정말 제 마음속에 넘치고 넘쳤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은 교회 얘기

를 하면 먼저 험한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 주일에 제 남편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화천에 닭이 들어와서 큰아들을 돕느라 본의 아니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등록한 뒤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실제 저번 금요일에 남편과 엄청 싸웠습니다. 진짜 세게 싸웠어요. 토요일 날 걱정이 돼서 제가 한풀 꺾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내일 교회 간다고 하려나 안 간다고 하려나 걱정을 했는데 밭에 갔다 오더니 아침에 샤워하고 교회 갈 준비를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아직 아버지라 부르질 않아요.

한 번은 두 손을 들고 경배 찬양을 할 때 한쪽 손만 올리고 반댓손은 제 손 위에 올려서 경배 찬양을 합니다. 설교 말씀은 제대로 듣고 있나 궁금해서 남편에게 설교 말씀에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이럽니다.

"이 사람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자리를 채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내가 그 일을 했어. 자리를 채웠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 오셨어도 힘이 안 난대잖아. 그 자리를 내가 채웠잖아, 이 사람아."

그래도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번 23일 제사였습니다. 저희 시댁은 유교 사상이 남아 있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 셋째 며느리인 제게 본인이 돌아가신 후를 맡기셨기에 제가 큰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리는 방법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제가 편한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남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신 한 번씩 납골당에 올라가 가족들 제사를 한 번에 지내곤 했습니다.

그 제사가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는데 남편이 제사 준비를 해 놓고 조카들과 시동생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너네끼리 절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부활주일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 이 정도로 신앙심이 자라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신북교회가 있는 곳이 남편의 본토이자 고향이기 때문에 교회에 남편이 아는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의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다니는 게 아닌 자기네 교회에 다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인 백 권사님도 우리 남편을 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아주 친숙하게 지내면서 남편을 잘 이끌어주십니다. 덕분에 남편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정착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샘밭 농장이 도시계획 3차 심의가 통과되었고, 경관 심의도 통과되어 이제 착공 공사가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 짓는 것은 4만 4천 수여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대출금도 많이 받아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에 대훈이를 통해서 화천에서 유정란 농장도 시작하게 되었는데 대훈이가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펼쳐 나갈지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는 제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서 준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고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감히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잘못된 노릇인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남은 삶은 빚도 열심히 갚아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 앞으로 죽는 날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란 변하기 마련인지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기도란 호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지 않을 때는 숨이 잘 안 쉬지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할 때만이 제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많은 놀람이 있었기 때문인지 공황 장애라도 생길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 다시 숨이 쉬어집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믿는 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편은 신북교회 성도님들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신북교회의 큰 사랑 덕분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주 크게 생겼던 부분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신실한 교회고, 교회에 가려면 신북교회로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 1년 동안 사는 가운데 아픈 조카와 시동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조카가 처음에는 저를 무서운 큰엄마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큰엄마가 생각보다 따뜻하고 좋은 큰엄마네'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카가 자신은 불교를 다닌다며 교회에 오는 것을 거절했었는데 내년에는 교회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까지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정과 사업터를 돕고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집

김 선 희 집사

우리 집은 믿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초등 2학년 때 집 근처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라 잘 어울리며 다니긴 했지만 다니다 말다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시구나. 죄지으면 혼내시겠다. 착한 행동을 하면 칭찬해 주시겠지' 정도가 제가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제법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밖으로 흥청망청 쓰시며, 여자도 많으셨습니다. 어머니께 폭력을 쓰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밉고 싫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창문 밖을 보며 소리 죽여 우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두 분은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님께서 재혼한 아버지 집에서 살았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 제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교회에서 고3 학생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는데, 저처럼 부모가 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집사님들이 제비를 뽑아서 기도해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번호를 뽑은 어느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요. 그 번호가 21번인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그 집사님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지만 부모도 해주지 않는 기도를 자기 자식처럼 해주신 그 집사님의 존재는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21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였지요.

저는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는 집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니까요.

교사가 되어 신우회를 알게 되었고, 믿음의 선배 중 한 분이 매일 쪽지에 말씀을 써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요. 가족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제 주위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지요.

대학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학 때 불교 학생회를 다닐 정도로 하나님과는 먼 사람이었지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니 결혼했습니다. 큰아이를 시어머님께서 키워주시느라 2년 정도를 함께 살았는데 제 책꽂이에 성경책이 꽂힌 걸 보시고 시아버님께서 남편에게 불태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잘 설득해 주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게다가 친척분께서 제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보시고 시어머니께 어떻게 종갓집 맏며느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냐고 그러셨어요. 종갓집 맏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마땅하냐고. 시어머님께서 돼지 모양 금 펜던트를 사 오셔서 십자가를 빼고 어머니께서 사 오신 돼지 모양으로 바꾸어 달고 다니라고 하셨지요.

그때 제게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을까요. 저는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말씀은 다 듣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빼라고 하시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건 하나님이 계셔서라고, 안 그랬으면 저 정말 나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라고.' 울면서 고백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님께서 잘 알았다고 수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이지만, 2018년 맏며느리인 제가 제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남편과 저의 오랜 소망이었던 추도예배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두 분이 오랜 기간 망설이시긴 하셨지만 아들 며느리가 예수 믿으니 우리도 그 예수 한 번 믿어보마 하셨지요. 어느 명절날 추도예배 마치고 시부모님께 기도문을 3장 적어서 드렸지요. 한 장은 큰아들

가족을 위한 기도, 한 장은 작은 아들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한 장은 두 분을 위한 기도…. 그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두 분은 손을 잡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요. 제가 부러워하던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이 된 것이지요.

남편이 임용시험 공부를 할 때 저는 옆에서 성경책을 읽으며 함께 있었지요. 남편이 임용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제게 당신이 계속 옆에서 성경 읽으며 기도하는 걸 보며 임용 통과하면 교회에 나가 보겠다고 생각했다고 했고, 그 후 교회를 몇 달 정도 나가주었지요. 그러나 남편에겐 교회의 문화는 생소했고, 교회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렸을 때 일화를 들려주었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야! 교회 다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그렇다. 미국 봐, 미국은 교회 다니니까 잘 살잖아' 전도하려는 이유였겠지만 남편은 윽박지르는 느낌을 받았고, 그 불편했던 기억이 매우 오래 갔었다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남편이었지요.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이 울기도 했지요.

2000년도에 울산에서 고양시로 전근을 왔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너무 좋아해 주시던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좋은 목사님의 인도 덕에 남편은 열심히 교회를 나갔지요. 2002년 딸이랑 함께 세례도 받고, 차량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참가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남편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점도 많고 의심도 많았는데 그것을 저에게 물을 때마다 저는 귀찮다는 듯 왜 안 믿기냐고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께 가되 이층 멀찍한 자리에 앉아 대충 예배를 드리는 듯한 남편에 대해 미워하고 짜증 내고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지요.

처음엔 교회만 나가도 좋겠다 싶더니 갈수록 남편을 정죄하고 있던 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읽고 있더니 주일마다 교회를 다녀오는 길이나 테니스 모임을 다녀오는 길에서 자주 '교회는 썩었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다. 성당을 가자.' 등등 비평의 말들을 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자주 싸우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런 말도 하더군요. "너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면 안 믿는다."

남편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고, 저랑도 멀어졌고….

그러던 2021년 11월 남편은 침대가 젖을 만큼 피를 흘렸고, 결과는 암이었습니다. 수술하려면 6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교수님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기적처럼 한 달여 만에 수술하게 되었고, (그 어떻게가 기도의 응답이지요.) 살려만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남편의 병으로 남편은 병휴직, 저는 2022년 명예퇴직을 하고, 이천보다는 조금 더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춘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살면 살수록 너무 좋은 곳으로 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중에 정말 감사한 것은 신북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천에서 다니던 교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남편이 춘천의 교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먼저 집에서 가까운 교회 몇 군데를 다녀보자 했었지요. 첫 번째로 알아보자고 정한 교회가 신북교회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딱 한 번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남편은 이 교회에 가보자 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교회 다섯 번 다녀보고, 다른 교회도 알아보자가 원래 저희의 계획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매시간 눈물 콧물 줄줄 흐르도록 은혜 가득한 예배였어요. 다른 교회를 더 다녀볼 필요가 없었지요.

아들 표현에 의하면 지금은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 같다고 합니다. 아침에 남편과 성경을 함께 윤독하고, 손잡고 기도합니다. 주일이면 남편이 더 서둘러 교회 갈 준비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제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선택해 주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많은 죄를 사하시려 예수님 오심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어린아이와 같아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봐주시는 거 같습니다. 나이가 60이 다가오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떼도 쓰고 징징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III

부 록

1. 교회 연혁
2. 역대 담임 교역자
3. 역대 부교역자
4. 역대 항존직분자
5. 2025 교회 조직
6. 역대 대외 섬김 활동

Ⅲ 부 록

1. 교회 연혁

◈ 1950 년대	
1953.10.07	차광훈 군목의 인도로 신북면 율문1리에 설립키로 의결 이건신 권사와 김성섭 군목이 천막 12평을 구입하여 창립예배를 드리다.
1954.01.05	장기택 전도사를 초대 교역자로 모심(1955, 01,30 사임)
1956.02.10	김승규 목사 담임목사로 부임(1957.05.10 사임)
1957.01.05	서울 남대문교회로부터 12,000원의 보조를 받아 구 예배당 신축하다.
1958.10.20	함익환 목사 담임목사로 부임(1959.11.30 사임)
1959.11.30	원응호 전도사 담임전도사로 부임(1961.05.01 사임)
◈ 1960 년대	
1964.01.05	임연묵 전도사 담임전도사로 부임(1966.04.09 사임)
1967.02.11	정삼조 전도사 담임전도사로 부임(1969.09.30 사임)
1969.04.06	율문리 256-22번지에서 예배당 신축기공 예배를 드리다.
1969.10.01	박우만 강도사 담임강도사로 부임
◈ 1970 년대	
1970.10.07	예배당 봉헌식 및 박우만 강도사 목사 안수
1971.05.08	박우만 목사 위임식, 김익보 장로 장립
1972.04.02	박우만 목사 사임
1972.04.28	이종국 강도사 담임목사로 부임(1973.05.29 사임)
1973.06.01	김은일 목사 담임목사로 부임
1976.11.30	사택 20평 건축
1977.03.25	김은일 목사 위임식

◈ 1980 년대	
1980.09.04	백승욱, 민경천 장로 장립 및 김갑순, 길수희 권사 취임 (1988.01.20 길수희 권사 소천, 2009.01.31 김갑순 권사 소천)
1981.01.24	강대원 교육전도사 부임(1981.04.30 사임)
1984.06.01	교육관 20평 건축 및 본관 현관 개축
1984.12.31	김갑순 초대 권사 은퇴
1986.05.01	윤계월, 박민옥, 이영자 권사 취임
1986.06.01	정연성 전도사 부임(1988.01.05 사임)
1988.06.15	유치부실 신축
1989.05.15	임보순 교육전도사 부임(1991.11.10 사임)
◈ 1990 년대	
1992.06.01	서정형 교육전도사 부임(1993.06.30 사임)
1993.08.01	김성찬 교육전도사 부임(1997.12.31 사임)
1993.10.30	창립 40주년에 서승목, 박광장, 백춘길 집사 안수, 허정대, 오순옥 권사 취임
1997.11.08	김은일 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김익보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1998.01.11	김지한 목사 담임목사로 부임(2002.09.22 사임)
1998.06.21	김병환 교육전도사 부임(1999.12.29사임)
1998.10.24	박광장, 백춘길 장로 장립, 최영철, 김봉우 집사 안수 정춘식, 이정순, 안정순, 이범자 권사 취임, 허정대 권사 은퇴
1999.02.05	교육관 2층 및 사택 증축
1999.08.08	장학기금 설립(故 백종원 집사 유가족 출연)
◈ 2000 년대	
2000.06.04	조덕준 전도사 부임(2002.04.30 사임)
2002.05.01	권두훈 교육전도사 부임(2002.09.07 사임)
2002.10.06	조덕준 전도사 담임전도사로 부임
2002.12.09	김성선 교육전도사 부임(2003.08.31 사임)
2003.01.29	성전부지 1500평 매입(율문리 258-18)
2003.07.06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 기공예배
2004.01.01	한준근 전도사 부임(2005.05.30 사임)
2004.04.14	조덕준 전도사 목사 안수
2004.05.23	50주년 기념 성전 입당예배 및 임직식 김규식, 김종태, 기대승, 오인환 집사 안수 정순덕, 박근숙, 지남숙, 이미생, 김후순, 장재월 권사 안수
2004.11.05	김은일 원로목사 소천
2005.06.01	김주영 교육전도사 부임(2006.02.20 사임)

2006.03.01	김진배 교육전도사 부임(2006.12.31 사임)
2006.05.21	백승욱, 민경천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오순옥, 윤계월, 박민옥 권사 은퇴 김종찬, 김인하 집사 안수, 조시연, 장은희, 김경남 권사 안수
2007.11.11	김재봉 교육전도사 부임(2009.12.31 사임)
2009.01.11	정유승 교육전도사 부임(2012.06.31. 사임)
2009.11.22	50주년 기념성전 헌당 조덕준 목사 위임. 김봉우, 김종찬, 김규식, 오인환 장로 장립 김주열 집사 안수. 전영희, 전미옥, 이정숙, 황선신, 홍미향 권사 안수, 이범자 권사 은퇴
◈ 2010 년대	
2010.11.14	교육관 및 당회실 64평 증축
2010.12.26	조덕준 담임목사 소천
2011.03.13	이석진 목사 담임목사로 부임
2012.02.26	신북기부천사(1004) 발족
2012.09.02	임정현 교육전도사 부임(2013.10.30 사임)
2013.01.06	원창영 교육전도사 부임(2014.11.30 사임)
2013.10.07	창립60주년 기념 지역주민초청 잔치, 홈커밍 데이
2014.11.30	이석진 목사 사임(말레이시아 선교사 파송)
2015.03.01	조현석 목사 담임목사로 부임(2016.04.06 소천)
2015.05.31	마헌욱 준전임전도사 부임(2016.01.03 사임)
2016.01.24	정수근 전임전도사 부임(2017.03.30 사임)
2016.01.31	민현식 교육목사 부임(2017.12.24 사임)
2016.07.31	이창봉 목사 담임목사로 부임
2017.01.01	나미선 교육전도사 부임(2019.11.18. 사임)
2017.05.01	김충현 전임전도사 부임
2017.05.28	은퇴 및 임직예식 조시연 이영자 권사은퇴, 최성순 권사취임, 민병철 박병현 신종우 박정규 박수인 마득운 집사 안수 최화순 홍정애 임동희 백승자 함남미 최수정 최원희 최윤정 권사 안수
2017.12.25	이의진 교육전도사 부임(2018.12.25. 사임)
2018.05.20	이창봉 담임목사 위임식
2018.12.30	조성현 교육전도사 부임(2020.12.31. 사임)
2019.03.23	물댄동산 교육관 기공예배
2019.10.06	물댄동산 교육관 준공감사예배
2019.12.15	박광장 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식

◈ 2020 년대	
2020.01.01	70주년 물댄동산 비전 선포
2020.03 ~2021.10	'코로나 19'로 인한 예배 축소
2021.01.01	김연희 교육전도사 부임(2023.12.31. 사임)
2022.01.01 ~12.31	연대기 성경 통독 녹음(박광장, 백춘길, 김규식, 황규호, 박근숙, 차경순, 정희경B, 박자경, 김용애, 현희정, 정슬기)
2022.04.10	교회 토목공사(잔디 조성) / (한 달간)
2022.07.01 ~08	필리핀 팔라완 선교 탐방(이창봉 목사, 김규식 장로)
2022.10.02	본당 리모델링 공사(두 달간)
2023.01.08	70주년 기념 신년 감사 축복예배(박광식 문화 선교사)
2023.02.11	제1회 신북읍 주민 윷놀이
2023.02.20. ~02.25	필리핀 단기선교(청소년부)
2023,05.14	신북교회, 천전교회 연합 체육대회
2023.05.21	선교헌신예배(리빙투게더교회 MOU 채결)
2023.06.23. ~06.28	필리핀 단기선교 및 신북인테리어 교회 헌당예배
2023.09.17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창립 70주년 감사예배(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
2023.10.08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
2023.11.05	임직예식 김종태 신종철 장로 안수 윤명중 집사 취임, 오진호 김만식 우승민 정우량 손호성 집사 안수 정희경B 권사 취임, 안현미 박순영 박자경 유수정 권사 안수
2023.12.31	안수집사 은퇴 : 최영철 권사은퇴 : 박근숙, 김후순
2020~2023	70-700 성경통독 / 111명 710독
2024.02.24	제2회 신북읍 주민 윷놀이
2024.06.08. ~06.15	필리핀 단기선교(아동부)
2024.10.06	창립 71주년 기념 월드비전 식수 사업 지원
2024.12.29	장로 은퇴 : 백춘길, 김종찬 안수집사 은퇴 : 기대승 권사 은퇴 : 지남숙
2025.02.02	김윤경 교육전도사 부임(2025.05.25. 사임)
2025.02.09	백춘길 장로 원로장로 추대식
2025.02.15	제3회 신북읍 주민 윷놀이
2025.06.01	양호원 교육전도사 부임
2025.06.29	필리핀 '신북인테리어 교회' 2주년 감사 예배
2025.09.07 ~10.12	창립 72주년 감사 릴레이(간증, 감사이야기예배)

2. 역대 담임 교역자

번호	이 름	부 임	사 임
1	장기택 전도사	1954.01.05	1955.01.30
2	김승규 목사	1956.02.10	1957.05.10
3	함익환 목사	1958.10.20	1959.11.30
4	원응호 전도사	1959.11.30	1961.05.01
5	임연묵 전도사	1964.01.05	1966.04.09
6	정삼조 전도사	1967.02.11	1969.09.30
7	박우만 목사	1969.10.01	1972.04.02
8	이종국 강도사	1972.04.28	1973.05.29
9	김은일 목사	1973.06.01	1997.11.08.(은퇴)
10	김지한 목사	1998.01.11	2002.09.22
11	조덕준 목사	2002.10.06	2010.12.26.(소천)
12	이석진 목사	2011.03.13	2014.11.30
13	조현석 목사	2015.03.01	2016.04.06(소천)
14	이창봉 목사	2016.07.31	현재

3. 역대 부교역자

번호	이 름	부 임	사 임
1	강대원 교육전도사	1981.01.24	1981.04.30
2	정연성 전도사	1986.06.01	1988.01.05
3	임보순 교육전도사	1989.05.15	1991.11.10
4	서정형 교육전도사	1992.06.01	1993.06.30
5	김성찬 교육전도사	1993.08.01	1997.12.31
6	김병환 교육전도사	1998.06.21	1999.12.29
7	조덕준 전도사	2000.06.04	2002.04.30
8	권두훈 교육전도사	2002.05.01	2002.09.07
9	김성선 교육전도사	2002.12.09	2003.08.31
10	한준근 전도사	2004.01.01	2005.05.30
11	김주영 교육전도사	2005.06.01	2006.02.20
12	김진배 교육전도사	2006.03.01	2006.12.31
13	김재봉 교육전도사	2007.11.11	2009.12.31
14	정유승 교육전도사	2009.01.11	2012.06.31
15	임정현 교육전도사	2012.09.02	2013.10.30
16	원창영 교육전도사	2013.01.06	2014.11.30
17	마헌욱 준전임전도사	2015.05.31	2016.01.03
18	정수근 전도사	2016.01.24	2017.03.30
19	민현식 교육목사	2016.01.31	2017.12.24
20	나미선 교육전도사	2017.01.01	2019.11.18
21	김충현 전도사	2017.05.01	현 재
22	이의진 교육전도사	2017.12.25	2018.12.25
23	조성현 교육전도사	2018.12.30	2020.12.31
24	김연희 교육전도사	2021.01.01	2023.12.31
25	김윤경 교육전도사	2025.02.02	2025.05.25
26	양호원 교육전도사	2025.06.01	현 재

4. 역대 항존직분자

1) 장로

번호	이 름	장 립	은퇴(원로)
1	김익보 장로	1971.05.08	1997.11.08
2	백승욱 장로	1980.09.04	2006.05.21
3	민경천 장로	1980.09.04	2006.05.21
4	박광장 장로	1998.10.24	2019.12.15
5	백춘길 장로	1998.10.24	2024.12.29
6	김봉우 장로	2009.11.22	
7	김종찬 장로	2009.11.22	2024.12.29
8	김규식 장로	2009.11.22	
9	오인환 장로	2009.11.22	
10	김종태 장로	2023.11.05	
11	신종철 장로	2023.11.05	

2) 안수집사

번호	이 름	취 임	은 퇴
1	박광장 집사	1993.10.30	
2	서승목 집사	1993.10.30	이 명
3	백춘길 집사	1993.10.30	
4	최영철 집사	1998.10.24	2023.12.31
5	김봉우 집사	1998.10.24	
6	김규식 집사	2004.05.23	
7	김종태 집사	2004.05.23	
8	기대승 집사	2004.05.23	2024.12.29
9	오인환 집사	2004.05.23	
10	김종찬 집사	2006.05.21	

번호	이 름	취 임	은 퇴
11	김인하 집사	2006.05.21	
12	김주열 집사	2009.11.22	
13	민병철 집사	2017.05.28	이 명
14	박병현 집사	2017.05.28	이 명
15	신종우 집사	2017.05.28	
16	박정규 집사	2017.05.28	
17	박수인 집사	2017.05.28	
18	마득운 집사	2017.05.28	이 명
19	윤명중 집사	2023.11.05	
20	오진호 집사	2023.11.05	
21	김만식 집사	2023.11.05	
22	우승민 집사	2023.11.05	
23	정우량 집사	2023.11.05	
24	손호성 집사	2023.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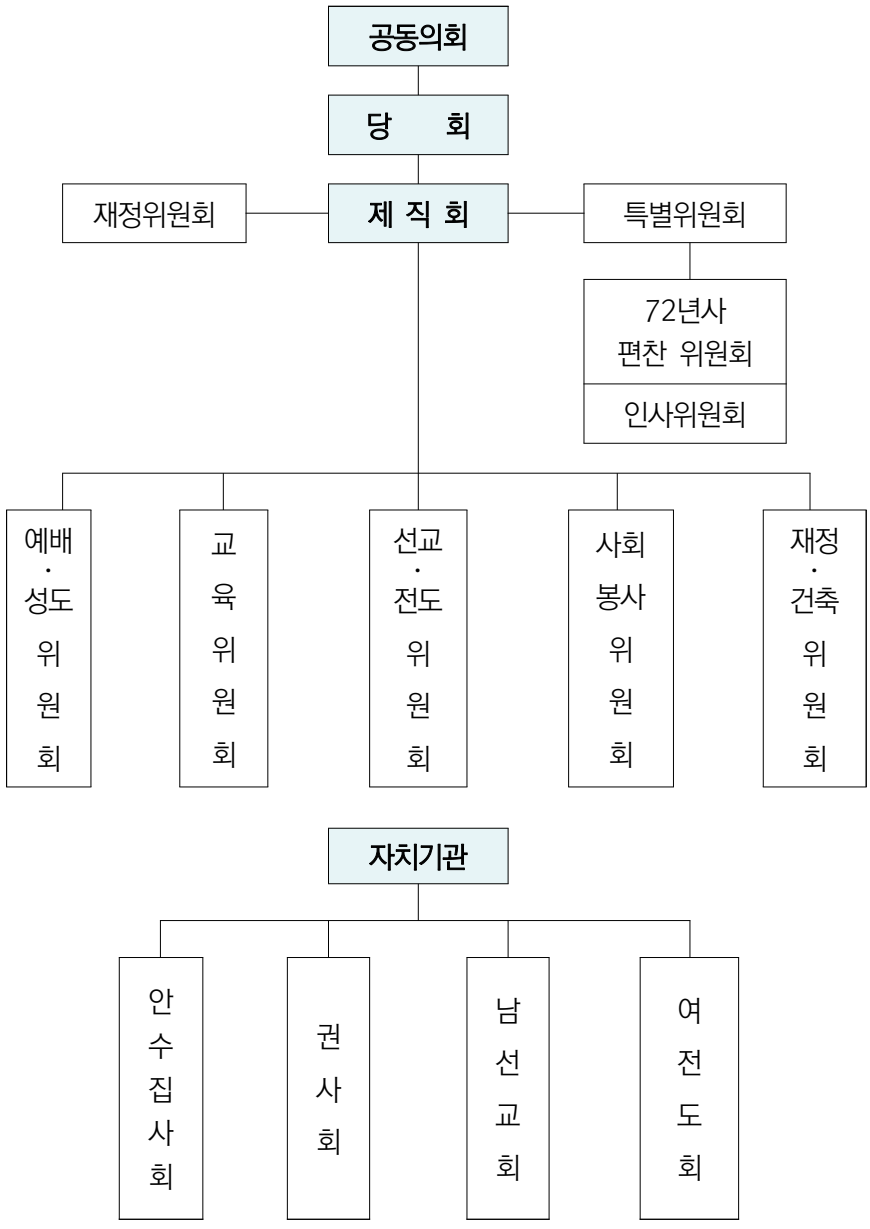
3) 권사

번호	이 름	취 임	은 퇴
1	김갑순 권사	1980.09.04	1984.12.31
2	길수희 권사	1980.09.04	1988.01.20 (소천)
3	윤계월 권사	1986.05.01	2006.05.21
4	박민옥 권사	1986.05.01	2006.05.21
5	이영자 권사	1986.05.01	2017.05.28
6	허정대 권사	1993.10.30	1998.10.24
7	오순옥 권사	1993.10.30	2006.05.21
8	정춘식 권사	1998.10.24	이 명
9	이정순 권사	1998.10.24	이 명
10	안정순 권사	1998.10.24	이 명
11	이범자 권사	1998.10.24	2009.11.22
12	정순덕 권사	2004.05.23	

번호	이 름	취 임	은 퇴
13	박근숙 권사	2004.05.23	2023.12.31
14	지남숙 권사	2004.05.23	2024.12.29
15	이미생 권사	2004.05.23	
16	김후순 권사	2004.05.23	2023.12.31
17	장재월 권사	2004.05.23	
18	조시연 권사	2006.05.21	2017.05.28
19	장은희 권사	2006.05.21	
20	김경남 권사	2006.05.21	이 명
21	전영희 권사	2009.11.22	이 명
22	전미옥 권사	2009.11.22	
23	이정숙 권사	2009.11.22	
24	황선신 권사	2009.11.22	
25	홍주희 권사	2009.11.22	
26	최성순 권사	2017.05.28	
27	최화순 권사	2017.05.28	
28	홍정애 권사	2017.05.28	
29	임동희 권사	2017.05.28	
30	백승자 권사	2017.05.28	
31	함남미 권사	2017.05.28	
32	최수정 권사	2017.05.28	이 명
33	최원희 권사	2017.05.28	
34	최윤정 권사	2017.05.28	
35	정희경 권사	2023.11.05	
36	안현미 권사	2023.11.05	
37	박순영 권사	2023.11.05	
38	박자경 권사	2023.11.05	
39	유수정 권사	2023.11.05	

5. 2025 교회 조직

1) 조직도



2) 공동의회

회　장 : 이창봉 목사
서　기 : 김규식 장로
회　원 :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

3) 당회

당회장 : 이창봉 목사
서　기 : 김규식 장로
회　원 : 김봉우 김규식 오인환 김종태 신종철

4) 제직회

회　장 : 이창봉 목사
서　기 : 김만식 안수집사
회　원 :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은퇴 항존직분자)

5) 제직 명단

• 교 역 자

위 임 목 사 : 이창봉
전 임전도사 : 김충현 / 교육전도사 : 양호원

• 장　　로

(원로) 백승욱 민경천 박광장 백춘길
(은퇴) 유충열 김종찬
(시무) 김봉우 김규식 오인환 김종태 신종철
(은퇴협동) 신상근 경명현 황연근

• **안수집사**

(은퇴) 최영철 기대승

(시무) 김인하 김주열 신종우 박정규 박수인 윤명중 오진호 김만식 우승민 정우량 손호성

(협동) 윤흥묵 박필승 김영덕

• **권　　사**

(은퇴) 허정대 윤계월 박민옥 조시연 이영자 박근숙 김후순 지남숙

(시무) 정순덕 이미생 장재월 장은희 전미옥 이정숙 황선신 홍주희 최성순 최화순 홍정애 임동희 백승자 함남미 최원희 최윤정 정희경 안현미 박순영 박자경 유수정

(협동) 김혜정 전동숙 김정숙

(은퇴협동) 정경자 차경순 이성희 이연자 오귀순 송인재 임창호 김병필 박점순

• **명예집사**

(남) 백수영 조천길 안명헌 박민찬 안봉준 장춘배 황규호 정기봉 최찬호 황용진 정태정 고정소 김종열 백원술 함정원 조경구 배경만 김진철 정　덕 권오길 조명수

(여) 권영순 황경완 신순철 임종숙 신순녀 한상옥 전점순 장옥란 이금순 이정옥 오윤자 박민숙 이양순 최부전 홍성원 정이춘 조영복 남상길 박순녀 이순례 홍옥희 오계화 김영자 박현숙 조금자 서태순 심인숙

• **서리집사**

(남) 강승읍 최민정 신호선 주용식 노한주 장호정 신선우 한동석 황인호 이정인 강우경 안성복 안현주 이무혁 백영선 홍재완

김영진 오민호 정현철 문은성 김영묵 홍복래 허길영 홍지윤
박대훈

(여) 이연화 조숙화 홍현자 김경애 박정숙 김복순 라희자 김순복
이옥녀 김정숙 정금선 나은경 최영옥 정희숙 기지영 안영미
김화순 고춘옥 심자영 오한숙 이선혜 박남수 현희정 김세진
김순화 이성옥 이소연 주동주 이영숙 주은주 정희경 이명희
김영아 김영례 황선영 박은영 조윤진 박수연 김선희 손재열
정슬기 박낮음 장은신 신선희 임송이

6) 위원회

Ⅰ. 예배・성도위원회(위원장 : 오인환 장로)

1. 예배찬양부 (부장 - 이정숙 권사 차장 - 이영숙 집사)
   - 할렐루야 찬양대장 - 윤흥묵 안수집사 총무 - 김혜정 권사
   - 예닮 찬양단장 - 윤명중 안수집사 총무 - 기지영 집사
   - 봉헌위원 1부 : 안수집사회 2부 : 기대승 (은)안수집사
2. 예전부(부장 - 권사회장 차장 - 권사회 총무)
3. 강단장식부(부장 - 황선신 권사 차장 - 김세진 집사)
4. 방송부(부장 - 윤명중 안수집사 차장 - 정슬기 집사)
5. 교구/새가족부(부장 - 이미생 권사 차장 - 홍정애 권사)

Ⅱ. 교육위원회(위원장 : 신종철 장로)

1. 유치부(부장 - 기지영 집사 차장 - 정희경A 집사)
2. 아동부(부장 - 김만식 안수집사 차장 - 정희숙 집사)
3. 청소년부(부장 - 정슬기 집사 차장 - 현희정 집사)
4. 청년부(부장 - 박자경 권사)
5. 장학사업부(부장 - 최윤정 권사 차장 - 이무혁 집사)

Ⅲ. 선교・전도위원회(위원장 : 김종태 장로)

1. 국내 전도부(부장 - 박순영 권사 차장 - 김영례 집사)
2. 해외 선교부(부장 - 오진호 안수집사 차장 - 정희숙 집사)
   - 회계(선교 후원 매니저) : 정희숙 집사

Ⅳ.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 김봉우 장로)

1. 주방봉사부(부장 - 최화순 권사 차장 - 장은희 권사)
2. 기부천사운동(부장 - 우승민 안수집사 차장 - 안영미 집사)
3. 경조부(부장 - 신종우 안수집사 차장 - 신호선 집사)

Ⅴ. 재정・건축관리위원회(위원장 : 김규식 장로)

1. 재정부(부장 : 정우량 안수집사 차장 - 이무혁 집사)
2. 성전관리부(부장 - 손호성 안수집사 차장 - 박필승 안수집사)
3. 차량관리부(부장 - 김인하 안수집사 차장 - 김주열 안수집사)

Ⅵ. 72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 백춘길 원로장로)

위원 - 김봉우 장로, 김규식 장로, 오인환 장로, 김종태 장로, 신종철 장로, 김종찬 은퇴 장로, 박수인 안수집사, 손호성 안수집사, 전미옥 권사, 이정숙 권사, 최영옥 집사, 정슬기 집사, 배지원 청년

Ⅶ. 인사위원회(회장 - 당회장, 위원 - 당회원)

Ⅷ. 공동의회(회장 - 당회장, 서기 - 당회 서기)

Ⅸ. 제직회(회장 - 당회장, 서기 - 김만식 안수집사)

7) 구역 편성

1교구장 - 김규식 장로			
101	정순덕 권사	김규식 장로	황규호 차경순 장춘배 오계화 권오길 이순례 조천길 오귀순 황선영 허길영 박수연 신선우 박자경 정임수 경명현 박점순 박광장 박수인 나은경 황예석 김미라
102	황선신 권사	김종찬 장로	장옥란 홍성원 이영세 서태순 심한구 김화순 최금석 이상철 송하림 이연자 김종열 김영자 안현주 김영아
103	함남미 권사	전미옥 권사	조현숙 김영묵 최근식 정금선 조윤진 김종태 임동희 박승락 최영옥 남상길 홍복래 신상근 윤을중 신선희 김주열 최화순
2교구장 - 오인환 장로			
201	정희경B 권사	윤명중 안수집사	박은영 홍재완 김선희 이정인 손호성 김정숙A 주용식 심자영 이무혁 김영례 허은남 성은혜
202	홍주희 권사	김만식 안수집사	박민옥 황경완 최찬호 김후순 강승읍 김순복 이정옥 김인하 장은희 허정대 황인호 이성옥 김세진 유수정 김정아
203	백승자 권사	박순영 권사	신종우 유충열 조시연 이금순 황용진 이옥녀 전점순 고춘옥 정태정 이성희 박노충 오인환 유채원 정종원 김영덕 김정숙B 김은자 박대훈 박광훈
3교구장 - 신종철 장로			
301	최윤정 권사	박정규 안수집사	박정숙 우승민 정희숙 안성복 정희경A신호선 안영미 이선혜 김홍진 한동석 박남수 장호정 이소연
302	이미생 권사	기대승 안수집사	오진호 김경애 오윤자 박민찬 이양순 임종숙 최민정 기지영 신경분 고정소 강우경 백원술 박순녀 백영선 정우량 현희정 송인재 김중종 강준재 박용목 소혜정 한승일 박가영
303	장재월 권사	전동숙 권사	민경천 이영자 박필승 신순철 정 덕 배경만 라희자 이연화 이상훈 이미연 임창호 신종철 이영숙 조금자 최원희
4교구 교구장 - 김봉우 장로			
401	홍현자 집사	백춘길 원로장로	박만웅 박민숙 문은성 장은신 조영복 정경자 주은주 주동주 함정원 김진철 오민호 박낮음 황연근 김병필 박근숙 최영철 홍옥희 조명수 심인숙
402	오한숙 집사	이정숙 권사	정이춘 최성순 조경구 박현숙 안봉준 최부전 이명희 노한주 김영진 손재열
403	홍정애 권사	윤흥묵 안수집사	정기봉 지남숙 권영순 안명헌 신순녀 백수영 한상옥 김복순 정현철 김순화 김혜정 박원강 안현미 송제근 조숙화 김봉우

8) 교육 기관

유치부 / 총 7명

안준서 오나현 오아현 신하온 정세하 김도윤 한나린

아동부 / 총 15명

안다경 김다온 최승우 임요나 반서원 신다은 우다현 정율하 홍려준 김수지 김온유 신온유 이기윤 반지원 황 제

청소년부 / 총 17명

안예성 정채원 송수아 주아진 이남경 이채아 박범준 박주선 박지오 이윤혁 주영준 이채은 박예선 이기찬 최승희 박재윤 우재현

청년부 / 총 37명

마준호 진휘은 장 은 박시하 황서연 황윤진 강지훈 강지민 안예은 문현민 문현웅 이주은 최강희 강한별 김은정 최세희 장민혁 김재희 배지원 이상원 홍 윤 전형철 윤현준 김도은 김민섭 김민지 김종헌 백민주 강현이 김은섭 김양선 박소명 윤미래 김현수 오세은 오세현 강현숙

9) 자치 기관

기관명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연합남선교회	신종우		김종태	이무혁
연합여전도회	장재월	백승자	정희숙	박은영 (함남미)
안수집사회	오진호	김만식	우승민	
권사회	황선신	홍주희	최성순	
아브라함회	안명헌		유충열	
1남선교회	함정원		정태정	

기관명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2남선교회	신종우		기대승	
3남선교회	김종태	박필승	윤명중	신종철
4남선교회	오진호	윤흥묵	박정규	
5남선교회	이무혁	안성복	정우량	우승민
한나회	신순녀	조시연		
1여전도회	이연자		김병필	
2여전도회	장재월	오한숙		
3여전도회	백승자		홍현자	이영숙
4여전도회	함남미	전동숙	홍주희	
5여전도회	정희경B	박은영	최윤정	
6여전도회	정희숙	김세진	현희정	

남 선 교 회

아브라함회 - 만 80세 이상(~1944년생) / 총 12명

이창규 백승욱 신상근 백수영 백원술 민경천 박민찬 유충렬 김진철
안명헌 조천길 권오길

1남선교회 - 만 79세~74세 / (1945년생~1952년생) / 총 16명

고정소 경명현 황연근 황규호 안봉준 장춘배 정기봉 심한구 최찬호
황용진 정태정 김종열 함정원 박광장 조경구 이남우

2남선교회 - 만 73세~67세 / (1953년생~1959년생) / 총 23명

최영철 백춘길 조명수 기대승 배경만 김종찬 김중종 정 덕 최금석
허길영 김인하 이정인 노한주 신종우 강승읍 강우경 박만웅 김영덕
박용목 오인환 김주열 김봉우 강준재

3남선교회 - 만 66세 ~ 59세 / (1960년생 ~ 1967년생) / 총 12명

신종철 오연환 백영선 김종태 박노충 박장완 박필승 김규식 정종원 윤명중 손호성 김영묵

4남선교회 - 만 58세 ~ 45세 / (1968년생 ~ 1980년생) / 총 20명

오진호 홍재완 윤흥묵 김영진 문은성 황인호 송제근 김홍진 박승락 박정규 주용식 홍복래 신호선 신선우 안현주 황예석 김만식 정현철 김상묵 박수인

5남선교회 - 만 44세 이하 / (1981년생 이후) / 총 10명

안성복 이무혁 최민정 정우량 장호정 우승민 오민호 홍지운 한승일 박대훈

여 전 도 회

한나회 - 만 80세 이상 / (~ 1945년생) / 총 21명

허정대 이정옥 권영순 신경분 윤계월 황경완 이순례 박민옥 오귀순 조현숙 임종숙 박순녀 이금순 한상옥 신순철 박원강 장옥란 전점순 신순녀 조시연 이양순

1여전도회 - 만 79세 ~ 74세 / (1946년생 ~ 1952년생) / 총 19명

오윤자 정경자 박민숙 이영자 송인재 최부전 차경순 홍성원 조영복 임창호 정이춘 김병필 조금자 남상길 김은자 이연자 박점순 오계화 홍옥희

2여전도회 - 만 73세 ~ 67세 / (1953년생 ~ 1958년생) / 총 19명

김영자 박근숙 이성희 김후순 지남숙 박현숙 서태순 심인숙 박정숙
오한숙 황선신 이미생 이옥녀 장재월 최화순 김순복 이연화 김복순
정순덕

3여전도회 - 만 66세 ~ 62세 / (1959년생 ~ 1963년생) / 총 15명

이정숙 장은희 박수연 정임수 황선영 이영숙 백승자 라희자 김정숙B
김화순 소혜정 홍현자 박순영 김순화 임동희

4여전도회 - 만 61세 ~ 57세 / (1964년생 ~ 1969년생) / 총 15명

고춘옥 최진숙 조윤진 조숙화 함남미 전동숙 김정숙A 홍주희 전미옥
유수정 신선희 유채원 홍정애 최성순 김선희

5여전도회 - 만 56세 ~ 49세 / (1970년생 ~ 1977년생) / 총 16명

손재열 최윤정 주은주 박은영 정희경B 김경애 김혜정 김미라 장은신
안현미 주동주 허은남 정금선 이명희 이성옥 최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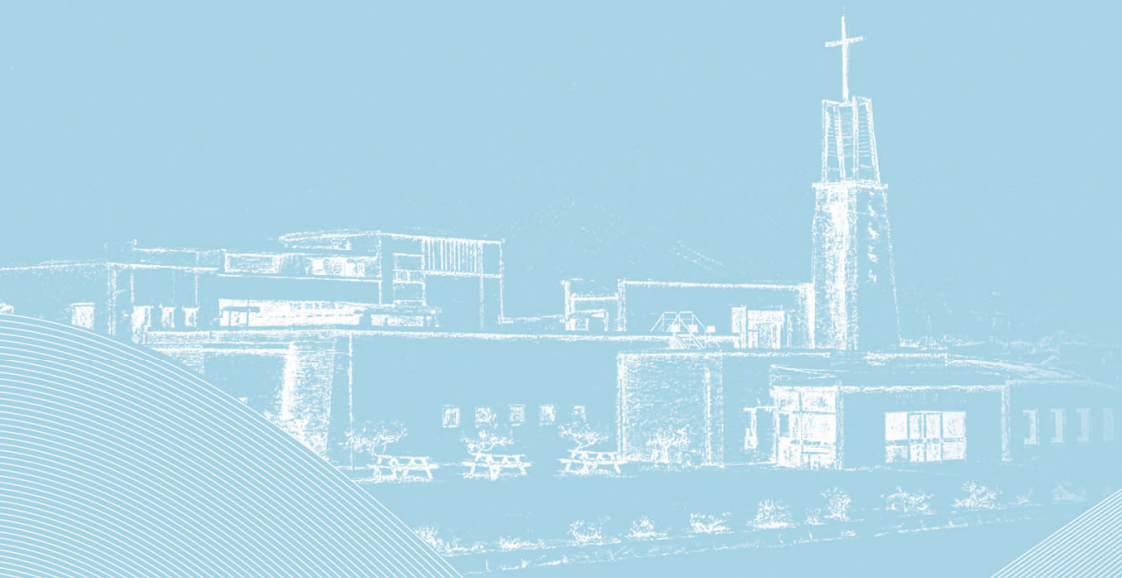
6여전도회 - 만 48세 이하 / (1978년생 이후) / 총 20명

김세진 심자영 최영옥 나은경 안영미 이선혜 김영례 박자경 김영아
기지영 정희숙 성은혜 정슬기 이은주 정희경A 이소연 임송이 현희정
박낮음 박가영

6. 역대 대외 섬김 활동

신북교회 향존 직분자 대외 섬김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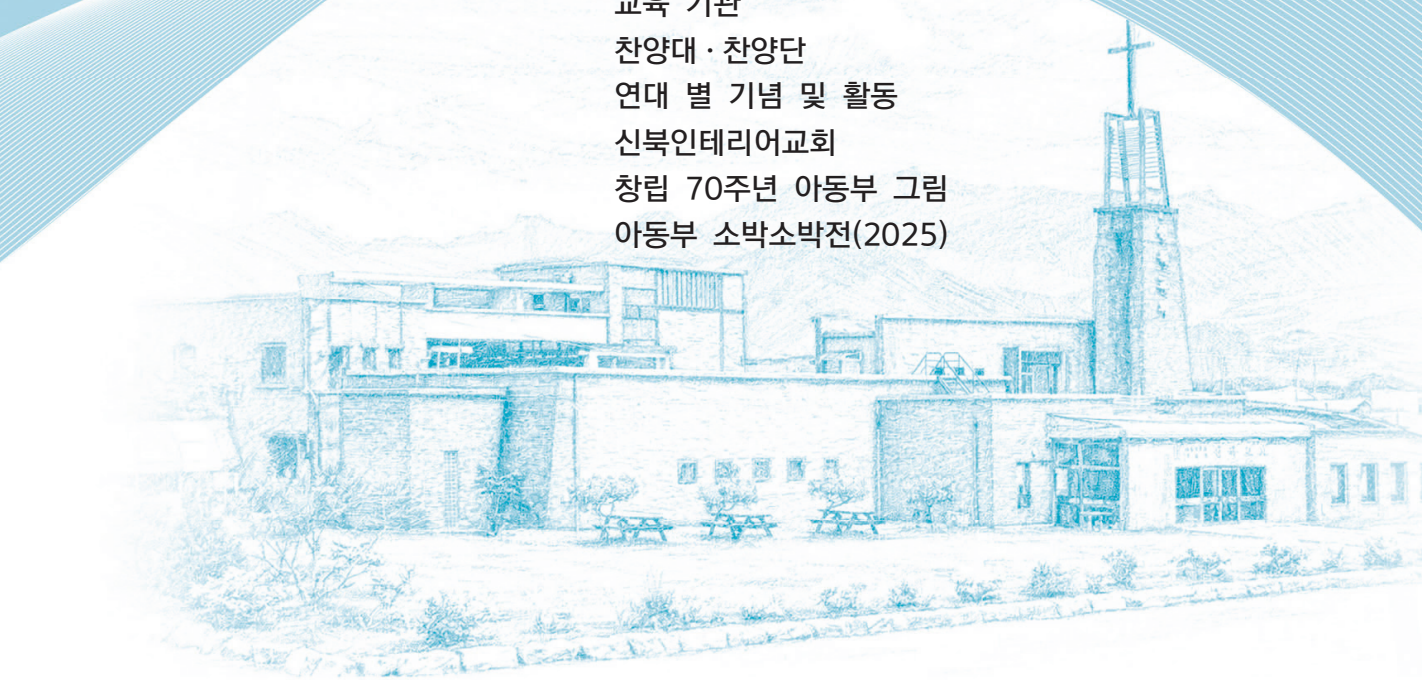
강 원 노 회				
회 기	직 책	성 명	해당연도	비 고
59~60	노회장	김은일	82~83	목사
75~76	부노회장	김익보	90~91	장로
85~86	노회장	김은일	95~96	목사
103~104	부노회장	백승욱	04~05	장로
139~140	부노회장	백춘길	22~23	장로
강원노회 장로회				
21대	회장	김익보	89~90	장로
31대	회장	백승욱	99~00	장로
49대	회장	박광장	17~18	장로
51대	회장	김종찬	19~20	장로
춘천시찰 남선교회 연합회				
1대	회장	김익보	1991	장로
6대	회장	민경천	1996	장로
9대	회장	박광장	1999	장로
12대	회장	백춘길	2002	장로
14대	회장	김규식	2004	안집
17대	회장	김종찬	2007	안집
20대	회장	최영철	2010	안집
27대	회장	기대승	2017	안집
34대	회장	김규식	2024	장로



Ⅳ

믿음의 얼굴들, 그 시간

설립자 및 전도자
역대 담임 교역자
역대 장로
역대 안수집사
역대 권사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구역
교육 기관
찬양대 · 찬양단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신북인테리어교회
창립 70주년 아동부 그림
아동부 소박소박전(2025)



설립자 및 전도자

설립자

차광훈 목사

전도자

이건신 권사

역대 담임 교역자

1대 교역자

장기택 전도사
1954.10.05.~1955.01.30.

2대 교역자

김승규 목사
1956.02.10.~1957.05.10.

3대 교역자

함익환 목사
1958.10.20~1959.11.30.

4대 교역자

원응호 전도사
1959.11.30.~1961.05.01.

5대 교역자

임연묵 전도사
1964.01.05.~1966.04.09.

6대 교역자

정삼조 전도사
1967.02.11.~1969.09.30.

7대 교역자

박우만 목사
1969.10.01.~1972.04.02.

8대 교역자

이종국 강도사
1972.04.28.~1973.05.29.

역대 담임 교역자

9대 교역자

김은일 목사
1973.06.01.~1997.11.08.

10대 교역자

김지한 목사
1998.01.11.~2002.09.22.

11대 교역자

조덕준 목사
2002.10.06.~2010.12.26.

12대 교역자

이석진 목사
2011.03.13.~2014.11.30.

13대 교역자

조현석 목사
2015.03.01.~2016.04.06.

14대 교역자

이창봉 목사
2016.07.31.~현 재

역대 장로

김익보
1971.05.08.~1997.11.08.

백승욱
1980.09.04.~2006.05.21.

민경천
1980.09.04.~2006.05.21.

박광장
1998.10.24.~2019.12.15.

역대 장로

백춘길
1998.10.24.~2024.12.29.

김봉우
2009.11.22.~현 재

김종찬
2009.11.22.~2024.12.29.

김규식
2009.11.22.~현 재

오인환
2009.11.22.~현 재

김종태
2023.11.05.~현 재

신종철
2023.11.05.~현 재

역대 안수집사

박광장

서승목

백춘길

최영철

역대 안수집사

김봉우

김규식

김종태

기대승

오인환

김종찬

김인하

김주열

민병철

박병현

신종우

박정규

박수인

마득운

윤명중

오진호

역대 안수집사

김만식

우승민

정우량

손호성

역대 권사

김갑순

길수희

윤계월

박민옥

이영자

허정대

오순옥

정춘식

이정순

안정순

이범자

정순덕

역대 권사

박근숙

지남숙

이미생

김후순

장재월

조시연

장은희

김경남

전영희

전미옥

이정숙

황선신

홍주희

최성순

최화순

홍정애

역대 권사

임동희

백승자

함남미

최수정

최원희

최윤정

정희경

안현미

박순영

박자경

유수정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위임목사 / 사모

이창봉

우미연

원로목사 사모

조현숙
(故 김은일 목사)

전임전도사 / 사모

김충현

박소영

교육전도사

양호원

원로장로

백승욱

민경천

박광장

백춘길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은퇴장로

유충열

김종찬

시무장로

김봉우

김규식

오인환

김종태

신종철

은퇴협동장로

신상근

경명현

황연근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은퇴안수집사

최영철

기대승

안수집사

김인하

김주열

신종우

박정규

박수인

윤명중

오진호

김만식

우승민

정우량

협동안수집사

손호성

윤흥묵

박필승

김영덕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은퇴권사

허 정 대

윤 계 월

박 민 옥

조 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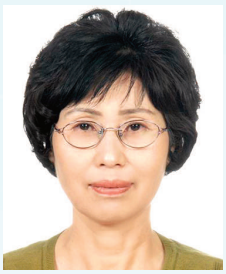
이 영 자

박 근 숙

김 후 순

지 남 숙

시무권사


정 순 덕

이 미 생

장 재 월

장 은 희

전 미 옥

이 정 숙

황 선 신

홍 주 희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최성순

최화순

홍정애

임동희

백승자

함남미

최원희

최윤정

정희경

안현미

박순영

박자경

협동권사

유수정

김혜정

전동숙

김정숙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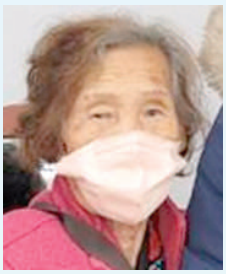
은퇴협동권사

정 경 자

차 경 순

이 성 희

이 연 자


오 귀 순

송 인 재

임 창 호

김 병 필

명예집사(남)

박 점 순

백 수 영

조 천 길

안 명 헌

박 민 찬

안 봉 준

장 춘 배

황 규 호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정기봉

최찬호

황용진

정태정

고정소

김종열

백원술

함정원

조경구

배경만

김진철

정 덕

명예집사(여)

권오길

조명수

권영순

황경완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신순철

임종숙

신순녀

한상옥

전점순

장옥란

이금순

이정옥

오윤자

박민숙

이양순

최부전

홍성원

정이춘

조영복

남상길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박 순 녀

이 순 례

홍 옥 희

오 계 화

김 영 자

박 현 숙

조 금 자

서 태 순

서리집사(남)

심 인 숙

강 승 읍

최 민 정

신 호 선

주 용 식

노 한 주

장 호 정

신 선 우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한동석

황인호

이정인

강우경

안성복

안현주

이무혁

백영선

홍재완

김영진

오민호

정현철

문은성

김영묵

홍복래

허길영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서리집사(여)

홍지운

박대훈

이연화

조숙화

홍현자

김경애

박정숙

김복순

라희자

김순복

이옥녀

김정숙

정금선

나은경

최영옥

정희숙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기지영

안영미

김화순

고춘옥

심자영

오한숙

이선혜

박남수

현희정

김세진

김순화

이성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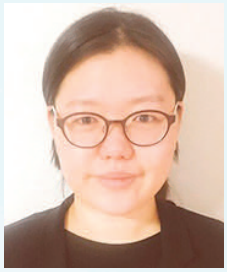
이소연

주동주

이영숙

주은주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정희경

이명희

김영아

김영례

황선영

박은영

조윤진

박수연

김선희

손재열

정슬기

박낮음

전입 은퇴 권사

장은신

신선희

임송이

윤을중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일반 성도

강 진 영

정 종 원

유 채 원

박 노 충

김 중 종

허 은 남

강 준 재

정 임 수

김 은 자

성 은 혜

황 예 석

김 미 라

송 제 근

박 만 웅

박 원 강

이 은 주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박 용 목

소 혜 정

한 승 일

박 가 영

유치(영유아)부

이 대 웅

안 준 서

오 나 현

오 아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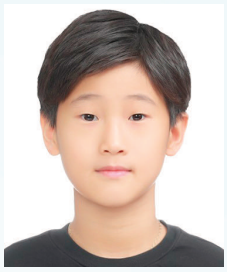
신 하 온

정 세 하

김 도 윤

한 나 린

아 동 부


이 기 윤

신 온 유

김 온 유

반 지 원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정율하

홍려준

우다현

신다은

최승우

김다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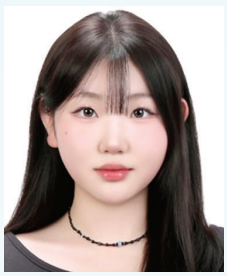
반서원

안다경

청소년부

안예성

정채원


이남경

주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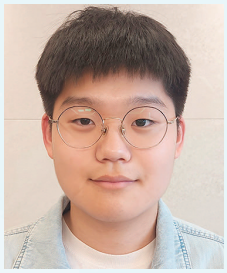
이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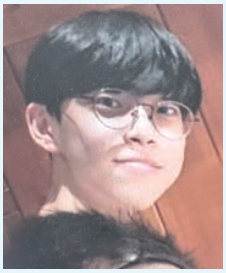
주영준

박주선

박범준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박 지 오


이 윤 혁

이 채 은

이 기 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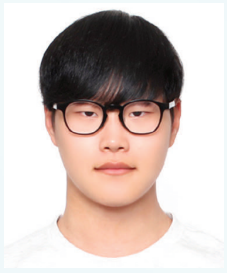
최 승 희

박 예 선

박 재 윤

우 재 현

청 년 부


강 지 민

강 지 훈

강 현 숙

강 현 이

김 은 섭

김 종 헌

진 휘 은

마 준 호

2025년 신북 가족 공동체

문현민

문현웅

박소명

박시하

배지원

안예은

윤미래

윤현준

전형철

홍 윤

황서연

황윤진

창립 70주년 기념 신북 공동체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선교회

아브라함회

1남선교회

2남선교회

3남선교회

4남선교회

5남선교회

여전도회

한나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여전도회

5여전도회

6여전도회

구 역

101구역

102구역

103구역

구 역

201구역

202구역

203구역

301구역

302구역

구 역

303구역

401구역

402구역

403구역

교육기관

유치부 · 영유아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찬양대 ·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대

예닮 찬양단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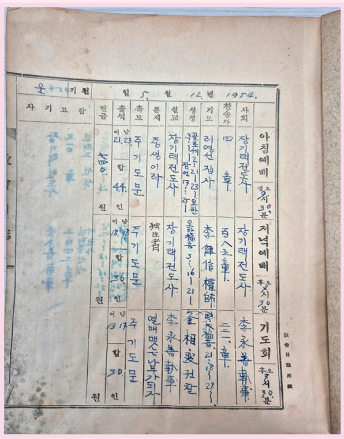
천막 교회(1953)

교회가는 길

크리스마스 기념(1954)

부흥회 기념(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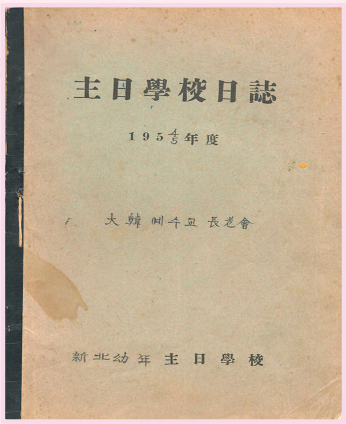
교회일지(1954~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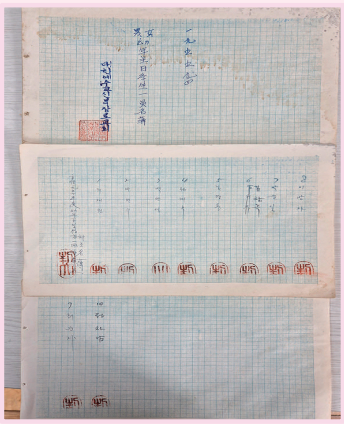
교회일지 내용(1954~1955)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50년대



교회학교 일지(1954~1955)



교회학교 1회 졸업생 명부

목조 교회 터 닦기

이건신 권사와 성도들

목조 교회 성도들

원응호 전도사와 성도들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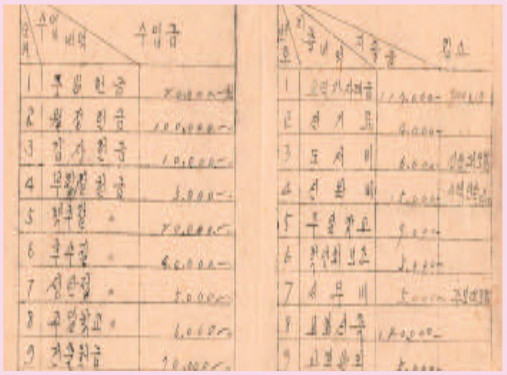
1960년대

목조 교회 수리

성탄절 기념

성탄절 특송

원응호 전도사와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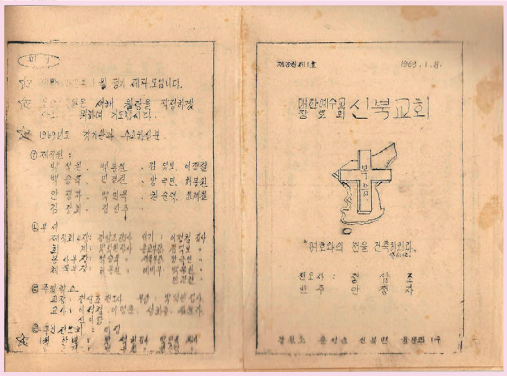


예산서(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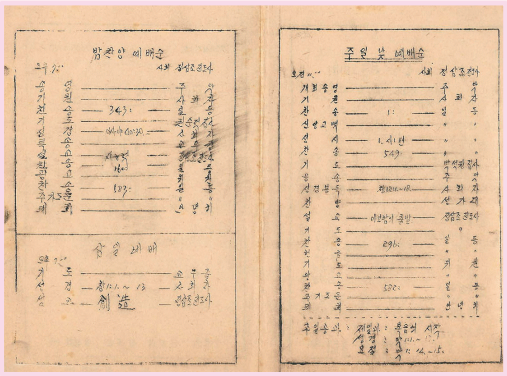
벽돌 교회 신축(1969)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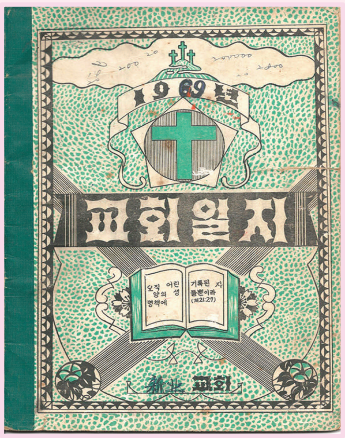
1960년대



주보 앞면(1969)



주보 뒷면(1969)



교회일지(1969)

학생회 청평사 소풍(1969)

학생회 수련회(1969)

학생회 – 백춘길, 김종찬 등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70년대

부활절 기념(1972)

박우만 목사님과 학생회

부흥회 기념(1974)

부흥회 기념(1974)

부흥회 기념(1975)

김은일 목사님과 제직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70년대

남선교회

남선교회 야외예배

여전도회

여전도회 야유회

청년회 야외예배

청년회 활동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70년대

청년·학생회 연합 활동

학생회 수련회

주일학교 야외예배

주일학교

청년회 활동

구역예배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80년대

예배일지(1980)

장로, 초대 권사 임직(1980)

장로, 초대 권사 임직(1980)

장로, 초대 권사 임직(1980)

장로, 초대 권사 임직(1980)

권사 취임(1986)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80년대

야외예배

부흥성회

어버이 주일

여전도회

남선교회

문화 탐방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80년대

1남선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교사 강습회(1986)

교사 평가회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 소풍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80년대

여름성경학교(1980)

여름성경학교 교사 위로회

겨울성경학교

학생회 문학의 밤(1983)

학생회

청년회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80년대

학생회 · 청년회

여름성경학교 종강 기념

성탄절 지도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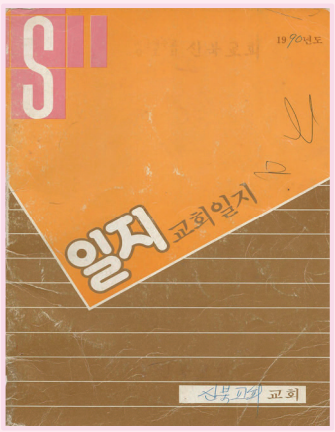
부흥회(1989)

부활절 성찬식(김은일 목사)

김은일 목사 회갑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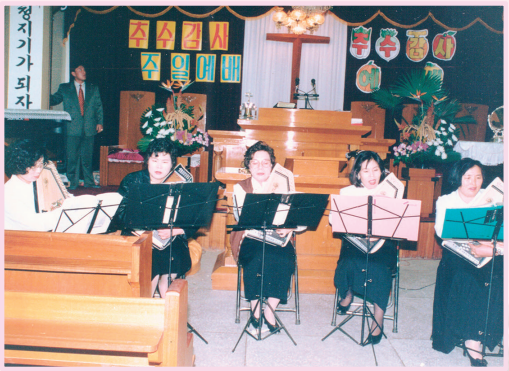


교회일지

창립 40주년 및 임직(1993)

당회원

어르신 야유회 - 정동진



추수감사절(1995)

성탄절(1995)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90년대

강원노회(1997)

김금찬 선교사 파송

부흥사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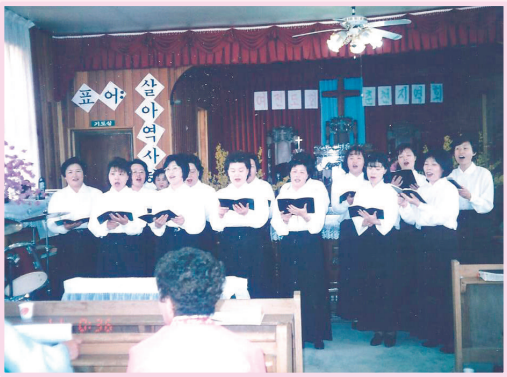
야외예배 성가대

장년 야유회

오봉산 등산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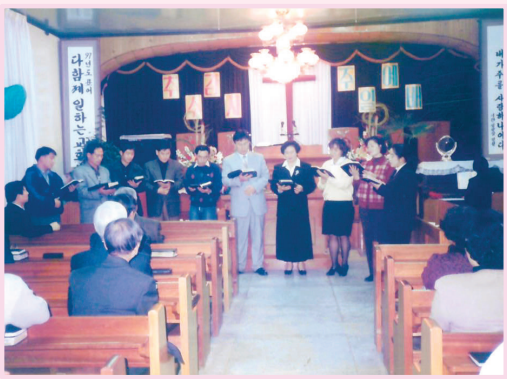


여전도회 지역회

여전도회 – 땅끝마을

할렐루야 성가대

성서대학 수료식



구역 특송

겨울성경학교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1990년대

여름성경학교

어린이 충렬탑 소풍

청소년 · 청년 야외활동

청소년 성탄 발표회

학생회 수련회

학생회 특송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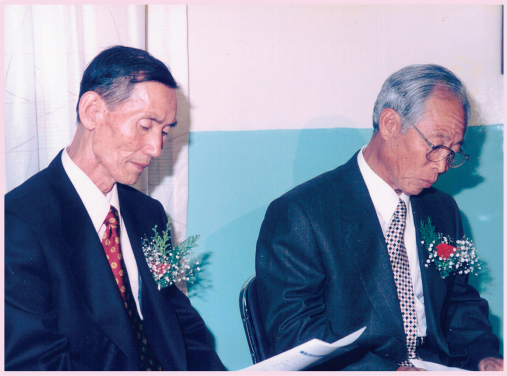
1990년대

학생회 등대의 밤

임보순 전도사님과 청년

기독학생 연합체육대회

김은일 목사, 김익보 장로 은퇴(1997)



김은일 목사, 김익보 장로 은퇴(1997)

임직식(1998)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00년대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예배(2003)

새 성전 기공예배(2003)

입당예배 및 임직식(2003)

성령부흥회(2005)

임직식(2006)

헌당예배 및 임직식(2009)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00년대

여전도회 주일

교육관 기공예배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세미나

전도학교 개강

조덕준 목사 소년원 사역

가수 윤형주 장로 초청 간증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00년대

할렐루야 찬양대

청년회 겨울수련회

주일학교 야유회

신년대부흥회

1남선교회 특송

신년부흥성회 여전도회 특송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00년대

교회학교 성탄절 기념

학생회 성탄절 특송

청년회 – 일본비전트립

예닮 찬양단

천전교회 – 신북교회 연합체육대회

천전교회 – 신북교회 연합체육대회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10년대

해피데이(2010)

김금찬 선교사 선교 보고(2011)

부활절 예배(2011)

야외예배(2011)

창립 58주년 감사예배(2011)

추수감사절 특송(2011)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10년대

창립 59주년 감사(2012)

예배 세미나(김운용 교수, 2012)

노인대학(2012)

여름성경학교(2013)

겨울성경학교(2013)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10년대

학생회 일본비전트립(2013)

성탄 예배(2015)

교회학교 수료 예배(2015)

성탄 축하 예배(2015)

중보기도학교(2016)

성찬 예식(2016)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10년대

주일학교 발표회(2016)

1남선교회 야유회(2017)

예배자 컨퍼런스(2017)

임직예식(2017)

전교인 체육대회(2017)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10년대

성탄 발표회(2018)

예배팀 워크숍(2018)

할렐루야 찬양대(2018)

추석 명절 사랑의 쌀 나누기(2018)

이창봉 목사 위임 예배(2018)

이창봉 목사 위임 예배(2018)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10년대

물댄동산 교육관 기공예배(2019)

물댄동산 교육관 준공감사(2019)

연합찬양제 참가(2019)

박광장 장로님 원로장로 추대(2019)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20년대

어린이 주일 – 코로나 시기 아이들을 축복하며(2021)

성령강림주일 온가족예배(2022)

본당 리모델링 전(2022)

본당 리모델링 후(2022)

연대기 성경 봉헌(2022)

교회 앞 잔디마당 조성(2022)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20년대

2022 추수감사예배 – 본당 리모델링 기간 식당에서

성탄예배 – 코로나를 극복하는 회복 시기(2022)

박광식 문화 선교사 초청 예배(2023)

노아모임(2023)

창립 70주년 기념 연합 체육대회(천전교회 · 신북교회, 2023)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20년대

신북교회 – 리빙투게더 교회 자매결연식(2023)

혹서기 신북장터 위로 방문(2023)

신북 지역 학생 장학금 지급(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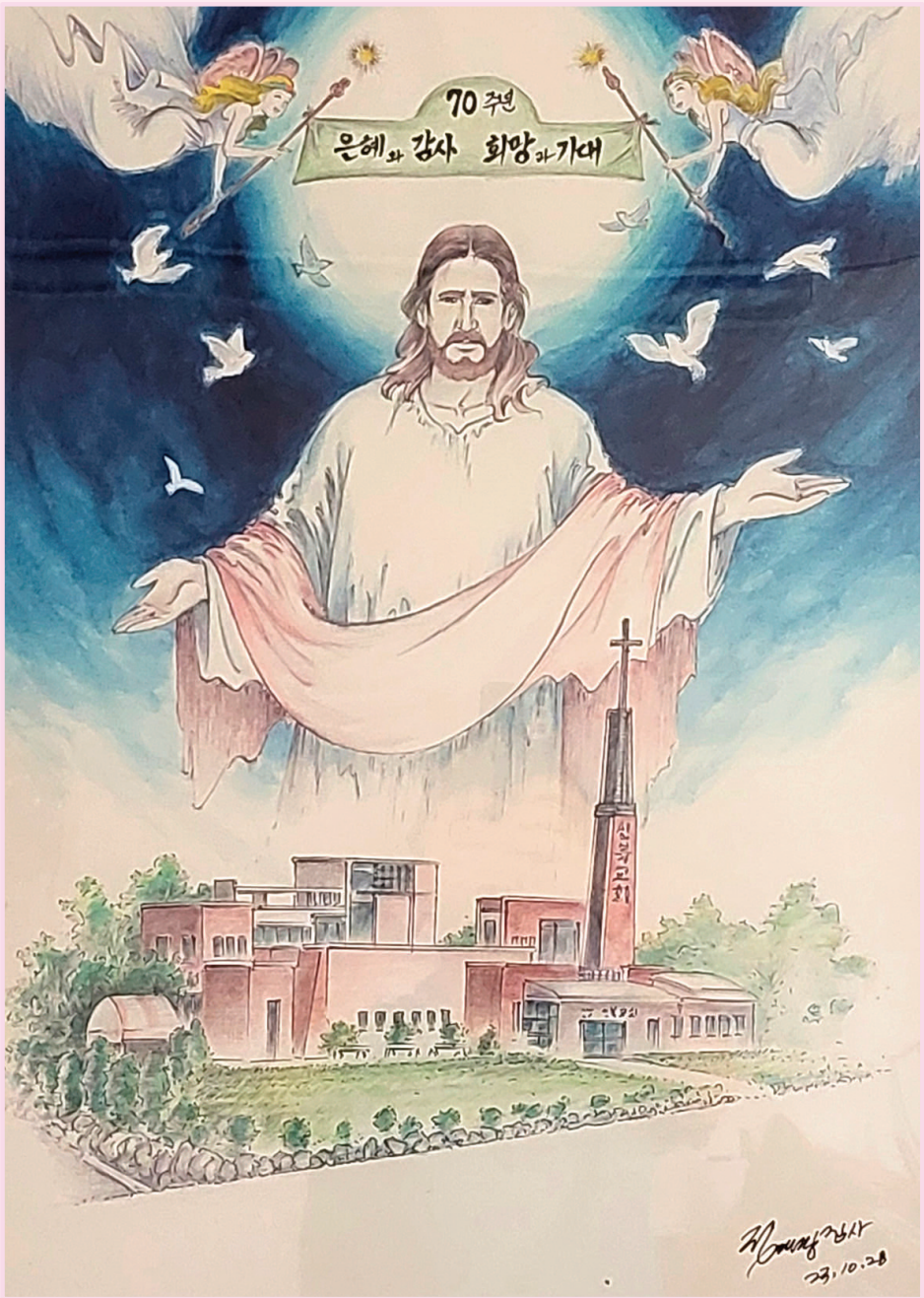
월드비전 찬양예배 – 시와 그림 초청(2023)

추석 명절 사랑의 쌀 나누기(2023)

창립 70주년 감사예배(2023)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20년대



창립 70주년 기념 성화 – 정태정 집사 헌정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20년대

강원노회 개최(2023)

임직감사예배(2023)

권사, 안수집사 은퇴식(2023)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20년대

온가족 체육대회(2024)

창립 71주년 월드비전 식수사업 후원(2024)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20년대

성금요일밤 성찬식(2024)

추수감사절 나눔의 동산(2024)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2024)

원로장로 추대식(2025)

신북읍 주민 초청 윷놀이 대회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20년대

어르신 야유회(2025)

미술부 전시회 – 소박소박 전(2025)

국내 선교여행(2025)

국내 선교여행(2025)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2025)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2020년대

신북 듬뿍 나눔 축제(2025)

창립 72주년 감사 이야기 예배(2025)

전교인 어울림 한마당(2025)

여전도회 가을 나들이(2025)

성탄감사예배 찬양대 – 칸타타(2025)

연대 별 기념 및 활동

새 성전 건축

기공식

공사 중(1)

공사 중(2)

공사 중 차광훈 목사 방문

성전 완공 후 전경

조경 공사 후 전경

신북인테리어교회

기공예배(2023)

건축공사 중

마무리 작업(측면)

완공 후 증축 공사 중

완공 후 모습(정면)

제이 알 목사 가족

신북인테리어교회

준공 테이프 커팅(2023)

준공 감사예배(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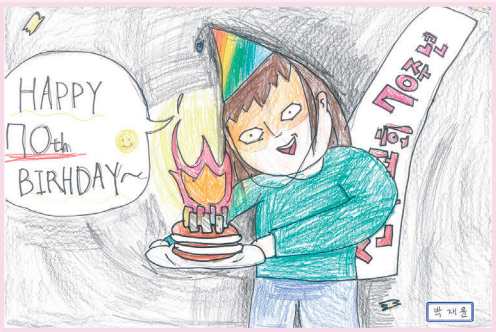
개척 2주년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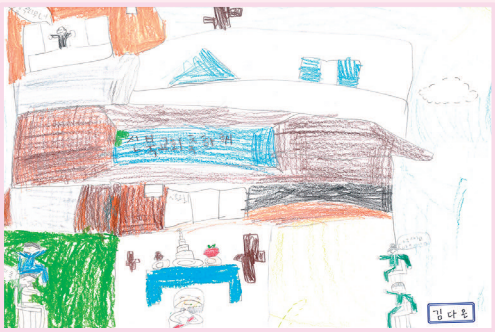
개척 2주년 감사예배

단기 선교팀 방문(2026. 1)

증축 후 전경

창립 70주년 기념 아동부 그림





아동부 소박소박전 (2025)

정율하 - JUGGLING

최승희 - 기다림

안다경 - 세 가지 마음

이기윤 - 종이비행기

아동부 소박소박전 (2025)

최승우 - Dreams come true

우재현 - 우리 엄마

김다온 - 하늘의 기다림

김온유 - 휴식

아동부 소박소박전 (2025)

신다은 - 우정

박재윤 - 은혜

우다현 - 친구

이기찬 - 꿈의 대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72년사

신북교회 72년(1953~2025) 역사와 이야기

인쇄일 2026년 5월 10일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발행인·집필 이 창 봉
편 찬 신북교회 72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백춘길
위 원 김종찬, 김봉우, 김규식, 오인환, 김종태, 신종철, 전미옥, 이정숙, 박수인, 손호성, 최영옥, 정슬기, 배지원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북교회
강원 춘천시 신북읍 문정길 9
TEL 033-242-8854 / http://www.shinbuk.kr
신북교회

〈비매품〉